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 한국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과 변동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國史學科

李 婀 俐

# 한국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과 변동

지도교수　許　洙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國史學科
李　婀　俐

李婀俐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 한국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과 변동

이 논문은 가사서비스노동의 역사적 변동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 전환기 가사노동에 일어난 변화와 더불어 일제 식민지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의 사회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가사노동은 주로 주부의 무급 노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가사서비스노동이 더 두드러진 시기가 있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많은 사회에서 산업화 초기에 가사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여성 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임금을 받는 하녀들이었다.

한국에서도 일제 식민지기에 가사서비스노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곧 이 시기에 '식모', '어멈', '안잠자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많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자로 생계를 이었다. 이러한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은 형성, 팽창, 비공식화되는 역사적 변화를 거쳐 왔는데 그것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략 20세기 초부터 192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는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이 일단락되는 시기였다.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본격화되었는데, 이것은 1920년대 들어서 재조일본인 사회가 가족 단위의 영구 정착을 꾀하는 것으로 이주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1920년대 초반까지 조선인 가정에는 행랑살이가 많았으나,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주인들은 행랑살이를 내보내고 월세를 받으려 하는 한편, 일본인 가정에 빼앗기지 않도록 가사노동자에게 급료를 더 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가사서비스노동이 도시 지역에서 하층민 여성들의 생계책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를 아우르는 시기는 가사서비스

노동이 지속적인 팽창을 보인 시기였다. 당시 농촌 분해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이탈 인구는 더욱 늘고 있었던 반면에 이들을 흡수할만한 공업의 발달은 지체되었던 조건 속에서 가사노동자가 될 여성 노동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가난한 농가의 미성년 여성들 사이에 남의집살이가 확산되었던 정황은 어린 미혼 여성들이 가사노동자의 다수를 이루게 된 사정을 설명해준다. 당시 하층민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생계책이자 구제책이 가사서비스노동일 수 있었다.

끝으로, 1930년대 말부터 일본 패전까지의 전시체제기는 가사서비스노동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시도들에 의해 그것이 비공식화되는 시기였다. 일제 당국은 전시 노동력 동원에 주력하면서 가사서비스노동은 전시에 '불요불급'한 노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1940년대 '관 알선' 방식의 전시노동력 동원 기관이 된 직업소개소가 식모 알선을 폐지하고, 경성부에는 용인세가 신설되었으며, 여성에 대해서도 노동력 직접 동원이 행해지는 등 각종 억제 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였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여성 생계책은 여전히 마땅치 않았다. 다만 전시체제의 상황적 조건 아래서 일시적으로 억압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한국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의 양상은 두 가지 지점에서 한국사적 특수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사서비스노동은 어떻게 일제시기 내내 팽창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이는 결국 사회의 근대적 재편 과정에서 기층 민중들의 생업 마련 및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전근대사회의 신분제가 해체된 후 기층민들의 생업은 경제적 원리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했으나, 일제시기 전체를 통틀어 산업화의 기반은 전시체제 말기의 노동력 동원이 강제되는 일시적인 시국을 제외하면 농촌 이탈 인구를 온전히 흡수할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섬유 공업이 발달하면서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급감하였던 일본이나 농업 소득이 유지되며 농촌 이탈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던 대만의 경우와도 비교가 된다. 특히,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용이치 않았던 여성들의 경우 더욱 생계책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사노동자가 되는 것은 일면 하층민 여성의 입장에서 생계자구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즉 이 시기 가사서비스노동은 일제하 미진한 산업화로 인한 비농업직 생업의 부족과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며 비대해진 접객업 사이에서 하층민 여성들의 현실적인 생계자구책 역할을 하며 끝까지 큰 규모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왜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식모폐지론' 등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담론이 등장하였는가?

근대 한국에서 가사노동을 둘러싼 현실과 담론 사이의 괴리가 다른 사회보다 컸던 것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더욱 철저하게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논의는 식민지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논의의 장에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사용인 고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민족 감정이나 신여성들에 대한 반감과 비판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가사서비스노동 담론은 현실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현실과 호응하지 않는 '식모폐지론'이 주를 이루었다. 논의의 장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일부 여성들도 합리적인 근대 주부를 자임하며 주부의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내면화하였을 뿐 주체적인 공론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곧 남성 지식인 중심의 담론장에서 대항 담론을 만들어내거나, 점차 자의식이 성장하고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엘리트 여성들은 전시체제기가 되면 국가주의적 동원 논리에 적극 동조하는 방식으로 공적 담론장에서 활약하고자 하였다.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성별화된 노동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해가며 가사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당대 하층민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사노동과 가사서비스노동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결과가 다시금 돌봄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중요해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가사노동, 가사서비스노동, 가사사용인, 식모, 오모니, 하녀
학　번 : 2013-30857

# 목 차


**서 론 ····· 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 1

2. 선행연구 검토 ····· 8

3. 연구대상과 서술방향 ····· 16

4. 구성과 활용자료 ····· 21

**제Ⅰ장 20세기 초~1920년대 중반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 ····· 24**

제1절 가내 하인 노동의 변화와 식민 초기 일본인들의 도항 24

1. 가내 노동의 성별화와 남성 가내 노동의 감소 ····· 24

2. 도시화의 진전과 행랑살이의 확산 ····· 33

3. 병합 전후 일본인 하녀들의 도항과 '외지(外地)'에서의 특징 ·· 41

제2절 행랑폐지론과 가사노동자 대우 문제 제기 ····· 52

1. 1910년대~1920년대 초반 행랑폐지론 ····· 52

2. 1920년대 중반 언론의 '어멈' 대우 문제 제기 ····· 59

제3절 재조일본인들의 정착과 가사노동의 임노동화 촉진 ····· 65

1. 재조일본인사회의 성격 변화와 공영 직업소개사업의 개시 ····· 65

2.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 확대와 행랑살이의 쇠퇴74

3.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일본인 가정 선호 ····· 80

소결 ····· 88

**제Ⅱ장 1920년대 후반~1930년대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과 가사노동자 담론과의 괴리 ····· 91**

제1절 가사노동자의 증가와 노동력 공급의 구조 ····· 91

1. 조선 내 가사노동자의 수와 통계적 특징 ····· 91

2. 농촌 이출 여성노동력의 공급 구조 ····· 102

3. 미성년 여성들의 '남의집살이' 확산 ····· 117

제2절 '식모폐지론'의 형성 및 담론과 현실의 괴리 ····· 133

1.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서구와 일본의 가사노동담론 ····· 133

2. 조선의 가사노동자 담론의 특징 ····· 138

제3절 가사노동시장의 팽창과 도시 생활양식의 결합 ····· 154

1. 조선 내 가사노동시장의 팽창 ····· 154

2. 도시 신가정 모델 대두 ····· 162

3. 도시 하층 여성들의 생계책 찾기 ····· 175

소결 ····· 188

**제Ⅲ장 전시체제하 여성노동력 재편과 가사서비스노동의 비공식화 ····· 191**

제1절 총동원체제하 정책 변화와 가사서비스노동 억제 ····· 191

1. 전시 여성노동력 동원과 가사노동자 억제 정책 ····· 191

2. 가사서비스노동 수급의 비공식화 ····· 197

제2절 전시의 주부 담론과 '식모폐지론'의 강화 ····· 204
1. 언론 통제와 전시 총동원 논리 일원화 ····· 204
2. 전시 '식모폐지론'의 특징 ····· 208
제3절 가사서비스노동의 사회적 기능과 수요의 지속 ····· 215
소결 ····· 226
**결 론 ····· 228**

# 표 목 차

[표 1-1] 1897년 개항지 인천과 일본의 일본인 임금 비교 ····· 46

[표 1-2] 1910년~1943년 재조일본인의 1호당 인구수 ····· 66

[표 1-3] 1910년~1942년 조선인 하녀와 일본인 하녀의 임금이 파악되는 도시의 수 ····· 75

[표 2-1] 1930년 『조선국세조사』 직업 중분류 순위 ····· 95

[표 2-2] 1930년 『조선국세조사』 직업 소분류 순위 ····· 95

[표 2-3] 1930년 『조선국세조사』 직업 소분류에 따른 가사사용인 수96

[표 2-4] 1930년 『조선국세조사』 성별/민족별 분류에 따른 가사사용인의 수 ····· 96

[표 2-5] 1930년 『조선국세조사』 의 혼인관계별 가사사용인 수 ····· 98

[표 2-6] 1930년 『조선국세조사』 의 혼인관계별 전체 인구 수 ····· 98

[표 2-7] 1930년 『조선국세조사』 의 혼인관계별 유업자의 수 ····· 98

[표 2-8] 1930년 『조선국세조사』 의 성별 연령별 가사사용인 수 … 100

[표 2-9] 1930년 『조선국세조사』 의 부/군 지역별 가사사용인/전체 유업자/총인구의 수 ····· 100

[표 2-10] 국세조사 통계로 본 조선, 일본, 대만의 가사사용인 수 (1905~1940년) ····· 107

[표 2-11] 1930년 조선과 일본의 직업 중분류별 여성 직업 순위 … 112

[표 2-12] 1930년 『조선국세조사』 의 방직공업 중 기직공과

직물업주의 세분류 ····· 112

[표 2-13] 1930년 조선과 일본의 직업소분류별 여성 직업 순위 ····· 113

[표 2-14] 1920~1940년 조선의 여성 공장종업자의 수 ····· 115

[표 2-15]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에 등장하는 미성년 여성의
'남의집살이' 사례 ····· 125

[표 2-16] 공설 직업소개소 戶內使用人 소개 실적 ····· 157

[표 2-17] 1936년 신여성 8인 가정의 생활비와 가사사용인 ····· 165

[표 2-18] 1937년 신여성 4인 가정의 생활비와 가사사용인 ····· 165

[표 2-19] 2인 이상의 가사사용인을 둔 신여성 가정 ····· 167

[표 2-20] 1인의 가사사용인을 둔 신여성 가정 ····· 168

[표 2-21] 가사사용인을 두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신여성 가정 ····· 169

[표 2-22] 1930년 혼인관계별 유업자 중 가사사용인 비율 ····· 176

[표 2-23] 경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혼인관계별 인구 ····· 180

[표 2-24] 경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 180

[표 2-25] 대구 가사사용인의 성별 혼인관계별 인구 ····· 180

[표 3-1] 1940년 경성직업소개소 '호내사용인' 월별 소개 실적 ····· 218

# 그 림 목 차

[그림 1-1] 1910년~1944년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성비 비교 ····· 66

[그림 2-1] 1930년『조선국세조사』의 성별 연령별 가사사용인 수 101

[그림 2-2] 1920~1940년 가사사용인과 공장 종업자의 수 비교 ····· 116

[그림 2-3] 만 9세 여아의 고용계약서 ····· 124

[그림 2-4] 진고개의 '오모니'를 묘사한 만평 ····· 148

[그림 2-5] 공설 직업소개소의 업종별 취직자 수 ····· 156

[그림 2-6] 공설 직업소개소 戶內使用人 소개 실적 ····· 156

[그림 2-7] 1910년~1942년 하녀의 임금 추이 (경성) ····· 159

[그림 2-8] 1910년~1942년 하녀의 임금 추이 (전국) ····· 159

[그림 2-9] 식모실이 있는 문화주택 설계도 ····· 174

[그림 2-10] 경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 180

[그림 2-11] 대구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 180

[그림 2-12] 부산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 181

[그림 2-13] 평양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 181

[그림 2-14] 개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 181

[그림 3-1] 공설 직업소개소 戶內使用人 소개 실적 (1927~1942) 200

[그림 3-2] 공설 직업소개소 여성 소개 실적 (1927~1942) ····· 200

[그림 3-3] 공설 직업소개소 여성 소개 실적 (1927~1942) ····· 201

[그림 3-4] 공설 직업소개소 남성 소개 실적 (1927~1942) ····· 201

#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 페이지 | 정정 전 |
|---|---|
| ① p. 45 : 1 | ① 中女中 |
| ② p. 46 : [표1-1] | ② [大工] / [左官] |
| ③ p.100 : [표 2-8] | ③ ([표 2-8]이 [표2-9]에 가려짐) |
| ④ p.156 : [그림 2-5] | ④ 화질 불량으로 그래프 일부 손실 |

**정정 후**

① 나카조추(中女中)

② 목수[大工] / 미장이[左官]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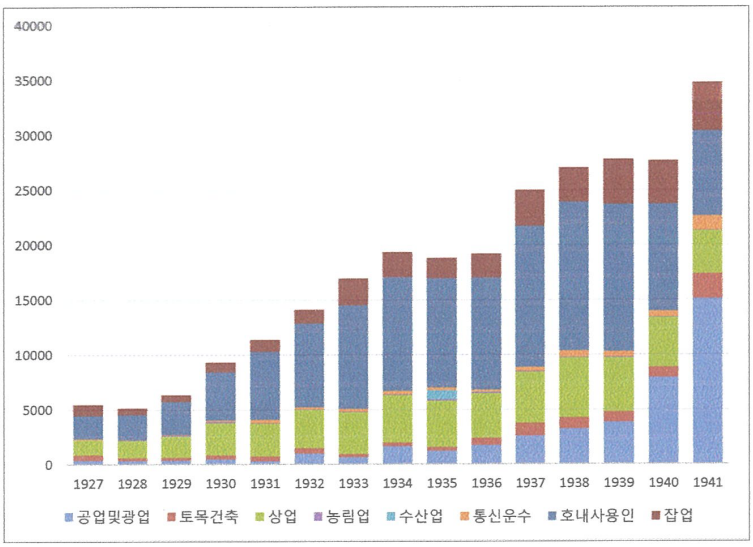
**[표 2-8] 1930년 『조선국세조사』의 성별 연령별 가사사용인 수**

(단위: 명)

| 연령 | 남성 | 여성 | 합 |
|---|---|---|---|
| 0~11세 | 6,100 | 24,169 | 30,269 |
| 12~14세 | 7,687 | 23,866 | 31,553 |
| 15~19세 | 7,622 | 14,641 | 22,263 |
| 20~24세 | 2,348 | 5,651 | 7,999 |
| 25~29세 | 956 | 3,643 | 4,599 |
| 30~34세 | 855 | 3,165 | 4,020 |
| 35~39세 | 686 | 3,095 | 3,781 |
| 40~44세 | 610 | 2,924 | 3,534 |
| 45~49세 | 528 | 2,719 | 3,247 |
| 50~54세 | 442 | 2,512 | 2,954 |
| 55~59세 | 374 | 2,106 | 2,480 |
| 60~64세 | 352 | 1,595 | 1,947 |
| 65~69세 | 220 | 1,022 | 1,242 |
| 70이상 | 186 | 803 | 989 |
| 합계 | 28,966 | 91,911 | 120,877 |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④




**[그림 2-5] 공설 직업소개소의 업종별 취직자 수**

# 서 론

##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이 논문은 가사서비스노동의 역사적 변동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 전환기 가사노동에 일어난 변화와 더불어 일제 식민지기의 사회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을 포함하는 가사노동은 인간의 일상을 유지하고 재생산하여 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노동이기에, 일반적으로 재생산노동이라고도 부른다. 가사노동이 주로 주부의 무급(無給) 노동으로 수행되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 대두된 지는 반세기가 넘었다. 즉, 가사노동을 주부의 일로 여기는 사회 인식 때문에 가사노동은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누군가는 담당해야 할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임금노동이 아니기에 그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1] 반면 가사노동 중에서도 임금노동에 해당하는 가사서비스노동의 경우는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크게 불거진 일련의 논쟁들은 가사서비스노동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중 하나는 가사근로자법의 뒤늦은 시행이다.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공포되고, 그 1년 후인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사노동자들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부터 ‘가사사용인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70여 년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비롯해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들도 이제야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매개로 하여 노동관계법을 적

1) 가사노동 및 재생산노동이라는 개념과 이것을 둘러싼 논의는 서론의 3항에서 더 이야기한다.

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한편, 이러한 입법에 뒤따른 방안으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2023년 3월 국회에서 발의되며,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인종차별 논란을 부르고 있다.[2)]

이처럼 가사노동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문제이며, 그 논의의 중심에 가사서비스노동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가사노동자들의 상황은 가사노동이 단지 무급의 노동이기에 도외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가사노동은 그것이 비록 임금을 받는 서비스노동일지라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을 온전히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실 산업사회의 가사노동은 주부의 무급 노동으로 정착되지 않고 가사서비스노동을 통해 사회화될 수도 있었으며, 한때는 그것이 가능성 높은 대안으로 보이기도 했다.[3)] 많은 사회에서 전통적인 하인층이 근대 전환기에 임금노동자가 되어가는 변화를 겪었고, 특히 산업화 초기의 임금노동 안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은 비중이 매우 컸다.[4)] 극히 제한된 영역의 임금 노동 기회만이 여성들에게 열려있던 상황에서 임금을 받는 하녀들이 여성직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의 경우 19세기부터 여성 임금노동자 중 하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1901년 영국에서는 200만 명의 여성이 하녀로 고용되어

---

2)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돌봄노동과 저출산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2023.03.21.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법안 논란..."노예 노동하란 거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2370?sid=102 (마지막 검색일: 2023.06.27.)

3) 루스 코완(Ruth Cowan)과 같은 학자들은 왜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였는가를 질문하는 관점에서, 무급 가사노동을 주부에게 전가하는 것 이외에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려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검토되고 시도되었으나 끝내 실패하였던 사정들을 고찰한 바 있다. 코완은 가사노동에 대한 대안들로서 요리와 세탁 등의 상업화(상품화) 시도, 종교 집단이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협동조합체 가사 운영, 가사서비스노동 등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시도들 중 가장 보수적이면서 보편적이었던 것은 역시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불하는 가사서비스노동이었던 것이다. 루스 코완, 『과학기술과 가사노동』,학지사, 1997

4) 셀리나 토드(Selina Todd)와 같은 학자는 영국 노동계급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 시작을 1910-1939년 가내 하인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였다. 셀리나 토드, 서영표 옮김, 『민중-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클, 2016

취업 여성 중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31년에는 그 비중이 31%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여성 단일 직업으로서는 가장 큰 것이었다. 영국보다 산업화가 늦어서 농업 종사자가 많았던 프랑스에서도 1906년에 입주 하녀의 수는 68만 8,000명, 파출부의 수는 9만 6,00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5] 미국 또한 1870년 인구센서스에서 이미 여성 임금노동자 200만 명 중 절반인 100만명 가량이 가내 하녀라고 조사되었고,[6]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는 하지만 1940년까지는 모든 인구센서스에서 여성 노동자 중 가장 큰 그룹으로 남아있었다.[7] 또한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가내 하녀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나서 여성 직업 중 가장 종사자가 많은 것이 되었다. 일본에서 가내 하녀는 1900년대 초~1910년대의 시기 동안 70~80만명의 수를 유지하며 여공(女工)의 수를 웃돌았고, 그 수가 정점을 찍었던 1936년에는 93만 명을 넘었다.[8]

이처럼 가사노동은 주부의 무급 노동임이 당연시되기 이전에 임금노동으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졌다.[9] 그러나 결국 이러한 역사는 망각되고 가사서비스노동을 통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능성은 사장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 곧 가사서비스노동이 부상하여 확산된 시기와 가사노동이 무급 주부 노동으로 정착된 시기 사이의 연결이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회의 가사노동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의 가사서비스노동의 역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가사서비스노동은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한 이래 한 번도

---

5) 루이스 A.틸리, 조안 W.스콧, 김영· 박기남· 장경선 옮김,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 2008. 221-223쪽.

6) 루스 코완, 앞의 책, 138쪽.

7) Susan Strasser, *Never done : a history of American housework,* Henry Holt, 2000, 167쪽.

8) 雪朱里,「女中が身近だった時代」『女中がいた昭和』, 河出書房新社, 2012. 24~27쪽.

9) 가사서비스노동의 중요성을 간과해 온 시각에서는 이것을 특수한 시기에 나타난 예외적 현상이자 과도기의 양상이라고 보지만, 실제 가사서비스노동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커녕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끝끝내 존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글로벌화와 함께 노동력의 이동이 국가간 경계를 빈번하게 넘나들게 되면서 해외 노동이주를 이끄는 대표적인 직종이 되고 있다.

사라진 적이 없으며 다만 단계적인 변화를 겪었다. 곧, 집주인과 가사노동자의 관계는 전통사회 노비의 노동에서 시작하여 주거를 함께하되 임금을 받는 고용 관계로, 더욱 예속이 약화되어 '파출부'와 같은 시간제 임금노동으로 전환이 되는 변천을 보였다.

일제시기는 가사서비스노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사회의 주목을 받은 시기였다. 즉, 이 시기에 '식모', '어멈', '안잠자기(안잠재기)', '드난살이', '오모니', '오마니', '가사사용인', '호내사용인', '하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던 많은 여성들이 타인을 위한 가사노동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시대적 배경의 하나로서 일상의 기록에서, 혹은 공식적인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대 인구센서스인 『조선국세조사(朝鮮國勢調査)』에 따르면 1930년에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으로 분류된 가사노동자의 수는 총 120,877명으로, 비농업직 중에서는 단일 직업으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경성부에서 12,307명인 가사사용인은 경성 전체 유업자(有業者) 수 136,728명에 대해 9%를 차지하는 것이었으며,[10] 경성의 조선인 노동촌에는 지게꾼이나 일용 노동자들과 더불어 가사노동자들이 주로 살고 있다고 묘사되었다.[11] 조선인 여성 가사노동자들은 식민지의 조건 위에서 조선인 가정뿐만 아니라 일본인 가정에서도 일하였는데, 이런 모습이 1920년대 중반부터 언론에 포착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이들의 활발한 취업이 하나의 사회상으로 묘사되었다. 곧, 매일신보와 조선일보 등 당시 언론에서는 "고학력의 지식군들이 직업소개소로 몰려들어도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어멈들이 취직자 수의 구 할을 점령하였다"[12]거나 "조선 사람의 사회에서는 부득이 사내는 놀고 여자는 벌이를 하여 한 집안이 살아가는 현상을 이룬 터"[13]라고 이 현상을 소개하며, "어멈 전성기"[14]라고까지 불렀다.

---

10) 朝鮮總督府,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1권 경기도, 1932.
11) 『별건곤』 제23호. 1929.9.27. 「대경성의 특수촌」
12) 『조선일보』 1931. 03. 19. (석간) 「(보교이상 졸업자 육천 취업전선에서 낙오)一月以降에도 智識群 殺到, 어멈 외에는 전부 지식군, 一,二兩月間의 調査」
13) 『조선일보』 1929. 05. 10. (석간) 「男子보다도 女子求職多數, 서울안의 현상, 어멈의 需要로」

그런데 일제 식민지기의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규명해야 할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팽창'이다. 일제하 가사서비스노동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될 만큼 이례적으로 팽창하였을 뿐 아니라, 식민지기내내 그 팽창을 지속하였다.

서구나 일본에서도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이 나타났지만 그 시기나 정도,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각 사회가 가진 조건마다 달랐다. 가령 1900년~1920년의 시기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가사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는 시기였다.[15] 특히 미국에서 크게 감소하였는데, 1870년 여성 노동자의 절반이 가사서비스노동에 고용되어 있던 미국은 19세기 말에 이미 그 비중이 1/3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1920년 시점에서는 1/6로 감소해 있었다.[16] 반면 영국은 같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1921년까지 전체 여성노동자의 1/4을 가사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국가 보험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실업을 줄이고자 하였고, 직업을 찾는 여성들을 취업이 쉬운 가사서비스노동으로 적극 유도하였기 때문이었다. 직업소개소는 구직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자 일을 소개하였고 여성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17] 그런가 하면 러시아혁명 이후의 소련과 같이 큰 체제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가사노동자 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여성 노동정책의 측면에서도 매우 급진적이었던[18] 소비에트연방은 노동이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사회였고 중간 계급 이상의 여성들도 임금노동을 위해 나서야 했으며 기존의 하인들을 더이상 집안에 두고 있을 수 없었다. 따라서 1897년 러시아 여성 노동자의 55%를 차지했던 하녀 및 가정부의 비중이 1921년이 되면 5%로 급감하였다.[19]

---

14) 『매일신보』 1929. 03. 25. 「어멈 全盛期 직업소개소 이월성적」

15) 셀라 레웬학, 김은숙 옮김, 『여성노동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266쪽.

16) Susan Strasser, 앞의 책, 167쪽.

17) 셀라 레웬학, 앞의 책, 266쪽.

18) 소련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최초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노동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다.

19) 셀라 레웬학, 앞의 책, 261쪽. 반면, 산업 및 건축 노동자의 비중은 13%에서 30%

근대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조선과 더욱 가깝게 비교할 만한 사례가 된다.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에서 1930~1940년의 시기동안 가사사용인의 수가 120,877명에서 172,813명으로 크게 증가했던 반면에,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781,319명에서 668,547명으로 그 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주목할 것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대만의 경우인데, 대만은 20세기 전반에 가사노동자의 수가 줄곧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팽창한 정황조차 보이지 않았다. 즉 대만에서는 1905년, 1915년, 1920년, 1930년의 호구조사 및 국세조사에서 보이는 가사사용인의 수가 25년간 겨우 7,300여명~9,800여명선을 유지하며, 전체 인구가 3,655,239명에서 4,592,537명으로 25%가량 증가하는 와중에도 가사사용인의 수는 늘지 않았다.[20]

결국 일제 식민지배하 조선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과 지속은 결코 당연하지 않았으며,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가능한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사서비스노동이 지속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역사적 조건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현실과 담론 사이의 간극'이다. 일제하 조선에서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담론은 일면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된 듯 보였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식모폐지론'이 다른 사회들과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어조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식모와 같은 가사노동자를 두지 말고 주부의 손으로 직접 살림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가사노동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서구에서는 가사노동이나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이 현실과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았음이 뚜렷하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이래 가정의 가치와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가정과학운동 및 가사합리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생활표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가사노동자의

---

로 증가했다.

20) 대만총독부, 『臺灣臨時戶口調査』 1905년판, 1915년판 ; 同, 『臺灣國勢調査』 1920년, 1930년판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자 1920년대 이후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담론이 가전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들은 감소하고 있는 가내 하인을 대신하여 '전기하인'을 쓸 수 있다고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전기설비와 가전제품 보급률이 상당히 높았던 미국에서는 1930년대가 되면 미디어에서 가사노동의 주체를 하인이 아닌 주부로 재현하였으며, 주부의 손으로 직접 하는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담론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본의 하녀인 조추(女中)를 두지 않고 "몸소 가사를 행하는 주부"의 모습을 장려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당시 "조추난(女中難)"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사노동자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이었다. 비록 미국의 경우만큼 보편적으로 가전 설비를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조추(女中) 없이 주부가 직접 가사노동을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전후 생활난 타개책이 될 수 있다고 가사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주창하기 시작했다.[21]

그러나 조선에서는 가사노동의 합리화 및 과학주의를 역설하는 담론과 근대적 주부의 면모를 강조하며 '주부가 제 손으로 살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하였으며, 가사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과 충돌하였다. 왜 조선에서 담론과 현실은 유독 큰 괴리를 보였는가?

이는 일견 물적 기반이 약한 위에서 근대주의적 지향이 과잉된 담론이 생산된 식민지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22] 그러나 가사노동합리화 운동과 근대적 주부에 대한 담론이 시작된 서구 사회에서조차 뚜렷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에 대한 '폐지론'이 왜 일찍부터 강력하게 등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근대적인 주부의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신여성층이 곧 가사서비스노동의 주요한 수요층이기도

21) 다른 사회와의 비교는 본문의 제Ⅱ장 제2절에서 더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22) 선행연구 중 김혜경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혜경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새로운 가사 담론은 당대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며, 강한 근대지상주의적 지향이 담론의 (이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248-249쪽.

했다는 사실은 담론과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담론이 미치는 힘은 어디까지인가도 질문하게 한다.

이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더 구체적으로는 가사서비스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의 현실을 살펴보는 일과 관련이 있다. 산업사회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교집합이자, 산업노동과 재생산노동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팽창한 가사서비스노동은 근대의 성별화된 노동 구조 안에 편입되기 시작한 당시 하층민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일차적으로 무급의 가사노동을 자임하게 하는 주부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안에서 가사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공론화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논쟁 상황을 고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근대 가사노동자들에 대해 그 존재 양태를 규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우선 역사학계에서 그동안 노동사가 노동운동 중심이었던 것을 반영하며, 특히 근대적 표상을 잘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광공업 부문의 노동사에 집중되었던 결과이다.[23] 이같은 경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 노동에 있어서도 여성 공장 노동, 특히 가장 근대화된 영역인 공장제 섬유 공업에 집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시기적으로는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근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

23) 1980년대부터 진보를 갈망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근대 노동운동사 연구들이 배출되었다. 이 시기 연구들은 역사적 주체이자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을 호명하며 '농민'과 '노동자'를 부각시켰고, 민족(독립)운동사에서 노동 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이 큰 지분을 차지했음을 밝혀냄으로써, 한국역사상 노동자의 위치, 좌파 운동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당대 사회 변혁 및 노동 운동에 일정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다고 할 수 있다.[24] 그러나 여성들이 일터와 가정이 엄격히 분리되는 공장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수적으로 매우 적었다. 게다가 여성들이 대부분 그들의 생애주기와 가족경제 전략에 따라 생산활동과 재생산활동을 반복하며 일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장 노동에 종사한 바 있는 여성들의 생애 안에서도 그것은 당사자들의 노동 경험 중 극히 일부였다. 이후 근대성(Modernity)의 문제로 학계의 주도적인 의제가 바뀌면서,[25] 2000년대 이후로는 신여성과 그들이 종사한 새로운 직종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의 주제는 노동사에서도 여성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인구에 있어서 비교적 소수인 공장노동자와 신여성이 근대 여성을 과잉대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4)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들로는 1970년대에 이효재의 선구적인 연구 이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본격적인 연구들이 나왔다. 이 같은 성과들을 반영하여 한국여성연구회(1992)는 개괄적인 통사로서의 여성사를 다루면서, 일반 기층 여성의 일상적 삶이나 경험의 영역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에서 여성노동운동을 여성운동의 중심에 놓고 많은 지면을 여성노동자들에 할애하기도 하였다.
정충량 · 이효재, 「일제하 여성근로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논총』 22,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3 ; 이효재, 「일제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 『한국근대사론』 Ⅲ, 지식산업사, 1977 ; 박정의, 「일본식민지시대의 재일한국인 여공-방적·제사여공」 『논문집』 17, 1983 , 원광대; 김경일, 「일제하 고무노동자의 상태와 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의 사회운동』, 1987 ; 안연선, 「한국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 서형실, 「식민지시대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정옥,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 강이수,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연구-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 1992 ; 조형·강이수, 「일제하 공업노동과 성별분업의 역사적 형성」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8-여성』 ,1995 등
2000년대 이후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소현숙, 「한국 근대 여성사/젠더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51, 2023, 220-224쪽.

25) 1990년대 이후 근대사 연구의 새로운 분수령은 기존의 '식민지 수탈론'에 맞서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과, 양자가 전제하는 근대성 그 자체를 비판하는 '식민지 근대성론'의 등장에 의해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성과 식민성, 혹은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적 논의를 거부하고 역사 서술을 상대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역사 어젠다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성을 위시한 소수자에 대한 역사적 관심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10월 25~26일 양일간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6회 전국역사학대회의 주제가 "역사 속의 소수자"였던 것은 근대적 주체에 대한 성찰이 이미 한국의 역사학계 전체에 확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비교적 일찍이 일제하 가사노동자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당대 여성 직업을 살펴보고 그 시대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자의 비중이 수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 정진성, 전우용, 윤지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진성은 여성 노동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 전반을 조망하며 식민지기 주체적 근대화의 왜곡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서, '식민지 자본주의화'의 과정에서 '매춘'을 포함하는 접객업과 함께 가사사용인이 팽창했다고 설명하였다.[26] 윤지현은 1920~30년대 나타난 서비스직 여성들을 다룸으로써 여성 교육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이 시기 여성의 공적영역 활동 확대라는 변화를 서술하는 가운데, 다른 직종과는 그 성격이 다소 이질적인 가사서비스노동까지 포함하고 있다.[27] 즉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서비스직에 대해서는 근대성을 강조하지만,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는 "1920~1930년대의 가사사용인은 '하인'에서 '근대적인 직업'으로 변화했다고 평가되었으나, 일반의 인식과 그 대우에 있어서는 아직 전근대적 신분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수탈적 식민 농정으로 농촌을 떠나 일본인집의 '조선어멈'까지 되어야 했던 식민지 여성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전우용의 연구는 병합 직후부터 1920년대까지의 시기동안 식민 병합과 기존 구질서의 붕괴, 식민지적 재편에 따른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서울 주민들이 직업 세계의 급박한 변동을 겪었음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 주민들의 직업 세계 전반의 조건과 변화 양상을 전통사회 운영 질서와의 계승과 단절에 유의하며 종합적으로 그리고 있다.[28] 이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직업 세계에 있어 민족별 구분이 뚜렷하여 조선인들 다수는 전문직이 아닌 육

---

26) 정진성,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제4집, 1988 이 논문은 사회학 논문이지만 일제하 가사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규명을 선구적으로 하였고 당시 역사학계의 의제 설정이나 시각의 측면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에, '역사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로 분류하였다.

27) 윤지현, 「1920~193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위상」 『여성과역사』 10, 2009

28) 전우용,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 (1910~1930)」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대표적인 조선인들의 직업으로 가사사용인을 꼽고 있다. 이 연구는 특히 가사서비스노동이 전통적 하인 노동 및 행랑살이와 연결되어 있음을 짚어냄으로써 가사서비스노동의 종적인 맥락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종합하자면 위의 연구들에서는 가사서비스노동을 당시의 다른 여성 직업들과 아울러 이야기하면서 가사노동자는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근대적 직업인으로서의 특징이 미약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가사노동자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곧 조선의 식민성, 혹은 식민지적 왜곡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사사용인'에 집중하여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를 드러내고 일제하 전 시기에 걸친 가사노동자들의 변화 양상을 그리고자 한 것이 이아리의 논문이다.[29] 이 연구는 또한 '주변적 여성 노동'으로서 가사사용인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 노동의 특수성과 식민성이 결합한 결과임을 강조하여 선행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사실 여성 노동에 대한 그간의 선행 연구들이 공장노동자나 신여성과 같은 엘리트 여성들에만 집중되어왔음을 비판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변적 여성 노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연구들은 일찍이 사회학계에서 나온 바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김정화와 김원의 연구가 주변부 여성 노동으로서 '식모'에 주목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김정화는 1960년대 여성노동 중 공식적인 영역의 노동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장노동자들만큼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식모와 버스안내양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노동력의 이촌향도 이주 구조와 전반적인 노동 조건, 식모에서 시간제 가정부로의 변화 등을 서술하고 있다.[30]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조와 담론의 연결을 보여준 것이 김원의 연구이다.[31] 김원 또한 한국의 근대화시기 여성 노동에 대한 연구들에 있어서 공적 영역으로 구

29) 이아리, 「日帝下 주변적 노동으로서 '家事使用人'의 등장과 그 존재양상」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3

30)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 –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2002

31) 김원, 「근대화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 '식모'(食母)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집 1호, 2004

분된 '공장 노동'에 선행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식모나 버스 차장 등은 근대화의 부차적 희생양으로만 간주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식모를 둘러싼 담론들에도 눈을 돌려 이 담론들이 국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복무하고 있던 1960~70년대의 구조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곧, '국가의 담론과 정책, 남성 지식인들의 담론, 중심부 여성들의 담론'과 같이 담론의 생산자와 층위를 나누어 분석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구사하며 이들간의 공모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모를 포함하는 주변부 여성들이 주변화-타자화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당대의 역사성을 밝혀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의 가사서비스노동 자체의 의미에 주목하여 그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의를 함께 강조한 연구들 또한 사회학계에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 강이수와 김현경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김현경은 그간 '지불(支拂) 가사노동'은 주부에 의해 수행되는 '부불(不拂) 가사노동'보다도 학계의 논의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근대 가족 이후'의 전망을 논하게 된 오늘날에도 지불 가사노동을 통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지불 가사노동이야말로 '왜 여전히 가사노동을 포함한 재생산 노동이 여성들의 일로 남아있는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는 문제의식을 피력하였다.[32] 강이수도 가사서비스노동은 산업 국가 초기 역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이었고, 여성들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면서도 직업의 역사 및 여성 노동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되어왔음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사라져 갈 직업이라고 예측했던 가사서비스노동이 오히려 전지구화(globalization) 현상과 더불어 오늘날 다시금 팽창됨을 지적하고, 가사서비스노동의 구조적 변화를 역사적으로 보고자 하였다.[33]

그런데 가사서비스노동, 또는 가사노동자에 대해 선구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이들 연구는 주로 해방 이후의 현대사에 중점을 두고, 이미 일제하

32) 김현경, 「지불 가사노동자의 탄생: 1950~1970년대 초 '식모'의 문제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검토」 『梨院학술논집』 4, 2008

33) 강이수, 「일제하 근대 여성 서비스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연구』 제5호, 2005 ; 同, 「가사 서비스 노동의 변화의 맥락과 실태」 『사회와 역사』 82, 2009

식민지기에 가사서비스노동이 뚜렷하게 등장했음에도 이에 주목하지 않거나, 단지 현재적 의의가 나타나기 전의 전사(前史)로서만 언급하며 일제시기까지는 가사서비스노동이 하인 노동의 전근대적 특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가사서비스노동의 역사적 규명을 강조한 강이수의 논문에서조차 가사서비스노동을 유형화한 위에서 일제 식민지기의 그것은 "중세 하인의 형태인 전통적 복속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다.[34]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논증하고 있는 해방 이후의 식모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제 식민지기의 가사노동자들에게서도 이미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다. 가령, 여러 연구들에서 전제하고 있듯이 가사노동자가 늘어나는 시점에 이촌향도의 여성노동력 이주가 가사노동자 예비군을 뒷받침했던 것은 물론, 해방 이후 '식모의 문제화' 양상 속에서 '식모 동정론'이나 '식모폐지론'이 등장했던 것[35]도 이미 식민지기에 나타난 상황과 매우 흡사하며, 이때 식모를 두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유한마담'으로 묘사하여 비난하는 레토릭마저 유사하다.[36] 결국 가사서비스노동의 역사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식민지기의 양상을 더 규명하여 해방 이전과 이후의 연결을 인지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현아의 연구가 다른 사회학 연구들과는 달리 식민지 근대라는 시기가 가사서비스노동을 볼 때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지만, 정작 당시 시대상이나 구조에 대해 새롭게 논증하거나 진전시킨 부분이 있기보다 역사학계의 선행연구에 많이 의지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사용인의 노동을 재검토하여 의미를 밝힌다'는 연구 목표를 실현하는 데 다소 한계를 보였다.[37] 다만 가사노동 안에서도 하는 일에

34) 강이수, 위의 논문.
35) 김현경의 앞의 논문에서 이러한 성격이 논의되고 있다.
36) 일제 식민지기 '식모폐지론'에 대해서는 이 논문 제Ⅱ장 제2절과 제Ⅲ장 제2절에서 논한다.
37) 문현아, 「식민지 근대시기 '가사사용인' 구성의 변화와 의미」 한국여성학, 2014.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단편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오류도 일부 보인다. 가령 일본인 가정의 '오모니'와 조선인 가정의 어멈이 계급적으로 달랐다거나,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가사사용인이 받는 봉급은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것이다. 전자는 1920년대 중반이라는 특정 국면에서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그럴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두 집단은 다르지 않았고, 후자는 그 반대였

따른 위계가 나뉘고 특히 주부가 전담하는 일과 가사사용인이 하는 일이 분리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당시 가사서비스노동이 임금노동화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부여 측면에서 시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듯 역사학과 사회학의 연구 성과들 속에서 일제하의 가사서비스노동이 가진 특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곧 전근대적 특질이 근본적인지 근대적 특질이 근본적인지는 하나의 논점이 되고 있지만, 문학 부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의 중간적이고 모호한 성격이야말로 이 주제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었다. 특히 서지영과 소영현이 가사노동자와 근대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왜 일제 식민지기 가사노동자에 천착하는지가 명확하다. 근대 가사노동자의 중간적이고 모호한 위치, 곧 유사 가족과 같으면서 임금노동자인, 그리고 전근대와 근대의 사이, 혹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식민지 근대의 균열, 중층성, 양면성 등을 드러낼 수 있는 하위주체로 자리하게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서지영은 도시 공간과 여성이 맺는 관계에 주목하여 식민지 조선의 '모더니티'를 규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시가 노동 공간인 가사노동자에 주목했고, 그들이 친밀성의 영역 안에 있는 노동자라는 점이 모더니티의 불안과 모순, 균열을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오모니'라는 존재는 지배와 종속/저항이라는 이분법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38] 소영현은 당대 '남의집살이' 여성이 전근대와 근대, 신분제와 계약제 사이에 끼인 존재라는 사실, 즉 가사노동자의 "불확정적이고 중층적인 위상"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근대적 노동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이 배치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아, 보다 더 역사적 구조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39]

---

다.

38)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여이연, 2013 ; 同, 「식민지 조선, 하녀들의 공간과 친밀성의 함의들」 김현주, 박무영, 이연숙, 허남원 공편, 『두 조선의 여성 : 신체·언어·심성』, 혜안, 2016

39) 소영현, 「1920~1930년대 '하녀'의 '노동'과 '감정-감정의 위계와 여성 하위주체의

가사노동자와 관련한 이들의 연구는 특히 소설 안에서의 재현이나 담론에 나타나는 징후적 단서들까지 예민하게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영현의 연구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 직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보수화된 것이 어멈이나 식모 등의 '남의집살이' 여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담론과 연결되면서 여성의 가정주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전시체제기를 거치며 강화된 남의집살이 퇴출론(곧 식모폐지론)이 "그림자노동의 사회적 비가시화가 사회 전반에 체제화되었다는 방증"임을 지적한 것은 일제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의 가사서비스노동의 종적인 맥락을 연결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비록 일제말 전시체제기를 거치며 나타난 변화가 '그림자노동의 사회적 비가시화가 완전히 체제화되었다'고 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 단초가 일제 말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이 연구들에서는 현실과 담론 사이의 구분과 연결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소 있고, 구체적인 현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간혹 오류나[40] 성급한 추론이 보이기도 한다.[41] 이는 이 연구들이 구체적인 사회상의 논증보다도 담론에 반영된 현실의 메타적인 해석에 더 주력하는 방법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역사상이 새롭게 제시가 되었을 때 연계 학문 분야에서 더 풍부한 해석을 발전시킬 가능성

---

감정규율」 『민족문학사연구』 제50, 2012 ; 同, 「그림자 노동의 (재)발견 자본과 노동의 성적 분할과 계급 위계」, 『아시아여성연구』, 2017

40) 예를 들어, 서지영은 당시 가사노동자로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교육 받은 여성의 '안잠자기 수기'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너무 높게 추정하고 있고(서지영, 앞의 논문, 2016, 126쪽), 반대로 소영현은 단편적인 신문기사를 통해 실제보다 낮게 추정하고 있다. 소영현의 논문에서는 기사에서 나타나는 하녀 임금의 시세와 통계 연보의 하녀 임금 차이에 상당한 차액이 있는 것에 대해 숙식비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해석하였다. (소영현, 앞의 논문, 2012. 321-322쪽) 그러나 통계 연보의 하녀 임금 또한 (시기별에 따라 그 여부가 지역별로 다르게 표기될 때가 있지만) 대체로 숙식비를 별개로 계산하지 않은 순수 임금이며, 신문에서 나타나는 금액보다 통계 연보의 금액이 큰 것은 후자가 일본인 가정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의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1) 특히 소영현의 논문에서 제시된 "식모폐지론은 결과적으로 하녀를 가족 단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과 (전시에) "식모를 없애는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비상시의 중대 사업이 되었다"와 같은 명제는 더 면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을 통해 식민성을 강조했던 연구들은 이것이 많은 사회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보이는 현상임을 간과하였으며, 현대 산업화 과정의 주변적 노동으로서 부각시킨 연구들은 그 역사적 기원과 한국사적 특수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근대의 주변적 여성노동으로서 주목한 연구들은 담론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더 큰 범주의 가사노동과의 관계나 일제하의 가사서비스노동이 해방 이후의 가사서비스노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의 중간적인 성격을 근대의 혼종성이나 균열로서 주목한 연구들은 담론에 집중하였지만, 담론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지어 살피지 못하거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담론의 과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들을 검토한 결과, 첫째로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은 비교사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현실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연구대상과 서술방향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가사노동'은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주로 집안에서 수행하는 가사일을 지칭하며, 더 포괄적인 용어로 '재생산 노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가사노동과 재생산노동이라는 개념은 모두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여성의 노동과 그 기여를 가시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탄생하여, 기존 '노동'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노동' 개념은 18~20세기에 걸쳐 현재 우리가 떠올리는 것에 가깝게 구성되어 왔으며, 이것은 가정과 분리된 일터에서[42] 행해지는 임금 노동/생산 노동의 이미지로 집중되는

42) 가정공간으로부터 노동공간이 분리되고 특화되는 변화[직주분리職住分離]는 20세기부터 확고해졌는데, 이는 이전 시기의 일반적인 노동이 사적 공간 안에서 인격적 차원의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는 자가(自家) 또는 타가(他家) 노동이었던 것과 명백

과정이었다. 근대 이래 생산 노동과 비생산 노동을 나누는 사고가 뿌리를 내렸고, 특히 19세기 마르크스주의 노동관은 산업 임금 노동자를 중심에 놓고 노동과 인간을 사고하였다.[43] 이렇듯 한정된 노동관이 여성의 노동 상당 부분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44],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와 가부장제가 어떻게 연관을 맺어 여성의 가사노동을 착취하게 되는지를 보다 유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회 재생산'의 이론으로 이행하였다.[45] 사회 재생산론은 가사노동 개념에 임신, 출산, 양육, 돌봄 등을 포함하여 '재생산 노동(Reproduktionsarbeit)'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킴으로써, 기존 노동 개념의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46]

위와 같은 논의의 결과 오늘날 재생산 노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범주를 아우르는 것으로 그 용례가 정착되었다.

① 노동자 계급의 일상과 노동력의 재생산 : 청소와 빨래, 밥 짓기

---

한 대비를 이룬다. 필립아리에스 조르주 뒤비, 2002, 『사생활의 역사』 5, 새물결 pp.45-85. 참조

43) 김경일, 2014, 『(한국개념사총서9)노동』 , 소화 pp.110-111.

44) 이것을 시작한 것은 사회주의 페미니즘 진영으로, 생산 노동과 계급 모순을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 논의 속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에 대한 착취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이러한 실천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마리아 달라 코스타(M. Dalla costa)나 셀마 제임스(S. James) 등은 "자본이 그동안 무상으로 전유해왔던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지불받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징적인 캠페인의 하나로 가사노동 임금 지급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45) 사회적 재생산론이 전개되기 이전에 널리 공감대를 이룬 것은 '이중체계론dual system theory'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남성 임금노동자 착취'와 '가부장제를 통한 남성 임금노동자의 여성 가사노동자 착취'가 동시에 이루어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공존하는 이중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중체계론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위상 차이나 양자 간의 결합을 놓치고 기계적인 구분에만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녔다.

46) '사회 재생산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리스 포겔(Lies Vogel)은 노동력이란 그 자체로 주어진 채 작업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 돌봄, 양육, 출산 등의 재생산 과정들을 경유하여 형성됨을 강조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재생산 또는 생산조건의 재생산, 즉 노동력의 재생산과 인간 혹은 생물학적 재생산"을 여성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본주의 생산 과정은 유기적인 역학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Vogel, Lise. *Marxism and the Oppression of Women: Toward a Unitary Theory*. Rutgers University Press, 1983

등을 비롯한 가사 활동 전반

② 가족 구성원 삶의 재생산 : 아이를 기르고 노인과 병자를 보살피는 돌봄과 양육

③ 노동인구의 생물학적 재생산 : 자녀의 출산

논문의 본문에서는 위의 세 범주 중 임신과 출산의 생물학적 재생산(③)을 제외한 일상과 노동력의 재생산(①)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과 양육(②)을 포괄하여 연구 대상인 '가사노동'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실제 노동을 수행할 때 ①과 ②는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가사노동의 담당자가 주부이든 가사노동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임금 노동자이든 이 두 가지 측면의 노동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가사노동이 자본주의화 과정의 산물이며 산업화 사회에서 비가시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논의들 또한 이 연구에 참고가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림자 노동'이란 개념을 통해 근대 산업사회를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무급(無給)의 노동들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이반 일리히(Ivan Illich)의 논의이다. 그는 '화폐 거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산업화 이전 시대의 자급적 경제 활동, 토착적 활동과도 다른 근대적 노동'을 '그림자 노동'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으로 보았다.[47]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급진적인 비판을 가했던 일리히의 논의에 따르면 '산업화된 인간은 한 번도 중성적이었던 적이 없고, 처음부터 일하는 남자와 집안일 하는 여자의 한 쌍으로 창조되었'으며, 가내 공간에서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 역시 산업화 이후 임금 노동의 보완물로 탄생한 근대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와 여성의 가사노동을 단순히 연결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의 성별 분업이야말로 근대 자본주의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48]

---

47) 이반 일리히,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2015

48) 여성을 재생산노동의 영역에 고립시켜 그 노동을 무급으로 착취하는 것이 자본주의화 과정의 역사적 산물이었음을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로 일리히 외에 실비아 페데리

그런데 가사노동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 속에서는 이처럼 주로 무급의 주부 가사노동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재생산 노동 중에서 임금 노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임금 노동자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으로서의 가사노동을 강조하여 '가사서비스노동'으로 지칭하고, 가사서비스노동에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려 한다.[49]

본문의 서술은 논문의 문제의식에 맞추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가사노동의 역사적 변화를 다룸에 있어서 그 연구 대상으로 여성들의 노동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당시 국세조사 등의 통계 자료로 보아 가사노동자인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으로 분류된 이들은 여성들뿐만이 아니었고, 특히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는 전체의 대략 16~17% 정도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조선인 남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이 누구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조선국세조사의 직업 분류 기준을 다시 보면, 가사사용인에는 '조선의 특수 직업인 '상직군(上直軍), 상직파(上直婆), 찬파(饌婆), 찬모(饌母), 찬공(饌供), 청직(廳直)'을 포함한다'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들 남성 가사사용인 대부분은 상직군, 청지기 등으로 불리우며 주인집에서 옛 하인들의 노동과 유사한 일에 종사하고 있던 시종, 행랑아범 등일 것이다. 이렇게 남성들의 경우 전통사회로부터의 유제와 관습에 의해 이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통사회에서 가내 노동은 성별화되기는 하였으되 여성에게 집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대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성들에게 남는 가내 노동의 영역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논문의 주된 목

---

치(Silvia Federici)가 있다. 페데리치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원시축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인구 내부의 차별과 분할이었으며, 특히 새로운 성적 분업에 따라 여성을 재생산 영역에 가두고 그 부불(不拂) 노동을 은폐한 것이야말로 거대한 자본 축적을 촉진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본주의가 토지에 대한 인클로져 enclosure를 통해 남성 임금 노동자를 생산했던 한편으로, '마녀 사냥'을 통해 여성(신체)에 대한 인클로져를 단행하여 여성 재생산 노동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갈무리, 2011

49) 가사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며, 문맥에 따라 사료에 있는 '어멈', '식모', '하녀, '하인', '조추', '가사사용인' 등을 함께 쓰고자 한다.

적이 가사서비스노동의 근대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가사서비스노동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성들의 노동은 자세히 서술하지 않고, 대개 여성들의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지역적으로는 농촌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가사서비스노동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있다.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이 기본적으로 여성 노동력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가사서비스노동이 점차 여성 임금 노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민족별 고용이 빈번해지는 것, 새로운 신가정 모델이 가시화되는 것 등 이 논문에서 주목하게 될 중요한 지표들은 대부분 경성을 위시한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남성들이 산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여성들이 물을 길어오는 방식으로 재생산 노동이 이루어지거나, 전통적인 하인층에 의해 임금 노동의 성격이 미약한 방식으로 가사노동이 수행되곤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와 속성에 대한 분석은 대개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셋째로, 비교사적 시각을 견지하며, 가능한 일국사에 한정하지 않고, 제국 판도를 함께 보려는 시각으로 일제 식민지기를 보고자 하였다. 앞서 가사노동자의 증가 양상이나 수적 규모에서 이미 크게 차이가 났듯이 다른 사회와의 비교는 당대 조선의 역사적 상황에서 보이는 특수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한다. 특히, 일본 본국이나 식민지 대만과의 비교는 더더욱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게다가 근대 일본의 팽창주의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인구 및 물류의 이동은 제국 판도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가사노동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조건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일본과 조선 간의 인구이동과 제국 판도 내의 노동시장 형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 4. 구성과 활용자료

각 장은 시기별로 가사서비스노동의 역사적 변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세 단계로 구성(형성, 팽창, 비공식화). 제Ⅰ장(20세기초~1920년대 중반) 제Ⅱ장(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제Ⅲ장(1940년대 전시체제기). 각 장의 제1절에서 구조적 상황을 그리고, 제2절에서 해당 시기의 상황과 관련하여 전개된 담론을 살펴보며, 제3절에서 현실에 대한 실제 담론의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사회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Ⅰ장에서는 근대 한국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다루며, 가사노동을 타인에 전가하는 것이 경제외적 관계, 곧 신분제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 경제적 관계로 전환되어 간 것을 그 핵심으로 본다. 이러한 전환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는데, 내부적 변화는 전근대 신분제의 철폐와 자본주의화 과정에 따른 가내 하인 노동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행랑살이의 확산과 쇠퇴에 주목하고 있다. 그와 대응하는 외부적 변화는 식민화에 따른 재조일본인사회의 구축과 그 영향을 다루었다.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이 팽창했던 정황과 더불어 이것이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팽창할 수 있게 한 식민지의 구조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국세조사와 통계연보, 직업소개소 자료 등에서 나타나는 통계를 분석하고, 가사서비스로의 노동력 공급이 끊이지 않았던 경제적 조건, 이와 결합하여 생겨난 도시 생활양식이 팽창하는 가사서비스노동을 지탱했던 사정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담론이 다른 사회와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도 확인하였다.

가사서비스노동의 새로운 수요로서 도시 신가정 모델이 대두된 사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신여성 담론과 결부된 근대 주부 담론의 작동을 살펴보아, 이러한 현실의 상황이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근대적 담론과는 어떻게 조우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Ⅲ장에서는 전시체제하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법적,

경제구조적, 담론적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를 서술하여 마무리하였다. 곧 법적, 정책적으로는 식민지배 당국이 총동원체제로 돌입하여 여성노동력에 대한 개입과 동원을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가사서비스노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담론의 측면에서도 이전 시기부터 등장하고 있었던 '식모폐지론'이 강화되고, 일제의 전쟁 동원 논리에 복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식민지 조선과 일본 본국간의 담론장의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담론의 변화가 실제 전시체제하의 가사노동자 억제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을 쓰는 데 활용된 주된 사료는 크게 정기간행물인 신문 및 잡지 기사와 통계 자료의 두 계통이 있다. 신문, 잡지로는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중외일보』 『개벽』 『농민』 『별건곤』 『조선농민』 『학지광』 등 조선인 언론에서 펴낸 것뿐만 아니라, 『매일신보』 『朝鮮行政』 『警務彙報』 『조선휘보』 등 당국이나 관변 단체에서 펴낸 것, 일본인들에 의해 발간되고 소비된 『朝鮮及滿洲』 및 『조선공론』과 『綠人』 등의 잡지, 일본 본토 신문들의 조선 특별판 등에서 최대한 기사를 수집하였다. 특히 일제 식민지기 3대 여성잡지인 『신가정』 『신여성』 『여성』은 여성 담론의 추이를 살피는 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통계자료로는 일본과 조선과 대만의 국세조사(임시호구조사 포함)를 기본으로 통계연보, 조사월보 등에 나타난 자료들, 이여성과 김세용의 『數字朝鮮研究』,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働狀況調査』와 같은 책자들, 일본 외무성에서 펴낸 『해외각지재류본방인인구표』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서 개인 및 단체의 저작물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회고록을 포함하는 각종 회고록과 구술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당대를 그린 소설도 참고하며 일반적인 사료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 일상적인 사회상을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활용한 일본군 '위안부' 증언 자료집은 정의기억연

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주도로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채록한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항하는 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성격을 자세히 규명하는 경우 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50]

그러나 이 증언집의 의미는 단순히 운동 및 운동사를 위한 자료에 그칠 수 없다. 일제하 하층민 여성들의 일상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 증언집이 생애사 구술로서 귀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운동에 기여하고자 증언을 남기게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활동가들의 뜻이나, 본래 자료의 수집 목적과 맞지 않는 활용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당대 여성들의 생애사를 엿볼 수 있도록 자료의 내용을 검토,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50) 윤명숙은 그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위안부'로 동원(책의 표현은 "징모")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증언도 자세히 검토한 바 있다.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이학사, 2015) 일본군 '위안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이면서 이 증언집을 활용한 경우로는 김부자의 책이 있다. 김부자는 그의 책에서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교육을 상시적 '불취학' 상태로 개념화하고, 여성들의 생애사 속 '불취학'을 나타내는 자료로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활용한 바 있다. (김부자, 조경희 김우자 번역, 『학교 밖의 조선여성들』, 일조각, 2009)

# 제Ⅰ장 20세기 초 ~ 1920년대 중반
#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

## 제1절 가내 하인 노동의 변화와 식민 초기 일본인들의 도항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은 전통사회에서부터 기원하는 하인의 노동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많은 사회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이 출현하는 과정은 가내 하인들이 임금 노동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비제도가 혁파됨과 함께 더 이상 신분제적 예속 관계로 가사노동을 타인에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이것은 가사노동자가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하인 노동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신분제적 예속이라는 경제외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전환되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부터 기원하는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식민지배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영향, 곧 외부적 요인이 근대 이행기에 함께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외부적 요인으로서 식민지배에 따른 일본인들의 이주와 민족간의 사회경제적 위계는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강제 병합을 전후로 한 일본인들의 조선 도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1. 가내 노동의 성별화와 남성 가내 노동의 감소

전통사회 양반가의 일상적인 가내 노동을 도맡아 했던 것은 사노비(私奴婢)였으며, 그중에서도 앙역노비(仰役奴婢)였다. 조선시대 노비는 수행하는 일에 따라 신공(身貢) 상납의 의무만을 지는 납공노비(納貢奴婢)와 주인의 명에 따라 상전가의 각종 일을 도맡아 하며 신역(身役)을 제공하는 앙역노비로 나눌 수 있었다. 다만, 납공노비라 할지라도 상전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앙역노비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51]

앙역노비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들이 있으나, 고문서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앙역노비가 독립호를 이루어 호적에 기재되었는지 여부(곧 외거노비(外居奴婢)인지 솔노비(率奴婢)인지[52])나, 상전과 실제 같은 가옥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역 의무에 응하고 있음에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53] 곧, 18세기 중엽 노비안 자료에 근거하여, 노비를 그 의무에 따라 앙역노비와 납공노비, 그리고 중간적인 형태의 사환노비로 구분하거나[54], 앙역노비 중에서도 거주 형태에 따라 자신의 집에서 왕래하는 '자가(自家)앙역노비'와 주인집에서 취사를 함께하는 '재가(在家)앙역노비'가 존재했다고 본다.[55] 본

51) 노비에 대한 분류는 1950년대 이래 노비를 솔거(率居)와 외거(外居)로 나누어 전자를 노예적 존재, 후자를 농노적 존재로 규정하였던 김석형의 견해가 통설로 자리잡아 오다가, 1980년대 이후 고문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앙역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하는 분류법을 견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고문서를 통해 당대 양반가에서 자신들의 노비를 그 의무에 따라 앙역과 납공으로 분류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김건태, 「朝鮮後期 私奴婢 파악방식」, 『역사학보』 181, 2004, 99-100쪽. 사노비 중 납공노비를 제외한, 신역의 의무를 지는 가내노비와 농경노비를 포괄하여 '입역노비(立役奴婢)'로 지칭한 예도 있다.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노비, 농노, 노예』, 일조각, 1998.)

52) 김건태는 호적류의 자료에서 '외거노비(外居奴婢)'라는 어휘는 등장하지만 그와 대칭을 이룰 '솔거노비(率居奴婢)'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솔노비(率奴婢)'라고 지칭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건태, 위의 논문, 2004.

53) 이와 달리 전형택은 2000년대 초의 연구에서 앙역 노비에 대한 규정을 '외거'-'솔거'노비의 구분과 연결지어, '외거 노비들 중 노비 소유주들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러들여 사역시킨 노비'만을 앙역노비로 보고 있다. 곧, 가족 전체가 상전의 호에 함께 거주하며 호적에도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솔거노비'와 달리 앙역 노비는 그들의 부모나 가족이 별도의 집에 살고있는 가운데 따로 노동력의 수취를 위해 불려온 비교적 젊은 노비들이라는 것이다.(전형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앙역노비의 성격」 『역사학연구』 17, 호남사학회, 2001.)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솔거노비와 앙역노비라는 말이 세월이 흐르며 상호간 교체가 빈번해지고 그 성격이 같아지면서 18세기 이후로는 솔거노비를 대신하여 앙역노비라는 용어가 통용되게 되었다고 보았다.(전형택, 「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호적 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광주 전의이씨 문의공파 종가 소장 고문서의 사례 분석」 『조선시대사학보』 15, 2000.)

54) 김건태, 「18세기 중엽 사노비(私奴婢)의 사회,경제적 성격-경상도 안동 금계리 의성김씨가 사례」 『대동문화연구』 75, 2011. 사환노비로 분류된 이들은 상전가의 병작지를 경작하며 생계를 꾸리는 가운데, 일손이 많이 필요한 가내노동이나 경조사에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부 생계비 보조도 받았다. 앙역과 사환은 수시로 교체될 수 있었다고 한다.

고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논의에 기반하여 노비의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그 (가변적인) 의무에 따라 노비의 분류를 설정하고 앙역노비로 지칭하고자 한다.

앙역노비들이 수행하는 가내 노동의 범위는 광범위했으나 노비의 성별에 따라 주로 맡게 되는 일의 종류가 구별되었다. 이것은 가내 노동이 전근대에도 얼마간 성별화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경이나 직조 등의 생산 노동을 제외하고 앙역노비들이 수행했던 가내 노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자 노비인 비(婢)에게는 밥을 짓고 상을 차리는 부엌일이 일차적으로 맡겨졌고, 부엌일을 전담하는 노비에 '주비(廚婢)','취비(炊婢)' 등의 호칭이 따로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부엌일과 연결된 물긷기와 곡식 찧기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였다. 또한 바느질과 옷 짓기, 빨래, 방과 마루 청소를 주로 비가 했으며, 탕약을 끓이고 병자를 돌보는 일, 세숫물을 대령하고 이부자리를 펴는 일 등도 시비(侍婢)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56] 이에 더해 근거리 잔심부름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여자 주인을 대리하는 인사나 조문 등의 사환 역할은 비가 하였다.[57]

반면, 남자 노비인 노(奴)의 경우 물품 구매나 선물 및 편지 교환을 위한 장거리 심부름과 집 밖에서 주인을 수행하는 일이 주로 주어졌으며, 비의 부엌일에 비교하면 땔나무를 해오는 일이 특히 중요하였기에 '초노(樵奴)', '초복(樵僕)'등의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그 밖에 대청과 뜰 청소, 울타리나 변소 짓기, 주택 수선 등의 일은 대체로 노가 담당하였다. 곡식찧기[용정(舂精)] 중에서도 물방앗간을 다녀와야 하거나 힘이 많이 드는 방아찧기, 메주 제작 등은 노에게도 할당되었으며, 제사에 쓰이는 고기[세육(歲肉)]를 전담하는 노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다.[58]

---

55)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 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53호, 2018.

56) 지승종, 「朝鮮前期 奴婢身分에 관한 社會史的 硏究 : 私奴婢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43–247쪽, 262–266쪽.

57) 김현숙, 「19세기 중반 양반가 일기에 나타난 노비와 노비노동 –호서지역 김호근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7, 2013, 438쪽.

58) 지승종, 앞의 논문, 267–269쪽. ; 김현숙, 위의 논문, 437–441쪽.

이러한 일들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물긷기와 땔나무 하기였기에, ‘땔감을 마련하고 물을 긷는 일[부신급수(負薪汲水)]’이 곧 노비가 수행하는 가사일의 대명사로 쓰였으며, 이 ‘부신급수’에서 나온 ‘신수(薪水)’라는 말은 각각 남녀노비의 가내 노동을 대표하게 되었다.[59] 즉 노(奴)가 땔나무를 마련하고 비(婢)가 물을 긷는 것이 조선 중엽까지 노비들의 기본적인 성별 분업이었던 것이다.[60]

여성의 물긷기와 남성의 땔나무 하기가 노비 노동의 핵심이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그 시대에 일상을 재생산하는 노동 중 핵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노비의 노동을 일컫는 말로 ‘신수지역(薪水之役)’, ‘신수지로(薪水之勞)’,‘신수지고(薪水之苦)’등이 쓰였는데, ‘신수지로(薪水之勞)’는 『소학(小學)』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당대에 이러한 표현들은 낯설지 않았다.[61] 특히 ‘親執薪水(之勞)’ 혹은 ‘身親薪水(之勞)’나 ‘躬親薪水(之勞)’라고 하여, 신수를 마련하는 일을 직접 한다는 말은 지극한 효심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양반이 노비를 둘 수 없을 만큼 궁핍해진 사정을 의미했다. 가령, 친부모의 상을 당하여 묘소 곁에 여막을 짓고 몸소 나무하고 물을 길어 생활하며 3년간을 애통해 했다거나[62], 집이 빈한하여 직접 신수를 구해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했다거나[63], 사족(士族)임에도 가난하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몸소 땔나무하기와 물긷기를 해야했다는[64] 등의 말이 관용적으로 쓰였다.

---

59) 지승종, 위의 논문. 269쪽.

60) 전우용, 『우리 역사는 깊다(1)』, 푸른역사, 2015, 229쪽. 전우용은 이에 대해 전통적인 음양에 대한 세계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통적 관념 속에서 물은 陰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곧 여성의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61) 『小學』 外篇 「善行篇」 第六, “陶淵明爲彭澤令, 不以家累自隨, 送一力給其子書曰, 汝旦夕之費自給爲難. 今遣此力, 助汝<u>薪水之勞</u>, 此亦人子也, 可善遇之.” (『영조실록』 110권, 영조 44년 4월 5일 임술, 세 번째 기사에서 영조가 이 소학의 구절을 언급하고 있다.)

62) 『세종실록』 63권, 세종 16년 2월 3일 辛亥 2번째기사. “廬於墓側, 不率奴僕, <u>親執薪水</u>, 以奉朝夕之奠, 哀痛三年.”

63)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9일 갑술 2번째기사. “事親孝, 微時家貧,<u>親操薪水奉之</u>”

64) 『중종실록』 101권, 중종 38년 12월 22일 壬辰 2번째기사. “似爲士族, 而窮不能自存, <u>親執薪水</u>”

그러다 17세기 무렵부터는 ‘미염신수(米鹽薪水)’ 혹은 ‘신수미염(薪水米鹽)’등 신수가 쌀·소금과 나란히 쓰여, 생활필수품 혹은 기본 생활물자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 시작하였다.[65]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수비(薪水費)’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신수(薪水)가 생활경비를 대표하게 되는 것은 개항 이후인 19세기 후반이었다. 조선이 청나라와 맺은 조약들에서 청나라나 서양인 관리, 초빙 인력, 청나라 상인 등에 대해서 ‘신수비’라는 조목으로 생활경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66] 육영공원의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도 임금 이외의 지원비로 신수비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67] ‘신수비’라는 어휘 자체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나,[68] 이 말이 조선에서도 생활경비의 의미로 무리 없이 통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수(薪水)가 서울을 위시한 도시 지역에서 상품화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곧, 전근대 사회에서 가내 재생산노동의 핵심이었던 ‘부신급수(負薪汲水)’는 상대적으로 빨리 외주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가사 노동 안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서울에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땔감의 경우, 임산 연료로서의 장작이 도시에서는 일찍부터 시장상품이 되었으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새로운 연료로 대체되어갔다.

특히 한양 도성 안에서는 이미 17~18세기경부터 땔나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시전의 시목전(柴木廛)이 사료에서 처

---

65) 일례로, 『광해군일기(중초본)』 2권, 광해 즉위년 6월 17일 壬申 4번째기사. “但千里遠來, 旅寓荒涼, **米鹽屢絶, 薪水亦艱**, 恐乖廩人繼粟之義.”

66) 1884년 <仁川口華商地界章程>의 제3조 및 1885년 <中朝電線條約>의 제4조 등.

67) 『각사등록』 「總關來申」 光緒十三年七月初七日 (1887년 07월07일(음)) 등.

68) 청실록에 등장하는 1880년의 기사에서 양무정책의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상소가 비용의 의미로 신수를 언급하고 있고(『德宗景皇帝實錄』 卷之一百二十四 光緒六年 十一月 十六日 4번째기사. "所造輪船, 難以適用, 虛糜**薪水**." 제조한 윤선은 운용하기 어려워 “신수”만 허비합니다.), 1899년의 사전인 『劚其照華英字典集成』에서 신수는 이미 봉급, 생활비(stipend)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英華字典 검색 https://mhdb.mh.sinica.edu.tw/dictionary/image.php?book=1887&page=362 마지막 검색일: 2023년 07월 13일)

음 등장하는 것은 17세기부터였다. 16~17세기 이래 서울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온돌의 보급으로 관사와 민간 모두에서 땔감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반면, 조선 왕조는 전기부터 도성 밖 10리 안에서는 땔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였고, 도성 내외 사산(四山)의 벌목도 금지하는 산림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한 중에도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산지는 궁가(宮家)나 사대부가 사점하거나 임의로 개간되는 경우가 만연했으며, 현종대 이래로 금표를 세워 벌목을 막는 조처를 시행하여 영조대 금산(禁山) 지역은 서울 외변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관사에 땔감을 공급하는 공인들뿐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가의 노비들이나 민들 역시 서울 인근에서 땔감을 채취할 수 없었기에 거래를 통해 구매해야 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 인근에서 베어진 나무들이 선상(船商)과 육상(陸商)으로 이루어진 시상(柴商), 곧 나무 장수들을 통해 도성에 공급되었다. 이때 생활의 필수품인 땔나무에 대해 도고(都賈) 행위가 종종 일어나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69] 19세기 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회고에서는 “불을 지필 나뭇단들이 황소의 등마다 산더미처럼 실려 하루종일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다.[70]

일제 지배하의 시기에는 신목(薪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들이 차츰 도입되었다. 석탄과 전기, 가스, 석유 곤로 등이 이미 20세기 전반기에 한국 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이들 새로운 연료가 보편화된 것은 해방 이후가 되어서였고, 농촌 지방에서는 땔감을 산에서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71] 일제 시기에는 산림자원을 공업원료로 공급하고 가정 연료로는 연탄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으나, 가정용 연료로서의 연탄의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뿐이었다. 연탄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온돌에서 연탄용 온돌로 개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연탄가스 중독의 위험성도 컸기 때문이었다. 연탄이 마침내 국민 연료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부터였다.[72]

---

69) 여민주, 「조선후기 서울의 땔감 유통」 『서울과 역사』 제106호, 2020.
70)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53쪽.
71) 김성희,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학지사, 2002, 145-149쪽.
72) 임송자, 「식민지 시기 땔감으로서 신탄과 연탄 이용의 변화 과정」 『사림』 제53호, 2015.

노비의 노동에서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이러한 임산 연료와 관련된 일은 보통 남자들의 일로 여겨졌으므로, 땔감의 상품화는 가내 노동에서 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음을 의미하였다. 시장에서 땔나무를 사면 안마당 등지에 쌓아두었다가 장작을 패는 삯꾼을 불러 삯과 식사를 제공하고 패기도 하고, 나무 시장에서부터 삯꾼이 따라붙기도 하였다고 한다.[73]

한편 전통적으로 여자들의 일이었던 물을 긷는 일도 조선시대 말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물장수가 생겨나면서 남자의 일이 되었다. 서울에 물장수가 생겨난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다만, 1800년대 초쯤 함경도의 고학생이 서울에 올라와 다른 집에 우물물을 떠다 주고 그 노은(勞銀)으로 학비를 충당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시초로 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다.[74] 전우용은 이 이야기에 대해 강한 반론을 제기하는데, 조선시대 서울에 함경도 북청 출신의 고학생이 있을 수 없었고,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이던 사회에서 본래 여자 종이 하는 일인 물 긷기를 남자 '유생'이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며, 단지 일제시기에 북청출신 물장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는 것이다.[75] 그에 따르면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운반 노동자, 곧 물장수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추정이 된다. 그 배경으로는 노비 수의 감소와 더불어 지방 출신의 유민(流民)들이 서울에 증가하여 노비의 천역을 돈을 버는 업으로 삼아 대체해 갔던 것, 18세기 초부터 시작된 개천의 폐색과 우물물의 오염으로 인해 물 긷기가 먼 길을 걸어서 우물물을 길어와야 하는 고역이 된 것, 그리고 19세기 중반부

---

73) 김광언, 『우리 생활 100년, 집』, 현암사, 2000, 248-249쪽.

74) 이러한 구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朝鮮土木事業志(1937)』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1913년 9월의 조사를 간략히 소개하며, 1913년 당시보다 100년 전쯤 우물물을 떠다 주고 학자금을 충당한 고학생의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함경남북도, 특히 북청에서 항산이 없는 세민(細民)들이 상경하여 물을 떠다 주는 일을 업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기록이 이후에도 물장수의 기원을 언급하는 글들에서 거듭 인용이 되면서 '1813년경', 혹은 '19세기경 북청 출신 고학생이 최초의 물장수가 되었다'는 말이 자리잡은 듯하다.

75) 전우용, 『우리 역사는 깊다(1)』, 푸른역사, 2015, 229쪽. 1913년의 시점에서도 물장수는 모두 함경도 출신이며, 그 중에서도 북청군 출신이 가장 많았다. 조선조선총독부, 『朝鮮土木事業志』, 1937, 1124쪽.

터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 빈번해지면서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것을 들고 있다.[76]

이렇게 물장수가 하나의 업이 되면서, 물장수끼리 각자가 담당하는 급수구역을 나누게 되고, 10호 내지 20-30호를 단위로 하는 이 구역은 각자의 '물자리[수좌(水座)]'라고 부르며 서로 침범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물장수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갈 때 다른 이에게 본인의 물자리를 매도하는 등의 일이 빈번해지면서, 물자리에 대한 권리는 양도와 매매의 대상인 일종의 재산권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그 매매의 중개인[중상(仲商)]까지 나타났다.[77] 1908년경 서울에는 약 2,000명의 물장수가 영업중이었다고 하며[78], 이 무렵 서울에 있던 서양인들이 가장 많이 사진기에 담은 한국인들도 물장수였다.[79] 헐버트의 관찰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눈에 잘 뜨이는 직업 중의 하나는 물장수"였으며 수익도 상당하여 서울의 밀접지역에서 물장수를 하려면 50-100달러를 주고 자리를 사야 했다. 그리고 "물장수들은 공인된 제도로서 존재하여 방대한 조직을 자랑하고" 있었다.[80] 이러한 물장수 영업에 근본적인 타격을 준 것은 상수도의 부설이었다. 한국의 상수도 시설은 개항기에 부산, 인천, 목포 등 개항장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그중에서도 부산의 상수도 부설이 가장 빨라서 서울보다 약 13년이나 빠른 1895년 1월에 준공되었다.[81] 서울의 상수도는 전차, 전기 등을 도입한 바 있는 미국인

---

76)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311쪽-313쪽. 사실상 조선 후기까지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수인성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전우용은 1821년부터 콜레라의 침습을 겪고 나서 조선 사회에도 질병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을 것이라 추측했다.

77) 조선총독부, 『朝鮮土木事業志』, 1937, 1124쪽. 김재호는 물장수 영업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물자리, 즉 급수권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매매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며, 물자리 확보에는 급수구역 내에 신참자의 진입을 막고 물장수 간의 영역 분쟁을 막는 것이 관건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영업상의 특성과 물장수가 함경도인, 특히 북청 군민과 같이 강한 지역적 연고를 갖는 타지인에 의해서 독점되다시피 한 것은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金載昊, 「물장수와 서울의 水道 -'측정' 문제와 제도변화-」 『經濟史學』 제23호, 1997, 131쪽.

78) 『황성신문』 1908. 6. 28.「잡보 급수상인회」 ;『대한매일신보』 1908. 6.17.「잡보 수상수효」

79) 전우용, 『우리 역사는 깊다(1)』, 푸른역사, 2015, 229쪽.

80) 호머 헐버트, 신복룡 역,『대한제국멸망사』,평민사, 1984, 75쪽. (金載昊, 앞의 논문, 1997, 128쪽 재인용)

콜브란(H.Collbran)과 보스트위크(H.R. Bostwick)의 회사가 공사를 맡아 1908년 8월에 준공되어 급수를 시작하였다.[82] 다만 서울 상수도 급수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물장수들이 수돗물을 배달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대량 실직을 막아주는 조처가 취해졌다. 당시에 이미 물장수들의 단체로 일종의 수상조합(水商組合)[83]이 있어서 상수도 운영을 담당한 대한수도회사와 협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급수전 511개 중 공용 급수전 200개를 물장수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단체 '수상야학회'에 공영전 열쇠[수통개금(水筒開金)] 200개를 지급하였으며, 수상야학회에서는 이를 물장수에 분급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게 하였다.[84]

그러나 1911년 서울의 상수도 경영권이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후, 물장수에 의한 급수가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85] 결국 1914년 조선총독부가 수상조합에 대해 실업 구제금 등의 명목으로 정리비용 37,900여 원을 주고 수상조합을 해산시키고 기존의 공용전 임대 방식은 폐지함으로써, 물장수들은 공식적으로 수돗물 급수 체계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대

---

81) 인천의 경우 1906년 11월에 기공, 1910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목포의 경우 1908년 11월에 기공, 1910년 5월에 준공되었다. 한반도 상수도 시설의 도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孫禎睦,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일지사, 1982, 144-153쪽 참고.

82) 콜브란-보스트위크는 1903년 12월 9일에 고종황제로부터 상수도의 시설 경영에 관한 특허를 받았으며, 1905년 8월에 특허권을 영국인들이 설립한 대한수도회사(Korean Water Works & Company)에 양도하고 수도 부설 공사를 맡았다. 준공 직후에는 대한수도회사가 경영을 맡았으나 1911년 1월에 일본의 시부사와(澁澤) 재벌에 매도되었고 두 달 남짓 운영되다가 그해 4월 1일 英貨 285,000파운드(日貨 2,806,153원)로 조선총독부에 매각되었다. 손정목, 위의 책, 144쪽-146쪽 ; 金載昊, 앞의 논문, 117-141쪽.

83) 더 정확하게는 물지게꾼 중심의 水商夜學會와 우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일종의 자본가 계급에 가까운 水業會議所로 나뉜다. 대한수도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 것은 수상야학회였다. 물장수 조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金載昊, 위의 논문, 130-151쪽 참고.

84) 金載昊, 위의 논문, 132-141쪽.

85) 1912년 매일신보는 수상조합에 대해 '개인의 경영에 불과한데 일개 관청을 자처하듯 물값을 받되, 각 민가나 동리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임의로 가감하며, 빈한한 인민이 물값을 미처 지급하지 못하면 함부로 민가에 돌입해서 물건을 압수하거나 부녀자를 협박한다'고 비난하고, 수상조합을 타파하고 경성내 오부에서 직업 영업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보』 1912. 12. 14. 「水商組合은 인민의 怨窟 - 수상조합의 부정당」

신 공용전 수돗물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열쇠와 감찰을 주어 직접 떠가도록 하고 물값은 가옥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86] 그러나 수돗물의 이용이 보급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물의 이용과 물장수에 의한 물배달은 일제시기 통틀어 지속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물을 긷는 일이 남성의 일이 되는 것은 상품으로 대체된 이후였다는 점이다. 1920년대 신문 기사들에서 집안일을 하는 행랑어멈과 물을 길어오는 행랑아범을 나란히 언급할 만큼[87], 이 시기에는 물의 공급이 행랑어멈이 아닌 행랑아범의 일이었다.

종합하자면, 이미 성별화되어 있던 가내 노동 중에서 남성이 주로 맡던 노동들은 시장 상품이나 새로운 자원 및 설비로 대체되고, 여성들이 주로 맡던 부엌일과 같은 노동들은 외주화되지 않고 남았다. 따라서 자본주의화는 남성의 가내 노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며, 이는 결국 가사 노동을 계속해서 여성이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88] 가령, 조선 후기부터 시작된 행랑살이가 20세기 전반기까지 지속이 될 때, 행랑어멈은 주인집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주는 반면, 행랑아범은 날품팔이 등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된다. 곧 하인의 노동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미루어보아도, 남성은 집 밖의 임금 노동자로 자리매김하고 대부분의 가사 노동이 여성의 몫으로 남게 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것은 도시 지역에서 여성의 생업으로서 가사서비스노동이 유력하게 등장하게 되는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 2. 도시화의 진전과 행랑살이의 확산

---

86) 『매일신보』 1914. 4. 24. 「경성 수도의 배달 급수는 폐지- 큰 관계가 있으니 자세히들 보시오」

87) 『동아일보』 1928. 03. 02. 「돈벌이하는 여자직업탐방기 (8) 삼천세계에 몸부칠곳 업는 안잠자기와 행랑어멈(上)」

88) 루스 코완은 미국사에 있어서도 가내 노동에서 남성과 아이가 주로 담당하는 노동은 외주화되고 여성들이 담당하는 노동은 줄지 않았던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 한국사에서 있어서 비슷한 맥락을 먼저 지적한 것은 김성희이다. 루스 코완,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학지사, 1997 ; 김성희, 앞의 책.

가내 하인들에 의해 수행되던 가사일은 노비노동의 형태를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행랑살이'였다. 행랑살이는 다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한국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 행랑(行廊)이란 상류층 전통 가옥에서 하인들이 거주하던 공간으로, 대문을 둘러싼 바깥 건물채를 말한다. 행랑채 건물 한가운데에는 대체로 대문이 있고 좌우로 여러 개의 방과 마구간, 청지기방, 헛간, 곳간 따위의 공간이 들어선다. 살림의 규모가 큰 상류 가옥의 행랑채는 10여 칸이 더 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줄행랑'이라고 불렀다.[89]

다만 이때 행랑이 부속된 가옥 형태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지는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촌 양반가의 노비들은 앙역노비라 할지라도 독립된 가옥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90] 상전가 주위에 세운 규모가 작은 노비들의 집을 경상도 지역에서는 '가랍집', 전라도에서는 '호지집'(또는 호제집), 평안도에서는 '마가리집', 황해도에서는 '윳집'이라고 부르고,[91] 충청도 지역에서는 '호젓집'이라고 불렀다.[92] 즉, 특히 양반가의 행랑채가 두드러지는 것은 노비들의 가옥을 따로 두기 힘들었던 서울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양반가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노비들을 행랑채에 거주하게 하며,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위세 있는 양반들이 하인들을 시켜 상민들을 행랑채에 잡아 가두고 사형(私刑)을 가하는 일이 1900년대 초까지도 벌어졌기 때문에, 1890년대 후반~1900년대 초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과 같은 언론들은 이러한 '행랑구류(行廊拘留)'를 자주 문제시하고 '구시대 악습'으로 비판하였다.[93]

행랑채에 거주하는 행랑살이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노비제도가

---

89) 김광언, 『우리 생활 100년, 집』 「4. '아랫것들'의 행랑채」 현암사. 2000, 50쪽.

90) 호적상 독립호를 구성하지 않는 솔노비 가운데에도 그들의 독립 가옥에 거주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호적류에서 이들을 '率居秩'로 쓰지 않고 '率秩'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건태, 앞의 논문, 2004, 121쪽.

91) 김광언, 앞의 책. 50쪽.

92) 김현숙, 앞의 논문. 436쪽.

93) 『독립신문』 1898.06.23.「전 감역 정기호씨가」; 『독립신문』 1898.07.04.「량반행악」; 『독립신문』 1898.11.01.「토호악습」; 『황성신문』 1898.10.23.「班習甚惡」; 『황성신문』 1905.02.11.「行廊拘留」 등

점차 해체되면서부터였다. 한때 노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40%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될 정도로 전근대 한국사회는 노비제가 성행하였으나, 조선후기로 오며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쇠퇴해가고 있었다. 조선후기 토지가 희소해지고 노동집약적 농법이 발달하게 된 결과 양반들의 농업경영 방식은 농장제에서 병작제로 변화해 갔으며, 농업 경영에 노비의 노동을 투여하는 것은 점차 비효율적인 일이 되어갔다. 한편 노비를 제한하고 양인을 증가시키려는 국가 정책으로는 현종과 영조대 두 차례의 공노비 신공 감면과 영조대 도망 공노비의 추쇄 폐지, 정조대 형벌 노비 연좌제 폐지 및 구활 노비의 신분 세습 금지 등이 있었으며, 순조 원년(1801)의 왕실 및 중앙 각 사의 관노비 혁파를 들 수 있다. 18세기부터 이러한 일련의 법적 조치들은 차차 노비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는데, 1895년 갑오개혁에 의해 법적 신분제가 철폐됨에 따라 마침내 노비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노비 신분에서 해방된 이들 중 일부는 주인집을 떠났으나 다른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한 일부는 그대로 주인집에 남았다.

노비들 일부가 행랑을 떠난 후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거처할 곳 없어 상류층 가정에 몸을 의탁하고자 하는 하층민들이었다.[94] 특히 이들 중에는 고향에서 살아갈 터전을 잃고 도시로 왔던 이촌향도의 이주민들이 많았다. 즉, 행랑살이는 지방에서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 큰 도시로, 특히 서울로 지방민들이 몰려드는 방식의 도시화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었던 주거 형태였다.

일제 식민지기를 통괄하여 빈번하게 발생한 각종 재해들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어 행랑살이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28년 기사에서는 심각한 한해를 입은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행랑

94) 서울로 들어온 지방출신의 유민들이 행랑에 몸을 의탁하는 방식은 조선후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조성윤은 1851년 뚝섬 주민 저항 운동에 참여했던 뚝섬 주민 가운데 국수장수 원치성(元致性)이라는 인물이 행랑채를 빌려 살고 있었던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이 시기 세거(貰居) 또는 차거(借居)하는 부동층이 광범위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조성윤,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 증가와 공간 구조의 변화」 『사회와 역사』 43호, 1994, 123-124쪽.). 그러나 전 시기와 비교해'행랑살이'가 두드러지게 확산된 것은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살이를 하러 남부여대하고 온다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95]

> 그 중에서도 한발이 심한 황해도와 강원도의 소작인들은 벌써 단념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행랑살이를 하더라도 남보다 먼저 서둘러야 된다고 남부여대 서울로 모여드는 빈민이 많아 경성역이나 청량리역 같은 데에서 방향없이 배회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더라

특히 강원도는 당시 행랑살이 출신지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서울로 떠나와 행랑에 거처하는 이들의 고향인 경우가 많았다. 경성에서 각 도(道) 사람을 평하기를 "황해도 광주리 장사, 평안도 기생, 강원도 행랑살이, 함경도 물장사"한다거나, "행랑살이도 강원도가 제일"이라고 언급하는 식이었다.[96]

한편, 양반가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그 가계 운영 규모나 가옥의 규모를 한 번에 줄일 수 없었고,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살아야 했다. 곧 행랑채를 두는 것은 상류층 가정에서 먼 친척이나 식객을 부양하여 오던 재래의 관습 및 전통적인 가옥 구조와도 연동이 되어 변화가 쉽지 않았다. 1910년대 매일신보는 가옥을 정리하고 노비들을 해방시킨 양반가의 사례들을 모범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일이 귀감이 될 정도로 이례적인 일임을 뜻하는 것이었다.[97]

1920년대 초까지 행랑살이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22년 3월 선우전이 쓴 잡지 개벽의 기사이다.[98] 이 기사에서 선우전은 경성부내 조선인 인구 189,394명 중에서 행랑살이 인구만 약 4~5만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이들이 하층민들의 대다수를 점하여 '행랑계급'이라는 한 계급을 이루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때 4~5만이

---

95) 『동아일보』 1928. 08. 25. 「한해의 대책 재민구제책」
96) 「各道各人」 『개벽』 제48호. 1924.06. ; 「팔도대표의 팔도자랑」 『개벽』 제61호. 1925. 07.
97) 『매일신보』 1910. 09. 02. 「잡보 : 奴婢文券 燒燼」 ; 同, 1910. 09. 21. 「잡보: 兩班의 家政 정리」
98) 鮮于全, 「朝鮮人 生活 問題의 硏究 (其二)」 『개벽』 제21호 1922. 03. 01.

라는 행랑살이 인구 수치를 내놓은 근거는 경성의 주택용 가옥 중 행랑 부속 가옥이 약 7할이며, 그중 약 9할에 행랑 혹은 청랑(廳廊)살이 가족이 입주해 있을 것이라는 매우 조야한 추정이었다.

이러한 행랑살이는 서울의 집 없는 이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선택지였다. 특히 지방에서 상경한 이들은 서울의 주택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는 속에서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어렵사리 집을 구해도 가옥세나 위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99] 행랑도 구하지 못하면 토막[100]에 살거나 노숙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1924년의 기사에서는 토막촌을 찾아간 기자가 행랑살이라도 하지 그러냐고 말하자 토막민 쪽에서 토막에 사는 것이 상전이 없어 편하다고 말하기도 한다.[101] 이로 보아 당시 지방출신 하층민들은 열악한 선택지들 중에서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맞는 생존 전략을 채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행랑살이 노동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래 행랑아범과 행랑어멈으로 불린 내외가 기존 하인들이 수행하던 일들을 대신해주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사일이 여성에 집중되면서 행랑어멈은 주인집의 가사노동을 맡아주고 행랑아범은 밖에서 날품팔이, 인력거꾼, 지게꾼, 생선장사, 고구마장사 등 다른 생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 양상은 "여자만 드난살이를 하고, 남편은 밖에 나가 인력거꾼, 청소부, 지게꾼, 공사장의 잡역부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이 모이는 데가 병문(屛門: 골목 어귀의 길가)으로 자기들끼리 '병문 친

99) 이러한 정황을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1910.06.05. 「허튼수작」 "여보게 자네 행여 행랑살이 면할 생각말게/ 왜 자네는 남의 집에서 천대받는 것이 그렇게도 고소할까/ 허 이사람아 제 집 지니고 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없겠나마는 물 것 때문에 견딜수가 있어야지 업디 그 놈의 가옥세이니 위생비이니 하고 외국인과 순사가 안동하여 다니며 막 두드려 받는데..."

100) 토막은 지면을 파서 그 단면을 벽으로 삼거나 혹은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거적 등으로 벽을 삼고 양철이나 판자로 지붕을 만든 원시주택으로 당대 빈민굴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대개 농촌 경제의 몰락으로 이촌향도한 사람들이거나 원래 도심부에 거주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로 형성 배경이 어떠하든 도시 주변부의 불법 거주자였다.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이데아, 2016, 303-304쪽.

101) 『조선일보』 1924.12.26. 「墳墓中에 人家! 성탄을 기회로 척후대의 례물」

구'라 일렀다. 집을 짓는 데 쓰는 벽돌, 기와, 모래, 흙 따위를 파는 물역(物役)가게에도 모여 있었다. 이들은 가게의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집수리 일도 맡았다."고 묘사되었다.[102]

1920년대 여흥 민씨 집안으로 시집가서 서울 교동에서 한평생 전통적인 반가의 며느리로서 살아온 이규숙은 행랑살이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103]

> 행랑 사람이라구 또 따루 있어. 저 큰 대문 들어시면서 **방 있는 그건 부엌꺼정 있어야 헌다구.** 양반의 집은 그래 행랑이 많어. **그름 그 사람들은 여자는 들어와 일을 허구 남자는 나가서 생선 장사를 한다든지 자기 벌이를 한다구.** 그르구 그는 어느 때 씨는고하니 무신 때 방아 찧는 것만 해 줘. 둘이 서서 방아질 허는 거. 그르니 둘은 둬야지. 그르니 옛날엔 행랑이 열둘은 있어야 헌다구. 밥허는 사람, 영감은 심부름 해야지, 불 때야지, 마당 씰어야지, 떡방아 빨 새가 없거든. 둘이서 방알 빠야 하니께 둘은 둔다구. **방만 거저 주구**. 그 땐 나 놋그릇들 씨니까 다달이 딱어야 허잖어. 그거 누가 해. 그르니 **여자는 안에서 놋그릇을 닦든지, 빨래를 허든지, 소제를 허든지, 남자는 나가 벌구.** (강조-필자)

즉, 행랑살이는 행랑채의 부엌까지 딸린 방에서 지내게 해주는 대신 주인집을 위해 수행하는 가내노동에 대해서는 따로 금전적인 보상이 없어서 행랑아범은 밖에 나가서 벌이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허드렛일로 여겨지는 가사노동일지라도 그 집 행랑살이가 아닌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해주는 노동이 될 수 있었다. 가령 돈을 받고 빨래를 대신해주는 표모(漂母)들이 있었던 사례를 볼 수 있다.[104] 이러한 성격을 종합하면, 하인의 노동을 계승하면서도 거주 공간을 얻는 대가로 주인집의 가사 노동

---

102) 김광언, 위의 책. 50쪽. 행랑아범은 따로 생계를 위한 독립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1930.10.17. 「最下層哀話 행랑사는十歲少年」 ; 『동아일보』 1933. 02. 17. 「스피드행진곡 자동차 등살에 인력거 수난」 등

103) 구술 이규숙, 편집 김연옥,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반가 며느리 이규숙의 한평생(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4))』, 뿌리깊은나무, 1984. 71쪽.

104) 『조선일보』 1924.12.30. 「겨을밤의 가지가지(九) 마를새업는 치마자락 밤중까지 빨래질」

을 해주는 행랑살이 노동의 교환관계는 자본주의화로 경제외적 예속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중간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행랑살이와 주인집의 관계가 과도기적이고 중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음은 상호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으로도 나타났다. 본래 하인의 거주공간이었던 행랑채는 건축 구조상으로도 주인의 사랑채나 안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낮은 위치에 지어지는 등 신분 간 위계를 반영한 건축물이었다.[105] 주인집은 행랑살이에 대해 상전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행랑채에 살게 되면 '행랑것'이라고 불리는 등 일상적으로 하대를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자가 생기면 바로 내어 보내려 한다거나,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산모를 쫓아내는 등 비인간적 처사도 자주 있었다.[106] 반면 본래 그 집 하인이 아니었으나 행랑살이를 하게 된 이들은 점차 하대를 참지 않으려 하였으므로 양측 간에는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행랑살이와 주인집 간의 인식 차이와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종종 신문지면에 나타나곤 하는데, 비교적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흥미로운 두 가지 사건을 다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935년 10월에 「主婦와 어멈이 싸우고 고소질」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어린 주인집 여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싸움이 나자, 빚을 내어 진단서를 끊은 뒤 상해죄로 고소한 행랑어멈의 이야기였다.[107]

> 주인아씨와 행랑살이 여자가 사소한 일로 싸우고 고소질까지 한 사건이 있다. 부내 인사동 일백십오번지에 사는 리언년(25)은 지난 이십일에 자기 집 행랑에 있는 여자 김성녀(38)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붙잡고 뒤잡이까지 하게 되자 리언년은 "행랑어멈년이 건방지게 주인아씨를 때리는

105) 김광언. 앞의 책, 50쪽.
106) 『매일신보』 1920.05.23. 「非人情!非人情! 冷酷刻薄한 主人, 행랑에 든 사람을 무정히 내여쫓는 각박한 집주인」 ; 『조선일보』 1923.07.07. 「迷信으로 不道德」 ; 同 , 1931.01.18. 「무정한 사회」
107) 『조선일보』 1935. 10. 30. (석간) 「主婦와 어멈이 싸우고 고소질」

것이 무엇이냐"고 그의 멱살을 잔뜩 붙잡은 김성녀의 무명지를 깨물어 약 이주일간이나 치료할 상처를 내었으므로 김성녀는 진단료 십이원각수를 빚내어 가지고 진단을 받은 후 상해죄로 종로경찰서에 고소를 제출하였는데 리언년도 자기도 역시 상처가 났다고 진단을 내어 맞고소를 하였으므로 동서 사법계에서는 리언년과 김씨 둘을 불러서 취조를 진행중이라 한다.

이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둘 사이에 나이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집 여성은 "건방지다"는 표현을 쓰며 하대를 하고 있고, 그에 맞서는 행랑어멈의 대응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폭행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매우 근대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2년 뒤인 1937년 10월에 「行廊사리 업수이보다 懲役五年에 問罪」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가 있다.[108]

행랑살이를 살면서 무슨 건방진 소리냐고 약 젓는 막대기로 머리를 두어번 때리고 상해치사죄에 걸려 법정에 서게 된 부내 락원정 일백삼십삼번지 김수장(金水長) 진찰소 조수 전영준(28)에 관한 공판은 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 주심 지보전 검사관 밑에 열리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가 지난 구월십일일 오후 여섯시쯤 그 약방 행랑에 사는 손경만의 처 류씨에게 물을 져오라고 말하려고 별안간 방문을 열었던 바 손경만은 남의 방문을 열 때에 아무 말도 없이 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여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 사소한 말성 끝에 손경만은 생활이 곤란하여 늙은 사람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홧김에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오후 아홉시쯤에 도러와서 행랑살이를 한다고 그렇게 업신여길 게 아니라고 하여 큰 목소리로 피고 전영준에게 욕설을 하였다. 안에서 약을 쓸고 있던 피고는 이 말을 듣고 약 젓는 막대기를 들고 쫓아나와서 행랑살이가 하기 싫으면 나갈 것이지 무슨 건방진 잔소리냐고 손경만의 머리를 두서너번 때렸던 바 이것이 원인이 되어 손경만은 뇌막에 고장이 생겨서 그이튿날 오전두시에 마침내 죽고만 것인데 재판장의 심문이 끝난 후 검사는 징역 오년을 구형하였다

즉 행랑살이를 한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에 항의하자, 건방지다고 머리를 막대기로 때렸다가 행랑살이하던 남성이 그만 사망한 사건인데, 행

108) 『조선일보』 1937.10.09.「行廊사리 업수이보다 懲役五年에 問罪」

랑살이에 대해 구태의연한 하대를 하였던 가해자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도 아마도 둘 간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행랑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말없이 방문을 함부로 여는 것과, 본인의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랑살이를 한다고 업신여기는 일에 대해 항의하였다.

곧, 두 사건에서 표출된 것은 전근대적인 하인의 대우를 지속하려는 주인집과 그것을 거부하고 근대적인 자의식을 갖추어가는 행랑살이 측의 인식 차이와 충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가사서비스노동에서 보이는 갈등의 양상과도 닮아있다. 가사서비스노동이 하인의 노동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고용주 측에 하인을 대하는 인식이 잔존하게 되었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대우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서로 간에 인식이 충돌하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를 행랑살이 단계에서도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제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랑살이를 둘러싼 담론과 가사노동자의 대우 문제를 둘러싼 담론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3. 병합 전후 일본인 하녀들의 도항과 '외지(外地)'에서의 특징

한편,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는 가사서비스노동과 관련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맥락과는 다른 계통의 관행이 들어오고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의 팽창주의에 힘입어 식민지 조선으로 도항하는 일본인들 중에는 초기부터 일본인 하녀들의 비중이 상당하였으므로, 우선 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지속하게 한 동력 중 하나는 맬서스적 위기에 대한 공포였다. 실제로 일본의 인구는 인구통계를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매년 약 30~40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구증가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이주나 식민을 통해 인구를 해외로 배출하자는 '이식민론(移植民論)이었다.[109] 이식민론이 대

109) 이후 일본의 인구는 1910년대에는 약 50~60만명, 1920년대에는 약 90~100만명

두된 것은 메이지 중기인 1880년대 말부터였으며,[110] 일본은 이미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 증가폭이 크지만 이를 감당할 토지와 식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빈곤이 필연적이라는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잉 인구를 해외로 배출하자는 논의는 차츰 해외 상권(商權) 및 해상권(海上權)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합되기 시작하였다.[111] 청일전쟁 이후에는 더욱 노골적인 팽창주의 담론의 근거가 되었는데, 한 예로 러일전쟁의 개전을 촉구한 도쿄제국대학의 교수들, 이른바 '7박사'들은 당시 매년 5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들며 장래의 인구 과다로 인한 식량 부족, 거주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러일전쟁 이후에 조선 및 만주로의 식민을 주장하는 논의에서도 인구 문제는 주요한 근거로 거론되었다.[112] 이렇듯 인구압에 따를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은 근대 일본 정부가 줄곧 자국 인구를 배출하는 이민, 식민(植民) 혹은 척식(拓殖)에 정책적으로 주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주요한 명분이 되어주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한국으로의 도항 역시 실질적인 병합에 훨씬 앞서서 개항 직후부터 정책적인 뒷받침과 장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쓰시마 출신자에게만 도항을 허락했던 기존의 '조선도항규칙'을 철폐하고 1878년에는 여권의 발행지를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마네, 후쿠오

---

씩 증가하였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식량부족을 일본 사회에 강하게 인식시킨 1918년의 쌀소동 사건을 거쳐 1920년대 들어서는 전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중반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인구문제였으며, 일본 정부는 1927년에 "인구식량문제조사회"를 발족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구 증가에 따른 과잉인구를 둘러싸고 대책을 강구하던 정부의 인식은 중일전쟁 이후 전쟁의 장기화, 총력전화를 계기로 '인구증식론'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인구대책의 초점은 역으로 '노동력=인적자원'의 확보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 이식민론과 관련한 일본의 인구문제 논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양신,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동북아역사논총』 65호, 2019를 참고.

110) 이 시기 이미 맬서스의 이론이 일본사회에 정착하였다. 맬서스 이론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877년 マルサス(馬爾去斯), 大島貞益 譯, 1877, 『人口論要略』, 有吉三七를 통해서였고, 이후 1870-80년대 시기동안 이에 대한 각종 비판과 논쟁이 더해지면서 일본 사회에 크게 확산되었다. (吉田秀夫, 『日本人口論の史的研究』, 河出書房, 1944,)

111) 吉田秀夫, 『日本人口論の史的研究』, 河出書房, 1944

112) 박양신,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 『동북아역사논총』 65호, 2019

카, 가고시마, 나가사키 현의 이즈하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2엔이었던 여권 수수료도 조선행 도항자는 50전으로 할인해 주었다. 1881년의 '거류인민영업규칙'과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재조선국 일본인민통상장정'으로 일본 상인의 조선 내지 침투와 영업활동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해외 도항 허가를 엄격하게 규정했던 '이민보호법'과 '여권발급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도 연속하여 이루어졌다. 가령, 1895년부터 거류민 중 일시적으로 귀국한 자는 재도항허가증이 필요없었으며, 특히 어업을 목적으로 한 진출은 여권이 필요없게 되었다. 1903년부터는 출발시기 절박 등의 이유로 여권 지원접수의 겨를이 없는 경우 굳이 그것을 요하지 않았을 만큼 여권의 발행이 유명무실해졌고, 러일전쟁 하에 있었던 1904년에는 마침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선으로의 도항은 여권을 휴대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자유 도항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장려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였다. 『제국통계연보』에 기재된 「해외여권부여수」에 따르면 조선으로의 도항자는 1876년부터 1904년까지 연평균 2,686명에 달하고, 특히 하와이 <관약이민>이 개시되기(1885) 전까지는 조선이 최다 도항 목적지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을 계기로 도항자는 더욱 격증하였으며, 병합시점(1910년 12월 말) 17만여 명에 이르렀던 재류자 수는 당시의 해외재류 일본인 중 최대규모였다.[113]

초기의 이주는 대개 당시'출가(出稼)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던 단기 노동 이주로서 단신(單身)의 남성들이 주가 되었고, 이것은 이주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초기의 단기 이주에도, 특히 식민권역으로 '진출'하는 이주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 근대 일본 인구 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듯이,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114]'으로 불리던

113)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1989 ; 이규수,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태-수량적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25, 2013

114) 문자 그대로의 뜻은 '당나라로 가는 사람들'(唐行き様)이다. 원래는 가난한 남녀가 해외로 가서 일하는 것이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규슈의 서북부 지역에서 사용되었지만, 19세기말~20세기 초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 성판매 여성들이 크게 늘면서 그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여성들이 유흥업과 성판매를 매개로 해외이주민의 주요 구성원이 되어 일본의 세력권이 팽창함에 따라 그 최전선까지 함께 이주하였던 것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종종 남성보다 앞서서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기도 하여, 19세기 후반~20세기초 동아시아 각지에 형성된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개항 이후부터 병합 전후의 시기까지 재한일본인들의 직업 구성을 살펴보면 단신 노동 이주의 여성의 경우, '창기(娼妓), 예기(藝妓), 작부(酌婦)'등으로 분류된 유흥업 여성들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잇는 것이 하녀(下女), 하비(下婢) 등으로 분류된 가사노동자들이었다. 특히 병합 이후로는 식민지 관리가 늘면서 경성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1911년 6월 말 서울 거주 일본인의 직업별 통계를 보면 1위 관리 2,134명, 2위 상점원 1,478명, 3위 임시직원 1,269명, 4위 하녀 993명, 5위 목수 961명으로 나타나 하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15]

이처럼 일본의 식민활동과 함께 경제적 하층민 여성들의 노동 이주 반경도 확장되었고, 이들은 주로 유흥업과 성판매, 가사서비스노동 등의 직업을 매개로 이주하였으므로 일본인 하녀들이 조선까지 도항할 수 있었다.

초기에 한국으로 도항한 일본인 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을까? 우선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미혼의 여성이 본인의 집을 떠나 타가의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전통이 이미 존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조추(女中) 봉공(奉公)이라고 칭하였다.[116]

일본 사회에서는 당시 가내 하녀일을 하는 여성들에 대해 '조추(女中)'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에도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에도시대 쇼

115)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 1912, 430쪽-432쪽

116) 봉공(奉公)은 타인에게 몸을 의지하여 섬긴다는 뉘앙스로 에도시대에는 생가를 떠나 타인의 집에서 일하며 돈을 버는 것을 봉공이라 일컬었다. 호오코오라 일컫게 되었다. 창기 봉공, 여중 봉공 . 박정애는 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에서 창기(娼妓) 봉공, 조추(女中) 봉공 등의 용례로 쓰인 것에 대해, 계급사회의 수직적 차별이 드러나는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고 당대의 맥락을 밝히기 위해 '호오코오'라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였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Ⅱ-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계-』 2021, 11쪽.

군가의 오오쿠(大奥)에서 일하는 여자들에 대해 카미조추(上女中), 中女中, 시모조추(下女中)이라는 구분이 있었는데, 메이지 말기무렵부터 시모조추(下女中)에서 유래한 조추(女中)라는 말이 종래의 "하비(下婢)", "하녀(下女)"를 대신하여 가사사용인에 대해 쓰이기 시작하였다.[117] 본래 '조추'가 되는 일은 조추 봉공(奉公)이라고 불리었던 만큼 "각자의 계급에 맞는 수행"으로 여겨졌고, 돈을 벌기보다도 결혼하기 전에 예의범절이나 가사를 익힌다는 의미가 컸다.[118] 메이지 시대에 오면 이 일은 농촌 처녀들의 출가노동이자 임금노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유제의 성격이 남아있어서 있어서 일반적인 임금노동보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되었다. 즉,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일하는 집의 지위나 기존의 신분관계가 고용주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오사카에서 큰 비료미곡상 사업을 하던 히로우미(廣海)가의 사례를 보면 그 집에서 일하던 조추 카네(かね)는 아버지가 주인집에서 소유한 산림의 일을 돌보면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근 지역에 살면서 주인가와 인적 관계로 묶인 하층민 집안이었던 것이다.[119] 결혼 전 가사와 예의범절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적도 여전히 유효했다. 1910년에 여성잡지 『부인세계(婦人世界)』에 올라온 「조추소개란(女中紹介欄)」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구직자들이 급료에 대해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급료를 바라는 경우도 용돈 정도나 학교의 월사분 정도를 기대하고 크게 상관하지는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120]

여성들은 주로 결혼하기 전까지 일을 했는데, 일하던 '조추'가 결혼할 때가 되면 주인집에서는 여러 가지 혼수나 옷을 마련해주고, 일을 그만

117) 奥田暁子 編著, 『(日本女性史再考) 女と男の時空－(10)鬩ぎ合う女と男ー近代[下]』, 藤原書店, 2000, 377쪽.
118) 단순히 가난하다고 조추 봉공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이묘 오오쿠의 봉공은 딸 가진 부모들의 선망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内田蘆庵, 「女中問題の考察」 『부인공론』 7월호, 1922 (奥田暁子 編著, 위의 책, 377쪽에서 재인용)
119) 荻山正浩, 「第一次大戦期における家事使用人 －周辺から捉えた大戦景気の労働市場－」 『土地制度史学』 제41권 4호, 1999, 쪽.
120) 奥田暁子 編著, 『(일본여성사재고) 女と男の時空－(10)鬩ぎ合う女と男ー近代 [下]』, 藤原書店, 2000, 쪽.

**[표 1-1] 1897년 개항지 인천과 일본의 일본인 임금 비교**

(단위 : 錢)

| 직종 | 인천 | 일본 국내 |
|---|---|---|
| [大工] | 80-115 | 44 |
| [左官] | 80 | 43 |
| 석공(石工) | 80 | 47 |
| 일용노동자[日雇] | 60 | 29 |
| 하인[下婢] | 350~500 | 복(僕) 226 비(婢) 124 |

출처:『東邦協會會報』제38호, 1897, 85-86쪽. (木村健二,『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1989, 17쪽, 재인용)

비고: 하인의 경우는 월급(月給), 다른 것은 일급(日給)이다.

둔 이후에도 각종 길조사에 초대하고 집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등 단순히 고용인에 그치지 않는 대우를 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리를 바탕으로 거의 평생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1910년 한 잡지사에서 오랜 기간 같은 집에서 근속한 하녀들을 조사해서 표창하고자 했을 때, 근속 연수가 35년, 54년, 74년에 이르는 이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고, 2-3대에 걸쳐 주인가를 모시고 있는 충의를 자랑스러워하였다.[121]

그러나 기존의 사회관계나 인맥 등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외지(外地)'로 나와서 가사사용인으로 일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제외적인 반대급부나 의리를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다. 조선으로 도항하는 일본인들 중 사족 출신의 비율은 본국보다 낮았고,[122]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간 이들이 남긴 회고록에 일본 시골에서 여전히 봉건적 관습이 남아있는 것에 놀랐다고 할 정도로, 식민지에서는 전통적인 신분 관념이 희박하였다.[123]

다만 급료가 본국에 비해 훨씬 높았고, 여성들은 오로지 이 높은 임금을 바라고 한국까지 도항해 왔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병합 이전인 1897년에 도항한 일본인 노동자들이 개항지 인천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일본 국내와 비교하여 대략 2배 정도 높았고, 특히 하녀의 경우 일본보다 3배~5배까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

121) 奥田暁子, 위의 책
122) 木村健二, 앞의 책
123) 사와이 리에, 『엄마의 게이죠, 나의 서울』, 신서원, 2000

다.[124] 그리고 강제병합을 전후한 시기에는 한국으로의 도항을 선전하는 일종의 안내서들도 다수 출간되었는데, 그중 한 책은 한국에서 유망한 직업으로 하녀를 첫 순위에 꼽았다.[125] 1911년 당시는 이미 도쿄에서 가사사용인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외지의 임금 인플레이션은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유인 요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일본 본국에서 하녀의 급료는 높아야 3원 50전에 그칠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1개월 7,8원에 달하고 10원씩 받고 있는 자도 적지 않으며, 관리가 있는 관사와 상가들이 모조리 하녀가 부족해서 곤란하기 때문에 얼마를 주고서라도 고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지도와 소개가 있는 믿을 만한 곳이기만 하면, 5년 근속으로 적어도 500원의 돈을 모을 수 있고, 14~15살의 여자가 아이보기로 입주한 뒤 이어서 4-5년의 하녀 봉공까지 하고 저축을 한다면 이자를 쌓아서 족히 1천엔의 돈은 모은다. 여자의 직업 중에서도 유망한 것이다. 아이보기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126] 1914년 무렵까지도 조선에 在住하는 일본인 하녀의 급료는 일본 제국 내에서도 가장 높아서 너무 비싸다는 평판을 듣는 편이었다. 경성의 경우에 한정해 살펴보면, 보통의 식모[(お三]에서 나카바타라키(仲働き)[127], 침모[お針], 보모[子守], 타키무데(焚き撫で)[128]로 대별되는 그 업무에 따라 실제 급여는 차이가 있었다. 식모[お三]는 한 때 8~9원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으나 이 무렵에는 크게 내려서 5,6원이 통례가 되었다. 나카바타라키(仲働き)는 하녀 중 비교적 임금이 높은 편이라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침모[お針]라면 8~9원이 시세이고 보모[子守]는 4~5원 이하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임금이 가장 높다는 고베(神戸)에서 5~6원 이하를, 도쿄에서 4원 이하를 받을 수 있었고 센다이(仙臺) 주변은 하녀의 임금

124) 이러한 외지의 고임금은 실제보다도 훨씬 부풀려져, 조추들의 해외 밀항을 부추기는 취업사기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醜業婦のはなし1900年3月10日～11日 (門司の輸出振り)(門司新報) ; 九州醜業婦誘拐の眞相(1898)(某探偵の談)(門司新報 7月6日)
125) 佐村八郎, 『渡韓のすすめ』, 樂世社, 1911, 쪽
126) 佐村八郎, 위의 책
127) 내실 쪽의 일을 하는 하녀와 부엌일 하는 하녀 사이의 중간적인 잡일을 하는 하녀
128) 하녀이면서 첩인 여자

이 1원 내외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과 조선간의 급여 차이가 확연했음을 알 수 있다.[129]

임금은 조선까지 오는 여비를 포함하여 일년치를 한꺼번에 전차금(前借金)조로 받는 형태가 많았다. 이것 또한 일본 국내의 사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래 조추의 급료는 연급(年給)으로 주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즉시 가불해 주기도 하는 등 융통성이 발휘될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조추로 일할 젊은 여성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조추들의 전직(轉職)이 빈번해지자 월급(月給)의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섬유공업이 크게 발달하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를 거치며 월급이 대세가 되었던 것이다.[130] 조선으로 도항한 하녀들에게 이주 초기에 큰돈이 선금으로 주어지는 것은 조선에 도착해서 주인집을 쉽게 옮길 수 없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한 소설에서는 주인집에 대한 불만이 큼에도 불구하고 선금에 묶여서 옮길 수 없는 일본인 하녀의 사정이 그려지기도 하였다.[131] 대신에 선금에 묶인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녀들의 이동은 빈번했다. 간혹 경성에 와보고 하녀의 급료가 너무 높은 것에 놀라서 자신의 고향이나 전임지에 돈을 보내 싼 급료의 하녀를 데려오려는 이도 있었으나, 어차피 조선까지의 여비나 낯선 땅에서 병을 앓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본에서 3~4원의 급료에 기꺼이 왔던 하녀라도 조선에 와서 시세를 알게 되면 다른 집으로 옮겨 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132] 따라서 이 일은 외지에서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더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전통적인 관습이나 경제외적인 요소가 약해지면서 급료를 위시한 경제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으로 도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끊임없이 불온한 것으로, 위협받는 것으로 여겨졌다. 당시 잡지 기사들에

129) 匪之助,「京城の下女研究」 『朝鮮及滿洲』 1914. 06.
130) 荻山正浩, 앞의 논문, 쪽.
131) 鹿島龍濱,「見勝手」 『朝鮮』 第3卷 第2號, 1909.4
132) 匪之助, 앞의 글.

는 타락하기 쉬운 '식민지 여자'들의 기질을 논하고, 도항한 부인들의 정조를 강조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하였다.[133] 특히 단신(單身) 출가 노동으로 온 하녀들은 성판매 여성과의 경계가 미약한 것으로 여겨졌고 실제로도 그런 위험에 자주 직면하였다. 이것은 당시 재조일본인사회의 인구구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한국의 일본 이주민 집단은 다른 지역 이주민들에 비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되었으나,[134] 적어도 1910년대까지는 가족 단위가 주가 되는 영구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의 성격은 아니었다. 따라서 남성의 단신 이주 비율이 훨씬 높았고, 이들에 의한 하녀의 수요는 가정의 수요와는 다른 성격이 있었다. 즉, 하녀이면서 동시에 현지처의 역할을 해주는 여성들을 원했다. 이 여성들은 "간사이(韓妻[135])" 혹은 "조선뇨보(朝鮮女房)"라고 불리었고, 조선의 지역내에 한정해서는 부부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수입이 높은 관리나 회사원, 상인 등이 이러한 현지처를 둔다고 이야기되었다.[136] 주로 하녀로서 일을 하던 중에 현지처가 되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창기나 게이샤 등과는 "계통이 다른 보통의 여자"라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에 와서 지내다가 한처(韓妻)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의도하고 조선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며, 밀매음(密賣淫)이나 유곽의 여성들과 함께 묶어 타락하게 되는 여성으로 보았다.[137] 이렇게 일본인 현지처가 성행했던 사정은 초기 재한일본인 측에서 하녀들에 대한 수요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서구의 제국주의 등과는 달리 자국의 여성

133) 재조일본인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대표적인 잡지였던 『朝鮮公論』 및 『朝鮮及滿洲』에 실린 기사 사례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朝鮮公論』 1권1호 1913.4, 「植民地の女」 ; 『朝鮮公論』 3권 8호. 1915.8. 「刺激に狂へる京城の女」; 『朝鮮公論』 4권 3호 1916.3, 「植民地女の気分」 등

134) 특히 키무라 겐지(木村健二)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비식민권으로의 이민 이주와 식민권으로의 이주를 구별하고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35)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완사이[灣妻]" 만주에서도 "만사이[滿妻]"가 있었다고 한다. (송혜경,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여성의 위상과 식민지주의 – 조선 간행 일본어 잡지에서의 간사이(韓妻) 등장과 일본어 문학」 『일본사상』 제33호 2017)

136) 一記者, 「朝鮮女房の研究」 『朝鮮及滿洲』 1912. 7. 제55호

137) 一記者, 위의 글; 匪之助, 「認められぬ京城の女職業」 『조선급만주』 1913.11; 同, 「京城の下女研究」 『朝鮮及滿洲』 1914.6.

을 점령지로 보내 성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도 엿보게 한다.[138]

따라서 일제 초기에는 일본인 측에서 조선인 가사노동자를 찾으려는 경우가 드물었다. 1910년대 중반의 기사에서는 일본인 하녀를 대신해서 조선인 총각이나 할머니를 사용하는 가정도 간혹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또 조선인을 고용하는 일에 대해 "솜씨가 좋은 자를 채용하면 대단히 순종적이고 일을 잘할 뿐 아니라 급여도 경제적이나, 불결한 행동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등 쓸모없는 자도 많은 점이 곤란하다"고 평하면서, 적당한 독지가가 있다면 조선인 하녀 학교를 세워서 순종적이면서 급료도 저렴한 이상적인 하녀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139]

이러한 사정은 192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식민지 조선의 인구문제를 연구했던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는 1923년말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일본인의 1세대 평균 인구가 비교적 적다고 지적하며"내지인(內地人) 중에 아직 조선에 정주(定住)하는 각오를 가진 자가 적고, 내지(內地)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가주자(假住者)나, 독신의 출가인(出稼人)이 많은 증거"라고 평했다.[140] 또한 남자 1000명에 대해 여자가 893.3명, 곧 여자 인구 100명에 대한 남자 111.9명인 재조일본인의 성비를 거론하며[141],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를 심하게 초과한 결과, 그 생활은 자연히 황량하고 살풍경해지고, 따라서 예기(藝妓), 창기(娼妓),

---

138)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제 정책결정자나 식민자 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중심적이고 도구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며, 일본인 여성은 서로 배타적인 두 집단, 즉 여성적 도덕을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하는 '보통' 여성들과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제국의 팽창을 위해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로 구분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들은 식민지에 '명예롭지 못한' 일본 여성이 존재하는 것을 일종의 '필요 악'으로 생각했다.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부 여성 식민자」 『사회와 역사』 제103집, 2014

139) 匪之助, 「京城の下女研究」 『朝鮮及滿洲』 1914.6.

140) 善生永助, 『朝鮮の人口問題』, 朝鮮印刷株式會社出版, 1926, 50-63쪽.

141) 일반적으로 성비가 90미만이거나 110이상일 경우 남녀의 구성비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며, 성비를 그렇게 만든 비정상적인 사회적, 정치적 또는 자연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대한민국 성비는 99.3을 기록하였다.

작부(酌婦), 매음(賣淫), 첩(妾) 등의 수요가 많으며, 유흥, 낭비의 폐단이 커지게 하고, 풍교(風敎)상, 경제상, 보건상 유감인 점이 많다"고 비판하였다. 재조일본인들 다수가 정주(定住)하려는 생각이 없음에 대해서는 "심한 경우에는 이주 농민 중에도 조선으로 도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적지 않다. 경성부에 거주하는 내지인(內地人)의 경우도 그 6~7할이 사망자의 유골을 내지(內地)로 가지고 돌아가서 매장하는 것이 예사이다. 뼈를 팔도의 산하에 묻으려고 각오한 자가 오십만명이나 백만명으로 증가하면, 그때 조선인을 용이하게 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다대한 희생을 치르고 성취했던 일한병합의 참정신을 되새기라"고까지 하였다.[142]

이처럼 1920년대 초반까지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양상은 민족별로 이원화되어 있었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민족간 고용도 드물었다. 그런데 1920년대 중후반을 지나며, 조선인 사회와 재조일본인 사회 각각에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본격적인 가사서비스노동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그러한 분기점에서 나타난 담론들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42) 善生永助, 앞의 책, 50-63쪽.

## 제2절 행랑폐지론과 가사노동자 대우 문제 제기

근대 한국 사회에 가사서비스노동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에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담론으로는 크게 '행랑살이를 폐지하자'는 논의와 타인의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도맡아 하던 가사노동자인 '어멈'에 대해 직업인으로 대우해주고 하대하지 말자는 논의를 들 수 있다. 전자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에 두드러졌다면, 후자는 1920년대 중반 무렵에 조선인 언론에 의해 담론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두 방향의 논의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생산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점차 경제적 관계로 전환해가는 가사서비스노동의 큰 변동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1910년대~1920년대 초반 행랑폐지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랑살이는 신분제라는 경제외적 관계를 통해 타인에 전가되던 가사일이 경제적 관계의 가사서비스노동으로 전환되어가던 과정에서 두드러진 중간적인 노동 형태였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성행하던 당시부터 우호적이지 못했다. 행랑살이는 그것이 가진 구태의연한 특성들 때문에 구습(舊習)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조선총독부 당국과 조선지식인들은 문명화론에 입각하여 이것을 개량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통치 권력의 행랑폐지론은 1910년대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재편 과정에서의 통제와 단속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1910년대 서울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재편하고 대내외에 '문명화'의 성과를 선전하고자 하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143] 대대적인 '부랑

143) 일제의 식민통치기 중 1910년대는 식민지로의 재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군사적 고려에 의한 제반 시설들과 식민지의 경제적 예속을 위한 제도들이 빠르게 준비된 시기였다. 또한 이 조처들이 겉으로는 근대화의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모두 조선의 문명화를 위한 것인 양 선전되었는데, 특히 1915년 시정오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는 총독부의 치적을 자랑하고 조선 문명화를 선전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곧,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조처로서 자신들의 통치를 '문명적 善政'으

자취체(浮浪者取締)'가 행해지고 있었다. 부랑자를 규정하고 단속하는 제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의해서 조선과 대만에 이식되었으며, 조선에서는 1912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발포된 <경찰범처벌규칙>에 따라 부랑자를 단속하였다.[144] 곧 <경찰범처벌규칙>의 첫머리인 제1조와 제2조에서 각각 "無故히 人의 居住 또는 看守치 아니하는 저택, 建造物 및 선박 내에 잠복하는 자"와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諸方으로 배회하는 자"를 구류 또는 과료(過料)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145] 이 규칙은 부칙으로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었는데, 실제 단속은 그 이듬해인 19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14년의 대대적인 부랑자 단속에 이어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1915년 이후로는 이 부랑자 단속이 경성부내 각 경찰서들의 정례 행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 각 도시에서도 진행되었다.[146]

그런데 부랑자로 단속된 대상들 안에는 걸인, 양반, 무뢰배 등 성격이 판이한 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본래 관료 예비군이었던 서울의 양반층은 병합과 함께 관직 진출 기회를 봉쇄당하고 무직(無職), 실업상태로 내몰렸으며 이 무렵부터 직업 없는 부랑자로 공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147] 양반부랑자가 근대적 노동관이 이식됨에 따라 이 시기에 처음 발생한 것이라면, 그들에 기생하는 '무뢰배(無賴輩)' 집단은 조선후기에도 사회 불

---

로 포장하였던 것이다. 1910년대 일제 문명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權泰檍, 「1910년대 일제 식민지통치의 기조」 『韓國史硏究』 124, 2004 ; 同,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인식과 통치방식」, 『근대 한일간의 상호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1915년 물산기념공진회에 대해서는 김태웅,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전」 『서울학연구』 18권, 2002를 참고.

144)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107, 2015, 76쪽.

145) 『매일신보』 1912. 03. 26 「警察犯處罰規則」

146)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19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64, 2014. 41쪽 ; 전우용,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 (1910~1930)」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10쪽-114쪽

147) 일제의 1910년대 부랑자 단속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단속의 주 대상에 양반층도 다수 포함된 것에 특히 주목하였다. 과거 질서에서 특권층이었던 양반과 중류 이상의 자산가 계층이 부랑자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구지배층에 대한 부랑자화가 사회 불만 세력화 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식민주의자의 공격이었다고 보았는데, 예지숙은 여기에 더해 일제가 식민지 사회에 근대적 노동윤리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예지숙, 위의 논문, 2014.

안과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생활이 불안정한 무리로 인식되며, 이미 '부랑배(浮浪輩)', '부랑지류(浮浪之類)' 등의 말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도시발달로 도박, 잡기가 성행하자 여기에 가담하여 풍속을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들에 대해 문헌에서 '무항(無恒)의 부랑배(浮浪輩)'라 부른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148]

이러한 무뢰부랑자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랑이었다. 당시 신문지면에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부랑자 단속 기사들과 함께 행랑을 무뢰잡배들의 소굴이자 노름의 온상으로 보는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의 기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래 경성 안에 노름이 대치함에 대하야 경찰서에서 취체도 자못 엄중하고 각 신문의 경계도 간절하건만은 더 강도나 절도와 같은 괴악한 무리들이 일향 전습을 고치지 못하고 때때로 이러저리 모여 노름판을 벌리고 생도적질을 함은 다시 의론할 여지가 없거니와 근일 확실한 소문을 들은 즉 **중부교동 자작 민영휘씨의 집 하인청에는 전후무뢰잡류가 모여 밤낮을 불고하고 노름판을 설시하는데, 그 곳에 모이는 자는 남의 집 행랑에 부쳐있는 자가 가장 많은 고로,** 불행히 그러한 무리를 자기집 행랑에 둔 주인된 사람들은 밤새도록 대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도적이 예서 제서 나는 때를 당하여 염려가 비상하다 한 즉, **그 주인되는 민자작은 정녕 자기집 하인청에서 이와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함이 가할지오, 소관 파출소에서도 극히 주의하여** 관내에 그런 폐단을 엄금함이 가하다 하노라.[149] (강조-필자)

당시 이름난 귀족인 민영휘의 하인청, 즉 행랑에 무뢰배들이 모여 노름판을 벌이고 있고, 그곳에 모이는 이들 또한 남의 집 행랑살이가 많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렇게 무뢰배들이 모여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는 행랑을 주인집과 소관 파출소에서 특별히 단속하고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이듬해 초에도 인력거꾼 등을 포함하는 몇 명의 무리가 남작 이근호의 행랑방에 모여 노름을 하다가 순회하던 경찰서로 인

148) 예지숙, 앞의 논문, 2014, 32-34쪽
149) 『매일신보』 1914.02.19. 「閔泳徽子 下人廳의 賭博成窟」

치되었다는 기사가 보이는 등[150] 식민 통치 당국의 입장에서 행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1910년대 '부랑자 취체'와 더불어 계속되었다.

그리고 1918년 2월 초 『매일신보』는 직설적으로 행랑의 폐지를 주장하는 연재 논설을 게재하였고,[151] 행랑살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행랑이라는 것이 거의 집마다 있으며 행랑인이 골수까지 박여서 명색 제 살림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들만한 처지이고 아니고 간에다 두고 지낸다. 살림이 크고 일이 많아서 불가불 남녀 고용이 있어야 할 집안이거든 행랑을 집에 두되 그 하인이 먹고 입을 만한 월급이나 료차를 주는 것이 옳다 …(중략)… 지금 조선 가정에서 행랑을 두면 대개 이 모양이요, **원래 아무 지식 없고 게으른 위인들이 남의 집 행랑이나마 잠잘 곳은 있고 계집이 날라주는 밥이나 어떻게 입에 풀을 하면 그만 부릴 게으름 다 부리고 혹 수중에 돈푼이 생기면 막걸리나 한잔 먹은 뒤에 투전이나 화투 노름을 하여 없는 옷가지라도 잡혀 없애는 것이 대개 그자들이 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게으르고 소용없는 사람이 일 많고 복잡한 도회지에 있어 가지고 못된 것만 하게 하는 것은 첫째 행랑이란 불완전한 제도가 있는 까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행랑 사람만 공연히 노는 것이 아니라 행랑을 두고 부리는 사람도 게을러지고 마는 것이다.[152] (강조-필자)

당시 이렇게 기관지 『매일신보』를 내세워 행랑폐지론을 주창하고 있는 총독부 당국은 행랑의 문제에 대해 ① 경제적이지 못하고,[153] ② 부랑자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③ 문전을 추하게 하여 체면을 상한다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부랑자의 온상이라는 주장에 특히 체제 안정을 바라는 당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에 인용한 논

---

150) 『매일신보』 1915.01.12. 「남작집 행랑에서」

151) 『매일신보』 1918. 02. 03. 「生活難과 行廊: 불가불 개량할 행랑의 제도」; 同, 1918. 02. 05. 「體面을 傷하는 行廊- 행랑은 문전을 추하게 한다」 ; 同, 1918. 02. 07. 「改良하기 難事가 아니라, 세 가지만 실행하면 되겠다」

152) 『매일신보』 1918. 02. 05. 「體面을 傷하는 行廊- 행랑은 문전을 추하게 한다」

153) 경제적인 이유를 특히 강조하며 하인을 폐지하라는 논설형의 기사는 한 달여 후에 매일신보에 다시 실렸다. 『매일신보』 1918. 03. 10. 「米價高騰과 經濟生活: 下人은 何所用인가, 주류가정에 하인은 큰 사치」

설 다음 회에서는 행랑을 개량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아예 행랑이 “부랑자를 많이 제조”한다고까지 표현하였다.[154] 이렇게 1910년대 치안 통제의 맥락에서 행랑살이하는 이들을 무뢰부랑자, 또는 예비부랑자나 예비범죄자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취급했던 것이 이어져, “행랑이 부랑자를 양산해낸다”는 비난과 혐의를 담은 것이 당국의 행랑 폐지론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 되면서 더 이상 무직(無職)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 힘들어지자, 실업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부랑자 단속은 중단되었으며 매일신보에서 행랑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일도 거의 없어진다.

이를 대신해 1920년대에 행랑폐지론을 이어간 것은 본격적으로 언론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앞다투어 구습(舊習)의 타파를 주창했던 조선인 지식인들이었다. 1920년대는 조선총독부의 표면상 ‘문화통치’의 표방과 일본의 다이쇼[大正] 문화주의의 영향 등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조선에서도 문화운동이 발흥하였고, 특히 문명화론을 견지한 생활개선에 관한 논의가 다수 쏟아졌다.

물론 1910년대에도 이미 도일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풍속 및 과거 세대와 깊은 단절의식을 지니고 구제도와 관습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특히 이광수는 1910년대 구관습 타파운동으로서의 ‘교풍(矯風)’을 주창하였고 조혼, 강제결혼, 관혼상제의 제례(諸禮), 관존민비, 남존여비, 부귀한 자의 무직업, 미신, 양반 상놈의 계급사상, 비경제적 비위생적인 가옥, 의복제도 등을 교풍의 대상으로 삼았다.[155]

1920년대 초에 두드러진 생활개선 논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계 지식인들은 민족 신문과 일간지들을 통해 대중을 향한 개선 담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근대 지식인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생활개선에 관한 자신의 글을 한 번은 투고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천도교 사상가였던 이돈화와 박달성, 조선사정연구회의 선우전, 민족

154) 『매일신보』 1918. 02. 07. 「改良하기 難事가 아니라, 세 가지만 실행하면 되겠다」

155) 이광수, 「卒業生諸君에게 들이는 懇告」 『학지광』 13호. 7-8쪽.

운동가 한용운, 한글학자 최현배, 중앙보육교장 박희도, 제중원 의사 홍석우, 문학평론가 이헌구, 문인화가 구철우, 음악가 홍난파, 아동문학가 방정환을 비롯하여 근대문학가 이광수, 주요섭 그리고 건축가 이훈우, 김유방, 박동진, 김윤기 박길룡, 손형순, 유상하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인들이 의복과 음식, 주거에 관한 개조와 개량을 요구하는 담론을 생산해 냈다.[156]

조선인 지식인들의 생활개선론 안에서 불거진 행랑폐지론은 우선 전통 가옥 구조를 문제삼는 경향이 강하였다. 곧 이들의 논의는 "가정 위생에서… 첫째로 조선사람이 고칠 것은 조선의 가옥제도이며… 제일로 폐지할 것은 조선의 행랑방"이라는 위생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157] 이상적인 '문화주택'을 꿈꾸는 새로운 근대주거담론 안에 포섭되기도 하였다. 근대 건축가들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 등 별개의 건물로 나뉘어졌던 재래의 주거공간을 하나의 건물 안으로 집약시킴으로써 생활공간을 단순화하고 경제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고 믿었다.[158] 그리고 이러한 이상을 표방하는 주택 모형이나 설계도면 안에 행랑이 들어설 곳이란 없었던 것이다.[159]

그런 한편으로는 생계를 의탁하는 관습이 조선총독부 당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다. 앞 절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개벽』의 기사들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 ① 그런데 대체 **京城府民에게는 독립 생활자가 적음은 이 웬 까닭일까. 대개는 奴僕 생활자이며 행랑살이이다.** 집도 주인의 집, 밥도 주인의 밥, 일까지도 主人의 일을 하도다. 대신에 주인은 優遊徒食하도다.
> (중략)
> 형제여. 내 간곡히 원하노니 주인노릇도 그만두고 행랑노릇도 그만두고 各各

156) 김용범, 『문화생활과 문화주택 : 근대주거담론을 되돌아보다』, 살림, 2012. 70-71쪽.
157) 『동아일보』 1921. 04. 03. 「家庭生活의 改造-긴급한 위생문제/ 먼저 행랑을 뒤로 보내고 수채를 개량함이 좃켓다 (제중원 의사 洪錫厚氏談)」
158) 전남일, 손세관, 양세희, 홍형옥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81쪽.
159) 그 대신에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에 등장하는 '문화주택' 안에는 '식모실'이 들어섰다.

**獨立生計를 하되 각자의 의식주는 각자 스스로의 땀과 피에 訴하라 합니다.** 그것이 즉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오 경성을 살리는 것이오 조선을 살리는 것입니다.

형제여. 다시 애원하노니 主人制 下人制 行廊制를 廢하라 합니다. 그리하야 밥도 제 손으로 옷도 제 손으로 물도 제 손으로 나무도 제 손으로 日用行事 모든 것을 각자 자기로써 하라 합니다. **文明國人은 다 그러하며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합니다.**160)

②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有한 사람으로서 (중략) **자기 일신 혹은 자기 가정에 관한 온갖 노역을 의례히 使僕의 노력에 의뢰코저 하는 습관이 소위 행랑, 廳廊제도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듯하다.

(중략)

우리의 가정 생활이 新生面에 진화하고자 할 우리가 舊習을 탈각하여 新습관을 배양코자 하는 금일에 當하는 그들이 우리 가정 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행랑제도의 폐지문제 및 그 폐지 후의 선도책 여하는 吾人의 생활개량, 사회진보를 위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는 조선 고유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중략)

**조선인은 自存 自勞의 정신을 개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양하라. 자기가 자존하기 能할 때에 가족이 자존케 되며 사회가 자존케 되고 자기가 自勞할 때에 가족 전체가 自勞케 되고 사회가 自勞케 될 것이다.**

**조선인은 개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당한 노역을 자기가 감당하라.**

(중략) **최후에 조선인은 노역을 구별치 말라. 노역의 귀천이 없으며 구별이 無하다.**

吾人 선조이래 使僕, 행랑 등 사용인에 대한 養護補給의 습관은 人道上으로 보던지 하급생활자 구제적 의미로 보던지 可贊할만한 미풍이었으나, 시대의 변천, 생활난 襲到의 결과, 여차한 습관이 영구히 계속되지 못할 것은 필연하다. 여하한 일부 가정에서 자기에 예속된 가족의 비용에 대하여 월급제도를 채용하는 것과 같이 吾人 가정에서 행랑 기타의 使僕을 부득이 둘 필요가 있으면 종래와 같은 形實이 혼합되고 규모적 성질이 缺한 구제도에 대하여 월급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適宜하고 편리할 듯하다 (중략) 현재에도 주인가정과 행랑과의 관계가 日日 疎遠 各立케 되어 행랑에 入屋한 자가 주인에게 家

160) 朴達成, 「京城兄弟에게 嘆願합니다!!, -大京城을 建設키 爲하야-」 『개벽』 제21호. 1922. 03.

賃을 지불한다는 것은 왕왕 듣는 바이다.161)

이처럼 행랑살이를 식민지 치안문제로 다루었던 식민 지배 당국과 비교하면, 조선인 지식인들의 행랑폐지론은 개인의 독립심과 자립심을 고취하는 데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자아의 각성과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행랑의 폐지 혹은 개량은 '한 가정의 독립', '각립(各立)'이라고까지 일컬어졌다. 식자(識者)들이 보기에 행랑, 혹은 청랑(廳廊)이라는 제도는 자기 일신 또는 가정에 관한 온갖 노역을 노복[使僕]에 의뢰코자 하는 안일하고 나태한 관습에서 출발한 것이니 조선인들은 행랑살이를 폐지하고 직접 자신에게 부과된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역에서 귀천을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주인과 행랑이 각각 독립생계를 이룰 때, 자존(自存)과 자로(自勞)의 정신이 개인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양되며, 개인과 가족이 자존(自存), 자로(自勞)할 때 조선 사회가 자존(自存), 자로(自勞)할 수 있다고까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후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에서 행랑살이는 서서히 쇠퇴하게 되었고, 따라서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까지 이어진 행랑폐지론은 현실과 충돌하지 않게 되었다. 위의 글②의 말미에 보이듯 이미 1920년대 들어 행랑에 거주하는 자가 집세를 지불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월급을 주는 방식이 왕왕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 2. 1920년대 중반 언론의 '어멈' 대우 문제 제기

앞서 살펴본 대로 행랑살이를 하는 식구 중 주로 가사노동을 도맡는 여성에 대해 '행랑어멈'이라고 불렀는데, 이 행랑어멈 외에 홀몸의 여성으로 타인의 집에 기거하며 가사노동을 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냥 '어멈'이라 불리거나, 행랑채에 따로 사는 행랑어멈과 달리 안채에

161) 鮮于全, 「朝鮮人 生活 問題의 硏究 (其二)」 『개벽』 제21호 1922. 03. 01.

들어와서 생활한다는 의미에서 '안잠자기(안잠재기)', '안잠이'라 불리곤 하였다.[162] 그런데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인 언론에서는 이 여성들에 대해 새로 주목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신문지면에 싣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을 다룬 기사들을 비교적 일찍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한 것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92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어멈문제"라는 제목으로 3일에 걸친 연재기사를 실었으며, 1928년 3월 2일과 3월 3일에는 "돈벌이하는 여자직업탐방기" 연재 중 하나로 '안잠자기'와 '행랑어멈'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1928년 3월 14일과 15일에는 "조선어멈"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를 연이어 실었다.

우선 1926년의 기사들에서는 '서울 안에만 최소 만 명 이상의 어멈 혹은 할멈이라는 이름의 남의집살이하는 부인이 있을 것'이라며 말로 문제를 환기하고 이러한 만여 명의 '어멈'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분명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새삼스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163] 이들 기사에서 보이는 여성 가사노동자에 대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연민과 동정에 기반한 우호적인 것이었다. 기사 안에서는 이들을 연신 "불쌍한 부인", "가련한 부인"이라 칭하며, 밤중이든 새벽이든 쫓겨나게 되면 "때 묻은 보퉁이 하나를 들고 길가에 방황하면서 누가 불러주지 아니하나 하고 기다린다"거나,[164] "옛날 노예도 이보다는 비애를 덜 가지지 않았을까, 그들의 그날그날의 생활이야말로 눈물의 생활"이라고 묘사하였다.[165]

그런데 이때 주목할 만한 것은 그저 연민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래에는 옛날 방식의 종처럼 사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대개 쌍방의 자유 계약으로 월급을 작정하고 고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등 이 타가살이 여성들의 일에 대해 계약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162) 안채에서 자면서 주인 마님의 말동무가 되기도 해, 이를 안잠자기라 불렀다고 한다. 김광언, 앞의 책, 276쪽.
163) 『동아일보』 1926.11.03. 「어멈문데(一)」
164) 『동아일보』 위의 기사
165) 『동아일보』 1928. 03. 03. 「돈벌이하는 여자직업탐방기 (8) 삼천세계에 몸부칠곳 업는 안잠자기와 행랑어멈(下)」

다.[166] 이렇게 계약, 직업의 성격을 강조할 때는 '어멈'과 행랑어멈을 구분하였다. 행랑어멈에 대해서도 '어멈', '안잠자기' 등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때는 마찬가지로 연민어린 시선으로 그 고충을 묘사하곤 하였으나,[167] 행랑어멈의 경우 직업이나 계약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1928년의 기사는 어멈(안잠자기)과 행랑어멈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자 직업 중에 행랑어멈 노릇하는 것 또는 그대로 어멈 노릇하는 것이 있"다고 행랑어멈과 어멈을 나누어 이야기하고, 어멈의 경우는 주인집으로부터 의식을 제공받는 데 더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두 가지 중 전자(행랑어멈)는 그다지 직업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였지만 후자(어멈)는 혹은 안잠자기라 하여 혹은 드난살이라 하여 주인과 비교적 많은 관계를 가진 직업입니다"[168]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어멈' 일의 직업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으레 이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곧, 이 일이 현대에 와서 직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호칭이나 대우에서 여전히 하대를 받는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름은 종이 아니라도 대우는 종의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하곤 하였던 것이다.[169] 그런데 '어멈' 대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무렵인 1926년에 다른 기사에서는 "조선 여성이 가진 여러 직업"을 소개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근대적 직업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 교유(敎諭), 보모, 기자, 간호부, 여배우, 산파, 사진사, 여점원, 여교원, 전화교환수 등 18가지나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멈과 안잠자기는 들어가지 않았다.[170] 결국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촉구할 때만 이루어졌다. 그럴 때 언론의 계몽 상대는 가사노동자를 두는 조선인 가정이었으며, 특히 고용주

166) 『동아일보』 1926.11.03. 「어멈문뎨(一)」
167) 행랑어멈의 고충은 '밤이면 잠도 못자고 대문을 드나드는 집안 사람들을 위해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하고 심야에 밤참을 사러 나가야 하기도 하며, 주인집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기껏 일을 하고도 온갖 욕설을 듣는다'는 식으로 그려졌다. 『동아일보』 1925.01.01. 「自由職業 恨歎, 屈服, 怨望」
168) 『동아일보』 1928. 03. 02. 「돈벌이하는 여자직업탐방기 (8) 삼천세계에 몸부칠 곳업는 안잠자기와 행랑어멈(上)」
169) 『동아일보』 1926.11.03. 「어멈문뎨(一)」
170) 『동아일보』 1926.05.09. 「조선녀성이 가진 여러직업」

가정의 여성들에 향해 '어멈' 대우를 개선할 것을 장려하였다. 신문에서는 '주부들이 그들을 "불쌍한 동포"로, 혹은 "은인"으로 생각하기'를 권했으며[171] "어멈을 둔 각 가정에서는 좀 더 그들을 사람으로서 대하여 주었으면"[172]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조선인 가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가정의 고용살이를 하대한다고까지 이야기되었다. 다음의 기고 논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선사람들은 봉건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생활 도덕의 패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 사람의 집에서 고용살이 하는 것도 그 종류가 많아서 행랑어멈, 여하인, 침모, 안잠자기, 머슴 등 여러 가지 있으니 일반적으로 통틀어놓고 고용된 사람들을 학대하고 천시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선 일반가정에서 고용급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조선사람의 머리에서 봉건적 사상이 아직도 잔명을 보전하고 있어서 그러함인지** 또는 남의 집에 고용살이 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품성이 다른 사람의 천대를 받게 됨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음을 물론하고 이것은 **생활 도덕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된 오늘에 와서는 단연히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될 습관**이다. 이러한 인도상의 큰 문제에 우리들이 너무나 비판이 없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크게 부끄러워할 양심의 마비이다.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의 의무로 갖은 일 하는 것을 강요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의 전인격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히 부리기 싫다면 서로 갈리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될 뿐이오, 결코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현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의복, 음식, 숙소 절차에 있어서는 주인과 고용살이의 차이는 말고 천당사람과 지옥사람의 생활을 바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상등가정일수록 더한 것은 생**활도덕의 완전한 퇴패이다.**[173] (강조-필자)

당시에 이렇게 '어멈' 대우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을 고찰해보면, 한편으로는 고용주와 가사노동자의 관계가 신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171) 『동아일보』 1926.11.04. 「어멈문뎨(二)」
172) 『동아일보』 1928. 03. 03. 「돈벌이하는 여자직업탐방기 (8) 삼천세계에 몸부칠 곳업는 안잠자기와 행랑어멈(下)」
173) 『동아일보』 1928.05.03 「조선가뎡의 고용대우」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인식이 충돌하며 갈등이 나타났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신문 지면에 작으나마 목소리를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사노동자들은 쉴 틈 없이 일이 바쁘다는 것과 더불어 일상적인 하대에 대한 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일을 하다보면 "비위 상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주인에게) 수다스러운 잔소리나 듣고 날카로운 눈침을 맞을 때는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기도" 한다는 식이었다.[174] 또한 당시 남의집살이를 하기 위해 상경한 여성들 중에는 본래 중류계급 이상이었다가 경제적으로 몰락한 이들도 다수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175] 그런 만큼 이들은 더욱 호칭 문제와 대우 문제에 예민하였고, 가사노동자와 고용주 양측의 상이한 인식이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76]

그러나 그보다 더욱 눈여겨볼 것은 이 시기가 바로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이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다는 점이다. 동아일보가 1928년 3월 기사로 이들에 대해 주목했듯이, 조선일보도 재조일본인 거주지에서 빈번하게 보이기 시작한 조선인 여성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1927년 초에는 이들을 '색다른 직업'의 하나로 다루었으며,[177] 1929년 10월에는 '남촌의 고용살이 하는 이들'에 주목하는 연재기사에서 그 첫 번째로 "쪽지고 게다 신은 오마니"를 소개하고 있다.[178] 이때 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은 조선인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연민 어린 시선이면서도, 그와 다른 부정적인 묘사가 더해지고 있다. 즉, "조선낭자, 조선 옷에 일본버선, **'게다'라는 기형적 스타일**"[179]이라거나, "조선 여인네가 발에는 서투른 '게다짝'을 꿰이고 몸에는 흡사 일본 이불같은 포대기를 두르고

174) 『동아일보』 1925.01.01.「自由職業 恨歎, 屈服, 怨望」
175) 『동아일보』 1928. 03. 14.「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기사에서는 당시 일본인 가정의 가사노동자가 되기 위해 인사상담소에 찾아온 여성의 구할이 중류 이상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176) 『동아일보』 1928. 03. 14.「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177) 『조선일보』 1927. 01. 05.「색다른職業(직업)로만스(4)」
178) 『조선일보』 1929. 10. 23. 「南村을 차저 고용사리하는 이들(一) 쪽지고 게다 신은 "오마니"」
179) 『동아일보』 1928. 03. 15.「朝鮮 어멈 (三) 깨여진 都會憧憬夢 離婚女子도 多數」

어린 아이를 업고 힘없는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은 **우스운 중에서도 눈물겨운 자태**"[180]라고 하여, 이질적인 두 민족의 문화를 다 내보이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기형적이고 우스운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서는 조선인 여성들이 왜 일본인 가정까지 가서 일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하며, 임금 차이 문제와 더불어 조선인 가정의 하대 문제를 매번 끌어내고 있다. 결국 '어멈'들에 대해 "불쌍한 동포"이자 은인, 가족으로 생각하라는 말에는 은연중에 남촌의 일본인 가정으로 가는 고용살이 여성들을 문제시하고 그 책임을 조선인 가정의 하대에 돌리는 의도가 숨어 있다.

따라서 언론의 시선은 임금의 차이 때문에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조선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다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돈 때문에 '자기의 처지와 경우를 저버린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그의 얼굴에서는 **코를 찌를 듯한 왜분 냄새**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들의 살림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는 "돈을 위해서"하는 그들의 말을 다시금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처지와 경우를 저버린 그들의 생활의 정도를 다시금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81]

심지어는 한강 불놀이 구경을 하다가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익사하고만 젊은 여성에 대해서, 그가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라는 이유로, "일본집 '오마니'만 아니 다녔더라면"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언급하는 토막 기사가 보이기도 한다.[182]

결국 1920년대 중반에 조선인 언론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대우 개선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일본인 가정을 견제하는 민족 감정으로 이러한 민족간 고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조선인 가정의 대우를 문제삼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

180) 『조선일보』 1927. 01. 05.「색다른職業(직업)로만스(4)」
181) 『조선일보』 1929. 10. 23. 「南村을 차저 고용사리하는 이들(一) 쪽지고 게다 신은 "오마니"」
182) 『동아일보』 1928.07.31. 「휴지통」

## 제3절 재조일본인들의 정착과 가사노동의 임노동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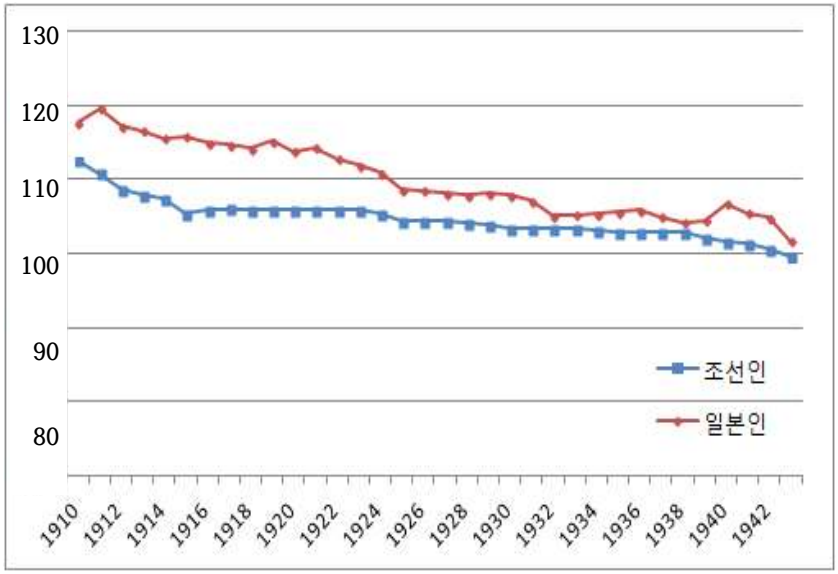
가사서비스노동이 뚜렷하게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은 192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부터 조선내 가사서비스노동 수요의 중요한 축으로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의 가정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 시기까지는 재조일본인들이 그들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를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항한 일본인 여성들을 통해서만 충당하려고 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조선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조선사회 내부에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중요한 수요 요인을 창출하였고 임금 노동으로의 성격도 더해진 것이다.

### 1. 재조일본인사회의 성격 변화와 공영 직업소개사업의 개시

재조일본인가정이 조선 사회 내부 가사서비스노동의 중요한 수요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주민 집단으로서의 재조일본인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초중반 재조일본인사회의 변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양적인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의 성격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강제 병합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920년대는 식민지배당국의 입장에서는 1919년에 한 차례 거족적인 저항의 고비를 넘긴 후 점차 식민 통치를 안정화해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1923년 무렵까지 일본 당국은 조선으로의 이민이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인식했던 것 같으나,[183] 조선인들은 이미 일본인들의 이주가 늘어나는 것에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조선인 언론들은 일본 국내의 인구과잉문제를 조선으로의 이주식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제의 오랜 정책 기조와 그 중심 실행기관으로서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불이흥업주

183) 1923년 2월 衆議院 제3분과에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조선으로의 일본인 이주 증가가 적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장래 교통기관이 완성되면 자연히 다수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동아일보』 1923. 02.11. 「朝鮮統治質答」).




[그림 1-1] 1910년~1944년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성비 비교

출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 연도판

비고: 여성 인구수 100명 기준 남성 인구수를 나타낸다

[표 1-2] 1910년~1943년 재조일본인의 1호당 인구수

| 연도 | 호수(戶) | 인구(명) | 1호당 평균인구 | 연도 | 호수(戶) | 인구(명) | 1호당 평균인구 |
|---|---|---|---|---|---|---|---|
| 1910 | - | 171,543 | | 1927 | 119,219 | 454,881 | 3.82 |
| 1911 | 62,633 | 210,689 | 3.36 | 1928 | 122,773 | 469,043 | 3.82 |
| 1912 | 70,688 | 243,729 | 3.45 | 1929 | 127,300 | 488,478 | 3.84 |
| 1913 | 77,129 | 271,591 | 3.52 | 1930 | 126,312 | 501,867 | 3.97 |
| 1914 | 83,406 | 291,217 | 3.49 | 1931 | 130,349 | 514,666 | 3.95 |
| 1915 | 86,209 | 303,659 | 3.52 | 1932 | 129,948 | 523,446 | 4.03 |
| 1916 | 90,350 | 320,938 | 3.55 | 1933 | 135,705 | 543,099 | 4.00 |
| 1917 | 93,357 | 332,456 | 3.56 | 1934 | 141,416 | 561,378 | 3.97 |
| 1918 | 93,626 | 336,872 | 3.60 | 1935 | 144,814 | 583,417 | 4.03 |
| 1919 | 97,644 | 346,619 | 3.55 | 1936 | 152,887 | 608,964 | 3.98 |
| 1920 | 94,514 | 347,850 | 3.68 | 1937 | 158,344 | 629,481 | 3.98 |
| 1921 | 99,955 | 367,618 | 3.68 | 1938 | 158,834 | 633,288 | 3.99 |
| 1922 | 106,991 | 386,493 | 3.61 | 1939 | 161,400 | 650,104 | 4.03 |
| 1923 | 110,439 | 403,011 | 3.65 | 1940 | 165,900 | 689,790 | 4.16 |
| 1924 | 111,919 | 411,595 | 3.68 | 1941 | 171,610 | 717,011 | 4.18 |
| 1925 | 113,254 | 424,740 | 3.75 | 1942 | 179,349 | 752,823 | 4.20 |
| 1926 | 117,001 | 442,326 | 3.78 | 1943 | 183,029 | 758,595 | 4.14 |

출전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 연도판

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 등에 대해 1920년대 전반에 걸쳐 비판의 날을 세웠다.[184] 특히 이러한 우려는 1924년 미국이민법의 변화로 일본인의 미국 이주에 제한이 가해지자, 그만큼 조선으로의 이주를 늘린다는 당국의 이주 정책을 접한 뒤로 더욱 커졌다.[185] 비판의 초점은 인구가 조밀한 조선에 억지로 일본인들을 이식하여 정작 조선인들은 집과 땅을 잃고 일본과 만주 등지로 유랑하게 하는 정책의 부조리함에 집중되었다.[186] 실제 재조일본인의 인구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1923년이 되면 40만 명을 넘어섰다.

더욱 눈여겨볼 것은 192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재조일본인 이주의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곧 단신(單身) 남성들의 일시적인 이주가 많았던 이전 시기에 비해 영구 정착을 꾀하는 가족 단위의 이주가 많아지게 되었다. 우선 [그림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자 수에 대한 남자 수의 성비를 기준으로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양자 간의 격차는 1920년대 초반을 거치며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1930년대가 되면 더욱 비슷해진다.[187] 또, [표 1-2]에서 보듯, 재조일본인의 한 세대당 인구의 수도 1910~1920년대를 통틀어 꾸준히 늘고 있었다.

---

184) 『동아일보』 1920. 05. 25. 「移民政策과 朝鮮人民의 怨恨」 ; 同 1922. 10.23. 「(사설)우리도 살아야 할것이 아닌가 東拓移民을 廢止하라」 ; 同 1924. 11. 04. 「東拓에 對한 吾人 根本的要求」 ; 同 1926. 06. 01. 「獨逸帝國式으로 朝鮮에 大移民 불이흥업과 동척으로 하야」 등. 그러나 실상 식민 초기부터 추진된 동척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민은 그 성적이 좋지 않아 몇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1928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鄭然泰, 「日帝의 韓國 農地政策(1905~1945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4, 79쪽-87쪽).

185) 『동아일보』 1924. 07. 01. 「排日法案實施와 其影響(上)」 ; 同 1924. 07. 02. 「排日法案實施와 其影響(下)」

186) 『동아일보』 1925. 9. 11. 「一千萬日人의 生途를 爲하야 朝鮮人은 滿蒙으로 移民」 ; 同 1925. 09. 13. 「(사설) 日本憲政會의 人口策」 ; 同 1926. 12. 13. 「窮民의 가는곳 移民의 滑稽」 ; 同 1927. 11. 06. 「(사설)日本移民奬勵와 朝鮮」 ; 『조선일보』 1928. 11. 04. 「明年에朝鮮으로 數萬의 日本 移民. 피폐한 종래의 조선 주민은 어떠케 하랴고작고 보내나, 不可解의 移民方針」 등

187) '접객업'에 종사한다고 분류되는 일본인 여성들의 수가 식민지기 내내 최소 5천 명 가량이 존재하였다. 이처럼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 여성들의 수를 제하고 생각하면 식민지 초기 일본인 남성들의 단신 출가 이민의 정도는 조금 더 높았을 것이다(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35쪽).

이렇듯 1920년대 초중반 급격한 변화의 시기가 있었고, 1920년대를 지나고부터는 재조일본인들 스스로도 그들의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녹기연맹부인부(綠旗聯盟婦人部)에서 행했다는 재조일본인에 대한 한 조사는 1933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다른 외지에 비해 조선에서의 내지인(內地人)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며 내지의 생활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성비로 보아도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105.2명이라는 조선의 일본인 성비는 107.2명인 대만, 125명인 화태(華太, 사할린), 164.6명인 남양군도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 102.8명인 '내지(內地)'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어 재조일본인의 증가 인구수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며 남자의 증가 수가 월등했던 것이 그 격차가 차차 줄어 최근 10년간은 도리어 여자의 쪽이 증가 수가 많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곧, 1910년말~1913년말의 시기에 남녀의 수는 각 각 53,464명과 46,584명이 증가하였고, 1913년말~1923년말의 시기에는 각 각 66,652명과 64,768명으로 그 증가수에 있어서 차이가 줄었는데, 1923년말~1933년말의 시기에 와서는 남자의 수가 65,657명이 증가할 때 여자의 수는 그보다 8,779명이 더 많은 74,436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인당 조세부담액(租稅負擔額)이나 우편저금의 보급도는 오히려 '내지'의 것을 넘어서며, 재조일본인의 실업률이나 궁민(窮民)의 비율은 '내지'보다 극히 낮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생활을 고르게 영위하고 있다고 보았다.[188] 또한 재조일본인 사회는 도회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인 인구가 처음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이주해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본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도시 행정제도나 기반 시설이 구축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189] 곧 안정된 생계를 누리는 일본인 가정들이 도회지를 중심으로 불어났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급료가 저렴한 조선인 가사사용인에 주목하면서 주된 수요층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

188) 須江愛子 등, 「(調査報告) 朝鮮に於ける內地人生活の考察 一·二」 『綠人』 3號. 1935. 09.

189) 權泰煥, 「日帝時代의 都市化」 『한국의 사회와 문화』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254-256쪽.

이제 재조일본인들은 기존에 본토에서 도항한 일본인 하녀를 인맥을 통해 구하거나 혹은 직접 조선까지 데려오는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던 것에서 벗어나, 식민지 조선 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구하고자 하게 되었다.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기를 거치며 일본의 섬유공업이 크게 발달하여 젊은 여성 노동력을 많이 요하게 되었으므로, 일본 안에서도 '조추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190]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본인 하녀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초부터 조선총독부 당국이 사회사업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도시에서 공영 직업소개업무를 개시한 것은 일본인 가정과 조선인 가사노동자를 연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설립된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는 인맥 네트워크를 벗어난 고용의 알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고가 없는 도시 구직자들을 끌어들였고, 특히 가사서비스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주요 기관이 되었다.

각 지방의 직업소개사업은 1920년대 들어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정책이 신설되고 확장됨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었다. 1920년대의 사회사업정책은 1910년대 말부터 일본 본국에서 시행된 것을 곧바로 조선에 도입하여 적용한 것이었다.[191] 일본에서 사회사업정책은 특히 내무성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는데, '문화통치'를 표방하던 1920년대에 조선 정무 총감을 맡게 된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를 비롯하여 '내무성계 관료'들이 대거 조선총독부에 부임하면서 이들이 조선에서의 사회사업정책을 이끌었다. 다만 일본 본국에서는 실업과 노동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190) 荻山正浩, 「第一次大戦期における家事使用人 －周辺から捉えた大戦景気の労働市場－」 『土地制度史学』 제41권 4호, 1999.

191) 일본의 사회사업 및 구제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을 분기점으로 일본사회가 급속히 산업화되고 도시 빈민의 생활고 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배경으로 한다. 더욱 구체적인 계기는 1917년 시베리아 출병에 소요되는 군량미로 미곡이 대량 방출되어 미가가 폭등한 결과 발생한 1918년 쌀소동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사회국과 같은 사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직업소개법, 주택조합법, 차지법, 차가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안들을 신설, 정비하였으며, 도시에 직업소개소, 공설시장, 공동숙박소, 간이 식당 등 구제 시설을 설립하였다.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201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54-55쪽.

있었던 반면,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에서 시행된 사회사업은 사회 안정과 치안 유지의 목적에 방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부터 파급된 물가고가 조선과 대만의 경제도 동요시켰고, 두 지역에서 각각 3.1 만세시위운동과 대만의회설치운동이라는 항일운동이 고조되는 정세에 있었으므로 식민 통치를 안정시키는 방편으로서 사회사업정책을 도입하였던 것이다.[192] 따라서 조선에서도 일면 일본과 흡사한 외견의 정책들이 취해졌으나, 각 방면에 소요된 재정의 규모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선에서는 지방의 사회교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이 지출되고 있었다.[193]

직업소개사업 또한 일본에서 취해진 정책을 비슷하게 조선에 도입한 것이었으나, 그 위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컸다. 일본에서는 1921년 4월 9일 법률 제55호로 직업소개법을 공포하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194] 조선에서는 각 지방행정단위에서 직업소개를 포함하는 세궁민(細窮民) 구제 사업을 재량껏 추진하도록 하는 선에서 그쳤다. 재원 또한 사회구제사업에 소요되는 임시은사금을 통해 일부 보조했을 뿐이었다.[195] 이렇게 지방별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견지에서 평양과 부산에서는 일찍부터 노동자 구제를 위한 숙박소 및 무료직업소개소를 경영하기도 하였으나[196], 대체로 직업소개 업무를 맡게 된 것은 1920년대 초반부터 각지에 설립되기 시작한 인사상담소였다.

공영의 인사상담소는 주요 도시 지역에 설립되기 시작하여 평양부 인사상담소(1920. 6.), 경성부인사상담소(1922.8.) 부산부인사상담직업소

192) 예지숙, 위의 논문, 58-62쪽.
193) 예지숙, 위의 논문, 65-81쪽.
194) 『日本 官報』 1921.4.9.
195) 조선총독부는 그 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부군도 임시은사금사업은 종래 '임시 은사금 관리규칙'에 따라 수산, 교육, 흉겸 구제의 세 가지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특히 구주전쟁의 영향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뛰어올라 이로인해 중산층 이하는 생활에 매우 위협을 받았다. 이에 그 대책으로 소위 사회구제사업을 시행하여 일반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은 당시의 일대 급무였다. ....(중략) 따라서 1920년 1월 임시 은사금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종래 수산비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사회구제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그 범위를 확장했다. 그 결과 1920년 이후 도지방비 예산에는 총독부의 지시에 기초해 각도 모두 여러 사회적 사업의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施政25年史』 1935, 524쪽.
196) 조선총독부, 위의 책.

개소(1923.8) 원산부인사상담소(1922.4), 함흥면인사상담소(1922.4.) 청진부인사상담소(1923.4.) 등이 있었고, 이에 더해 각 도 경찰관서의 부설기관으로도 인사상담소를 운영하였다.[197] 그리고 이때에는 공설뿐 아니라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설의 인사상담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에서 공익적 직업소개사업에 나서도록 장려하였다. 이러한 사설 공익 인사상담소로는 1920년 10월에 설립된 불교 재단법인 화광교원의 인사상담소가 대표적이었다. 그 밖에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사설 인사상담소로는 경성구호회직업소개소(1913. 07.) 대구 사회봉사회(1922. 01.), 부산노동공제회(1923 05.), 조선매일신문사 부산지사인사상담부, 인천기독청년회직업소개부(1911. 03.) 사설군산직업소개소 등이 있었다.[198]

즉 1920년대 초반 주요 도시에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생활 상담을 담당하는 명목으로 인사상담소가 설립되고, 인사상담소가 관할하는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직업소개 업무가 있었으나, 인사상담소의 주된 업무는 직업소개였으므로 이때부터 사실상의 직업소개소라 보아도 무방하였다. 경성부 인사상담소는 1922년 7월에 설립되었는데, 경성부 고시 제15호의 경성부 인사상담소 규정을 확인해 보면, 인사상담소의 취급 업무로 '고용인 소개, 노동소개, 주택소개, 부업소개, 기타 일반 인사에 관한 상담'을 들었으나, 전체 26조항 중 16조항이 직업 소개 업무를 설명하고 있어 설립시기부터 직업 소개 업무가 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199] 마지막 조항인 제26조에서 "본 규정에 의한 소개는 모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1921년의 일본직업소개법에서 ILO의 권고에 따라 직업소개업무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던 것이 조선에서도 반영된 것이다.[200]

공영의 인사상담소 내지 직업소개소는 1920년대부터 본격화된 실업 문제로 인해 도시 실업자들이 몰려드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위에서 언

197) 조선총독부 사회과, 『朝鮮社會事業要覽』 1924, 17-25쪽
198) 조선총독부 사회과, 앞의 책, 80-105쪽
199) 「(雜錄) 京城府人事相談所開始」 『조선경제잡지』 79, 1922. 7월호
200) 이아리,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 『민족문화연구』 97, 2022, 381쪽.

급한 재조일본인사회의 확대와 함께 고용에 있어 일본인 측의 수요와 조선인 측의 공급을 매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기 시작했다.

경성부 인사상담소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24년경부터 인사상담소의 구인은 상점 점원과 옥내사용인이라고 불리는 가사노동자가 주가 되었다.[201] 그런데 이때 구직군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막론하고 몰려들었던 반면에 구인측은 일본인이 대부분이었고, 취직률에 있어서도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이 월등히 낮은 것이 조선 사회의 불만을 사기 시작하였다.[202] 특히 이에 대해서 1924년 4월 경성부협의원회의에서 조선인 협의원 방규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소간의 여론이 조성되었다. 그는 조선인 취업성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조선인들 사이에 인사상담과 직업소개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가 인사상담소 직원으로 일본인만이 있기 때문에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조선어를 할 줄 모르고 조선의 인정 풍속도 모르는 일본인 직원에게는 직업 주선을 부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들어 조선인 촉탁을 더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경성부 측에서는 처음에는 조선사람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조선사람을 구하는 이는 적기 때문에 아직은 조선인 촉탁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절하고, 인사상담소의 예산으로 일본인 촉탁을 더 고용하고자 했던 원래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203] 그러나 인사상담소 일을 계기로 경성부청의 정책들이 일본인 본위라는 불만이 고조되자, 결국 조선인 촉탁을 두기로 결정하였다.[204]

하지만 그 이후로도 구직자는 조선인이 많지만 구인측은 일본인 중심인 것은 한동안 바뀌지 않았다. 다음은 1927년 초 잡지의 기사에서 묘사하는 인사상담소 안의 풍경으로서, 조선인 구직자들이 유창한 일본어를 뽐내면서 조선인 상점보다는 일본인 상점으로 가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당시 일본인 상점들이 중요한 취직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鮮人商店ジヤダメタ(조선인 상점은 안 돼) 무어 사람을 알아줘야지!" 일

201) 『동아일보』 1924. 04. 17. 「京城內(경성내)의求職區別(구직구별)」
202) 『조선일보』 1924. 04. 04. 「相談所는 무엇하는 곳」
203) 『조선일보』 1924. 04. 04. 「誰를 爲한 施設」
204) 『동아일보』 1924. 04. 10. 「秘密裏의 府議 二讀會」

본말 반 조선말 반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는 사람은 일본옷에 캡을 쓰고 일본 나막신을 신은 이십세쯤 된 젊은이다. “ソウデスネ(그렇지요)! 사실 말이지 구직을 해 가려면 일본사람 상점으로 가야지 조선사람 상점으로 가지 않는게 좋아요. 사람을 알아주는 것은 둘째고 돈이 있어야지요”하고 역시 일본말을 섞어서 대답하는 사람은 방한모 쓰고 조선옷 입은 이십사오세나 되어 보이는 사람이다. “일본사람도 그러는 사람이나 그렇지, 죄다 그렇지는 않아요”하고 순전히 일본말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이곳에서는 일본말 하는 것이 큰 자랑이요 구직하는데 필요한 무기가 되는 듯 하다.**(일본어, 고어투 번역 및 강조줄-필자)[205]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구직자 중에는 남성이 많지만 여성들의 취직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점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기자가 “부인들은 무시로 소개하는데 내가 가 있는 동안에도 일본인의 집 여하인으로 또는 유모로 소개되어 간 분이 3,4인이나 된다”고 증언하며, 인사상담소에서 “여자면 나이를 불문하고 써지지만 남자는 대개 17-8세로부터 20세 이내는 많이 쓰나 20세 이상이면 한 번 구직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정을 전하고 있다.[206] 즉 여성들의 경우 하녀, 유모, 어멈 등의 가사서비스노동으로서의 수요가 많아 그 방면으로 일을 얻기가 쉬웠다.

이처럼 1920년대 초반부터 각지에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가 설립되어 직업 소개 업무를 개시하였던 것은 재조일본인 사회의 성장 및 가사서비스노동 수요의 증가라는 변화와 시기상 맞아떨어졌다. 조선인 가사노동자의 소개를 직업소개소를 통해 의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초기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의 업무는 주로 일본인 수요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조선인 가정은 1920년대 중후반까지도 인사상담소를 이용하는 법을 잘 몰라서 안잠자기와 침모 등을 구하기 힘든 형편에 있어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되었다.[207]

---

205) 『별건곤』 제4호 1927.02.01.「記者總出動, 大京城白晝暗行記(제2회), “一時間社會探訪”」
206) 『별건곤』, 위의 기사
207) 『동아일보』 1928. 03. 14.「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 2.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 확대와 행랑살이의 쇠퇴

조선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일본인 가정의 고용이 본격화된 분기점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1924년~1925년 사이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928년 동아일보는 3일에 걸쳐 '조선인 어멈'에 대한 기획기사를 실으면서, "일본사람이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소 조선인 여성을 쓰게 되었으나 몇몇 사례에 불과하던 것이 이처럼 완전한 직업이 되어 상호간에 수요와 공급이 생긴 것은 최근 3-4년내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1924년 전반기의 기사까지는 일본사람들이 인사상담소를 통해서 여자 하인을 구하고자 해도 그에 상응하는 구직자가 적다고 이야기 되었고,[208] 잡지 개벽을 통해서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조선인 가사노동자의 모습이 이채로운 풍경으로 처음 소개된 것이 1925년 1월호이다.[209] 이 기사에서는 "진고개 일본인부락(日本人部落)을 통과하면 골목마다 전일에 보지 못하던 조선여자들이 일본 게다짝 혹은 해진 구두를 끌고 닭의 둥우리 같은 포대기에다 일본 아이를 업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27년과 1928년에 이르면 각각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문제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210]

일본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진고개에서 일하는 조선인 가사노동자의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무렵, '진고개의 일본인 집에서 급료를 많이 준다'는 소문은 이미 지방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진고개의 일본인 집에서 일하겠다고 무작정 상경한 사례들도 보이고, 심지어는 일본인 고용살이로 소개해 주겠다는 빌미로 농촌 출신 여성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사기꾼도 등장하였다. 피해자 사십여명에 총 피해액은 약 천 원가량이나 되었다.[211]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이 일반화되는 것은 『조선총독

208) 『동아일보』 1924.04.17. 「京城內의求職區別」; 同, 1924.05.16. 「女子雇人이 부족한 까닭에」
209) 『개벽』 1925. 01. 「新年과 第四階級의 感想」
210) 『조선일보』 1927.01.05. 「색다른職業로만스(4)」; 『동아일보』 1928. 03. 13. 「朝鮮 어멈 (一) 就職難 몰르고 昨年에만 千餘名」
211) 『조선일보』 1928. 03.10. 「血汗結晶인 婦女의돈 "어머니"料로詐取」

[표 1-3] 1910년~1942년 조선인 하녀와 일본인 하녀의 임금이 파악되는 도시의 수

| 연도 | A전체 | B일본인 | C조선인 | 연도 | A전체 | B일본인 | C조선인 |
|---|---|---|---|---|---|---|---|
| 1910 | 23 | 22 | 7 | 1927 | 8 | 8 | 8 |
| 1911 | 20 | 20 | 10 | 1928 | 8 | 8 | 8 |
| 1912 | 23 | 18 | 10 | 1929 | 8 | 8 | 8 |
| 1913 | 23 | 22 | 16 | 1930 | 8 | 8 | 8 |
| 1914 | 23 | 22 | 15 | 1931 | 8 | 7 | 8 |
| 1915 | 23 | 23 | 16 | 1932 | 8 | 8 | 8 |
| 1916 | 22 | 22 | 16 | 1933 | 8 | 8 | 8 |
| 1917 | 22 | 22 | 13 | 1934 | 8 | 8 | 8 |
| 1918 | 22 | 22 | 13 | 1935 | 8 | 7 | 8 |
| 1919 | 22 | 21 | 15 | 1936 | 9 | 9 | 9 |
| 1920 | 22 | 22 | 15 | 1937 | 9 | 9 | 9 |
| 1921 | 22 | 21 | 16 | 1938 | 9 | 9 | 9 |
| 1922 | 22 | 20 | 16 | 1939 | 9 | 9 | 9 |
| 1923 | 22 | 21 | 14 | 1940 | 9 | 9 | 9 |
| 1924 | 21 | 21 | 16 | 1941 | 9 | 9 | 9 |
| 1925 | 21 | 20 | 19 | 1942 | 9 | 8 | 9 |
| 1926 | 8 | 8 | 8 | | | | |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 연도판의 임금조사 항목

비고 : A 전체 : 전체 조사 도시의 수

B 일본인 : 일본인 하녀의 임금이 파악되는 도시의 수

C 조선인 : 조선인 하녀의 임금이 파악되는 도시의 수

부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하인 임금 자료를 통해서도 추론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2년까지 매년 주요 도시에서 하녀를 포함하는 각 직종의 임금을 조사하여 지방행정기관의 행정 보고를 수합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지면에 실었다. [표 1-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인 하녀의 임금은 매년 거의 모든 도시에서 파악이 되나, 조선인 하녀의 임금은 1920년대 초반까지 전주, 군산, 목포, 평양, 진남포 등의 도시에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212]

212) 1925년 이전의 조사대상 지역은 "道 및 府 소재지"라고 하여 다소 변동은 있으나 22개 정도의 지역이 포함되었던 데 비해, 1926년부터는 경성, 목포, 부산, 대구,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의 8개 도시만을 대상으로 삼았고, 1936년부터는 대전이 추가되어 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양자 간의 평균 임금을 대비하여 일본인 하녀의 임금에 대한 조선인 하녀 임금비를 보았을 때,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게 매겨지던 임금이 안정화되어 자리 잡는 것은 1920년대 들어서였다. 따라서 조선인 하녀의 고용이 일반적인 일로 인식되는 시기는 고용 시장에서 '일본인 하녀 임금의 5할 내지 6할선이 조선인 하녀의 임금'이라는 암묵적인 시세가 정해지는 1920년대 이후인 것이다.[213]

실제로 1927년 1월의 조선일보 기사에서 인터뷰한 조선인 가사노동자는 "처음에는 한 달에 15원씩 또박또박 주더니 일본사람 집이 월급이 퍽 후하다는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함부로 덤비는 까닭에 이제는 3원이 떨어져서 한 달에 12원씩이랍니다. 지금도 자꾸 잘 있던 일자리도 버리고 '오마니'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에 단 5원도 못 받게 되겠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조선사람은 그저 남이 좀 무엇하다 하면 모두 우 덤벼드는 것이 큰 병통이에요."하고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월급이 3원이나 급락했다고 불평하였다.[214] 이것 역시도 192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가사노동자의 임금이 수요 공급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되고 정례화되고 있는 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수요의 측면에서 일본인 가정과 경쟁하게 된 조선인 상류층 가정에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임금을 올리고자 함으로써, 조선 사회에서 가사일이 임노동화되는 경향을 더욱 촉진하였다. 1928년의 기사에서는 "요새는 진고개에서 일본사람이 월급을 잘 주는 통에 어멈 구하기가 귀하다"는 언급과 함께, 북촌에는 하인이 없어서 양반 노릇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대가집 행랑에는 어멈은 진고개로 가고 딸은 우동집으로 가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묘사한다.[215] 곧 임금 노동의 성격이 약한 일을 수행하던 '행랑어멈'들이 진고개 일본인 가정의 가사노동자로 몰려가고 있는 사정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 가정에서도 고용인을 더 빼앗기지 않으려면 급료를 올리지

213) 이아리, 「日帝下 주변적 노동으로서 '家事使用人'의 등장과 그 존재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22쪽.
214) 『조선일보』 1927.01.05.「색다른職業(직업)로만스(4)」
215) 『매일신보』 1928.09.29.「(京城行進曲(7)) 行廊의 革命, 행랑어멈과 딸의 가는 곳 마님과 서방님의 탄식」

않을 수 없는 사정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재조일본인사회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행이 통하지 않는 외지에서 더욱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가사서비스노동을 접하게 되었으며, 또한 역으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가사노동자가 임금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향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즉 식민지 조건하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양측 모두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번성했던 행랑살이가 점차 쇠퇴해가는 것도 가사서비스노동이 임금노동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과 궤를 함께 하는 변화였다. 행랑살이의 쇠퇴를 직접적으로 추동한 원인으로 서울 주택난의 심화와 집값의 폭등을 들 수 있다. 서울의 집값은 매년 상승하다가 1910년대 후반 '미증유의 앙등'을 보여,[216] 1920년대부터 심각해졌다고 한다.[217] 총독부는 1920년대부터 미약하나마 주택난 해결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들 중에는 '행랑채' 모양의 공공주택을 봉래정과 훈련원 자리에 짓는 방안도 있었다.[218] 이것 또한 행랑살이가 곧 당시의 하층민 주거형태를 대표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택난에 따라 행랑살이의 경우에도 19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서울에 자리를 못 잡고 경기도 근교에 겨우 자리 잡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행랑살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주인집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게다가 앞에서 보았듯이 가내 노동 안에서 남성 노동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도시에서 일상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사 노동은 이미 단신(單身)의 여성을 들이면 해결되는 상황이었다. 행랑살이 식구를 내보내고 행랑채 공간을 세놓는 대신 한,

---

216) 朝鮮商工會議所, 「京城に於ける地價の趨勢」 『朝鮮經濟雜誌』 81, 1922. 9.

217) 이 시기 주택난 관련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아일보』 1921.06.07. 「익심한 시내의 주택난」; 『조선일보』 1921. 08.30. 「住宅難 京城이 第一됨」; 『중외일보』 1929.11.08. 「大京城面目이安在 三萬戶가月貰細民」 ; 同, 1929.11.09. 「地域은狹窄한데人口는飽和狀態」 주택난과 주거권 운동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명학, 「조선총독부 주거 정책의 민족 계층적 편향과 주거권 운동의 대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218) 『동아일보』 1921.11.16.「경성부의 사회사업」; 『매일신보』 1921.05.28.「行廊式住宅地는 동대문 안 훈련원 북쪽으로 작정해」 등

두 사람의 가사사용인을 들이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가장 싼 집들의 집세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되었다.[219]

ㄱ. 무네와리 나가야(棟割長屋)[220]
최하등 온돌 1칸(약1평)에 취사장 등이 일절 없음 – 1개월 1원 50전 이상
ㄴ. 독채로 하등 온돌 1칸 취사장 1칸 – 1개월 3원 내지 5원 내외
ㄷ. 독채 하등 온돌 2칸 취사장 1칸 – 1개월 5원 이상
ㄹ. 셋방 하등 온돌 1칸 취사장 없음 – 1개월 1원 50전 이상

그리고 경성의 경우는 위의 대구의 경우보다 3할 내지 5할이 높다고 하였다. 여기에 기반하여 계산해보면, 경성에서 부엌이 있는 행랑채를 세를 놓으면 최소 한 달 6원 50전(취사장 있는 독채 최소가 5원+30%)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세를 여러 집 줄 수도 있었으므로 그 이상 받는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910년대~1920년대 조선인 가정에서 여성 가사노동자 1인에게 주는 급료를 이것과 비교해보자. 1932년 11월 11일에 열린 여성잡지 좌담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21]

주최측: (‘어멈’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변영애: 대개 삼사원이지요. 그러나 후한 집에서는 의복이나 화장품 같은 것을 사주는 집도 있지요.
김선애: 내가 어렷을때는 일원 오십전씩 주는 걸 보았는데 꽤 오른 셈이에요.
오인실: 한 이십년 전에는 일원도 햇답니다. 그래도 그때의 일원이 지금 삼원보다 나았겠지요.

즉, 1910~1920년대 통틀어 조선인 가정에서 가사노동자 1인의 급료는 1원에서 3원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랑채를 세

219) 藤井忠治郎,『朝鮮無産階級の研究』, 東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6, 78쪽~80쪽
220) 무네와리 나가야(棟割長屋)는 한 개의 집을 벽으로 칸막이해서 여러 가구가 살게 한 집을 일컫는다. 본래 에도시대부터 일본의 대표적 서민주택이었다.
221) 『신가정』 1933. 제1권 1호「가정부인 좌담회」

를 주거나 그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가사노동자를 들이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남녀 하인은 다 소용없으나 한 사람도 없이는 견딜 수 없으면 식구가 딸리지 않은 조촐한 안잠자기를 두라”고 하였던 매일신보의 1910년대 후반 기사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기도 하였다.[222]

이같은 시세에 따라 행랑살이를 내보내려는 주인과 행랑살이 식구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들면, 행랑채를 비워달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막막함과 분을 못 이겨, 술을 마시고 할복을 시도한 행랑살이의 일을 들 수 있다.[223] 일반적으로 행랑살이를 내보낼 때 구차한 이유라도 붙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기사에서는 행랑살이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딱히 나와있지 않아,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0년대부터 토막민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던 것도 주택난이 심화되는 속에서 행랑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었다. 토막 내지 ‘불량주택’은 1910년대까지는 사회적으로 낯선 존재였고 부락을 이루는 일은 드물었으나, 1920년대 들어서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224] 이때 토막민을 이루는 이들은 대체로 농촌 경제의 몰락으로 이촌향도한 사람들이거나 원래 도심부에 거주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으며,[225] 이들 중에 토막을 짓기 이전에 행랑에 거처를 두고 있다가 쫓겨난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1930년에 행해진 조사에서는 규모가 큰‘토막 부락’들의 연원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의 토막 부락에 주목할만하다. 이 지역은 1918년경부터 집주인 또는 고용주로부터 퇴출된

222) 『매일신보』 1918. 02. 07. 「改良하기 難事가 아니라, 세 가지만 실행하면 되겠다」
223) 『매일신보』 1924.11.30. 「생활난으로 割腹, 행랑방 내놓으라 하는 것에 충동」
224) 이명학, 「조선총독부 주거 정책의 민족 계층적 편향과 주거권 운동의 대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72-73쪽.
225)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이데아, 2016, 304쪽.

이들이 토막을 짓게 된 것을 시초로 하며, 이후 생활난에 쫓긴 자들이 더욱 모여들어 토막, 토굴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 당시 이곳의 토막민은 세대수 112호, 인구 303인에 이르렀다.[226] 뿐만 아니라 1928년의 신문기사는 '옛날부터 하인을 많이 두던 양반집에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혹은 무용한 사람을 두는 것보다 학생들 등에게 월 3원으로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쪽이 이득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다'는 사정을 보도하여, 행랑채 공간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행랑살이가 쇠퇴하였던 사정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227]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행랑살이가 쇠퇴함과 더불어 본래 그 집과 관련이 없으나 주인집에 거주하며 임금을 받는 형태의 가사서비스노동자의 모습이 조선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 3.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일본인 가정 선호

다음으로는 당시 가사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살펴보아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 그 실태를 짚어보며, 이에 기반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라는 민족간 고용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아울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때 가사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극히 한정적이므로 가사서비스노동이 형성되는 1920년대 중반뿐 아니라 그 이후 비교적 뒤 시기의 자료들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이 시기 가사서비스노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층 여

226) 善生永助, 「特殊部落と土幕部落」『朝鮮』1932.10. 경성부 부근의 토막 부락은 그 밖에도 지방 농촌에서 이주하여 거처가 없는 이들이나(경성부 도화동 산1,2번지), 지방에서 경성부 내에 취직처를 찾아 올라왔던 노동자로서 그 일자리를 잃은 이들(고양군 연희면 아현북리), 다른 지역에서 이미 토막생활을 하다가 옮겨온 이들(고양군 연희면 아현북리, 경성부 도화동 8,9번지), 1925년 조선신궁 건립과 함께 쫓겨난 이들(경성부 고시정 10번지)에 의해 형성되었다.

227) 『京城日報』 1928.07.29.「府內に巢喰ふ土幕民」(이명학, 위의 논문, 75쪽 재인용)

성들의 최후 생계책으로서 급료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10~1920년을 통틀어 조선인 가정에서 가사노동자 1인의 급료는 1원에서 3원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1930년대 중반 이후로도 조선인 가정의 경우에는 보통 3-4원이었고, 주인집에서 그보다 넉넉히 주거나 일한 기간이 오래되어 가산되면 5-6원선, 최고 10원까지 지급한다고 하였다.[228] 그러나 고용이 안정적인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대개는 최저한의 임금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어린 여아를 데려오는 경우에는 급료를 따로 주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이렇게 급료의 수준이 낮아도 가사노동자가 되려는 이들이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가사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통근이 아닌 입주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흔히 식모나 어멈, 혹은 고용인을 '둔다'고 표현되었다. 1930년 『조선국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으로 집계된 인구 120,877명 중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은 전체의 2.5%에 불과한 3,019명이고, 주인집에 입주해 있는 가사사용인이 117,858명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하였다.[229]

거주 공간이 중요했던 이유는 가사서비스노동이 형성되는 초기부터 이 일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이촌향도 이주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대 노동'을 규정하는 특징과 달리 이 가사서비스노동의 유동성에는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기본적인 훈련이 요구되지 않았다. 가사사용인을 고용한 가정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각 가정의 규칙을 알려주는 외에 딱히 정해진 훈련법이 없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보통이었고,[230] 전문적인 '하녀 교육'을 수행한다는 동경의 '하녀 학교'가 이채로운 것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231] 이 매뉴얼이 따로 없는 가사서비스노동을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나 각 가정의) '관행'이었다. 이러한 점은 가사노동자들이 어느 가정에서든 일할 수 있게 하는 반면,

228) 『조선중앙일보』 1936. 04. 03. 「가혹! 한 달에 한번쯤은 식모에게도 노는 날을 주자(上)」 ; 『신가정』 4-6, 1936.6. 「(식모문제특집란) 설문」
229)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 全鮮編
230) 『신가정』 4-6, 1936.6. 「(식모문제특집란) 설문」
231) 『신가정』 4-6, 1936.6. 박승호, 「東京에서 본 下女學校」

언제든 쫓겨날 수 있게 하는 특성이기도 하였다.

당대 가사노동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쉬는 시간이 없이 일이 많고 급료가 낮은 것에 더해서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정성과 가족을 동반하기 힘들다는 점, 일상적인 하대를 경험하는 점 등이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까다로운 가정에 가면 애꿎은 책임이나 누명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집 식구가 유행병에 걸리기만 해도 "정결치 못한 어멈 탓"이라고 쫓겨났다고 한다. 쫓겨나는 시기는 대개 가사사용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따뜻한 봄철이 많았으므로 이리저리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못 구하게 되면 떠나온 고향으로 다시 발을 돌려야 했다.[232]

입주 가사노동자로 지내면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다는 점은 어멈이나 식모에 의한 기아(棄兒) 사건이 매우 빈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233] 주인집 남자 등에게 성폭력이나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234] 영아 살해의 경우 성폭력 피해의 결과일 때도 많았다. 이밖에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사건, 사고, 범죄 등과 관련해서 당시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는 것은 절도에 관한 것이었다. 도둑질하는 물건은 청소 중에 손에 넣은 현금 십 원일 수도 있었고,[235] 값비싼 귀금속이나 드물게는 토지 문서인 경우도 있었다.[236] 가사노동자들에 의한 크고 작은 절도가 빈번한 것에 대해, 여러 사용인을 두고 있다는 서울의

232) 『동아일보』 1928. 03. 15.「朝鮮 어멈 (三) 깨여진 都會憧憬夢 離婚女子도 多數」

233) 『동아일보』 1933. 07. 13.「밥대신 버린 子息 (안잠자기)」 ; 『조선중앙일보』 1935. 05. 30. 「검색방침 또 변경, 고용여층을 주목, 어멈, 안잠재기 성가실 형편, 영아피살해범의 수사」;『동아일보』 1935. 07. 16. 「求職에 防害되는 두 子息을 遺棄」 ; 『매일신보』 1935. 07. 16. 「어린 딸 兄弟를 街頭에 遺棄 자식둘로 식모도 할 수 업다고 버림바든 안해의 짓」;『동아일보』 1939. 08. 23.「乳兒땀에 食母못돼 남의집 門前에 棄兒」 등

234) 『조선일보』 1927. 05. 28.「<가정부인> 안잠자기와 계집하인의 뎡조를 보호하자 -이런 추행은 상류가정에 흔하다」;『매일신보』 1931. 07. 18.「젊은 主人과 密交 孕胎한 어멈 오도가도못해 자살을 도모」

235) 『중외일보』 1929. 10. 10.「盜賊질한 어멈」;『동아일보』 1929. 10. 11.「十圓훔친 어멈」

236) 『조선일보』 1932. 06. 15.「엄청난 "안잠자기" 주인집 토지 증서를 훔쳐 잡히려다 잡혀」

한 부인은 “특히 서울 하인들은 ‘훔친다’는 것이 일종의 부업(副業)이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인들의 보수가 일반으로 적은 탓도 영향이 되겠지만”[237]하고 불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상에서 대면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기 쉬운 특성상 호칭이나 대우 문제가 두드러지게 불거지는 편이었다. 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하대는 앞서 살펴본 대로 조선인 언론이 일본인 가정과 조선인 가사노동자 간의 민족간 고용을 경계하며 문제 제기했던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그것은 당사자들에게 어떤 것이었는가?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 가정에서 조선인 가사사용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면서, 사실상 게토화되어 ‘조선 안의 일본’을 이루고 살았던 보통의 재조일본인들에게 일본인 가정의 ‘오모니’는 일상적으로 조선인을 대면하게 되는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주와 가사노동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 재조일본인들의 회고에서 “생활을 같이 했어도 가정부와 사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며, 그들은 다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했다거나,[238] 대부분 조선인 가사사용인들이 어떤 인물인지에 관심이 없었고 “‘오모니’는 ‘인격이 없는 도구, 로봇과 같은 존재’”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다.[239] 오히려 간혹 고용인들끼리 한일간 교류가 있기도 하여, 신문지상에는 조선인 가사사용인과 일본인 남성 고용인간의 교제나 결합이 종종 언급되기도 하였다.[240]

---

237) 『중외일보』 1930. 01. 15. 「<이것만은 그만두어주엇스면> 남의 집사는 녀성들의 반듯시 고처야할 몃가지 버릇-某 귀족 미망인 洪氏 談」

238) 다바타 가야, 「식민지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 여성들의 삶과 식민주의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76쪽.

239) 井黑美佳, 1985 「植民地體驗を省みて」 미발표 논문, 1985, 29쪽~31쪽.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역,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175쪽에서 재인용)

240) 1935년의 기사에서는 일본인 집에서 식모로 지내던 조선인 여성이 그 집에서 일하는 젊은 일본인 목수와 부부 사이처럼 지내게 되었으나, 이 남성은 입영 통지를 받고 그대로 일본의 고향으로 도망가려다 붙잡혔다. 『조선일보』 1935.12.03. 「입영 통지를 밧고,“愛의 巢” 탈영소동-정조만 뺏고는 탈주하는 낭군을 추격, 나포, 노상에 희비극」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에게 민족갈등이나 차별, 언어와 관습이 다른 점에서 오는 어려움 등은 필연적이었다. 일본인 가정에서 조선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이 정착되기 시작했을 때 가사노동자들은 “일본어를 전혀 몰라서 처음 한두 달간은 말을 익히는데 고생하고 결국 단기간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밖에도 다다미방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것, 음식 만드는 방법이 다른 것, 손님의 접대 및 안내 일 등이 몇 달간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241] 조선인을 믿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가사노동자를 들일 때, 눈에 잘 띄는 곳에 일부러 약간의 돈을 놓아두고 청소를 시킨 다음, 돈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으면 그제서야 고용하기도 했다.[242] 가사노동자가 겪은 민족차별의 사례들을 보면, 조선인 소녀가 실수로 1원 정도의 기구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무급으로 일을 시켰다던가, 조선인 가사사용인을 일본인 가사사용인과 차별하여 밥도 부엌에서 먹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것을 주었다던가, 주인의 옷을 개어놓은 가사사용인에게 조선인의 불결한 손으로 옷에 손을 댔다고 화를 내는 등의 경우는 일제 당국에서도 민족차별의 사례로 인정하고 있었다.[243]

그러나 이러한 민족차별과 갈등, 생활관습에 따른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가사사용인들은 대부분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기를 원하였다. 1920년대 중반 농촌의 여성들이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고자 앞다투어 상경했던 것은 1930년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인사상담소나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들이 일본인 가정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었다.

가사노동자들이 일본인 가정을 선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임금이었다. 조선인 가정에서는 1930년대까지도 보통 3원 이하였던 반면에, 일본인 가정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 기본적으로 7~8원정도에 일본어를 잘한다면 초급에도 10원~13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244] 『통계

241) 『동아일보』 1928. 03. 14. 「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242) 松岡洋子, 「朝鮮と私」 『季刊 三千里』 여름호. 1975, 16쪽
243) 1930년대 초에 조선헌병대사령부에서 조사한 일본인의 조선인 차별 사례 중 일부이다.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同胞に對する)內地人反省資錄』, 1934
244) 『동아일보』 1928. 03. 14. 「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연보』의 임금조사에서도 임금이 정례화되기 시작한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하녀는 한 달 7~8원, 일본인 하녀는 15원선으로 나타나고 있다.[245] 그래서 "제일은 돈문제"[246]라거나 "이왕 하대 받고 일할 것이면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겠다"[247]는 말이 자연히 나왔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많은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이 민족차별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과 풍속이 다른 일본인 가정에서 모멸감을 덜 느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다. "아씨 서방님 존대바치기 싫고 어멈 할멈 하대받기 싫다"[248]며 '어멈'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오모니'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왜 오마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집의 어른이던지 어린 아이든지 함부로 오마니 오마니 하는데 참 우스워죽겠어요"[249]고 여길 뿐 큰 거부감이 없었다. 한 여성은 "내지(일본)말을 월급 받아가며 배우니 이보다 더 좋을 데 있소"[250]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한편 말이 통하지 않는 일본인 가정에서 일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고 남의집살이를 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장점이 되었다. 가사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인사상담소를 찾아온 여성들이 "엊그제까지 자기도 행랑어멈을 부리고 안잠자기를 두고 지내던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말 알고 풍속 같은 조선사람의 집에 가는 것이 더욱 창피하다 하여 '나는 일본사람의 집이 아니면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거나, "진고개 부근에서도 제일 구석진 곳을 가려 달라"고 주문하는 모습이 이러한 사정을 보여준다.[251] 이에 대해 조선인 고용주 측에서도 "조선의 인정 풍속을 샅샅히 잘 아지 못하는 일본 내지인 가정에는 자기의 말 못할 사정을 숨기기 좋아서"[252]라

---

등

245)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제Ⅱ장의 [그림2-8]과 [그림2-9]를 참고

246) 『신가정』 4-6, 1936.6. 「(식모문제특집란) 설문」.

247) 『조광』 1939.9.「人事相談所 窓口에 버러진 人生의 喜悲劇」

248) 『조광』,1939.9. 위의 기사

249) 『조선일보』 1927.01.05. 「색다른職業(직업)로만스(4) 발에는서투른 『게다』/허리엔日本衾具(일본금구) 일본집에서 애 봐주는 조선녀자」

250) 『조광』 1939.9. 위의 기사

251) 『동아일보』 1928. 03. 14. 「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252) 『동아일보』 1928. 03. 14. 「朝鮮 어멈 (二) 中産階級筆頭로 貴族沒落의 吊種」

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인 가정은 전반적으로 가족 수가 적고 일이 간이하며 설비가 현대적이라고 여겨졌다. 반면에 조선인 가정에서 해야 하는 김장, 빨래 등은 매우 고되고 큰일이었다. “조선가정에는 잿물 빨래와 다듬이가 있으니 대단히 싫어하는 모양인 듯 합디다”[253]라거나 “밥 끓이자면 장작 패야 하고 쌀 일고 물도 져와야 하잖소. 빨래하나 하자면 개천에도 가야 하고 삶고 두드리고 풀 먹이고 만져서 다듬이에 다림질 아이구 골 빠져서 못하겠소”라는 하소연에서 조선인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이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인 집은 “수도와 와사(가스)가 집안에 있으니 낮잠 자가며 부엌일을 할 수가 있소.”라고 이야기되었다.[254]

그 밖에 일본인 가정에는 보통 식모방이 따로 주어지는 것도 선호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가사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만큼이나 숙식도 중요해서 이 ‘식모방’도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 조선인 가정에서는 신식 문화주택이 아니면 하인 여럿이 방을 같이 쓰게 하거나, 아이와 함께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은 “잠자리가 불편하오, 방도 따로 안주고 여럿이 한 데서 궁글잔소”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인집에 대해서는 “여중전용실이 있으니 잠자리가 편하지요”라고 말한다.[255] 잡지사에서 식모문제 설문을 진행하면서 “왜 조선가정은 꺼리나?” 물었을 때 “居室의 불편” “침실불량”이라고 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조선인 고용주 측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주 입장의 한 조선인 여성은 호칭문제까지 묶어서 “식모 부르는 명사(名詞)를 ‘오모니’이라 부른 것이 욕되는 말인줄 모르고 도로혀 그것을 듣기 좋아서” "엄동설한 다다미 방에서 골병 드는 줄도 모르고"라며 식모의 무지를 탓하기도 하였다.[256]

종합하자면, 조선인 가사노동자 당사자들에게 민족간의 고용은 식민지라는 조건이 일본인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택지를 넓혀준

253) 『신가정』 4-6, 1936.6. 「(식모문제특집란) 설문」.
254) 『조광』 1939.9. 위의 기사
255) 조광』 1939.9. 위의 기사
256) 『신가정』 4-6, 1936.6. 「(식모문제특집란) 설문」.

셈이 되었다. 일본인 가정의 높은 임금과 전반적으로 더 양호한 노동조건은 가사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더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고, 조선인 지식인들이나 언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기형적'이고 '우스우며' '눈물겨운 정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 소결

제Ⅰ장에서는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 과정을 다루며 그 종적인 연원을 전통사회의 노비 노동과 연결 지어 고찰하였다. 곧, 가내 노동을 타인에 전가하는 양상이 전근대 사회의 신분제적 강제를 통한 것에서 근대 자본주의화를 거치며 경제적인 교환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변해간 것이 바로 가사노동이 하나의 서비스노동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하인들처럼 타가에 의탁하지 말고 독립된 생계를 꾸릴 것을 강조하거나, 타인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직업인으로 대우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되어 가사서비스노동이 자리잡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가 생기기도 했던 때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식민 지배를 경험한 근대 한국 사회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함께 염두에 두고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며, 그 형성의 기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통사회의 노비노동을 살펴보면, 당대 재생산노동은 땔나무하기와 물긷기의 비중이 컸는데 이르게는 조선후기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땔나무하기와 물긷기가 상품화, 외주화되는 변화가 나타났고 이것은 대체로의 가내 노동이 여성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가내 노동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양상은 근대 자본주의화를 거치며 크게 보아 신분제적 강제에 따라 수행되는 하인의 노동에서 경제적인 교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변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랑살이였다. 거주할 공간을 얻는 대가로 집주인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주었던 행랑살이는 전통적 신분제 해체와 농촌 분해 과정에서 서울로 집적되는 하층민들에 의해서 1920년대 초까지 서울 지역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그러한 한편 한국 사회는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식민 지배에 따른 변화들이 외부적 요인으로서 큰 영향을 미쳤다. 병합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식민지 조선으로의 이주는 본격화 되었으며 일본인 하녀들의 도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초기의 재조일본인사회는 정주의 목적이 약했으므로 단신의 남성 인

구 비중이 높았고, 이들은 가사노동에 더해 현지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일본인 여성을 주로 찾았다. 따라서 1920년대 초까지 가사서비스노동에 있어서 민족간의 고용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행랑살이가 확산되어 가던 시기는 일제 당국이 조선에 대한 통제와 식민지배를 위한 재편에 주력하던 때였고, 식민 지배 당국이나 조선인 지식인들 양측이 모두 문명화 담론을 설파하던 시기였으므로, 행랑살이는 구시대적이고 비문명적이라고 비난받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반면, 행랑살이하는 행랑어멈과 달리 '어멈'이나 '안잠자기' 등으로 불리며 타인의 집에서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던 단신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이 섞인 우호적인 여론이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인 언론에 등장하여, 그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이 주창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바로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이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때였다. 즉 조선인 지식인들이 일본인 가정을 견제하는 민족 감정으로 이러한 민족간 고용을 부정적으로 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조선인 가정의 대우를 문제삼게 된 것이 이 대우 문제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오모니' 또는 '오마니'라 불리었던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본격화되었고, 이것을 포함하는 1920년대 중반부터의 상황은 타인에 대한 가사노동의 전가가 경제적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더욱 촉진하였다. 192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재조일본인사회는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영구 정착을 꾀하는 이주 사회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식민지 조선 내의 가사서비스노동의 중요한 수요가 되었다. 게다가 1920년대초부터 주요 도시 사회사업으로 공영 직업소개사업이 개시되었던 것은 일본인 가정의 수요와 조선인 가사노동자 측의 공급을 매개하여 이러한 민족간 고용이 본격화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가사노동시장의 존재를 공식화하였다. 그러자 가사노동자를 두고 일본인 가정과 경쟁하게 된 상층 조선인 가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급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가사 노동이 하나의 서비스노동으로 자리잡는 것이 더욱 확고해졌다. 조선 사회 내부적 변화

에 따라 확산되었던 행랑살이도 서울 지역 주택 부족과 지가(地價)의 등귀에 따라 이미 쇠퇴해 가고 있었다. 조선인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은 민족적 감정에 앞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결국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은 한국 사회의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하여, 식민 지배 상황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촉진되었고, 그것은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일단락되었다.

# 제Ⅱ장 1920년대 후반~1930년대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과 가사노동자 담론과의 괴리

## 제1절 가사노동자의 증가와 노동력 공급의 구조

전통사회와의 일정한 연속성 위에서 근대적 변화를 통해 등장한 가사서비스노동은 그것의 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30년대를 통틀어 꾸준히 팽창의 일로를 걸었다. 이때 팽창이라는 것은 가사노동자 수 자체의 증가와 가사노동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고용이 확대되는 정황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 당시 가사노동자들이 어떠한 이들이었는지는 신문 잡지 기사 등 당대를 묘사하는 자료와 더불어 통계자료를 교차해 확인해 봄으로써 가늠할 수 있다.

가사서비스노동이 계속해서 팽창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방향으로의 노동력 공급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었고,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여 조선 가사서비스노동의 비중이나 양상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요인도 여기에 있었다.

### 1. 조선 내 가사노동자의 수와 통계적 특징

현재로서 가사노동자의 구체적인 수와 성별 민족별 연령별 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1930년의 『조선국세조사』 자료뿐이다.

일본은 1920년에 제국 판도 전체에 대한 근대적 인구 센서스(census)로서 "국세조사(國勢調査)[257]"를 시행함으로써 근대적 통치력을 갖춘 제

257) 서양의 census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1870년대 초부터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인구취조의 법[人口取調之法], 인구의 대검사[人口ノ大檢査], 현재인별조(現在人別調), 인구조사(人口調査) 호구조사(戶口調査), 민세대조사(民勢大調査), 민세조사(民勢調査) 등의 말이 쓰였으나, 결국 "국세조사(國勢調査)"가 공식 명칭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메이지시기의 국가주의적 함의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일본 정부와 정치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통계전문가들의 전략적 명칭이었다는 견해 등이 있으며, 실제로 국세를 총 망라하기 위한 조사를 지향하였으나 결국 인구조사에 그친 것 같다고 보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은 박명규 · 서호철,

국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국가 전반의 행정적 통치술로서 이러한 국세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메이지 초기부터 민간에서 있어왔는데, 실제 법률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1885년에 열린 국제통계협회 스위스 베른 회의에서 1900년을 기념하는 세기 센서스를 각국 공동으로 동시에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일본 정부에도 의사를 조회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각계 청원에도 바로 시행되지 않던 조사는 1902년 12월에야 법률 제49호로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결실을 보았다.[258] 이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10개년마다 1회 제국 판도 내에 국세조사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259] 그러나 이듬해인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세조사의 시행은 연기되었다. 이후로 사회 각계의 청원과 산업의 진전에 따른 행정적 필요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에 착수하여 시행에 이른 것은 1920년 10월 1일에 와서의 일이었던 것이다.(칙령 제358호 〈국세조사시행령〉 )[260]

그러나 이때도 정작 가장 큰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식민 통치 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국을 수습하는 일이 시급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조선에서는 재조일본인에 대한 임시호구조사를 시행하는 데에 그쳤다. 1921년 법률 제51호로 10년을 단위로 행해지는 국세조사 본조사에 더해서 그 사이 5년째 되는 해에 간이국세조사가 실시되면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것은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부터였다. 본조사 뒤 5년째

---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29-31쪽. 분명한 것은 선진국가로서의 근대 제국으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기대가 이 명칭에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다.

258) (日本)內閣統計局, 『大正9年(1920) 日本國勢調査 記述編』

259)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 제49호

제1조 국세조사는 각각 10개년마다 1회 제국판도내에 시행한다

제2조 국세조사의 범위, 방법 및 경비의 국고와 지방분담의 비율 기타 필요의 사항은 따로 명령으로써 정한다

제3조 제1회 국세조사는 명치 38년에 시행한다 다만 제2회에 한해서 제1회부터 기산하고 만5년으로써 시행하여 이후 제1조의 예에 의한다.

260) 1920년이라는 시행 시점에 대해서 박명규 등은 군사적 목적에서의 필요를 염두에 둔 데라우치 마사다케 내각의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박명규 · 서호철, 앞의 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34-37쪽.

에 행해지는 간이국세조사에서는 성별, 연령별, 혼인관계(배우관계)별, 지역별 현주(現住) 인구만 알 수 있을 뿐 직업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조선 전체 인구에 대한 직업 조사는 1930년의 국세조사 때에나 처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10년 뒤의 1940년 국세조사에서는 전시 총동원체제의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별 조사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직업별 상세 부분은 소실되어 상세한 직업별 내용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 결과 해방 이전 조선 전체 인구의 직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1930년 국세조사가 유일한 것이 되었다.

국세조사의 직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가사노동자의 경우 대분류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 중분류 '가사사용인'의 단일한 분류에 속하고, 소분류에서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과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1920년의 국세조사까지 일본 당국이 주인집에 거주하며 의식주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입주 가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의 경우만 직업으로 인정했던 사정을 반영한다. 즉, 1920년 국세조사에서 본업을 가진 유업자(有業者)로 분류된 것은 '통근하는 가사사용인'만이었고, '주인 세대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은 '가족 종속자'와 함께 무업자(無業者)로 분류하되 그 수를 조사하여 파악하였다.[261] 그러다 1930년의 국세조사 단계에서는 양자를 모두 유업자로 인정하고 소분류에서 구분을 두게 된 것이다.

일본 본국에서조차 주인의 세대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이 통근하는 가사사용인보다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세조사에서 유업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정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와 관련한 맥락을 1905년 대만 임시호구조사 때의 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1905년 대만 임시호구조사는 일본이 제국 판도 전체의 근대적 인구센서스를 준비하며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며 본국의 인구 조사는 연기되었고 끝내 1920년까지 실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1905년 대만에서의 조사가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인구 조사가 되는 결과를 낳았

261) 1920년 당시 일본에서 주인의 세대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으로 파악된 수는 총 634,822명으로, 통근하는 가사사용인 20,315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으며, 이때 대만의 조사는 이후의 본격적인 '국세조사'들의 모형이 되었다.

1905년 대만 임시호구조사에서는 본업자와 구별되는 무업(無業)의 본업종속자(本業從屬者)로서 '무업 가족(無業 家族)'과 '가사고인(家事雇人)'이라는 두 범주를 두었다. 그리고 이 '가사고인'에 대해서 "가사고인은 소위 복비(僕婢)의 류(類)로서 (중략) 직접으로 국민 경제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자이다. 단지 일가 경제상으로 볼 때는 가족이나 복비 또한 중요한 후원자인 것은 논할 필요가 없지만 이 양자는 주로 다른 이의 부양에 기대는 자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262] 곧, 주인의 세대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은 의식과 거처를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이의 부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보았고, 무엇보다 그 노동이 국민 경제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업(有業)'의 범주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가사사용인의 서비스노동으로서의 기여는 1930년에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다.[263] 이처럼 가사서비스노동은 그것이 등장하던 근대 초기부터 대표적인 여성 임금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대적 직업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다소 지체되고 혼선을 빚었음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초의 조선국세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사사용인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1930년 집계된 전국 가사사용인의 수는 120,877명이며, 유업자 전체 수 9,765,514명에 대해서 1.2%에 해당하는 수였는데, 농경 종사자가 전체의 75%를 넘는 상황에서 비농업직 직업으로는 첫 손에 꼽힐 만큼 많은 수였다.

---

262) 대만총독부, 『대만 임시호구조사 記述補文』 1905년판, 141쪽.

263) 1920년 국세조사와 1930년 국세조사에서 이렇게 가사사용인에 대한 유업자 분류가 확대된 것을 근거로, 일본의 전통적인 가사사용인인 조추(女中)에 대해서도 다이쇼(大正) 말기, 곧 1920년대 전반기에 "봉공(奉公)"이 아닌 "직업(職業)"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坂井 博美, 「女中雇用と近代家族‧女性運動――九三〇年代日本を対象として」 『歷史評論』 722, 歷史科學協議會, 2010, 37쪽.

**[표 2-1] 1930년『조선국세조사』직업 중분류 순위**

(단위: 명)

| 순위 | 직업 중분류 | 인원수 (전체유업자 중 비율) |
|---|---|---|
| 1 | 농경에 종사하는 자 | 7,376,846 (75.5%) |
| 2 | 기타 유업자 | 386,069 (4.0%) |
| 3 | 상업적 직업 | 385,875 (4.0%) |
| 4 | 잠업에 종사하는 자 | 232,619 (2.4%) |
| 5 | 방직공업에 종사하는 자 | 206,082 (2.1%) |
| 6 |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 169,520 (1.7%) |
| 7 | 어업에 종사하는 자 | 121,730 (1.2%) |
| 8 | 가사사용인 | 120,877 (1.2%) |
| 9 | 목죽초만(木竹草蔓)류에 관한 제조에 종사하는 자 | 99,343 (1.0%) |
| 10 | 운수에 종사하는 자 | 96,640 (1.0%) |

출전: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비고: 당시 조선 전체 유업자의 수는 9,765,514명, 무업자의 수는 11,292,791명이었다.

**[표 2-2] 1930년『조선국세조사』직업 소분류 순위**

(단위: 명)

| 순위 | 직업 소분류 | 인원수 (전체유업자 중 비율) |
|---|---|---|
| 1 | 농업수조(農業手助)(5)* | 3,837,804 (39.3%) |
| 2 | 농경업주(農耕業主)(1) | 2,827,840 (29.0%) |
| 3 | 작남(作男), 작녀(作女)(3) | 446,675 (4.6%) |
| 4 | 일용(日傭)(단지 日傭이라고만 신고한 자)(367) | 345,656 (3.5%) |
| 5 | 화전 경작에 종사하는 자(6) | 215,503 (2.2%) |
| 6 | 잠업수조(18) | 175,358 (1.8%) |
| 7 | 물품판매업주(264) | 148,849 (1.5%) |
| 8 | 기직공(機織工)(135) | 123,905 (1.3%) |
| 9 |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359) | 117,858 (1.2%) |
| 10 | [노점(屋臺店)을 포함하는] 상인, 행상인, 호매(呼賣)상인(272) | 116,939 (1.2%) |

출전: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비고: *( )안의 숫자는 직업 소분류 번호이다.

**[표 2-3] 1930년『조선국세조사』직업 소분류에 따른 가사사용인 수**

(단위: 명)

| 가사사용인 소분류 | 남성 | 여성 | 합 (비율) |
|---|---|---|---|
|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 (359)* | 27,995 | 89,863 | 117,858 (97.5%) |
| 통근하는 가사사용인 (360) | 971 | 2,048 | 3,019 (2.5%) |
| 합 계 | 28,966 | 91,911 | 120,877 (100%) |

출전: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표 2-4] 1930년『조선국세조사』성별/민족별 분류에 따른 가사사용인의 수**

(단위: 명)

| 민족 \ 성별 | 남성 | 여성 | 합 |
|---|---|---|---|
| 조선인 | 28,298 | 88,453 | 116,751 |
| 일본인 | 145 | 3,391 | 3,536 |
| 대만(臺灣) 화태(樺太,사할린) 남양인(南洋人) | 0 | 0 | 0 |
| 중화민국인 | 523 | 66 | 589 |
| 기타외국인 | 0 | 1 | 1 |
| 합계 | 28,966 | 91,911 | 120,877 |

출전: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표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유업자로 분류되는 직업의 중분류별로 순위를 매겨보면, 39개 직업 중분류(무업으로 분류되는 2개는 제외) 중 8위에 해당했는데, 다른 직업 중분류 범주가 산업별 범위에 가까운 넓은 직업군임을 감안하면 단일 직업으로서는 독보적이었다. 실제 직업 소분류별 순위에서도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은 10위 안에 들었다([표2-2]). 또한 [표 2-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이 아니라 주인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이므로, 이 당시 가사노동자의 일반적인 모습은 고용주의 집에 함께 살며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 약 76%를 차지하는 9만 명 남짓한 인원이 여성이었다. [표 2-4]와 같이, 성별 민족별 구분을 함께 보았을 때는 가사사용인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8만 8천여명의 조선인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조선인 남성의 수가 2만 8천명을 넘고 있는데, 이

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1930년 조선국세조사에서의 직업 분류 기준을 한 번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국세조사의 직업 분류 기준에 대해 말하기를, 원칙적으로 1930년 12월 27일에 발포된 일본 내각훈령(內閣訓令) 제3호에 준거하되 "조선의 특수 사정"을 가미하여 다소 수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조선의 특수 직업'인 '상직군(上直軍), 상직파(上直婆), 찬파(饌婆), 찬모(饌母), 찬공(饌供), 청직(廳直)'을 포함하고, 가사고인(家事雇人)으로서 그 직업이 식목직(植木職), 요리인(料理人), 자동차 운전수, 인력거 운전수[抱人力車夫], 가정교사 등과 같은 특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 소분류번호 359)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으로 편입시킨다고 말하고 있다.[264] 따라서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된 조선인 남성 상당수는 상직군, 청지기 등으로 불리우며 여전히 옛 하인들의 노동과 유사한 일에 종사하고 있던 시종, 행랑아범 등인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이 근대 서비스노동으로 부상하는 시기에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그러한 과정과 관련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본인 여성으로 가사사용인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는 3,391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경성에 있는 가사사용인이 1,099명으로 그 1/3에 달했다. 그러나 이 수를 1911년 경성에 있었던 '일본인 하녀'의 수가 이미 99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수는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265] 같은 기간에 조선의 일본인 수가 21만여명에서 50만명이 넘는 수로 2.5배 가량 증가했음을 감안하면[266] 재조일본인 중 가사노동자의 비중은 도리어 많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일본인 남성으로서 가사사용인에 종사하고 있는 수는 145명에 불과하여, 523명으로 조사된 중국인 남성보다도 적은 미미한 수였다.

---

264) 조선총독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제2권 記述報文. 94-144쪽.
265)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 1912, 430-432쪽.
266)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나타나는 재조 일본인 인구는 1911년 210,689명에서 1930년 501,867명으로 증가를 보였다.

**[표 2-5] 1930년『조선국세조사』의 혼인관계별 가사사용인 수**

(단위: 명)

| | 남성 | 여성 | 합 | (비율) |
|---|---|---|---|---|
| 미혼 | 23,221 | 57,615 | 80,836 | (66.9%) |
| 배우자 있음 | 3,697 | 20,392 | 24,089 | (19.9%) |
| 사별 | 1,607 | 11,427 | 13,034 | (10.8%) |
| 이별 | 441 | 2,477 | 2,918 | (2.4%) |
| 합계 | 28,966 | 91,911 | 120,877 | (100%) |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표 2-6] 1930년『조선국세조사』의 혼인관계별 전체 인구 수**

(단위: 명)

| | 남성 | 여성 | 합 | (비율) |
|---|---|---|---|---|
| 미혼 | 5,456,208 | 4,373,342 | 9,829,550 | (46.7%) |
| 배우자 있음 | 4,713,085 | 4,877,283 | 9,590,368 | (45.5%) |
| 사별 | 491,367 | 1,005,947 | 1,497,314 | (7.1%) |
| 이별 | 103,019 | 38,054 | 141,073 | (0.7%) |
| 합계 | 10,763,679 | 10,294,626 | 21,058,305 | (100%) |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표 2-7] 1930년『조선국세조사』의 혼인관계별 유업자의 수**

(단위: 명)

| | 남성 | 여성 | 합 | (비율) |
|---|---|---|---|---|
| 미혼 | 1,444,748 | 385,395 | 1,830,143 | (22.4%) |
| 배우자 있음 | 4,499,480 | 2,535,118 | 7,034,598 | (69.8%) |
| 사별 | 403,280 | 378,558 | 781,838 | (6.3%) |
| 이별 | 95,541 | 23,394 | 118,935 | (1.5%) |
| 합계 | 6,443,049 | 3,322,465 | 9,765,514 | (100%) |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다음으로 혼인관계[267]별 인원을 살펴보면, 다른 직종과는 다른 가사사용인만의 특징이 나타난다. 위의 [표 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사사용인의 경우 미혼 인구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유업자의 혼인관계별 인구수나 전체 인구 중 혼인관계별 인구수와 비교하면 매우 상이한 모습이었다. 즉, 전체 인구 중 혼인관계별 인구수를 보면 미혼 인구와 배우자가 있는 인구는 각각 47%와 46%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표 2-6]), 특히 유업자로 분류된 이들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인구가 70%를 차지하고 미혼 인구는 22%가량에 머물러, 가사사용인들의 혼인관계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낸다([표 2-7]). 가사사용인들이 유독 미혼 인구가 높았던 것이다. 또, 위의 표들을 통해 전체 인구나 전체 유업자의 경우와 비교하면 혼인관계에서 사별이나 이별한 인구의 비중도 다소 높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인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사사용인들이 절대 다수였던 것을 감안하면, 배우자가 없는 미혼, 혹은 이별이나 사별을 겪고 혼자가 된 이들이 가사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국세조사에서 여성 인구 중 가사사용인의 비중을 다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 미혼 유업자의 약 15%가량이(2,525,118명 중 57,615명), 이혼한 유업자의 약 11%가량이(23,394명 중 2,477명)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며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8]

가사사용인 중 미혼 인구가 왜 유독 높은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특징은 연령별 분포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의 [표 2-8] 및 [그림 2-1]과 같다.

어린 연령대일수록 인구가 많으며, 특히 10대 이하의 여성 노동력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이 혼인관계에서는 미혼 인구로 분류됨으로 인해서 다른 유업자들과는 다른 혼인관계 분포를 나타냈던 것이다.

---

267) 국세조사에서는 '배우관계(配偶關係)'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268) 조선총독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표 2-9] 1930년『조선국세조사』의 부/군 지역별 가사사용인/전체 유업자/총인구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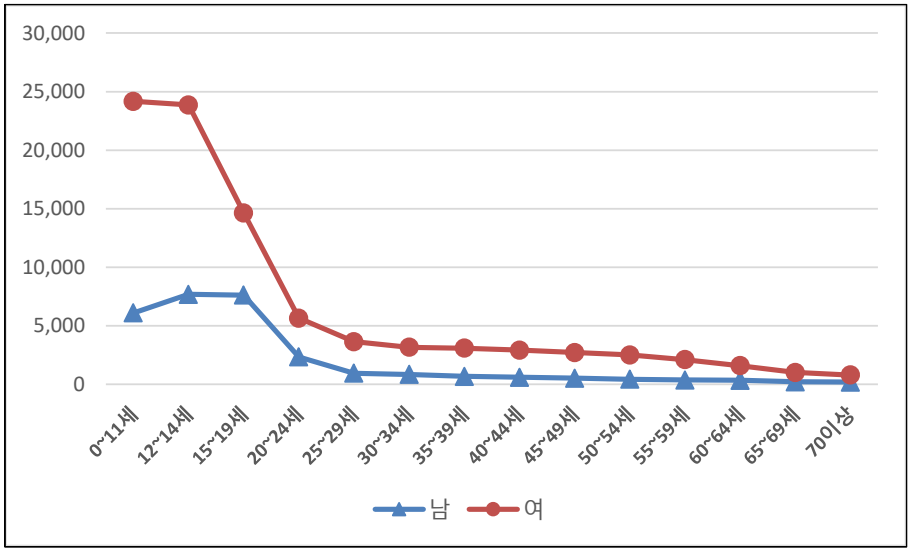
(단위: 명)

| | | 부 지역 | | 군 지역 | | 조선 전국 |
|---|---|---|---|---|---|---|
| 가사 사용인 | 남성 | 4,486 | (15.5%) | 24,480 | (84.5%) | 28,966 |
| | 여성 | 19,752 | (21.5%) | 72,159 | (78.5%) | 91,911 |
| | 합계 | 24,238 | (20.1%) | 96,639 | (79.9%) | 120,877 |
| 전체 유업자 | 남성 | 352,798 | (5.5%) | 6,090,251 | (94.5%) | 6,443,049 |
| | 여성 | 81,277 | (2.4%) | 3,241,188 | (97.6%) | 3,322,465 |
| | 합계 | 434,075 | (4.4%) | 9,331,439 | (95.6%) | 9,765,514 |
| 총인구 | 남성 | 626,019 | (5.8%) | 10,137,660 | (94.2%) | 10,763,679 |
| | 여성 | 563,772 | (5.5%) | 9,730,854 | (94.5%) | 10,294,626 |
| | 합계 | 1,189,791 | (5.6%) | 19,868,514 | (94.4%) | 21,058,305 |

출전: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비고: ()안의 비율은 전국 인구 대비 부/군 지역 인구 비율을 의미함

비고: 원자료의 연령 급간은 0~11세, 12~13세, 14세, 15세, 16~17세, 18~19세, 20~24세(이후로는 계속 5세마다)로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가능한 5세 단위로 급간을 조정하기 위해 10대의 인구수는 급간끼리 더하였다. 그러나 12~14세의 연령 구간은 더 조정할 수 없었다.




[그림 2-1] 1930년『조선국세조사』의 성별 연령별 가사사용인 수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우선 도농간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행정단위인 부(府) 지역과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郡) 지역을 나누었을 때, 가사사용인들의 수는 각각 2 : 8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위의 [표 2-9]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당시 조선 전체 인구의 5% 남짓만이 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가사사용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성에 가사사용인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경성부 인구는 394,24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경성부의 가사사용인 12,307명은 전체 가사사용인의 대략 1/10에 해당하는 수였다.[269]

부 지역 안에서 살펴보면, 부 지역의 여성 유업자 중 24.3%가 가사사용인이었으며, 경성부의 경우는 여성 유업자의 무려 38.6%가 다름 아닌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었다. 즉, 경성에서는 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10명 중 4명 정도가 가사노동자였던 것이다.

부 지역 중에서 전체 유업자 중 가사사용인의 비중이 부 지역 평균치인 5.6%보다 높은 곳은 경성(9.0%), 개성(5.9%), 대구(9.4%), 마산(6.3%)이 있었고, 부 지역을 뺀 나머지 군 지역의 가사사용인 비중이 전국 평균 1.2%보다 높은 도는 전라북도(1.9%)와 전라남도(1.3%), 경상남도(1.5%)가 있었다.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북도는 가사사용인의 비중이 평균치보다 낮아서 대체로 북부 지방에서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비중과 상관없이 절대 수가 많은 도시는 경성(12,307명), 대구(3,307명), 부산(2,262명), 평양(1,044명), 개성(841명) 순이었다.[270] 그리고 이 경성, 부산, 대구, 개성에서 11세 이하의 어린 아동이 유업자(有業者)로 분류된 경우에는 80%가 넘는 인원이 가사사용인이었다. 때문에 이들 도시에서는 11세 이하에서 여자 아이의 유업자 수가 남자 아이의 유업자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아

269) 조선총독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道編, 제1권 경기도

270) 1930년 현재 인구 순위는 경성(444,098), 부산(182,503), 평양(182,121), 대구(107,414), 인천(82,997), 목포(60,734), 원산(60,169), 신의주(58,462), 함흥(56,571), 개성(55,537) 순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유업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는 부산의 경우, 일본인 여성 가사사용인의 수 683명이 조선인 여성 가사사용인 1,414명의 절반 가량이 될 정도로 일본인 여성 가사사용인의 비중이 높고, 평양의 경우 전체 1,044명 중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의 수가 71명으로 통근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는 특징들이 있다.[271]

끝으로 1940년 국세조사에서의 조선 가사사용인 총수는 1930년의 것에서 다시 약 43%가 더 증가한 172,813명이었음을 언급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272]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으나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공식적인 문서에서 나타나는 가사사용인의 수는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것은 10년간 가사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해 왔음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가사노동자 수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 노동력 공급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 2. 농촌 이출 여성노동력의 공급 구조

일반적으로 일제하 조선은 도시화의 정도가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구 집적이 낮은 도시화를 겪었다고 이야기된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조건을 살펴볼 때 농촌의 상황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점은 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났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본대로 가사사용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았을 때 부(府) 지역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가사사용인이 가장 집중된 경성에서도 가사서비스노동 구직자의 “약 8할은 향촌 출신”이라고 이야기되었다.[273] 이는 가사서비스노동 시장에서 주된 수요는 도시 지역에, 주된 공급은 농촌 지역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가사서비스노동력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배출되는 인구가 중요하였다.

---

271) 조선총독부, 『(昭和五年)朝鮮國勢調査報告』 全鮮編 및 각 道編.
272)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40년판
273) 『동아일보』 1928.03.13. 「朝鮮 어멈 (一) 就職難 몰르고 昨年에만 千餘名」

이 시기 농촌이출인구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도시로의 흡입 요인보다도 농가의 몰락으로 인한 농촌으로부터의 배출 요인이 더 주요한 것이었다.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일제 식민지기에 조선 농민들은 자작농의 경제적 몰락으로 소작농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층적 하강 분해를 겪고 있었으며, 소작료의 고율화와 경지 면적의 영세화 등의 상황은 각 농가의 부채를 더욱더 불려 나갔다. 더군다나 1930년 초에 불어 닥친 세계 공황과 연이은 농업공황은 쌀 단작형 농업 체계가 극단적으로 발전한 한국 농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그 모순을 심화시켰다. 농산 물가는 하락하였으나 각종 명목의 공과금 징수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지주 계급은 지주 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 공황의 손해를 소작농에게 전가하고자 하였다.[274] 이처럼 각 농가의 경제적 위기가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층 농민들은 본업인 농업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갔고, 이들 앞에는 자구책으로서 몇 안 되는 선택지만이 놓여있었다.

우선은 농사를 짓는 외에 겸업과 부업을 더하고 남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임노동(賃勞動)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다. 당시 농가에서 겸업 및 부업을 더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마니 짜기와 새끼 꼬기는 중요한 부업이었다. 그리고 임노동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부근의 광산, 공사장 등에 출역하는 것과 농촌에서 농업 임노동에 참여하는 두 종류가 있었다.[275] 임노동에 종사하는 소작농은 1930년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총 소작농 비율의 41.7%였고, 충청북도는 38.4%, 충남 50.7%, 전북 48.1%, 전남 47%, 경북 29.7%, 경남 39.7%, 황해 27.6%, 평남 24.4%, 평북 22.3%, 강원 32.8%, 함남 33.2%, 함북 24.5%의 수준이었으며, 평균 37%에 달했다.[276] 그러나 같은 해의 조사에서 춘계(春季) 단경기(端境期)의 때에

274) 鄭然泰, 책, 267-278쪽.

275) 문소정, 「일제하 농촌가족에 관한 연구 : 1920,30년대 소작빈농층을 중심으로」 『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한국사회연구회논문집』 12, 문학과지성사, 1988.

276) 조선총독부 농림국, 『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3, 62쪽 (문소정,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식량 두절 때문에 곤궁에 빠지는 소작농의 호수가 이미 소작농 총 호수의 68%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37%만이 임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소작농의 임노동 의존 경향은 급속하게 촉진되어 가는 상황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내 경제에 임금 수입 쪽이 본업으로서의 농업 수입보다도 한층 큰 비중을 가지기도 하였다.[277]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가족원 중 일부가 외지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당시에는 그것을 '출가노동(出稼勞動)'이라고 불렀는데,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주로 자식층이 출가노동을 위해 집을 떠났다.[278] 1936년 여름에 경상남도 울산의 교외 농촌인 달리 마을에서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이 마을 전체 129호 중 47호에 돈을 벌기 위해 나간 가족이 있고, 전체 인구 605명 중에서는 93명(15.3%)이 외지돈벌이를 위해 나가 있었다. 하층 농가에서는 약 반수가 나가 있었고, 중층 농가에서도 27%가 외지돈벌이를 나갔다는 것은 당시에 이미 외지돈벌이가 보편적인 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외지돈벌이는 가족원 중 차남과 삼남이 주로 나서고 집안의 기둥이 되는 장남은 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달리 마을에서는 장남이 29명으로 가장 다수를 점하고 차남과 삼남이 각각 16명, 6명이었다. 이것은 자식이 성장하는대로 무조건 외지돈벌이에 내보내야 하는 절박한 가정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초로 외지돈벌이를 나가는 연령이 어리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가의 가장이 외지돈벌이를 가는 경우도 8호나 되었다. 또한 달리 마을은 1931년을 기점으로 1호당 평균 가족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지돈벌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했다.[279]

---

277) 印貞植, 『朝鮮の農業機構』, 白場社, 1939, 106쪽-108쪽. 그런데 인정식은 이 책에서 조선 농촌 사회의 자본제적 발전의 전망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범주로서의 임노동자'의 등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해방 이후에 수정된다. 오미일,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성격논쟁; 농업문제를 둘러싼 인정식·박문병의 논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8호, 1990

278) 문소정, 앞의 논문.

279) 조선농촌사회위생조사회, 『朝鮮の農村衛生』 1940 (임경택역, 『조선의 농촌위생』 국립민속박물관, 2008, 163쪽~178쪽.)

마지막으로는 가족 전체가 살던 농촌을 떠나는 수가 있었다. 1930년대가 되면 농업 실패로 인해 전업(轉業)하는 농민이 급증하였다. 1927년과 1930년의 경남지방의 농민 전업 상황을 보면, 1927년 현재 전업 원인이 밝혀진 농민 중 41.4%인 12,676명이 농업 실패로 전업한 반면 1930년에는 72.2%인 20,020명이 농업실패로 전업하였다. 또한 전업한 총 호수를 계급별로 보면 지주나 자작농가는 각각의 총호수에 대하여 0.7%만이 전업한 데 반하여, 자소작농가는 2.0%, 소작농가는 6.1%가 전업하였다. 소작농일수록 전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업 원인이 밝혀진 총 호수 중 농업실패로 인한 전업호수를 계층별로 보면 지주는 겨우 14.7%인 데 반하여 자작농가는 51.3%, 자소작농가는 64.3%, 소작농가는 72.3%에 이른다. 지주는 주로 자기 편의에 따라 상업 등으로 전업한 데 반하여 소작농가일수록 농업실패에 따라 토지로부터 방출되었던 것이다.[280] 이에 따라 1925~30년에 대략 20만(연평균 4만 명)이 이농하였으며, 1930~35년 사이에는 대략 30만명(연평균 6만 명), 그리고 1935~40년에는 약 110만 명(연평균 22만명)이 농촌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계되었다.[281]

이처럼 농촌 경제의 피폐와 계급적 모순의 심화는 농민의 다수를 점하는 소작 빈농들이 점차 임노동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농촌 이출 인구가 도시 주변의 노동 예비군으로 집적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래 조선의 농촌 사회에서는 품을 파는 것을 천시해 왔으나 시세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이촌의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점과 농업 노동자 중에서도 일용(日雇) 노동자가 생기고 농촌의 무산 청년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당시 지식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바였다.[282]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이탈한 노동 예비군을 흡수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장 노동이지만, 당시 조선은 공업화 정도가 미진하여 공장 노

---

280) 鄭然泰, 앞의 책, 277-278쪽.

281) 正久宏正, 「戰時下朝鮮の勞動問題」 『殖銀調査月報』 38호.(印貞植, 『朝鮮農村再編成の研究』, 人文社, 1943, 156쪽 재인용)

282) 金秉濟, 「노동자화하는 조선의 농민」, 『조선농민』 제5권 제7호 1929년 12월 ; 李晟煥, 「농촌순회강연자료(3) 소농민과 노동자와의 관계」 『조선농민』 제6권 제3호 1930년 5월

동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희소한 것이었다. 1932년에 일본의 공장종업자수는 17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였으나 조선의 경우 공장종업자가 11만 650명에 그쳐 전체 인구의 0.56%만을 차지하고 있었다.[283] 반면에 조선에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반농반노동자(半農半勞者)'나 '실업 및 유민(失業及遊民)'은 1920년대 후반에 이미 각각 987,778명과 97,332명에 달한다고 파악되었다.[284] 따라서 농촌 이출 인구 상당수는 일정한 업을 가지지 못한 도시 빈민이 되어 날품팔이 직종 등을 전전하며 불안한 생활을 영위해야 했다.[285]

조선 농촌의 일반적인 상황이 위와 같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상황이 가사노동자의 수 증가라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농촌을 이탈한 인구의 노동 이주 범위가 더욱 한정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의 노동 이주는 1920년대부터 일본으로의 도항을 위시한 해외 이주를 상당수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조선인 여성들의 단신(單身) 노동 이주의 경우, 전시체제기 이전까지는 인근 도시 지역이나 경성으로 가는 한반도 내의 이주에 머물고 있었다. 곧 여성들의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가 아니라면 해외 이주는 드물었다. 이러한 추세는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으로 건너가는 농촌 출신의 남성 노동자와 경성의 진고개로 몰려가는 여성들을 병치시켜 볼 만큼 성별화된 이주 노동 양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286] 곧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한반도 내의 노동력 수급 조건으로부터 더 강한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이 시기 농촌 이탈 인구 중 여성의 수가 가사노동자의 수와 관련이 깊

---

283) 이여성 · 김세용, 『數字朝鮮硏究』 第5輯, 世光社, 1935, 37쪽.

284) 이여성 · 김세용, 『數字朝鮮硏究』 第2輯, 世光社, 1932, 67쪽.

285) 이러한 식민지 조선의 산업구조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10년대 말까지 농업 종사자의 수가 90%에 가까운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농업 종사자의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어 1940년이 되면 80%까지 감소되었고, 그 동안에 광공업 종사자가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최고 6% 정도로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꾸준히 5~7%대에 머물러 있던 상업 및 운수업 종사자의 증가폭도 미미한 가운데, 가사사용인과 잡업 노동으로 이루어진 '기타 유업자'의 증가폭만이 비농업 인구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허수열, 「일제하 조선의 산업구조-고용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36집, 1992.

286) 『동아일보』 1928.03.13. 「朝鮮 어멈 (一) 就職難 몰르고 昨年에만 千餘名」

**[표 2-10] 국세조사 통계로 본 조선, 일본, 대만의 가사사용인 수 (1905~1940년)**

(단위: 명)

| 연도 | 조선 | 일본 | 대만 |
|---|---|---|---|
| 1905 | - | - | *8,051 |
| 1915 | - | - | *7,303 |
| 1920 | - | **634,882 | **9,362 |
| 1930 | 120,877 | 781,319 | 9,873 |
| 1940 | 172,813<br>(가사업 168,338) | 668,547<br>(가사업 670,207) | - |

출처: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1940 ; 일본 내각통계국, 『國勢調査報告』 1920, 1930, 1940 ; 대만총독부, 『臺灣臨時戶口調査』 1905, 1915 ; 同 , 『臺灣國勢調査』 1920, 1930

비고: ① *1905년과 1915년 조사의 수치는 '무업 종속자'로서의 가사고인(家事雇人)만을 나타냄

② **1920년 일본과 대만에서 조사된 수치는 무업종속자로서의 가사사용인과 본업의 가사사용인(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의 수를 더한 것이다.

③ 1940년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여파로 국세조사 자료가 소실되어 조선은 요약본만이 남아 있고, 대만은 정리된 결과가 남아 있지 않다.

다는 사실은 일본과 대만의 상황을 조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음의 [표 2-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30년경 국세조사에서 나타나는 가사사용인의 수는 일본, 조선, 대만에서 그 차이가 매우 컸다.

우선 일본은 1930년에 약 78만 명 정도가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수는 조선 가사사용인의 8배이며, 전체 인구에서 일본이 조선보다 3배 정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일본 쪽의 가사사용인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두 사회의 도시화율이 다르고, 비농업적 직업 자체의 비중이 일본 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유업자 여성 인구 중 78%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여성 유업자 60%가량이 농업 종사자였다.[287]

그런데 조선과 마찬가지로 근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은 [표

287)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판 ; 일본 내각통계국, 『國勢調査報告』 1930판. 일본은 남성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수 대비 농업 종사자는 47%였다.

2-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사사용인 수에 있어서는 조선과 큰 차이를 보인다. 대략 7천명에서 1만명 가량의 선을 유지하며 대만 전체 인구의 0.2%선을 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만의 경우 조선보다 도시화율이 높고 비농업직 인구율이 높은데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1930년 대만의 농업 종사율은 66.87%였다. 다만, 대만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농업 종사율이 71.42%로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대만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82.39%까지 높아진다.[288] 같은 해 조선인 여성 유업자 중 농업 종사자의 수가 78.88%가량이므로 각 민족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대만인 여성의 농업 종사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표 2-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로 파악되는 25년의 기간 동안 가사노동자의 수가 별로 늘지 않았다.[289] 특히 1920년에서 1930년의 10년간은 거의 정체되어 있다. 같은 기간 대만의 전체 인구가 3,655,239명에서 4,592,537명으로 25%가량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도리어 약간 감소한 것이다.[290]

사실 대만은 식민지배 하에서도 대만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누릴 수 있었고 농촌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조선처럼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본 자본의 농업 지배에 있어서 두 사회가 크게 달랐다.

대만으로 들어간 일본 자본은 주로 사탕수수 부문을 장악하고 쌀농사는 방임하여 대만인 자본의 수중에 둠으로써, 대만의 농업은 일본 자본의 자작(蔗作)[사탕수수]과 대만 자본의 미작(米作)이라는 구도로 분점된 상황이었다. 그러한 중에 1910년대 후반 일본의 쌀소동과 1차 대전

288) 대만총독부, 『臺灣國勢調査』, 1930년판

289) 앞서 언급한대로 대만에서는 본국인 일본에서 국세조사가 시행되기 이전인 1905년과 1915년에 '임시대만호구조사'를 통하여 비교적 상세한 직업 조사까지 실시하였다. 다만 1905년과 1915년의 조사에서는 가사노동자는 가사고인이라는 이름의 무업종속자로만 파악하여, 이후의 조사 결과와는 범주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자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90) 1915년 조사 결과와 1920년 조사 결과에 2,000명 가량의 차이가 있어 마치 이 시기에 5년간 대만인 가사사용인이 2,500명가량 증가한 듯도 보이지만, 이것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조사 방식이 변한 것에 기인한다. 1920년은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을 '유업자'로 분류하여 국세조사 결과에 편입시켰는데, 이 새로운 범주의 대만인 가사사용인이 당시 3,398명이었다. 대만총독부, 『臺灣國勢調査』 1920.

전후의 특수로 인해 대만 생산 신품종인 봉래미(蓬萊米)의 특수가 시작되었다. 특히 봉래미는 이모작이 가능하여 일본 내지의 보릿고개 시기에 출하할 수 있었으므로 더욱 각광 받았고, 대만 농촌의 꾸준한 소득 증가와 안정적 경제생활에 기여하였다.[291] 그에 따라, 농민층 분해가 격렬했던 조선과 달리, 대만은 1922년~1939년 시기동안 도리어 자작농 비율이 증가하고 소작농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1922년 40.8%였던 소작농의 비율은 1939년 36%로 줄었다. 특히 사탕수수 생산 지역보다 미곡 생산 지역에서 더욱 소작농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였다.[292]

반면 주지하다시피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 농업자본의 대부분은 미작(米作)에 투자했다. 그 결과 조선 농업인구의 0.2%에 불과한 일본인이 조선 전체 논의 16.1%(1932년)를 차지하게 되었고,[293] 쌀의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정미소 역시 1931년 현재 조선 전체 정미소의 56.3%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만의 경우, 1932년 현재 3,051개의 정미소 중 일본인 소유는 겨우 37개(1.2%)에 불과했다. 1939년에는 일본인 소유의 정미소가 7%로 늘었지만 조선의 상황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치였다.[294] 따라서 조선에서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증대된 농업수익을 일본인 자본이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실제로 1930년대 일본, 조선, 대만의 구매력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대만인의 실질 GDP는 일본인의 약 80% 수준이었고, 조선인의 실질 GDP는 일본의 50% 이하였다.[295] 그 결과 조선의 농촌에서는 개별 농가들의 몰락과 토지 상실로 인한 '과잉인구'가 큰 규모로 배출되었지만, 대만에서는 일제 식민지기를 통틀어 그러한 문제제기가 없었다.[296]

---

291) 문명기, 「식민지시대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 패턴과 그 함의」, 『동양사학연구』 제147집, 2019, 368-369쪽.

292) 커즈밍, 문명기 역,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쌀과 설탕의 상극, 1895-1945』, 일조각, 2008, 239쪽-242쪽.

293) 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 경제개발의 현상과 본질』,은행나무, 2005. 80쪽.

294) 커즈밍, 앞의 책, 245쪽

295) 문명기, 앞의 논문, 371쪽

296) 문명기는 이러한 '과잉인구'의 차이가 두 사회간에 역외 이주 규모가 판이하게 달

이처럼 대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공급원이 되어줄 여성노동력이 농촌에서 배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사노동자 중 대만인 여성의 비중이 그 인구수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대만 국세조사의 가사사용인을 민족별로 보면, 1915년에 1:2.6으로 이례적으로 비등하게 나오는 사례를 제외하여도, 대만인 가사사용인이 일본인 가사사용인에 비해 단 5-6배 많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297] 앞서 살펴본 대로 조선에서 가사사용인 중 조선인이 96.5%의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며, 일본인의 33배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규모였던 가사서비스노동이나마 재대만 일본인 가정을 중심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식민지기 대만으로 이주하여 가사노동자가 되었던 오키나와 야에야마(八重山) 출신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본인 가정에서는 주로 야에야마 출신 여성들을 '조추(女中)'로 두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식사와 아이돌보기를 맡기는 한편으로 세탁을 전담하는 대만인 가사노동자를 따로 고용하고 있었던 모습을 밝히고 있다.[298] 이 세탁 전담의 대만인 가사노동자들은 통근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대만인 가사사용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통근하는 경우가 주인집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도 많았다. 1930년의 경우 대만인 가사사용인 중 주인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3,735명인 반면, 통근하는 경우가 4,300명이었다.[299] 같은 시기 일본과 조선에서는 모두 주인 세대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이 통근하는 가사사용인보다 훨씬 많았다.

---

랐던 결과로 나타났음을 논증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조선 안에서 흡수되지 못한 과잉 인구가 만주로의 농업 이민, 일본 내지로의 노동 이민 등 생계형 이주에 나서면서 1926년에 이미 역외 이주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1940년대말에는 400만명 가량이 되어 한반도 거주 인구의 16%에 달했다. 반면 역외 이주 대만인은 1920년 6천여명에 머물렀고 전쟁 동원으로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는 1940년대에도 4만여명~5만6천여명에 그쳐, 식민지기를 통틀어 역외이주 인구가 총인구의 1%를 넘긴 해가 없었다고 한다.「20세기 전반기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와 귀환 - 역외이주 및 귀환 규모의 추산을 중심으로」『한국학논총』5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297) 대만총독부, 『臺灣臨時戶口調查』 1905, 1915 ; 同 , 『臺灣國勢調查』 1920, 1930

298) 金戸 幸子, 「〈境界〉から捉える植民地台湾の女性労働とエスニック関係-八重山女性の植民地台湾への移動と「女中」労働との関連から」 『歷史評論』722, 2010. 19쪽~33쪽.

299) 대만총독부,『臺灣國勢調查』1930

조선과 달리 대만 여성들에게는 가사노동자가 되는 일이 절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만에서 주인집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보다 통근하는 가사사용인이 더 다수였던 것도 설명이 된다. 조선의 가사사용인이 최소한의 생계책을 위해서 입주 가사노동자의 위치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반면에, 대만의 가사사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예속이 덜한 조건을 선택했던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과의 비교는 조선에서 가사사용인 외에 농촌에서 배출되는 여성들의 노동력이 소요될 만한 다른 직종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다음의 [표 2-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 직업 중분류별 순위에서 비농업직 직업만을 살펴보면 1위부터 4위까지 양측의 순위는 같다. 즉 한일 모두 방직 공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장 많고, 다음이 상업적 직업과 접객업, 그리고 그다음이 가사사용인이었다.

그러나 두 사회의 산업화 단계나 산업 구조가 달랐음은 여성 직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사사용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방직 공업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방직 공업 종사자의 압도적인 1,2위는 조사공(繰絲工)과 기직공(機織工)이며, 이들의 직업상 지위를 보면 대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使用人]로 분류된다.[300] 반면, 조선의 경우 방직 공업 종사자 중 가장 많은 것은 기직공(機織工)이고 다음은 직물업주(織物業主)이다.[301] 조선의 1930년 국세조사에서는 직업상 지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방직 공업 종사자가 다루는 섬유의 종류를 별도로 분류해 놓았다. 이때 기직공이든 직물업주의 경우이든 [표 2-12]처럼 마직물의 생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장제로 생산하던 섬유는 견사나 면직물이었기 때문이다. 마직물은 농촌 가내 부업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300) 직업상의 지위 분류는 고주(雇主), 단독(單獨), 사용인(使用人)의 3가지이며, 섬유 공업 안에서 'OO工'으로 지칭된 경우 '단독'이나 '사용인'으로 분류된다.

301) 약 19만명의 방직 공업 종사자 중에 기직공은 12만여명이나 되고 직물업주는 약 48,000명 가량으로, 8,400명가량으로 3위인 조사공(繰絲工)과 차이가 크다.

**[표 2-11] 1930년 조선과 일본의 직업 중분류별 여성 직업 순위**

(단위: 명)

| 조선 | | | 일본 | | |
|---|---|---|---|---|---|
| 순위 | 직업 | 인원 (유업자 중 비율) | 순위 | 직업 | 인원 (유업자 중 비율) |
| 1 | 무업자 | 6,956,050 | 1 | 무업자 | 21,399,805 |
| 2 | 농경 종사자 | 2,375,953 (71.5%) | 2 | 농경 종사자 | 6,095,608 (57.6%) |
| 3 | 잠업(蠶業) 종사자 | 221,490 (6.7%) | 3 | 방직 공업 종사자 | 926,448 (8.7%) |
| 4 | 방직 공업 종사자 | 190,078 (5.7%) | 4 | 상업적 직업 | 744,142 (7.0%) |
| 5 | 상업적 직업 | 111,366 (3.4%) | 5 | 접객업 종사자 | 714,966 (6.8%) |
| 6 | 접객업 종사자 | 104,938 (3.2%) | 6 | 가사사용인 | 697,116 (6.6%) |
| 7 | 가사사용인 | 91,911 (2.8%) | 7 | 잠업(蠶業) 종사자 | 255,240 (2.4%) |
| 8 | 기타 유업자 | 66,683 (2.0%) | 8 | 피복(被服), 신장품(身裝品) 제조 종사자 | 180,303 (1.7%) |

출처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 日本 內閣統計局, 『國勢調査報告』 1930

**[표 2-12] 1930년 『조선국세조사』의 방직공업 중 기직공과 직물업주의 세분류**

| 직업 소분류 | | 종사자수 | 직업 소분류 | | 종사자수 |
|---|---|---|---|---|---|
| 기직공 | | 120,426 | 직물업주 | | 47,470 |
| 세분류 | 1.견기직공 | 5,412 | 세분류 | 1.견직물업주 | 1,817 |
| | 2.마기직공 | 95,326 | | 2.마직물업주 | 39,883 |
| | 3.면기직공 | 19,526 | | 3.면직물업주 | 5,736 |
| | 4.기타 기직공 | 162 | | 4.기타 직물업주 | 34 |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었다. 마(麻)기직공의 지역별 분류를 보면, 가장 많은 수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 또한 기직공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1932년에 발행된 『조선공장명부』에는 마직물 공장이 전국에 7개(휴업 1곳 포함)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가동 중인 공장은 경성에 1

**[표 2-13] 1930년 조선과 일본의 직업소분류별 여성 직업 순위**

| 조선 | | | 일본 | | |
|---|---|---|---|---|---|
| 순위 | 직업 소분류 | 인원수 | 순위 | 직업 소분류 | 인원수 |
| 1 | 농업수조(手助)*(5) | 2,141,449 | 1 | 농업수조(5) | 5,580,231 |
| 2 | 잠업수조(18) | 169,345 | 2 |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358) | 669,186 |
| 3 | 농경업주(1) | 148,814 | 3 | 농경업주(1) | 413,720 |
| 4 | 기직공(機織工)(135) | 120,426 | 4 | 상업수조 (268) | 382,332 |
| 5 | 주인의 세대에 있는 가사사용인(359) | 89,863 | 5 | 조사공(繰絲工)(120) | 376,860 |
| 6 | 화전 경작에 종사하는 자(6) | 71,810 | 6 | 물품판매업주 (263) | 254,947 |
| 7 | 직물업주(117) | 47,470 | 7 | 여관, 하숙옥, 요리점, 음식점 등의 조추(女中), 급사(給仕)(284) | 245,288 |
| 8 | 기타 목죽초만(木竹草蔓)류에 관한 제조에 종사하는자(204) | 45,233 | 8 | 기직공(機織工)(134) | 230,140 |
| 9 | [노점(屋臺店)을 포함하는] 상인, 행상인, 호매(呼賣)상인(272) | 42,678 | 9 | 잠업수조(17) | 218,641 |
| 10 | 상업수조(269) | 37,407 | 10 | 재단공, 재봉공(148) | 125,067 |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 일본

비고: ① ()안의 숫자는 직업 소분류 번호이다.

② *수조(手助)란 "가족으로서 세대주, 또는 다른 가족의 직업을 계속적으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303)]

곳, 강화에 2곳, 경남에 2곳, 강원도에 1곳으로 충남에는 소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애초에 마직물 공장은 공장의 규모가 대부분 50명 미만의 소형 작업장이기도 하였다.[302)] 따라서 조선에서 방직 공업 종사자로 분류된 이들의 다수는 집에서 수직기를 이용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섬유를 생산하는 가내 공업 종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구 내에서 노동력이 소요되지 못해서 농촌에서 방출되는 여성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302) 조선총독부 식산국 편찬, 『朝鮮工場名簿』, 1932년도판.

아니었던 것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 소분류별 순위를 다시 열거해 보면 다음의 [표 2-13]과 같다. 조선의 경우부터 보면 여성 종사 직업 10위 내의 것 중 농업적 생산과 관련이 없는 것은 4위의 기직공과 5위의 가사사용인, 7위의 직물업주, 그리고 9위와 10위의 상업적 직업들이다. 기직공과 직물업주의 수를 더한 약 17만명가량의 인원은 입주 가사사용인의 수를 훨씬 능가하는 공업적 직업으로 보이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이들 대다수는 가내 수공업 종사자들인 것이다. 그리고 상업적 직업의 경우도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점 상인과 행상인이며, 이들의 수는 그나마도 가사사용인의 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입주 가사사용인이 비농업직 직업 중 최다수를 점하면서도, 5위의 조사공이나 8위의 기직공, 10위의 재단공 재봉공과 같은 직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고, 조선과 달리 이들은 대개 고용된 노동자들이었다([표2-13]]. 상업적 직업에 있어서도 상업수조 외에 물품판매업주의 비중이 크고, 여관, 음식점 등에 고용되어 접객업 종사자로 분류된 이들도 상당하였다.

사실상 일본에서는 일찍이 공장 노동과 조추(女中), 곧 가사서비스노동이 젊은 여성 노동력을 두고 노동시장에서 경합을 벌여온 형편이었다. 특히 1914년~1918년의 제1차세계대전 기간동안 전시 호황을 맞이하였을 때는 방직업의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공의 임금이 2.38배나 뛰었고, 덩달아 가사사용인의 급료도 3.67배나 뛰었다. 방직 공장에 일손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고용주들이 가사사용인을 확보하기 위해 급료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었다.[304]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 이후, 곧 1918년부터 여공의 수가 조추의 수를 추월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양자 간

303) 이송순은 당시 조선국세조사에서 조선인 여성들은 '무업자'가 가장 많고, 유업자의 경우 '농업 수조'가 월등히 많았으며, '무업'과 '수조'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즉 가내의 생산 노동을 보조하는 여성의 노동이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되는지 여부가 이들 여성들이 '수조'인지 '무업자'인지를 가르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송순, 「일제하 1920~1930년대 여성 직업의 지역별 분포와 존재양태」 『한국사학보』 65, 2016.

304) 荻山正浩, 「第一次大戦期における家事使用人 －周辺から捉えた大戦景気の労働市場－」 『土地制度史学』 제41권 4호, 1999, 38-53쪽.

[표 2-14] 1920~1940년 조선의 여성 공장종업자의 수

(단위: 명)

| 연도 | 인원수 | 연도 | 인원수 | 연도 | 인원수 |
|---|---|---|---|---|---|
| 1920 | 10,779 | 1927 | 21,678 | 1934 | 39,960 |
| 1921 | 9,619 | 1928 | 25,695 | 1935 | 48,668 |
| 1922 | 10,496 | 1929 | 26,896 | 1936 | 55,161 |
| 1923 | 14,461 | 1930 | 29,569 | 1937 | 59,129 |
| 1924 | 15,082 | 1931 | 29,472 | 1938 | 65,104 |
| 1925 | 17,465 | 1932 | 30,716 | 1939 | 76,550 |
| 1926 | 19,040 | 1933 | 34,726 | 1940 | 82,047 |

출처 :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

비고 : 종업자란 직원과 직공을 포함하는 말이며, 상시 직공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공장에 한해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의 격차가 가장 벌어진 1927년에 42만명이었던 조추의 수는 109만명으로 파악된 여공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70만명 선의 수를 다시 회복하기는 했으나, 한번 추월당한 조추의 수가 여공의 수를 다시 따라잡는 일은 끝까지 없었다.[305]

이러한 산업 구조의 차이는 두 사회에서 판이한 사회상을 연출하였고, 각 사회의 여성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는 것이었다. 가령 1930년의 국세조사 현황이 나타내는 시기와 멀지 않은 1932년 말, 일본의 직업소개소에서는 방직 여공의 구인수가 구직자 수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크게 초과하고 있었다.[306] 그런데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는 공장에서 여공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자, 10명 모집에 200명, 200명 모집에 2,000명 등, 모집 인원의 10배~20배가 넘는 인원이 몰려들었음이 신문에 보도되었다.[307]

305) 雪朱里,「女中が身近だった時代」 『女中がいた昭和』, 河出書房新社, 2012. 25쪽.
306) 齋藤衛,「職業紹介所から見たる求職の實情」『朝鮮社會事業』 제11권 1월호, 1933. 01.
307) 『동아일보』 1933.07.30「十名 募集에 志願 二百餘」 ; 同, 1933.10.28「二百名 女職工募集에 志願 二千名 超過」 등

**[그림 2-2] 1920~1940년 가사사용인과 공장 종업자의 수 비교**

출처: 가사사용인의 수는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년과 1940년 판. 공장종업자의 수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

실제로 일제하 공장노동자들 중 여성의 수를 확인해 보면 [표2-14]와 같은 추이를 보인다. 즉,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는 193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고는 있지만, 전체 여성 인구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것을 가사사용인의 인구와 비교해보면, 1930년 당시 가사사용인 중 여성의 수가 91,911명, 1940년에 135,846명이었으므로 일제 식민지기 내내 여성 공장노동자의 수는 여성 가사사용인의 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림 2-2])

당시 소설에서도 생계책을 찾다가 가사사용인이 되고, 여의치 않으면 접객업, 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다수 등장하여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38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한 소설에서는 고무 공장을 다니다가 나와 식모살이를 하던 주인공이 그 일도 더 못하게 되자 갈 길을 잃고 고민하다가 주점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내용이 나온다.[308]

결국 농촌을 떠난 조선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고, 이러한 산업 구조가 가사서비스노동력의 공급이 지속되게 만든 근본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미성년 여성들의 '남의집살이' 확산

한편, 가사서비스노동의 절반 이상을 지탱하고 있던 것은 미성년의 어린 여성들이었다. 국세조사 연령분포를 통해 이미 살펴보았듯 가사사용인으로 파악된 인구의 다수가 17세 이하의 미혼 인구였다. 이들은 단독으로 일하기도 하였겠지만, 주인집에서 성인 여성을 고용하고도 별도로 더 데리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부엌일을 전담하는 식모에 더해서 아이를 돌보는 어린 여자아이를 두는 관행이 상당히 퍼져있었다. 1920년대 중후반을 그린 소설에서는 "그즈음 조선의 일본인 가정에서는, 부리는 일본 여자는 조추(女中)라고 부르고 조선인 여자는 오모니와 기치베[계집애]라고 구분해서 불렀는데, 기치베는 어린 소녀를 말한다.... 집

308) 진우촌, 「식모」(윤진현 엮음)『(진우천 전집) 구가정의 끝날』, 다인아트, 2006. 본래 이 소설은 『매일신보』에 1938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에서 같이 사는 조건으로 일본인 하녀가 한 달에 20엔, 조선인 오모니는 10엔 정도, 기치베는 불과 6엔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인 가정에서는 오모니나 기치베를 고용했다"[309]고 말하고 있다. 또 재조일본인 여성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당시에) 늙은 가정부는 다른 일본인도 그렇듯이 '오모니-'라고 어머니를 일본 발음으로 불렀고, 젊은 가정부는 '네~야'라는 젊은 가정부를 비하하는 일본어로 불렀다"고 증언하고 있다.[310] 일본인 가정에서는 이 둘의 호칭을 구분 지어 불렀던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32년 6월에 발간된 잡지의 조선인 신여성 가정에 대한 설문 기사에서도 식모와 별도로 '아이보는 아이'를 두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이 설문에서는 전체 39명 중에 식모만 둔 경우가 21명, 식모와 '아이보는 아이'를 둘 다 둔 경우가 8명, 아이만 둔 경우가 3명이었다.[311] 이들은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가사서비스노동이 당대 조선 사회에 확산되고 고착되어갈 때 하층민 농가의 어린 소녀에 대한 노동 관행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아갔는지를 함께 연결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에서는 가사 봉공(奉公)의 전통이 있던 일본과 달리 혼인하기 전에 집을 떠나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출가 노동을 천하게 여겼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14년 매일신보는 "조선은 재래(在來)로 그 자녀로 하여금 천집사를 시키는 것을 큰 수치로 알아 중류 이상 사회에는 물론 그 자녀를 금지옥엽같이 호의호식으로 안일하게 지내게 하거니와 중류 이하라도 조금만 의식이 넉넉하면 그 자녀를 안일함에 빠지게 하여 백폐가 구생하는 일이 많은 터이라, 일본에서도 남자는 그렇지 아니하나, 여자는 반드시 일후에 출가하여 졸지에 곤란을 면

309) 가지야마 도시유키(梶山季之), 김영식 옮김,「경성, 1936년」 『경성이여, 안녕』, 2021, ,287쪽. 작가 가지야마 도시유키는 1930년 경성에서 출생하여 1945년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조선에서 살았던 재조일본인 출신의 작가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배자로서의 자기반성을 담은 작품들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 소설은 본래 『京城昭和十一年』이라는 제목으로 1969년(桃源社) 동명의 단편소설집 안에 실려 발표되었다.

310) 다바타 가야, 「식민지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 여성들의 삶과 식민주의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76쪽.

311) 『신동아』 2-6, 1932.6, 「(설문)신가정내용공개」

하게 할 방법으로 출가하기 전에 남의 집 더부살이 같이 보내어 여자의 하는 도리와 방법을 연습케 하는 일이 많"다고 하며, 상층 가정의 딸이 다른 집의 하녀일을 하기도 하였다는 일본과 서양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풍속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312]

그러나 농가 경제가 몰락하고 자급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집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은 딸들이었다. 그 한 방편은 딸을 일찍 시집을 보내는 것이었다. 1928년 조혼(早婚)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서는 조혼의 원인에 대해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아들은 의례 내 것이니까 아들은 몇이라도 경제가 곤란하더라도 견디지만, 딸은 나면서부터 남의 것이란 관념이 들어서 이왕 남의 자식이 될 것이니 한 식구라도 치이자고 어린 것을 시집도 보내고 민며느리도 주며 심하면 팔아까지 먹"는다고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313] 비슷한 시기의 잡지 기사에서도 "필경 6,7세만 되면 「아무려면 내 자식 되나 이왕 남의 자식 될 것이니 일찍 내어보내지」 「먹기도 어려운데 한 식구라도 치워야지」하고 입에서 젖내만 가시면" 민며느리로 시집을 보내버리며, "남도, 특히 경상도에서는 딸을 많으면 몇백 원, 적으면 몇십 원을 받고 파는 일이 있"어서 조선 전국의 유곽이나 멀리는 북해도, 화태, 만주 등지에서도 팔려 온 여성들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314] 실제로 식민지기 내내 조혼 문제는 많은 논의를 끌어내면서도 끝내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었고, 민며느리에 대한 학대와 사형(私刑) 문제가 종종 신문 잡지 언론 지면을 통해 문제시되었으며[315], 이러한 광범위한 농가의 몰락을 배경으로 조선의 접객업이 팽창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층민 농가에서 미성년 딸을 양육하는 것 자체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린 여성들의 '남의집살이'는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갔다. 실제로 1925~1935년의 기간 동안 도시와 농촌 간

312) 『매일신보』 1914. 05. 13. 「父爲相而子爲婢, 대신의 딸로 남의 집 하인, 조선 사람의 본받을 교육」
313) 「조혼에 관한 좌담회」 『조선농민』 제4권 제9호 1928. 12. 28.
314) 柳光烈, 「농촌여성을 전망하며(一)」 『조선농민』 제3권 제9호 1927. 09.19
315) 김기전, 「밋며느리 학대 문제에 대하야」 『신여성』 1926년 10월 (제4권-10호)

의 성구성(性構成)을 비교해보면, 도시 인구는 14세 이하의 아동연령층에서 여성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것은 10~14세 여성의 도시로의 단독 이동 규모가 남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었다.[316] 앞에서 언급한 울산 달리 마을의 조사에서도 딸이 외지돈벌이를 나간 경우는 16명인 차남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5명이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정도만이 행방이 확인되며, 행방이 확인되는 경우는 모두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17]

다만,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생계를 잇기 어렵게 된 농가에서 여아를 방출하는 것 자체는 전근대 시기에도 널리 이루어지던 것이다. 그러한 것을 자매(自賣) 노비나 유기아(遺棄兒) 수양(收養)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조선 왕조에서는 양인(良人)이 천인(賤人)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나, 큰 기근과 전쟁을 겪으며 기민 구휼의 한 방책으로 양인의 자발적인 투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318] 조선 후기가 되면 생활이 어려운 양인들이 자매를 통해 노비, 또는 기한을 정해 사역하기로 하는 고공(雇工)이 되는 것이 널리 확산되었다.[319] 유기아 또한 그 연령에 따라 노비 혹은 고공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노비로 삼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은 흉년의 정도 등에 따라 매번 변경되는 임시 사목에 의거하여 정해졌다.[320] 자매(自賣)나 구활(救活)의 방식으로 장기고공(長期雇工)이 되면 노비로 입안되지 않지만 사실상 노비처럼 장기간 예속된 상태였다.[321] 자매 노비의 경우에도 출산 능력이 있고 어머니 소유주에 귀속되는 조선의 노비제도의 특징상 수요가 높은 여성을 대상으로

316) 權泰煥, 앞의 논문
317) 조선농촌사회위생조사회, 앞의 책, 164-165쪽.
318) 박경, 「자매문기(自賣文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하층민 가족의 가족질서」 『고문서연구』 33, 2008
319) 전경목, 「조선 후기 자매의 원인과 양태」 『전북사학』 43호, 2013,
320) 1746(영조22)년의 『속대전(續大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기아를 거두어 기르는 것은 3살 이전으로 정하되, 만약 연거푸 흉년이나 큰 흉년을 만나면 8,9살 혹은 15살로 정한다. 양편의 정상과 원하는 바를 들어서 혹 뒤의 소생들까지 영구히 노비로 삼거나 자신에 한하여 노비로 사역 시키거나 혹은 연한을 한정하여 사역 시키거나는 흉년의 정도와 수양한 기간의 오래고 짧은 것에 따라서 일체로 임시사목에 준거한다.
321) 김무진, 「조선사회의 遺棄兒 收養에 관하여」 『계명사학』 제4집, 1993

하는 경우가 많았고[322], 장기 고공의 경우에도 농업 노동력으로 소요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전반적인 여성화, 연소화 현상이 나타났다.[323] 따라서 조선시대부터 이러한 자매나 기아 수양을 통해 여아가 많이 방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일제시기에 와서 확산된 수양녀 관행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사회에는 10세 전후의 어린 나이의 여아가 '수양딸'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져 남의집살이 혹은 예비 기생이 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수양녀에 대한 학대, 노동착취, 강간, 성매매 강요 등의 사건들이 빈발하여 사회문제시 되었다.[324] 수양녀를 굳이 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입적할 수도 있었으나,[325] 대개는 입적시키지 않고 친부모와 수양 문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양 문서는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관습적인 제도에 가까웠다. 친부모가 수양 관계를 해제하고자 하면 양육비 보상 명목의 위약금이 큰 장애가 되어 가로막았다.[326] 당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양육비가 실제로 문제시되고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시기부터 자매 노비의 환퇴, 속량이나 유기아를 부모가 되찾기 위해서는 기르는 데 들어간 의식비를 치르도록 했던 관행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일제하 수양녀 관행을 전근대 사회의 자매나 수양을 통한 노비와 비교하여 차이를 밝힌다면, 이 시기에는 당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의 권리를 형식적으로나마 따르는 모습을 취하기 위해 수양부모가 친부모로부터 친권의 위임장을 받아오곤 했다는 점과, 식민지 조선에서 크게 팽창한 접객업과 성매매 시장에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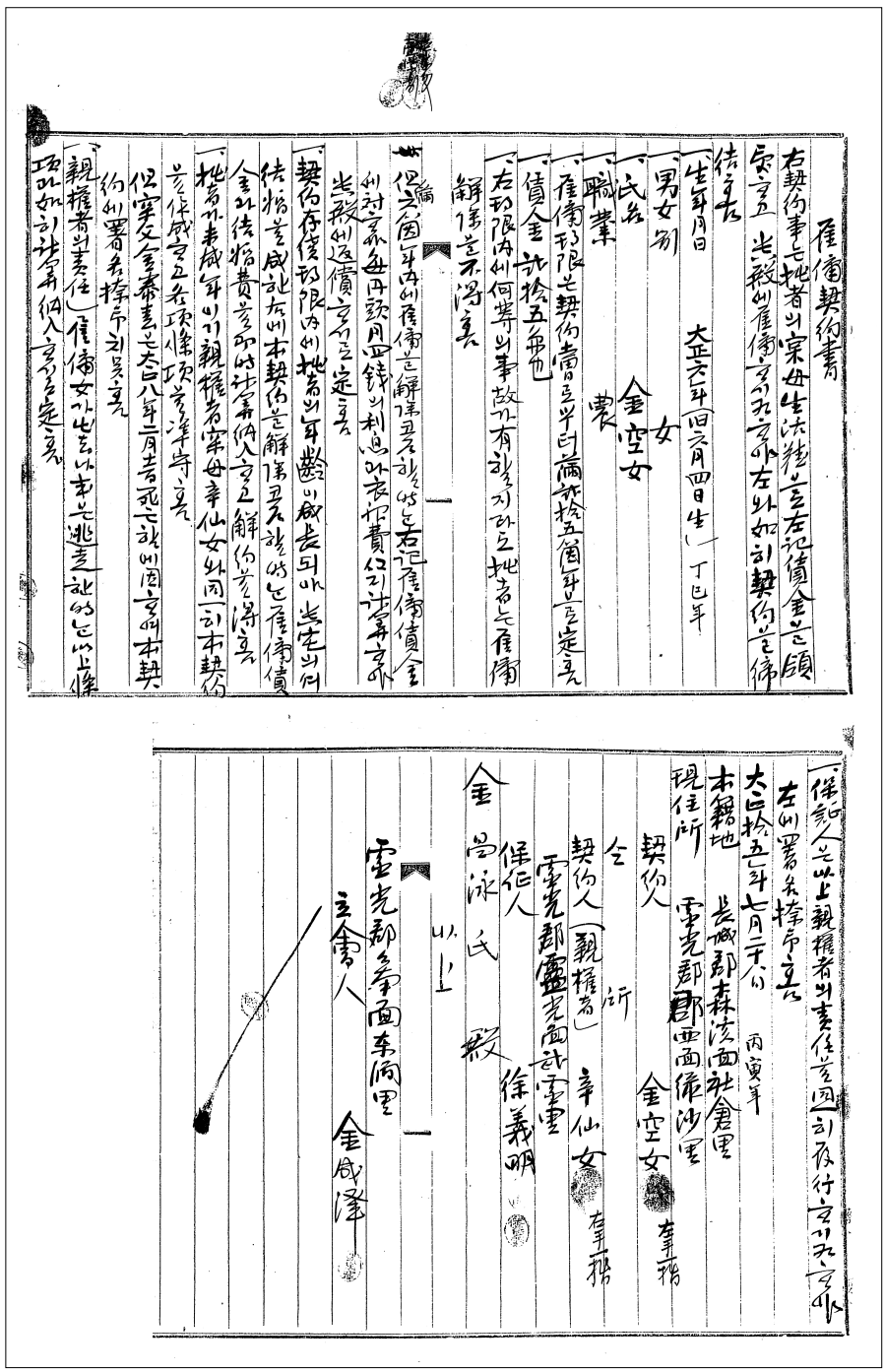
---

322) 정해은, 「조선후기 빈곤층 여성의 자매(自賣) 실태」 『여성과 역사』 20, 2014
323) 박용숙,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혜안, 2007, 85~86쪽
324) 박정애,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호, 2022
325) 1912년 3월에 공포한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조선의 법률적 가족관계에서 입양은 입후, 곧 가계 계승 차원에서만 인정되었으나, 19921년과 1922년에 일본 민법을 일부 의용하여 제11조를 개정하며 양녀의 입적이 가능해졌다.(박정애, 위의 논문, 19-20쪽)
326) 박정애, 위의 논문

위의 수양녀 관행과 더불어, 기한을 둔 여아들의 '남의집살이'에 있어서도 전시기와는 다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자료로 9세 여아의 '남의집살이'를 '고용계약서(雇傭契約書)'라는 이름으로 문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328]

327) 정해은은 조선 후기의 자매 노비의 경우 성보다 노동력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해은, 앞의 논문.

328) 1920년대가 되면 조선 농촌에도 신식 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상세한 신식 소작계약서였다. 초기 일본인 농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신식 계약서 관행은 한국인 지주에게로 확산되었다. (조선총독부, 『朝鮮の小作慣行』, 1929, 94쪽.) 다음의 고용계약서에서도 일본 연호를 쓰는 것과 더불어 계약서에 나타나는 새로운 형식들이 이 시기 농촌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雇傭契約書

右契約事七地者의宋母生法律으로左記債金을頃
宋호고 生殺의雇傭호기로호고左와如히契約을定
함

一 生年月日 大正六年旧六月四日生 丁巳年
一 男女別 女
一 氏名 金空女
一 職業 農
一 雇傭期限은 契約當日로부터滿拾五個年으로定홈
一 債金 弐拾五弗也
一 右期限內에 何等의事故가有하기까지는 地者는雇傭
解雇를不得홈

但 滿一個年內에雇傭을解除코자하는者는右記雇傭債金
에對하야每四弗式月賦의利息과衣服費를計算하야
生殺의返償을定홈

一 契約存在期限內에地者의年齡이成長되야生活의
途가成就한때에本契約은解除로認하는바이나雇傭
金과衣服費等의計算額을納入하고解約을得홈

一 地者가未成年인때에親權者가宋母幸仙女外同一히本契約
을代理하고各項條約을遵守홈

但宋文金泰壽는 大正八年二月吉旦死亡하였기로本契
約에署名捺印치아니홈

(親權者의責任) 雇傭女가逃亡하거나事故로逃走하는
때에는如何한條項에든지親權者가責任을負하기로定홈

保証人은以上親權者의責任을因하야行하기로하고

右에署名捺印홈

大正拾五年七月二十八日 丙寅年

本籍地 慶尚南道 昌原郡 鎭海面 社倉里
現住所 同 郡 同 面 德沙里
契約人 金空女 拇指捺印
仝
契約人 (親權者) 辛仙女 拇指捺印
同 同 同 同
保証人 徐義明
金當泳 氏 殺

立會人 金成澤

**고용계약서**

(※현대 문체로 정리 - 필자)

이 계약은 위탁자[托者] 생모[實母]의 생활난으로 다음의 임금을 영수하고 귀전(貴殿)에 고용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생년월일 : 다이쇼(大正)6년[1917] 구(旧)6월4일생 정사년
2. 남녀별 : 여(女)
3. 씨명 : 김공녀(金空女)
4. 직업 : 농업(農)
5. 고용기한은 계약 당일로부터 만 이십오개년을 정함
6. 임금 : 이십오원
7. 이 기한 내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위임자는 고용 해제를 할 수 없음
8. 단, 6개년 내에 고용을 해제코자 할 때는 위의 고용 임금에 대하여 매월 일원 사전의 이자와 의식비까지 계산하여 귀하에 갚기로 정함
9. 계약 존대(存貸) 기한 내에 위탁자의 연령이 성장되어 귀댁에서 결혼을 이룬 후에 본계약을 해제코자 할 때는 고용 임금과 결혼비를 더해 계산 납입하고 해약을 할 수 있음
10. 위탁자가 미성년이기에 친권자 생모 신선녀와 동일히 본 계약을 작성하고 각 항 조항을 준수함

단, 생부 김태춘은 다이쇼(大正)8년[1919] 2월12일 사망한 고로 본 계약에 서명하지 못함

11. (친권자의 위임) 고용녀가 나가거나[出去] 혹은 도주한 때는 이상 조항과 같이 계산 납입하기로 정함
12. 위탁인은 이상 친권자의 위임을 동일히 이행하기로 하여 다음에 서명함

다이쇼(大正)15년[1926] 7월 28일 병인년

본적지 장성군 삼계면 사당리
현주소 영광군 군서면 계사리
계약인 김공녀 (왼쪽 첫째손가락)
계약인 (친권인) 신선녀 (오른쪽 첫째손가락)
영광군 영광면 무령리
위탁인 서의명
김창영 씨 殿
이상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입회인 김성봉

9세의 어린 여아를 2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겨우 25원의 돈으로 사역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이전 시기의 고공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계약서 앞부분에서 간략하게나마 사유를 서술한 것도 전시대의 관행이 다소 남은 것으로 보인다.[329]

그러나 고용기한을 명시하며 그 기간 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임금(賃金)'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망에 따른 배상이나 계약 해제에 대한 조건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특징이다.[330] 이는 미성년 여아의 '남의집살이'가 임금 노동으로서 규정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사노동에 사역되었을 여아의 노동력이 양육비와의 대조를 통해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어린 소녀들의 '남의집살이'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여 어린시절 남의집살이를 했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15]와 같다.

**[표 2-15]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에 등장하는 미성년 여성의 '남의집살이' 사례**

| | 이름 (출생연도) | 연도 | 지역 | 남의집살이 조건 | | | |
|---|---|---|---|---|---|---|---|
| | | | | 나이(만) | 경로나 상황 | 기간 | 임금 |
| 1 | 김덕진 (가명) (1921) | 1932 ~1936 | (의령) → 진주 | 11~15세 | 식모살이 하던 친구의 소개로 진주 은행원 집에서 가사노동 | 약 4년 | 무급→ 15살이후 지급 |
| 2 | 이영숙 (1933) | 1933년 경~1939 | 오사카 → 부산,양산 일대 | 10세경 ~16세 | 고아로 오사카~부산을 남의집살이로 전전 | 불명 | 무급 혹은 약간의 |

329) 조선시대 자매는 본래 불법이었던 것을 구휼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므로 매매의 안전성을 위해, 자매를 허가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관의 입지를 받아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김재호, 앞의 논문 ; 박경, 앞의 논문) 따라서 자매를 하게 된 사유가 중요하였고, 자매 문서에는 이러한 사유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

330) 실제 이 계약서의 김공녀는 세 차례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때마다 계약서에 규정된 값을 지불해야 했다. 장서각 소장 문서 MF35-009645「空女母出給記」

| | | | | | | | 용돈 |
|---|---|---|---|---|---|---|---|
| 3 | 하순녀(1920) | 1931~1936년경 | (영암)<br>→ 광주 | 11~16세경 | 가출 후 광주역에서 50대 여성을 따라나섬 | 약 5년 | 무급 |
| 4 | 이용녀(1926) | 1933~ | (양평)<br>→ 여주 | 7세~ | 여주읍 부잣집에 가서 가사노동 | 불명 | 무급 |
| | | 1936~ | → 서울 | 10세~ | 서울에 와서 포목상을 하는 조선인 집, 일본인 집 등에서 남의 집살이 | | |
| 5 | 김춘자(1923) | 1935 | (연천)<br>→ 서울 | 12세 | 설에 고향에 온 아저씨를 따라나서 아현동 술국집에 감 | 불명 | 옮길 때마다 부모등에 선불금이 거래 |
| | | | → 함남 삼수갑산 | 불명 | 술국집에 온 공의(公醫)가 데려가서 가사노동 | 1년 | |
| 6 | 최일례(1916) | 1923 | 영암 | 7세경~ | 모친 사망 후 옆 동네 남의집 살이 | 불명 | 무급 |
| 7 | 전금화(1924) | 1930~1940 | (천안)<br>→ 서울 | 6세~16세 | 부모 사망 후 걸식하며 상경, 소개를 통해 남대문 일본인 여관에서 일함 | 10년 | 무급 |
| 8 | 최정례(1928) | 1941~1942 | 서울 | 13~14세 | 가난하여 남의 집 식모살이 | 1년 | 무급 |
| 9 | 김옥주(1923) | 1934~1940 | 대구 | 11~16세 | 이웃 사람들의 소개로, 일본인 장교 집에서 식모살이 | 5년 | 한 달 2원 |
| 10 | 정윤홍(1920) | 1933~1934 | 당진 | 13~14세 | 일본인 교장 집 식모살이 | 1년 | 불명 |
| 11 | 이옥선 | 1941~ | 부산 | 14~15세 | 우동집, 술집 식 | 각각 | 무급 |

| | | | | | | | |
|---|---|---|---|---|---|---|---|
| | (1927) | 1942 | → 울산 | | 모살이 | 1년 미만 | |
| 12 | 홍강림 (1922) | 1933~1938 | 김천 | 11~16세 | 일본인 집에서 아이보기와 가사 | 5년 | 불명 |
| 13 | 하군자 (1928) | 1939~1940 | (서산) → 진남포 | 11~12세 | 아버지 친구의 소개로 진남포 상인집에 감 | 1년 | 무급 |
| 14 | 박필연 (1921) | 1939~1940 | 부산 | 18~19세 | 다니던 방직 공장 주인인 일본인 집에서 보모로 일함 | 약 1년 | 금액 불명 |
| 15 | 정학수 (1925) | 1933 | 감포 | 8세~11세 이전 | 빚 때문에 지주집 하인으로 일함 | 불명 | 부채상환 |
| 16 | 김순옥 (1922) | 1928~1935<br>1940 | 평양 | 6세~13세<br>18세까지 | 조선인 집 남의 집살이<br>일했던 집의 소개로 일본인 집 아이보기로 감 | 7년<br>불명 | 선불금이 주어진 것으로 보임 |
| 17 | 이광자 (1928) | 1935~1941 | 부산 | 7세~15세 | 어머니에 의해 여관집에 맡겨짐 | 8년 | 무급 |
| 18 | 박옥선 (1924) | 1935 | 밀양 | 약 11세 | 일본인 집 아이보기 | 몇 개월 | 불명 |

출전:

[사례(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Ⅰ』, 한울, 1993.

[사례(5)~(8)] 同,Ⅱ권(1997) / [사례(9)] 同,Ⅲ권(1999) / [사례(10)] 同, Ⅳ권(2001)

[사례(1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증언집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인권, 2004.

[사례(12)~(15)] 정신대연구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사례(16)~(18)] 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 한울, 2003

비고:

① 이름은 증언집에 나온대로 가명인 경우는 가명을 표기함

② 지역의 경우 남의집살이를 했던 지역을 말하며, 고향집에서 남의집살이를 위해 이주

한 경우 “(고향)→일한 지역”으로 표기함
③ 나이의 경우 피해자 증언에서 한국의 관습적 나이인 “~살”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으나, 만 나이로 통일하여 표기함
④ 기간은 한 곳에서 일한 기간이 파악 가능할 때 표기함
⑤ 임금은 대개 숙식과 옷이 제공되므로 무상으로 일한 것은 아니나, 따로 급료의 형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무급’으로 표기함

[표 2-15]와 같이 증언집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대체로 1930년대의 일로, 증언자들은 대개 10대 초중반의 나이에 남의집살이를 했지만, 형편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10세도 되기 전부터 남의집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표 2-15]의 사례(4), (6), (7), (15), (16), (17)이 그에 해당한다.[331]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는 본래 고향이 시골인 경우 남의집살이를 하기 위해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1)은 의령에서 진주로, 사례(3)은 영암에서 광주로, 사례(4)는 양평에서 여주, 다시 서울로 이주하여 일하였으며, 사례(7)도 천안에서 서울로, 사례(13)도 서산에서 진남포로 옮겨갔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에서 살펴본 통계자료들에서 연령에 있어서는 미성년자가 많았고,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에 집중되었던 경향성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남의집살이를 하게 되는 경로나 상황을 보면 인편(人便)을 통한 소개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식모로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던 친구나(사례(1)), 명절에 만난 친척(사례(5)), 서울에서 만난 타인(사례(7)), 이웃 사람들(사례(9)), 아버지 친구(사례(13)), 다니던 방직 공장의 일본인 주인(사례(14)), 이전에 일했던 집의 소개(사례(16)) 등 다양한 친소관계의 인맥을 통해 소개나 주선을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 이같은 인맥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다. 1930년대말 잡지 기사를 보면 당시 부영 직업소개소에서는 시골에서 상경한 소녀들이 함께 직업소개소를 찾아와 각기 다른 가정을 소개받아 가는 경우나, 미아가 되었다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어린 가사사용인이 필요한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32] 위의 사례(3)은 가출한 소녀가 기차역 앞에서 만난 인물을 따라

331) 이것은 민며느리나 수양딸도 마찬가지였다.

가서 일을 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당연히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다.[333] 그리고 위의 사례들 중 절반가량인 8명은 일본인의 집에서도 남의집살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사례(4),(7),(9),(10),(12),(14),(16),(18)) 역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사용인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어린 소녀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매우 낮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숙식을 제공하게 되므로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 소녀들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숙식 제공의 비용보다 낮다고 여겨졌을 때, 즉 이들에 대한 부양 비용이 노동력보다 크다고 계산되었을 때일 것이다. 사례(1)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언자는 열두 살 때 "내 한입이라도 줄이고 돈도 벌게, 남의집살이를 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미 진주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던 같은 동리 친구의 소개로 진주로 가서 식모살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열다섯 살이 되니 그동안 어리다고 주지 않던 월급을 조금씩 주어서,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에야 돈을 조금 모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어머니의 옷을 해드릴 광목과 장을 담글 콩을 한 말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334] 사례(3)은 열두 살 때부터 3년 동안 월급 없이 밥을 먹여주고 옷을 해주는 조건으로 남의집살이를 하던 중에, 그 이웃집으로부터 월급을 줄 테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였다.[335] 두 사례 모두 열다섯 살이 되기 이전까지는 어리다는 이유로 급료가 없는 조건을 감내하며 일을 해야 했던 정황을 드러낸다. 또한, 사례(9)에서는 '열두 살 되는 3월에 이웃 사람들의 소개로 직업군인이었던 일본인의 가정에 들어가 5년을 일했는데, 5년 내내 한 달에 2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336] 이는 조선인 가정보다 많은 급료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인 가정의 경우에도 어린 소녀의 임금은

---

332) 『조광』 1939.9.「人事相談所 窓口에 버러진 人生의 喜悲劇 - 鄭圭哲」
33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Ⅰ』, 한울, 1993, 75쪽.
33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앞의 책(1권), 47-48쪽.
33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위의 책(1권), 76쪽.
33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Ⅲ』, 한울, 1999, 94-95쪽.

매우 낮았던 것을 보여준다. 설령 남의집살이의 대가로 금전이 오가더라도 어린 여성들이 임금을 받는 주체로 여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선불금이나 부채 상환의 형식으로 주어진 경우들도 있었다. [표 2-15]의 사례(5),(15),(16)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가족이 모두 거의 걸식을 하게 된 것과 같이 생계가 절박한 경우일수록 더더욱 급료를 주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다음으로 남의집살이 기간을 살펴보면, 한 집에서 일한 기간은 일관적인 경향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제각각이며, 길게는 매우 어린 나이부터 맡겨져서 7~8년을 같은 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짧게는 1년 미만씩 머물기도 하였다. 그리고 [표 2-15]의 사례(4)를 살펴보면, 증언자의 기억으로 8살 때부터 남의집살이를 하였고 각각의 기간은 불분명하지만 몇 번의 남의집살이를 경험하였다. 원래는 양평에서 살다가 여주읍의 부잣집에 가서 매일 걸레를 빠는 등 가사일을 했으며, 가족들이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올 때 함께 올라와서 서울에서 다시 조선인 포목상의 집, 일본인 가정에서 남의집살이를 했고, 당시에 집안 형편이 계속 어려워서 증언자의 오빠도 남의집살이를 가야 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막내를 낳은 후에는 증언자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야 할 정도로 궁핍해졌으므로, “사직동 같은 부자동네로 다니면 그 집에서 살라고 하면서 붙잡기도 했”는데, “난 남의 집 살 사람이 못 돼요”하며 뿌리쳤다고 말한다.[337] 즉, 원가족이 해체되지 않은 상태로 남의집살이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던 것이다. 사례(8)에서도 집이 가난하여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1년 정도 하였는데, 어느 날 어떤 조선인 남자가 어머니에게 나타나 딸을 공장에 보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여, 남의집살이를 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떠나게 되었다는 사정을 말하였다.[338] 이것은 이 시기의 남의집살이가 역시 전시기의 자매나 구활을 통한 투탁만큼 예속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33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앞의 책(1권), 215-216쪽.
33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Ⅱ』, 한울, 1997. 218-219쪽.

맡겨진 일의 종류에 주목해보면, 어린 여성들에게는 간단한 집안 허드렛일과 더불어 주로 아이보는 일을 많이 시켰음을 알 수 있다. 남의집살이로 가서 아이보는 일을 했던 소녀들에 대해서 '아이보개','애보개'등의 호칭을 쓰기도 하였다. 사례(4)에서 이런 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증언이 나타나고 있다. "날마다 애를 업고 돌아다녔는데, 아이가 등에다 오줌을 싸서 땀띠가 났고 추운 겨울에는 기저귀를 매일 빠느라 손이 갈라져 피가 나곤 했다"는 것이다.[339]

다음은 1936년 6월 여성잡지에 실린 기고글로서 이렇게 아이보는 일을 남의집살이 여아에게 맡겼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340]

> 「아이시켜 아이보임은 위험」
> 집안에 자라나는 아기들이 많으면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12~13세 되는 아이를 두어 아기를 보게 합니다. 우리집에도 단가 살림에 아기 터울이 몹시 잦아서 자연 남의 사람을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 어른을 두면 월급도 상당히 나갈 뿐 아니라 이미 자기 주견을 가지고 있는 장년이 되어서 시키는대로 잘 하지 않아 속이 상하므로 아이를 두었더니 아직 순직한 탓인지 어른의 말을 순종하고 더욱이 같은 아이가 되어서 어른이 보아주는 것보다 아기들이 퍽 기쁘게 놉니다.
> 그러한 관계로 몇 해 동안 아이를 집에 두고 기르면서 어린애를 보게 한 경험상 철없는 12~13세 아이에게 아기를 보임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점점 느끼었습니다. (중략)
>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아이에게 아기를 맡기는 경우에는 어른의 부단한 주의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 그러나 나의 의견 같아서는 집안에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을 남의 사람에게 맡기고라도 아기만은 어머니가 직접 보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할 줄 압니다.(강조-필자)

이 글은 당시에 12~13세가량의 '아이보는 아이'를 두어 아기를 돌보게 하는 일이 매우 흔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아이보육

33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위의 책(2권). 215쪽.
340) 이창희, 「아이시켜 아이보임은 위험」 『신가정』 4-6, 1936.6.

및 교육과 관련을 가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 제2절 '식모폐지론'의 형성 및 담론과 현실의 괴리

현실적으로 농촌의 경제적 분해 및 농촌 이탈 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사노동자로의 여성노동력 공급이 끊임없이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둘러싼 담론은 일견 호응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즉, 가사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가사노동자를 두지 말고 주부가 제 손으로 살림을 하자라는 논의가 나온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 차이가 분명하다. 다른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하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현실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속에서 담론이 변화해 갔음이 뚜렷한데, 조선은 담론이 등장한 시기나 담론과 현실간의 연결에서 괴리를 보이거나 오히려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상에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고, 왜 그런 상이한 양상이 조선에서 나타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서구와 일본의 가사노동담론

서구의 주부 규범은 19세기 빅토리아기에서 시작되었다. 이 무렵 공사영역구분(the doctrine of separate spheres)이 확고해짐과 함께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다시 여성의 공간으로 할당하며 '가정성(domesticity)'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시작되었다.[341]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세기 말부터 가정의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는 가정과학운동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이후로는 산업 현장에서 각광 받던 포디즘

341) 공사영역구분 이데올로기가 체계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20년대 대중문학, 여성잡지, 가정지침서 등에서 등장하면서부터였다. 1820~60년 사이의 많은 문헌들에서는 가정을 애정이 가득한 안식처로 묘사하며 "순결, 경건, 복종, 가정성"을 여성의 미덕으로 꼽았다. Susan Strasser, *Never done : a history of American housework,* Henry Holt, 2000, 181-185쪽.

과 테일러리즘을 받아들여 가사경영과 가사노동에 적용하고자 했던 가사 합리화 운동이 미국과 더불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 전개되었다.[342]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생활표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산업의 발달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공급은 크게 감소해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19세기 말부터 중간층(middle class)의 성장과 함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으나 여성들이 공장일이나 사무직 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말에 이미 가사노동자들 다수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 여성들로 채워지고 있었는데, 20세기 초가 되면 외국인 백인 여성들마저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고 흑인 여성들이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343] 그 이전 시기까지 좋은 하인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였던 “하인 문제(servant problem)”는 이제 질보다 양을 문제 삼는 논의가 되었고, 다양한 사회 단체 조직과 가사 개혁가를 자처하는 개인들이 나서서 이 하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344] 가령 여성 클럽들, 주나 연방 노동부, 대학 동창회 등이 가사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YWCA는 가사 고용에 관한 국가 위원회 설립하였고 법률 구조 협회는 하인과 고용주를 위한 핸드북을 출판했다. 가사 개혁가들은 고용사무소를 설립하고 계약서를 디자인하는가 하면 하인 훈련 학교를 설립하고 보고서를 출판하고 컨퍼런스와 강의를 조직하였다. 이때 이 하인 문제의 해결방향은 폐지론이 아니라 개혁론이었다. 개혁론을 주창하는 이들은 가사노동도 다른 직업처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자본주의 산업의 원칙에 따라 합리화’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345]

---

342)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81쪽 ; 김덕호, 『세탁기의 배신』, 뿌리와 이파리, 2020, 71-77쪽.

343) Susan Strasser, 앞의 책, 164-167쪽.

344)Susan Strasser, 앞의 책, 168쪽. 19세기 말 한때 캐서린 비처(Catharine Beecher), 세라 헤일(Sarah Jpsepha Hale) 등 가정 담론을 만드는 데 선구적이었던 소수의 여성 인사들에 의해 ‘하인폐지론’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 영향력도 극히 약했다.

345) Susan Strasser, 앞의 책, 168-175쪽.

그러나 입주 가사노동자의 감소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때 고용된 여성의 절반을 차지했던 가사노동자의 비중이 1/6 비중으로 줄어든 1920년대 이후로는 주부에 대한 담론이 가전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가정 내 전기 설비와 가전제품의 보급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미국의 경우 가정 내 전기 공급률이 1917년에는 24%에 머물렀으나 1930년이 되면 80%로 급증하였고, 기업들은 급감하고 있는 가내 하인을 대신하여 '전기하인'을 쓸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1930년대가 되면 미디어에서 그리는 가사노동의 주체는 하인에서 주부로 바뀌어 있었으며, 주부가 가사노동을 직접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346]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많은 가정주부들이 전기, 배관, 대량 생산 상품의 공급을 기반으로 입주 가사노동자 없는 중산층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고자 하게 되었다.[347]

즉 미국에서는 산업노동으로 젊은 여성 인력이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가사서비스노동 팽창의 시기가 끝이 나고 가사노동자를 찾기 힘들어지자, 가사노동의 주체가 주부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주부의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담론이 주부 규범과 부담을 강화하며 '전기하인'이라고 불리었던 가전제품의 생산과 보급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보다도 더 비교할 지점이 많은 것은 일본의 사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10년대 후반, 더 구체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점이 되면 "조추(女中)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과 "몸소 가사를 행하는 주부"의 모습을 장려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추동한 근본적인 요인은 당시 "조추난(女中難)"이라고 불리며 사회문제시 될 정도로 조추의 부족이 심각해진 데 있었다. 곧, 일본에서도 가사노동자의 부족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선행하고 이것이 담론에 반영된 것이다.

일본에서 조추의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전후(메이지30년대)였으며, 이미 1900년대 중반(메이지40년대)부터는 부족 현상이 현저해졌다고 한다.[348] 이 시기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나 회사원 등

346) 김덕호, 『세탁기의 배신』, 뿌리와 이파리, 2020, 106쪽.
347) Susan Strasser, 앞의 책, 178쪽.

의 가정이 '신중간층(新中間層)'을 형성하면서 조추의 새로운 고용층이 된 시기이기도 하였으므로,[349] 조추의 부족은 수요의 측면에서 이러한 신중간층의 확대와 맞물려 있다. 당시 상류계급이 아닌 중류계급에까지 조추 고용이 확산되면서 "조추를 사용하는 방법", "조추교훈[女中訓]"과 같은 책 등이 출판되어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350] 또한 이 시기는 조추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하비(下婢)"나 "하녀(下女)"와 같은 말을 "여중(女中)", 곧 "조추"가 대체해 나간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르게는 1900년대부터 조추 없는 생활을 장려하는 논설이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이야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여전히 가사는 곧 조추가 담당하는 일이라는 의식이 대체적이었고, 가사일에 드는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궁리를 하는 것조차 창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당대의 분위기였다.[351]

그런데 제1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일본 조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큰 전환을 맞이하였다. 전시 호황에 따라 여성 노동력에 대한 공업 부문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었던 조추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시켰던 것이다. 도쿄에서는 소개소[桂庵]에 부탁을 해도 좀처럼 조추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로원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노인을 데려와 조추로 고용하는 가정까지 있었다고 한다.[352]

그런 한편으로 전쟁이 끝난 후 2~3배에 달하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신중간층은 생활난에 빠지게 되었다. 신중간층의 다수를 점하는 것은 하급 관공리, 학교 교원, 회사원 등이었으므로, 이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더욱 취약하였다.[353] 당시 여성잡지나 신문에서는 부업이나 내직의 장려, 절약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개선 등 생활난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조추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이 생활 개선안의

348) 清水美知子, 『〈女中〉イメージの家庭文化史』, 世界思想社, 2004.6. 76쪽.
349) 奥田暁子 編著, 『(日本女性史再考) 女と男の時空-(10)鬩ぎ合う女と男ー近代[下]』, 藤原書店, 2000, 396-397쪽.
350) 小泉和子 外, 『女中がいた昭和』, 河出書房新社, 2012. 54~61쪽.
351) 清水美知子, 앞의 책, 87-88쪽.
352) 清水美知子, 위의 책, 79쪽
353) 清水美知子, 위의 책, 85쪽.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1917년에 신중간층 가정을 주독자층으로 하여 창간된 여성잡지 『주부지우(主婦之友)』는 생활난의 시대에 창간되었기에 처음부터 “조추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기사를 다수 게재하였다. 특히 1917년 10월호에서는 “여학교의 가사과의 선생으로부터 여학교 출신의 젊은 부인에게”라는 소특집을 짜서, 식자로부터의 메시지를 게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교수인 고칸 키쿠노(後閑菊野)는 일본의 가정이 필요이상으로 사용인을 쓰는 것을 다루며, “새롭게 가정을 가지고 나서 10년간은 조추 등을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집의 일은 일절 자신의 손 하나로 해 나가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훈계하고 있다. 또, 일본여자대학교 교수 테즈카 카네(手塚かね)도 “순서만 좋으면 조추 없이 훌륭하게 해 갈 수 있습니다. 조추를 두지 않으면 어쩐지 부끄럽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부디 이것과 반대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라고 하여 조추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354] 이렇게 이 단계에 와서는 가사학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부엌설비를 현대화하고 일의 순서만 바꾸면 조추없는 생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몸소 가사를 행하는 주부상” 또한 조추 부족과 생활난에 대한 신중간층의 타개책으로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1910년대 중후반부터 20년대에 걸쳐 최신 주택 설계와 편리한 설비, 기기 등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아졌으나, 당시의 일본은 전기나 전자제품의 보급이 진전되지 못했으므로 도시의 극소수의 여성들만이 이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최신 설비와 기기를 통해 “몸소 가사를 행하는 주부상”은 (일본에서는) 동경의 대상에 가까웠다.[355]

그보다도 일본에서 1920년대~30년대 조추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실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파출부였다. 그러나 파출부도 결국 조추를 충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1920년대에 크게 확산되었던 파출부 지회는

354)手塚かね子, 「女中を使はぬのを主婦の名譽とせよ」 『主婦之友』 제1권 제8호, 1917. (清水美知子, 위의 책, 88쪽, 재인용)
355) 清水美知子, 앞의 책, 93~95쪽.

1930년대에 난립하며 사회 문제까지 일으켰다. 다만 파출부의 등장 이후로 조추를 직업의 하나로 보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356]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선에서 식모가 부족하여 북촌 양반가에서 "식모난"을 겪고 있다거나 직업소개소의 문전에서 "식모쟁탈전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937년경으로, 이 시기는 전시 경제 특수에 힘입어 일본의 대자본이 조선으로 진출하여 미숙련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방직공장을 대거 세운 시기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가사노동자 없이 주부가 직접 살림을 하자는 논의는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92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이출여성들이 노동력으로 끊임없이 공급되는 속에서 가사노동자의 수가 계속해서 팽창해가는 정황을 보이던 시기였다. 즉, 서구나 일본에서는 공업 발달에 따른 가사노동자의 공급 부족이라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선행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주부가 **직접** 가사노동을 하는 일'에 더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면, 조선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앞질러 담론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담론이 현실에 선행하여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아래에서는 조선의 가사노동자 담론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의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2. 조선의 가사노동자 담론의 특징

### (1) 식모폐지론의 양상 – 신여성 비판과 식모 타자화

식모폐지론은 그 논조와 담론 생산자에 따라 맥락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사서비스노동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며, 특히 그러한 비판은 당대 신여성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신여성의 허영을 공격하는 논의는 처음에는 외모와 유행에서 시

356) 清水美知子, 위의 책, 98-110쪽.

작되었지만, 1920년대 중반부터는 살림살이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되었다. 신여성이 결혼하여 직접 살림살이를 하는가의 여부는 신여성이 허영과 사치에 물든 못된 신여성인지, 즉 '모던걸'이 아니라 '못된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잣대가 되었다.[357] 따라서 신여성에 대한 비판과 반감이 담긴 논의에서는 대개 여성이 '제 손으로 살림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가사서비스노동의 이용은 사치와 향락, 허영으로 여겼다. 그에 따라 1920년대 후반이면 '식모를 두는 것은 사치'라는 수사가 뚜렷하게 언론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29년 12월 말에 게재된 다음의 신문 기고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358]

> 귀중한 조선일보사 학예부를 통하여 나의 편견이나마 **신여성 제씨에게** 두어마디 부탁하고자 한다. 나는 시골사람이라 별로 많이 신여성을 대하지 못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때때로 서울, 평양 같은 도회지와 향촌 등지에서 대하는 유식 계급의 여성을 만날 때에 얻는 감상은 실로 이상하다. 우리 여성은 더욱 남달리 특수한 환경에 처하니만큼 남다른 공헌과 봉사가 필요하련만 그와 반대로 멸망의 길인 **허영과 사치가 절정에 달하여** 참된 사람을 망각하고 인형화하였다. 일례를 들면 요즘 여성의 의복과 화장은 극도로 팽창되었다. (중략) 그리고 **생활 개선을 급속히 하되 먼저 식모 유모 침모 같은 귀족적 행사는 철폐하고 잘되든 못되든 자기의 아름다운 손으로 밥 지으며 어린 것을 기르며 의복을 지으면** 어느 누가 그르다 하겠는가. 모두가 두 손을 들어 찬성하며 환영할 것이다. (이하 생략) (강조-필자)

당시 경제공황의 시국 속에서 생활개선과 절약을 강조하는 논의와 '식모 등을 철폐하고 여자의 손으로 직접 집안일을 하자'는 주장을 연결 짓고 있는 것이다.

이후로도 신여성에 대해 '식모,유모,침모를 두고 향락을 누리려 한다'는 표현의 비난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요즘의 신여성은 (중략) 적어

---

357)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 2009, 361쪽. 김수진의 연구는 처음으로 (현모)양처 논의와 신여성 담론을 본격적으로 연결하였다.

358) 『조선일보』 1929.12.25. 「녀성에게 보내는 말 허영을 버리고 실질덕 인물이 되라 -濯纓臺 강소천(姜小泉)」 글의 필자인 강소천은 함경남도 출신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계기로 1930년대 후반부터 아동문학가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도 여고보를 졸업했다는 간판만 걸머지고 빛나는 비단옷과 기름기 있는 음식만 먹고 양옥집 속에서 유모, 침모, 식모, 찬모를 거느리고 향락적 생활만 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359]라는 식으로 신여성이 가사노동자를 두는 일에 대해서 물질주의적이고 향락적인 세태로 묘사하기도 하고, 모성과 양육의 의무를 내세우면서 "조선의 신여성은 자기의 일신의 향락과 안위를 위하여 참된 모성의 강한 심리가 지배하지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이라며, "어린 애를 자기집 식모에게 맡겨두고 극장으로 돌아다니거나 또는 자기의 향락을 위한 일 때문에 하루종일 집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고 하는 등[360] 자식을 돌보는 일보다 일신의 향락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때 '제 손으로 살림하지 않는 신여성'에 대한 비판을 주도한 것은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맥락의 논설은 대개 남성 지식인 필자에 의해 쓰여진 것이거나, 필자를 명시하지 않은 신문 논설 등으로서 후자의 경우도 역시 주필진은 남성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이 신여성에 대한 담론까지 주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선에서는 실질적인 집단으로서의 신여성층이란 일본에 비해서도 극히 미약하였다.[361] 따라서 신여성에 대해 공격적인 담론은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1920년대~1930년대 초까지 대표적인 여성잡지였던 신여성의 필진 조차 글을 기고한 다수가 남성이었으며, 대략 남성과 여성 필자가 2:1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글을 여러 편 싣는 주요 필진이나 유명 필진의 경우 더욱 남성에 집중되었다.[362]

---

359) 『조선일보』 1935.03.02. 「내가본조선녀성(三) 함대훈(咸大勳)」
360) 『조선일보』 1934.09.12. 「오늘의 말슴」
361) 일본은 신중간층 여성들이 여성잡지 독자층을 형성할 정도로 신여성 집단이 실체가 있었다. 1911년에 창간된 대표적 여성 문예잡지 『세이토(青鞜)』는 1916년 폐간 때까지 여성으로만 구성된 사원이 90명까지 증가하였고, 찬조원이나 보조단원까지 포함하면 관계자가 1백명, 여성 문인의 수도 150명이 넘었다. (김수진, 앞의 책, 429-433쪽.) 반면 조선은 여성 필진으로만 이루어진 잡지 『신여자』가 1920년 3월 창간하여 4호 잡지로 폐간된 후 여성 필진 중심의 매체는 나오지 못했다.
362) 김수진, 위의 책, 189-196쪽.

신여성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가사노동자의 폐지를 주장하는 담론은 다음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실의 상황을 저지할 만큼의 작용력은 거의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들에 대한 규율 측면에서 힘을 발휘하여, 가능하면 가사노동자를 두지 않는 것이 좋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게 하였다. 가사 관련 담론에서 이같은 이야기는 1930년대 중후반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르게는 1930년대 초부터 감지될 수 있다. 1931년 7월 잡지 삼천리사는 "신여성들은 남편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있는가? 없는가?"라는 제목의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게재했는데, 당대 이름난 신여성들 및 그들의 배우자로 설문에 참여한 이들의 답변이 흥미롭다. 곧, "하인을 둘 처지가 못 되어 직접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즐겁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노동자를 두고 있더라도 "빨래는 맡겨도 밥과 옷은 아내가 짓는다", 혹은 "밥은 어멈에게 시켜 짓지만 반찬만은 반드시 제가 만든다", "부엌에 나가 반찬과 밥 짓는 것을 반드시 감독한다"는 등 가사일을 도외시 하지 않고 가사고용인에게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애써 피력하고 있었던 것이다.[363]

주부의 손으로 살림을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논의는 신여성들 내부에서도 제기되었고 이것이 식모폐지론에 힘을 싣는 두 번째 맥락이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가정학이 도입되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이수한 신여성들 중심으로 '과학적인 가사' 및 가정 경제를 강조하는 흐름이 생겨났다.[364]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논의에서 시작된 주부 담론은 곧 가사 전반에 대해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을 주창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1933년 조선일보는 여자의 경제권을 가정에서 찾을 것인가 직업에서 찾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때 한 여성 참여자는 "몇십 원 월급에 매여 귀중한 자녀의 양육을 무식한 유모나 어멈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하였다.[365] 그리고 19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가사

363) 『삼천리』 제17호 1931년 07월 01일 「新女性들은 男便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잇는가? 업는가? (설문)」

364) 가사노동과 주부에 대한 근대적 의미가 식민지 조선에 등장한 과정에 대해서는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을 참고.

365) 『조선일보』 1933.02.07. 「여자의 경제권을 가정에서 차즐가 직업에서 차즐것인가

노동의 과학적 수행을 강조하는 여성 필자들의 논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35년 여성잡지 『신가정』을 통해 송금선(宋今璇)은 “실로 가정은 주부의 천직”이며, “주부는 다방면에 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나 그중에도 더욱 필요한 것은 위생 경제 교육에의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였다.[366] 또한 1936년의 신문 논설에서 2회에 걸쳐 식모의 폐지를 논하고 있는 송옥선(宋玉璇)은 “한 가족의 귀중한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이 부엌의 관리를 어찌 잠시라도 무식한 식모나 일하는 아이들 손에만 일임해 두고 마음을 놓고 있겠으며 더욱이 귀한 자녀들까지 그들 손에 맡겨가지고 중차대한 육아의 책임까지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몹시 불합리한 일이라 말하고,[367]식모를 폐지하고 난 뒤의 대안으로서 “하인을 두고 쓰는 것은 단지 월급 주는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몹시 불경제”가 되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소비되는 돈을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의 살림살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간편화시킬 수 있다”[368]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같은 잡지에서 1936년 6월에는 식모에 대한 특집을 실으면서 자녀교육과 식모문제에 대한 설문을 게재하였는데, 이때 설문에 답한 논자 중의 한 사람인 허하백(許河伯) 또한 “가정 경제를 좌우하며 일가족의 영양과 위생을 주관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진 주부의 역할의 중요 부분을 무지한 식모에게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부당한 일인줄로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며 가사노동자의 고용은 주부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일컫고 있다.[369]

이때 이러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송금선이나 송옥선, 허하백 등은 모두 당대 일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교단이나 강단에서 교편을 잡음으로써 조선의 가사학 전문가를 자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었다. 해방 이후 덕성여자대학교와 덕성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송금선은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가사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편을 잡았다가 다시 1934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던

---

－여성대토론회－가정편연사 최직순양」
366) 『신가정』 1935.5.(3－5). 「가정은 주부의 책임(송금선)」
367) 『조선중앙일보』 1936.02.14. 「여성논단, 식모의 폐지(상)(송옥선)」
368) 『조선중앙일보』 1936.02.15. 「여성논단, 식모의 폐지(하)(송옥선)」
369) 『신가정 1936.6.(4－6)』 「(설문)자녀교육과 식모문제)」

인물이다. 송옥선 또한 일본의 나라(奈良)여자고등사범학교에서 가사학을 전공한 뒤 경성여자상업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덕성여대 교수로 재직한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허하백 역시도 나라(奈良)여자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여성계에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다. 당대 일본 여자유학생들은 가정학 관련 과목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공 과목이 파악되는 일제하 일본 여자 유학생 795명 중 가정학계를 전공한 이가 247명, 전체의 31.1%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나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는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중 조선인 여자 유학생 수에 있어서 7위와 8위에 위치하는 학교로서, 각각 59명과 53명의 재적 기록이 있었다.[370] 가정학을 이수하고 돌아온 유학생들 중 상당수가 가정학을 배운 많은 여자유학생이 귀국한 뒤 중등교육기관의 가사과 교사가 되어 조선에 가정학 지식과 담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371] 이렇게 1930년대 중반 본격 등장한 가사학 전문가들은 전시체제기의 담론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빈번히 “무식한 식모”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적 주부로서의 신여성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가사 관리에 대한 경제적 관념이나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식모들에 대해 타자화하는 언설이 흔히 쓰였다. 곧, 식모는 합리적이고 교양을 갖춘 주부와 달리, 무식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며, 자원을 마구 낭비하여 비경제적이며,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실제로 가사노동자들이 휘발유 등을 잘못 다루어 큰 사상 사고가 난 사례, 물정 모르는 시골 출신 식모가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 병에 걸린 채 식모살이를 하러 들어오는 사례 등이 종종 당시 신문지상에 실리기는 하였다.[372] 그러나

---

370)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식민지 문화지배와 일본유학』,창비, 2007, 49쪽.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와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의 조선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김광규,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 『한국교육사학』 43-1,2021 ; 同, 「일제하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유학생의 삶」, 『여성과 역사』 37, 2022

371) 박선미, 위의 책, 174-177쪽.

372) 『조선일보』 1927.06.25. 「石油가떨어저서 揮發油켜다重傷危篤」 ; 同, 1935.10.04. 「휘발유에 인화 少婦화상중태」 ; 同, 1937.02.06. 「빈빈한 계절의 희

이들 가사노동자에 대한 신여성들의 시각은 가사노동 수행 전반과 일상적인 태도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었고, 여성 명사들을 모아 식모에 대해 논의했던 좌담회 자리에서 이것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1938년 12월 매일신보사는 '가정생활개선 좌담회'를 열면서 안건의 하나로 '식모문제'를 거론하였다.[373] 주최 측에서는 '식모도 사람이니 집안 사람같이 여기라, 너무 부려 먹는 것은 폐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좌담회 참석 인사들은 식모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해주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했으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도무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문제는 식모들의 교양"이며,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한다거나 일을 규칙적으로 시킨다는 것이 무리한 노릇"이고 "식모에게 제 살림하듯 알뜰함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노릇", "더럽다고 욕을 하는 것도 무리한 노릇"이라는 것이다.[374] 1939년 연말에 열렸을 것으로 보이는 잡지 『여성』 지의 <식모를 토론하는 좌담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일화들이 언급되었다.[375] '가스와 곤로를 가정에서 써보았으나 식모가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이지 못했고, 식모는 경제적인 사고를 못하며 일러도 듣지 않았다'거나 '렌지와 같은 최신 설비를 들이고자 해도 식모에게 사용법을 가르칠 수 없었다', 혹은 '가스 쓰는 법을 며칠 동안이나 가르쳐 주었는데 숯불 쓰듯이 마구 썼다','손님이 찾아와도 차 한잔 내놓을 줄 모르고 그 내의(來意)도 잘 묻지 못한다'고 식모의 무지, 무교양, 경제적인 사고의 결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로 젊은 식모를 쓰면서 밤에 공부하라고 야학을 보냈더니 도리어 귀찮아 하였다'거나 "무교육한 사람은 뇌를 써서 그 해야 할 순서를 가르치면 도리어 원수로 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훈련도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심하게는 단지

---

생」 등.

373) 당시 참석자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원 조기홍(趙圻烘), 사회사업가 박인덕(朴仁德), 의사 장문경(張文卿), 근화여자실업학교 교원 나명주(羅明珠), 가정주부 김은수(金銀洙), 의사 허영숙(許英肅)이었다.

374) 『매일신보』 1939.01.01. 「가정생활개선 좌담회」

375) 당시 참석자는 고황경(高凰京), 이(막)을순(李莫乙順), 송금선, 허하백, 허영순이었다.

교육받지 못한 무지를 탓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생활도 못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식모 노릇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는 게 무리'라거나,[376] '웬만한 사람이면 자기 먹을 벌이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안잠자기를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보통 수준보다 떨어지는 인간'이며, "성질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데가 있어 웬만한 일에도 노엽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다"고까지 비하하였다.[377]

'식모를 토론하는 좌담회'는 '원칙적으로는 식모를 두지 않는 게 맞으며 특히 소가족이라면 그렇다'는 주장에서 시작하여, '식모에게 집안일은 맡겨도 아이는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교육받지 못한 식모의 무지함과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논의 또한 식모폐지론과 결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흔히 신여성과 대비시켜 타자화되는 대상은 '구여성(舊女性)'인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 가사 노동의 수행과 관련해서 타자화된 것은 '무식한 식모'들이었다.

가사노동의 과학화, 합리화를 강조하면서 무지하다고 비난하는 식모들에게 가사일을 맡기는 것과의 괴리는 일부에서 식모에 대한 교육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풀어내려 하기도 하였다. 식모도 배운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식모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던 것이다.[378] 이 일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성과 인천에는 각각 1936년과 1937년 실제로 일종의 훈련학교가 잠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379]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사의 수행을 강조하는 것과 식모를 고용하는 현실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으로 남았다.

결국 조선에서 '식모폐지론'은 신여성 담론의 자장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신여성을 비판하려는 측의 언설과 당대 사회에 본인들의 입지를

376) 『여성』 5-1, 1940년 1월호, 「食母를 토론하는 座談會」
377) 『매일신보』, 앞의 기사.
378) 앞의 좌담회 기사에서도 "식모는 좀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하며, 외국에서는 중등학교 졸업을 하고 하녀로 가기도 하고, 상당한 집 영양(令孃)들이 가사 견습을 가니 가정 규모를 잘 배우는데 조선의 식모에게는 그런 것을 바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성』 5-1, 1940년 1월호, 앞의 기사.
379) 『매일신보』 1937.06.29. 「需要만코 供給 적어 仁川에 食母學校 簡易한 講習을 식혀」 등

구축하고 구별짓기를 하고자 하는 신여성측의 전략이 함께 가사노동자를 매개로 하여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2) 대우문제제기의 지속과 '식모' 호칭의 확산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담론이 현실을 앞질러 간 것은 가사노동자의 권리와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는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조추난(女中難)은 사회의 외침"이라는 말, 곧 조추의 부족은 사회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조추에 지원하는 이들이 부족한 현상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고, 이것이 조추에 대한 대우 문제가 불거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젊은 여성들이 조추를 꺼리게 된 이유는 대우와 급여,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380] 반면 조선에서는 이미 제Ⅰ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모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인 1920년대 중반에 언론에서 조선인 가정의 '어멈', 혹은 일본인 가정의 '오모니'들에 주목하면서 그들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조선인 가정의 대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일본인 가정의 가사노동자로 가는 조선인 여성들의 모습이 이채로운 풍경으로 여겨지면서 눈길을 끌게 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결국 그러한 논의 기저에는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민족 감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 여성들이 왜 일본인 가정에 가서 일하고자 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조선인 가정의 대우를 문제 삼게 된 것이다.

조선 사회에서 일본인 가정에 대한 견제와 민족 감정을 기반으로 조선인 가정의 대우를 문제시하는 것은 193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다만 1930년대 초는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황이 심화되어 실업 문제가 크게 대두될 때였으므로 언론에서는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 문제를 그저 '조선 어멈의 시세가 좋다'는 방식으로 표현하였을

380) 清水美知子, 앞의 책, 81~84쪽.

뿐 문제시하지 않았다.[381] 그러나 잠깐 실업 문제에 압도되었던 정국이 끝나고 나자 1930년대 중반 다시금 가사노동자에 대한 대우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때도 조선인 언론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대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왜 일본인 가정이 선호되는가'를 함께 물었다.[382] 물론 이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금의 차이였으나, 그 밖의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더불어 지적하면서 특히 조선인 가정의 대우 문제 지적하기를 빠트리지 않았다.[383]

이와 같은 담론의 이면에 있는 정서, 즉 가사노동자의 민족간 고용에 대한 불편한 감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림 2-4]의 만평이다. '진고개'라는 제목의 이 만평은 일본인 부인의 뒤를 따르는 조선인 여성이 치마저고리에 일본신인 게다를 신은 채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여 그려놓았으며, 종종걸음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조선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만화에 덧붙인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우습기도 하고 비통한 쇼크를 받고도 남는다"하고 "꼴불견"이라 일컬음으로써, 그 풍경을 바라보는 조선인 남성으로서의 감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회가 그리는 만화풍경) 진고개**

옛날에는 그 고개가 얼마나 질었던지 그 이름조차 "진고개".

지금은 바짝 마른 고개가 되어 게다짝 소리만이 끼걱끼걱하니 끼걱고개라고나 할까?

진고개가 말라터지든 무슨 관계가 있으랴마는 오직 소위 그네들이 부르는 "오모니"의 나날이 느는 꼴과 쓸데없이 그곳을 거니는 조선의 아낙네들 때문에 이 붓끝에 또 한번 잉크를 적시게 된다.

직업소개소의 취직률을 보면 .... 일본인촌으로 가는 "오모니"가 제일 많다고 한다.

---

381) 『동아일보』 1928.03.10. 「時勢조흔 朝鮮"어멈"」

382) 『신가정』 1936.6. 「(식모문제특집란) 설문」 ; 『조광』 1939.9. 「人事相談所 窓口에 버러진 人生의 喜悲劇」

383) 『동아일보』 1932.10.28. 「추운때일스록 식모는 아껴줄일/ 일하는 시간을 합리화시켜/쉬는 틈을 엇도록」"조선가정에서는 일반으로 가족제도와 그외 여러가지 관계상 주부된 이나 식모된 자신이나 직업부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치마 저고리에 게다짝을 끌면서 "옥상(奧さん, 부인)"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모양은 우습기도 하려니와 비통한 쇼크를 받고도 남는 것이다.**
**꼴불견의 하나-,** 도회가 그리는 걸작 만화중의 하나-. (강조-필자)

**[그림 2-4] 진고개의 '오모니'를 묘사한 만평**
출처 : 『동아일보』 1933.09.10. 「(都會가 그리는 漫畫風景)(5) 진고개」

그런데 이 무렵에 나타난 것으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특징이 호칭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자 대우 문제와 결부시켜 호칭의 변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1934년의 조선중앙일보였다. 조선중앙일보는 "하고 많은 말 중에 '어멈'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부르는 사람은 교양 없어 보이고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라는 직설적인 표제로 이 가사노동자 호칭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논설을 게재하였다.[384] 이때 그간 널리 쓰이고 있는 '어멈'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용어로 제시된 것이 바로 오늘날에 익숙한 '식모(食母)'였다.

식모라는 말은 이 시기에 처음 쓰이거나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조선시대 향교 등에서 일하던 관노비에 대해 식모(食母)라고

384) 『조선중앙일보』 1934.08.26.「허구 만흔말에 "어멈"이라고 부르지 맙시다-불으는 사람은 교양업서보이고 듯는사람은 긔분이 낫븝니다」(上) ; 同, 1934.08.28. 「허구 만흔말에 "어멈"이라고 부르지 맙시다-불으는 사람은 교양업서보이고 듯는사람은 긔분이 낫븝니다」 (下)

쓰는 등 전근대에 이미 그 용례가 있던 말이었다.[385] 이후에도 1920년대까지는 식모라는 호칭이 가정집의 가사고용인이라기보다 기숙사, 여관, 병원, 공장 등지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386] 가정집 고용인에 대해 쓰일 때에도 침모, 보모, 유모 등의 말과 나란히 쓰이면서 특히 식사 준비를 위시한 부엌일을 전담하는 여성이라는 기능적 의미가 강하였다.[387]

주된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제반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여성을 부를 경우, 행랑어멈에서 온 '어멈'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혹은 행랑채에 따로 사는 어멈과 달리 안채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여성을 따로 구분하여 안잠자기(안잠재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안잠자기나 어멈에 대해서는 유모나 침모 등에 비해서도 하대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들 가사노동자들 간의 위계에 대해 1926년의 동아일보는 "남의집살이하는 이 중에도 여러가지 등급이 있다. 유모, 침모, 식모, 막심부름 하는 하인, 이 모양으로 계급이 있어서 유모와 침모는 월급도 좀 많고 대우도 좀 나았다. 유모, 침모 이하를 통칭 안잠자기라고도 부른다. 밥 짓고 불 때고 빨래하고 걸레 치는 계급은 대개 주인집 식구에게 종으로의 대우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388]

---

385) 1709년 경상도 영주 순흥향교(順興鄕校)의 「제물단자(祭物單子)」, 17세기 중반 경상도 풍기 풍기향교(豊基鄕校)의 「잡록」, 1893년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의 「향교노비시사안(鄕校奴婢時使案)」 등에서 관비인 식모를 볼 수 있다. (한국고문서 자료관 http://archive.aks.ac.kr/) 식모와 더불어 다모(茶母), 주모(酒母)라는 말이 함께 쓰이고, 유모(乳母), 잠모(蠶母) 등 비슷한 조어들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전근대 사회에서부터 나타나는 말이었고 일본에서 이식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언급한대로 '조추(女中)'라는 말이 있었다.

386) 가령 기숙사의 식모를 일컫는 사례들만 들어보면, 공장 기숙사 식모(『조선일보』 1925.02.14.「비단짜는 녀직공 직공생활」), 농업학교 기숙사 식모(同, 1924.06.11. 「약먹고 두 번죽엄」), 수산학교 기숙사 식모(同, 1928. 03.21. 「학생이 食母구타」), 숙명여학교 기숙사 식모(同, 1925.04.30. 「女각학교의 기숙사방문기(五)」), 보육원 식모(同, 1925.03.16. 「부모업시서 사는어린이들(五)」), 개성남성병원 간호부 기숙사 식모(同, 1928.10.15. 「굼주리는 딸로 모친이 자살」) 등의 기사가 보인다.

387) 1936년경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식모를 '부엌데기' 및 '밥데기'와 동의어로 정의하고 있어, 부엌일을 담당하는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 1936.12.03. 「조선어표준말모음(25)」

388) 『동아일보』 1926. 11. 03.「어멈문뎨(一)사람대접못밧는 불상한 안잠자기」 ; 유모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28.03.06. 「돈벌이하는 여자직업탐방기 (11) 어머니

이렇듯 어멈이라는 호칭은 명백히 신분적 하대의 어감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가사사용인이 하인이 아니라 고용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갈수록 이러한 호칭은 문제가 되었다. 고용인 측에서도 반감을 가질 뿐 아니라, 고용인을 어멈이나 할멈이라고 부르는 일은 아이 말버릇을 나쁘게 하여 자녀교육에 좋지 않다고도 이야기되었다.[389] 당시에 어린이가 쓴 짧은 작문에서 "형보고 이자식 저자식, 동생보고 이년저년, **식모보고 어멈 할멈**, 어른한테 반말지거리, 이웃집 아이할퀴기, 군것질 하랴고 돈 달라기, 이런 버릇은 얼른 고쳐라"와 같이 비속어들과 함께 나란히 어멈과 할멈이라는 호칭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으므로, 이 말이 얼마나 비하적인 어감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390]

앞서 언급한 1934년 8월의 조선중앙일보 기사는 호칭 문제에 대한 그간의 여론을 종합하여 보여준다. 곧, 제목에서 말하듯이 어멈이라고 부르는 것은 듣는 사람을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르는 사람도 교양 없어 보이게 하며, 집안 어린 아이들의 습관도 나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그것이 경제적 관계가 되어, 돈의 유무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인다.[391]

> 그런데 **보통 우리는 집에서 밥을 짓거나 일을 하는 즉 부리는 사람을 "어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말이면 "식모"라든가 혹시 어린애가 있으면 아무개 어머니라든가 또는 리서방댁이라고 부르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릇한 기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속담에 어해 다르고 아해 다르다는 말은 어느 정도까지 진리가 있는 말입니다. 남의 사람을 부리는 처지에서 생각해본다면 어멈이라고 하나 식모라고 하나 매일반 같습니다만은 이 말은 어딘지 모르게 그렇게 듣기 좋은 음향을 가진 명사가 아닙니다.
>
> 만일 자기집에서 어멈이라고 부르지 않는 집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어멈이라

---

대신으로 젓을 먹이는 인자한 젓어머니살이(上)」

389) 『동아일보』 1932. 02. 04. 「리상적 자녀교육에는 부리는 사람의 선택이 필요」 : 『조선일보』 1934. 01. 01. 「용어用語는 경어敬語로-아범, 어멈 부르지말고 성을 부르자」

390) 『조선일보』 1936.03.26. 「우리차지」

391) 『조선중앙일보』 1934.08.26. 「허구 만흔말에 "어멈"이라고 부르지 맙시다-불으는 사람은 교양업서보이고 듯는사람은 긔분이 낫븝니다」 (上)

> 고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퍽이나 듣기에 거북할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서 보면은 몇살 안되는 어린애까지도 어멈이라고 하며 반말을 턱턱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어린애에게 아주 나쁜 습관을 지어주는 것이 됩니다.**
> 사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간사한 돈의 유무 다소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남을 부리는 지위에서 아씨나 마님의 대접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멈이란 말을 들으며 공대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란 돌고 도는 것, 내가 항상 남을 부리고만 살 것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이하 생략) (강조-필자)

어멈이라는 호칭의 대안으로 식모가 제시되었던 만큼, 이 시기까지는 식모라는 말에 비하의 뉘앙스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존중을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1935년경부터 신문지면에서 식모라는 호칭이 가정집 가사사용인을 대표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30년대 초반까지는 가정집의 가사사용인으로서 식모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침모, 유모 등과 함께 쓰였으나, 1935년을 전후로 식모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1937년의 신문 기사에서는 마침내 '오늘날 식모도 직업부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 명칭부터 어멈이 아닌 식모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392] 그리고 아래 1936년의 신문 광고에서는 이 같은 호칭이 교양을 드러내는 상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393]

> 단 내외만 사는 살림에 너무나 적적하여 식모 겸 가족으로 있을 부인을 노소를 물론하고 1인만 구합니다. 급료는 남 주는대로 줄 것이오나 며칠 있다가 나가든지 하는 분은 희망치 아니합니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논의로까지 심화되지는 못하고 호칭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우 문제'에 머믈렀다.

---

392) 『매일신보』 1938. 04. 07. 「식모問題 부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서로 모지게 말고 정으로써 협력할 것」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식모도 다른 직업부인과 똑같은 지위에 있다 하겠으니 명칭부터도 하인, 안잠자기 혹은 부리는 사람 또는 어멈이라고 하지않고 식모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393) 『조선일보』 1936.02.09. 「百五十字 써-비스 -讀者社交室」

물론 호칭과 말투에서의 하대 문제는 당사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기도 하였다. 본래도 가사노동자들은 신분적 하대의 함의가 명백한 '어멈'이라는 호칭에 대해 좋아하지 않았으며, 상전을 부르는 말로 고용주 가족을 부르기를 꺼렸다. 실제로 언론지상을 할애하여 가사노동자들에 발언의 기회를 주었을 때 호칭과 대우 관련한 갈등의 양상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화광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 인물이 이런 양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394)

> 아직까지 조선가정으로서는 관습으로 내려오는 양반과 하인이라는 너무나 정도에 넘치는 차별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씀한다면 나리, 마님, 아씨 또한 식모를 부르시는 데에 있어서 **"어멈"하고 불리는 그것이 그네들에게는 무한히 하기 싫었고 듣기 싫을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강조-필자)

또한 신여성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자존심 강한 식모"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 가사노동자들 스스로 구시대적인 대우를 거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좌담회에서는 "식모 중에는 양반이라고 하여 제 근본을 자꾸 처드는 것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사기는 하였으나 이것 역시 하대에 저항하는 가사노동자들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며, 고용주와의 상호 간 마찰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다.395) 잡지 『여성』의 '식모를 토론하는 좌담회'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한 사례들이 더욱 많이 이야기되었다. 우선 "하인이 주인을 보고 뭐라고 불러야 옳은가?" 하는 질문에 "늙은이는 마나님, 젊은이는 아씨, 바깥양반은 나리, 젊은 양반은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이지만, 요즘은 이렇게 부르기를 싫어한다"는 답이 나왔다. 혹자는 소년 과부로 주변 유혹을 뿌리치고 수절하기 위해 식모로 나선 사례를 이야기하며 돈을 저축해서 양자에게 땅을 사주고 친동생에 주고 본인 사후 장례비까지 모

394) 『신가정』 4-6 (1936.6.) 「조선가정과 식모문제 - 화광직업소개소 이창근」
395) 『매일신보』 1939.01.01. 「가정생활개선 좌담회」

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받은 여성보다 자존심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또다른 사례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겸 상여금을 식모에게 5원, 10원 넣어주고 우표나 클립도 넣어주는데 자존심이 세서 받지 않고 갚으려고 한다. 가족들 생일에 반드시 무언가를 사온다.”고 이야기 되었다.[396] 이처럼 조선 사회에서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문제의 제기와 인식 변화는 재조일본인사회를 견제하는 조선인 지식인들의 민족적 감수성이 깔려 있었던 한편으로 가사노동자들의 자의식 성장에 기반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의 가사노동자 담론이 서구 사회나 일본에서 보이듯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현실을 앞질러 가거나 괴리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근대적인 담론이 외부에서 이르게 도입된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식민지 담론장의 주도층이 협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가 중요하였다. 가사노동이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담론을 주도한 것은 결국 당사자 여성들이 아니라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이었으며 이들이 신여성에 대한 비판과 반감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대우문제’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호칭과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호칭이 정착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396)『여성』 5-1_1940_01.「식모를 토론하는 좌담회」

# 제3절 가사노동시장의 팽창과 도시 생활양식의 결합

## 1. 조선 내 가사노동시장의 팽창

앞서 살펴본대로 1920년대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가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부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익명의 노동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특히 재조일본인 가정에 조선인 여성들을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직업소개소의 호내사용인 알선은 조선 사회에 이들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가사서비스노동시장이 성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사업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인사상담소에서 직업소개업무가 따로 독립하여 직업소개소가 설립되고, 공설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28년부터 조선총독부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경성에서도 1927년 12월 직업소개소를 독립시키고 독립청사를 신설하였다. 1931년 경성직업소개소장을 맡고 있던 미야하라 카오루(宮原馨)는 처음 경성인사상담소가 설립되고 후에 직업소개소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다이쇼 9년[1920] 당시 일어난 재계의 불황이 그 여파를 조선에도 미쳐서 부민(府民) 생활을 위협하는 바가 점차 심해지고, 공장의 폐쇄, 사업의 정리 축소, 그로 인한 실업자의 출현은 실로 노동불안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때 경성부윤 요시마쓰 노리오(吉松憲郎)씨는 이것의 대응책으로서 다이쇼 11년[1922] 8월 명치정(明治町)의 구(舊) 한성병원 일부를 수리하고 인사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직업소개사업을 개시하여 실업자에 대한 초미(焦眉)의 급(急)을 구제할 준비를 했다. 그 후 쇼와 2년[1927] 12월 지금의 황금정(黃金町) 2정목에 독립 청사를 신설하는 동시에 명칭도 직업소개소로 바꾸었다.[397]

실제 그 배경은 도항 정책의 변화와 북부지역 일부 공업화에 따라, 당국이 이 시기에 와서 노동시장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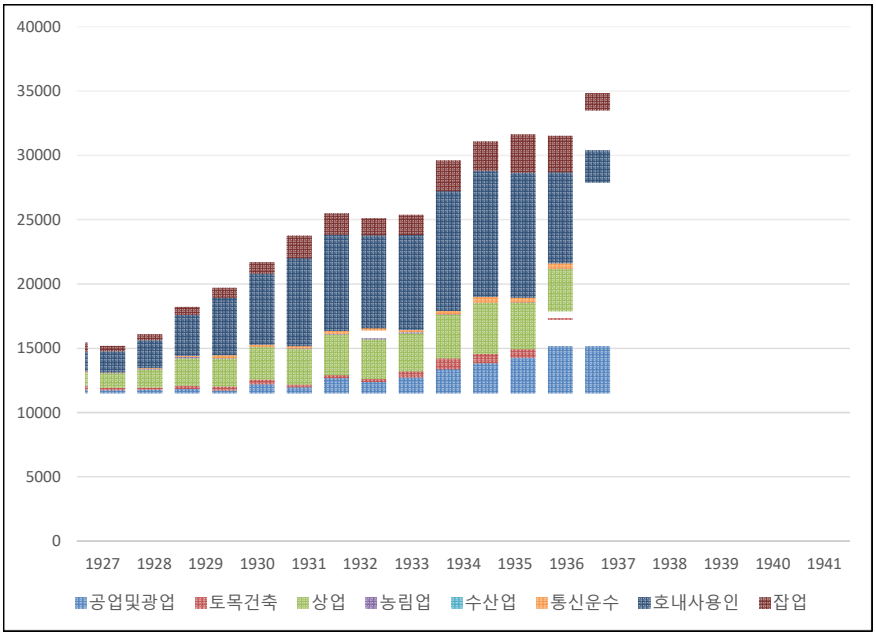
397) 宮原馨, 「職業紹介事業に就て」 『警務彙報』 299, 1931. 3.

행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으로의 도항 통제 정책과 북부지방 일부의 공업화 등으로 인해 당국에서 노동력 수급에 일정한 행정력을 발휘하고자 하면서 인사상담소 업무에서 직업소개업무를 독립시키고 지역별 직업소개소가 추가 설립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398]

그런데 이러한 직업소개소의 확대는 192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과 맞물려 직업소개소의 실적에서 가사노동자의 소개 비중이 무려 과반을 점하는 결과를 낳았다([그림 2-4]). 1927년~1942년까지의 직업소개소 소개 실적은 다른 시계열적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조선의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의 추이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직업소개소에서는 가정에 고용되어 일하는 가사노동자를 '호내사용인(戶內使用人)'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전체 구인수와 구직수, 취직수를 공개하고 있다. 비록 각 지역 직업소개소별 상세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직업소개소 추가 설립 등이 전체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분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지 않은 다수의 고용이 누락되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구인수와 구직수의 증감 추세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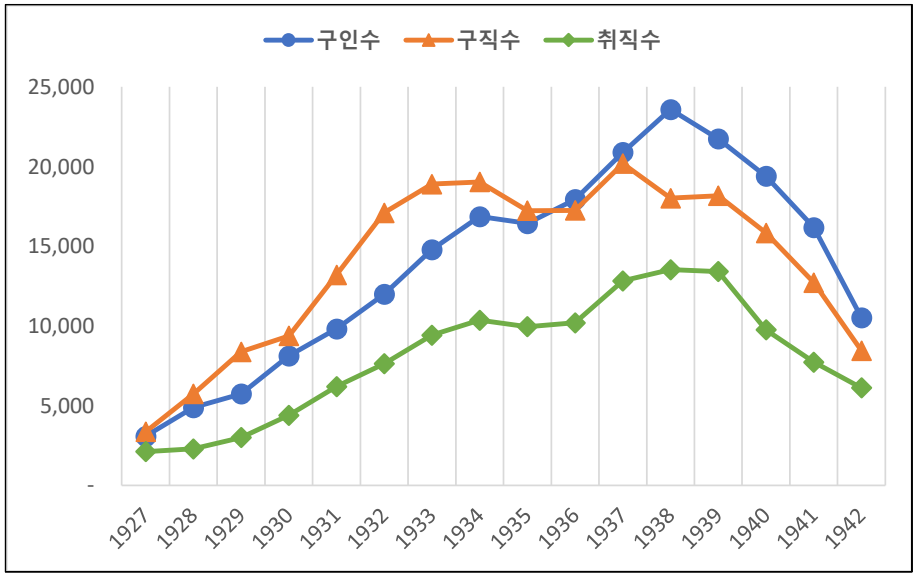
[그림 2-5]와 [표 2-16]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업소개소 소개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7년부터 1933년경까지 구인수, 구직수, 취직수에 있어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구인수와 취직수에 있어서는 최고 54%를 넘었고, 1930년대를 통틀어 거의 대부분의 해에 과반을 넘고 있다.

398) 홍순권, 「일제시기 직업소개소의 운영과 노동력 동원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999




**[그림 2-5] 공설 직업소개소의 업종별 취직자 수**

출전: [표2-16]과 같음




**[그림 2-6] 공설 직업소개소 戶內使用人 소개 실적**

출전: [표2-16]과 같음

[표 2-16] 공설 직업소개소 戶內使用人 소개 실적

(단위: 명)

| 연도 | 구인수 | | 구직수 | | 취직수 | |
|---|---|---|---|---|---|---|
| 1927 | 3,082 | 37.50% | 3,357 | 21.90% | 2,111 | 38.70% |
| 1928 | 4,876 | 48.60% | 5,740 | 33.60% | 2,285 | 44.80% |
| 1929 | 5,734 | 50.60% | 8,373 | 39.90% | 2,994 | 47.30% |
| 1930 | 8,123 | 49.80% | 9,381 | 32.60% | 4,392 | 47.30% |
| 1931 | 9,818 | 54.10% | 13,210 | 36.70% | 6,195 | 54.60% |
| 1932 | 11,990 | 54.20% | 17,099 | 39.70% | 7,629 | 54.20% |
| 1933 | 14,795 | 54.10% | 18,898 | 41.00% | 9,424 | 55.60% |
| 1934 | 16,864 | 50.40% | 19,039 | 39.80% | 10,357 | 53.50% |
| 1935 | 16,435 | 54.10% | 17,236 | 41.00% | 9,955 | 52.80% |
| 1936 | 17,942 | 54.20% | 17,257 | 38.50% | 10,198 | 53.20% |
| 1937 | 20,896 | 51.70% | 20,187 | 37.10% | 12,831 | 51.40% |
| 1938 | 23,589 | 52.10% | 18,016 | 37.20% | 13,527 | 50.10% |
| 1939 | 21,738 | 46.20% | 18,172 | 37.60% | 13,417 | 48.30% |
| 1940 | 19,396 | 36.10% | 15,835 | 30.40% | 9,751 | 35.30% |
| 1941 | 16,182 | 25.60% | 12,721 | 20.30% | 7,729 | 22.20% |
| 1942 | 10,521 | 13.30% | 8,453 | 9.60% | 6,115 | 11.20% |

출전 : 1927년, 1928년, 1931년은 각각 『朝鮮社會事業』 6-9, 7-6, 10-6

1929년, 1930년, 1932~1938년은 각각 『調査月報』 1-1, 2-4, 4-5, 5-8, 6-7, 7-7, 8-9, 10-1, 11-2

1939~1942년은 『統計年報』 해당 연도판의 자료로 작성하였다.

비고: %로 나타낸 비율은 전체 실적 대비 호내사용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표 2-16]과 그림 [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지 직업소개소 소개 성적의 합산을 게시하기 시작한 1927년부터 호내사용인에 대한 구직자수는 구인수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경제 공황과 실업 위기의 여파를 보여주는 1930년대 초에 특히 그 차이가 커졌다. 그러나 1936년부터는 상황이 반전되어 구인수가 구직수를 초과하게 되었으며, 1938년경에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38년까지 가파른 증가 일로에만 있던 구인수에 비해 구직수는 1938년경 주춤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종연방적, 동양방적 등 일본대자본이 조선에 진출하여 공장을 세우면서 여성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던 때이기도 하였으며[399], 조선인 가정에서 가사사용인 부족이 심화되어 '식모난'을 겪는다고 이야기되던 시점이기도 하였다.[400] 이후 1939년부터는 구인수, 구직수, 취직수가 모두 소개 건수에서나 직업소개소의 업무 비중에서나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시체제하 정책의 급변으로 인한 직업소개소의 성격 변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30년대를 통틀어 매해 만 명가량의 가사노동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되고 있었으며, 1931년부터 1938년까지의 기간동안 직업소개소의 구인수와 취직수의 절반 이상은 가사노동자인 '호내사용인'이 점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인 언론은 이것을 '조선인 가정은 여자가 벌이를 한다' '남군부진 여군만세'등의 표현을 써가며 호들갑스럽게 보도하였다.[401] 구인자들이 고용인만 찾다보니, 고용인으로 구직을 하는 자가 아니면 묻지도 않고 돌려보낼 지경이라고 이야기되기도 하였다.[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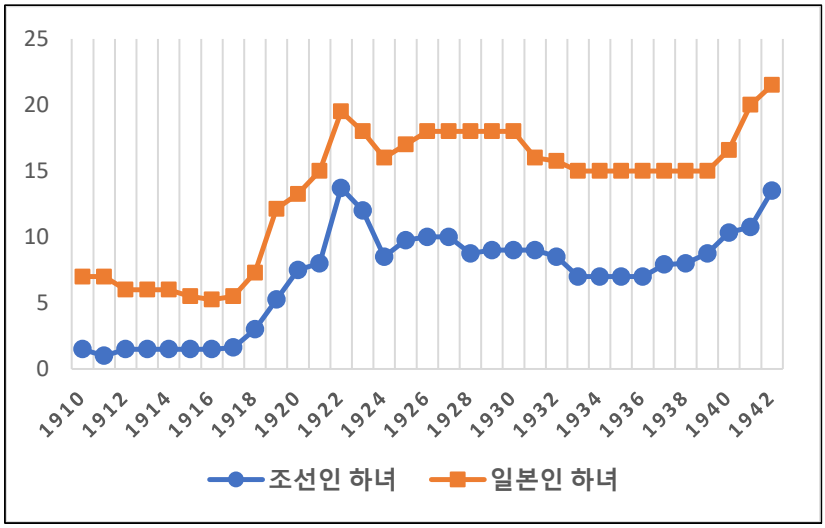
---

399) 강이수, 2011, 『한국 근현대 여성노동 : 변화와 정체성』, 문화과학사. 23쪽-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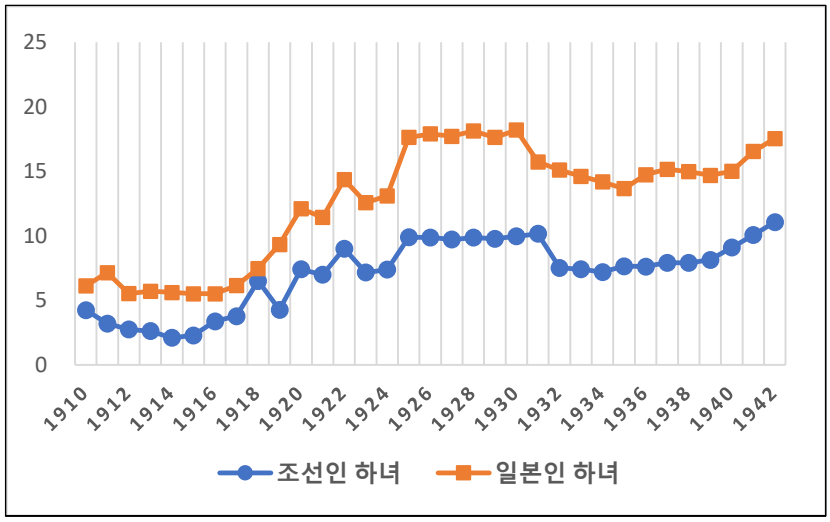
400) 『매일신보』 1937. 11. 13. 「점차구하기 힘드는식모 금년은 더욱 구하기 어려워 - "오마니"와 "식모"의 구별은 월급의 차별째문에 생긴다 (경성부직업소개소장 談)」 ; 『동아일보』 1937. 11. 28. 「南村엔 食母 인풀레-本町署管內에만 二千四百名, 北村엔 食母難의 頭痛」

401) 『조선일보』 1929. 05. 10. (석간) 「男子보다도 女子求職多數, 서울안의 현상, 어멈의 需要로」 ; 『매일신보』 1930. 12. 06. 「十一月求職戰線偵察 어멈隊乘勢躍進 경성부립과 화광교 두곳 조사」 ; 『동아일보』 1933. 09. 07. 「女子는 五割餘就職 男子는 不過一二割」

402) 『동아일보』 1928. 12. 11. 「殺到하는 求職群에 冷淡한 職業紹介所」




[그림 2-7] 1910년~1942년 하녀의 임금 추이 (경성)




[그림 2-8] 1910년~1942년 하녀의 임금 추이 (전국)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

비고: ① 원자료에 전국 평균 임금이 따로 기재된 연도들이 있으나,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직접 지역별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전국 평균치를 구하였다.

② 원자료에는 임금이 월급인 경우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별도 표시되어 있는 등 통일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표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사 제공이 표시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해 임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월급이라는 표시가 없음에도 월급에

해당하는 단위의 금액들이 기재된 것이 많다. 하인의 일은 관례적으로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식사 제공 표시 유무는 고려치 않았고, 기재된 단위가 일급으로 보는 게 타당한 수치만 30배를 하여 계산하였다.

③ 1910년~1925년 임금 조사의 대상이 되는 도시는 경성(京城), 인천, 청주, 공주, 전주, 군산, 광주, 목포, 대구, 진주, 부산, 마산, 해주, 평양, 진남포, 의주, 신의주, 춘천, 함흥, 원산, 경성(鏡城), 나남, 청진, 성진의 24개 지역이다.

1926년-1935년 임금 조사의 대상이 되는 도시는 경성, 목포,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의 8개 도시이다.

1936년-1942년 임금 조사의 대상이 되는 도시는 경성, 대전, 목포,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의 9개 도시이다.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 정착된 가사서비스노동이 1930년대 내내 팽창과 활황을 보여왔음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타나는 민족별 남녀 하인의 임금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임금 조사 자료에서 수치의 기재가 비교적 더 충실한 것은 대개 가사서비스노동을 수행했을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의 경우이다. 조선인 여성의 경우 1910년대까지는 임금이 조사되지 못하는 도시들도 많았으나 1920년대 이후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임금이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의 임금만을 따로 분리하여 1910년~1942년 전 시기에 걸친 임금 추세를 보면 위의 [그림 2-7], [그림 2-8]과 같다.

1910년에서 1925년 사이의 임금 추이를 보면 우선 임금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가운데 1910년대 후반부터 크게 상승해 가는 모습을 보여 하인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별 성별로는 일본인 남성-일본인 여성-조선인 남성-조선인 여성 순으로 임금이 높다.

하인 임금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격이 형성됨을 보여주는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이다. 이 시기는 재조일본인사회의 정착과 함께 가사서비스노동의 임노동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일본인 남자 하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 공황의 여파가 큰 1930년대 초반에 전반적인 임금의 하락이 있었고, 이때 구인수 대비 구직자수가 크게 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36년부터 1942년까지의 시기는 다시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403] 1930년대 후반은 조선에서도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서비스노동의 공급 면에서 크게 감소가 있었을 시기이다. 이 때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는 도리어 늘거나 최소 공급의 감소 이상으로 감소되지는 않았음을 임금의 상승이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대로 1930년대 후반 직업소개소 성적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인수와 구직수는 모두 급감했지만, 이렇게 직업소개소를 통한 고용이 외면상 감소하던 때조차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 상승이 194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전국 통계인 [그림 2-10]와 경성의 통계인 [그림2-11]을 비교해 보면 경성의 임금이 다소 높은 가운데 전반적인 추이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것을 당시 소비자 물가 및 각 도시 생계지수를 고려하여[404] 다음과 같이 말해두고자 한다. 1920년대 초중반 물가의 추이와 상관없이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임금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아서는 1926년경이 그러하고 경성의 경우로 좁혀서 생각하면 1922년경이 그러한데, 이후 조정을 거쳐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임금이 안정화된다. 곧, 가사서비스노동 임금에 대한 일종의 시장 가격이 생기고 하나의 서비스노동으로 정착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후 1920년대 중후반기는 물가 변동이 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고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행적인 임금이 자리했다고 보이며, 1930년대 초 경제공황을 거치며 얼마간 급감한 시기도 있었으나 완만히 상승하여 1930년대도 다시 고른 선을 유지하고 있다. 1930년대 말에 보이는 상승은 전시체제기의 다른 물가나 생계지수도 함께 오르는 시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수준이나, 1940년대 초 경성에서의 임금이

403) 원자료에서 일본인 남성의 경우만 홀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도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 제외해 두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시기 일본인 남성 하인의 경우 그 수가 많지 않아서 경성에서조차 그 임금이 파악되지 못하는 등 자료 자체가 확고하지 못하며, 병역에 의한 징집의 문제 등도 얽혀 있다.

404) 다음을 참고하였다. 차명수,「식민지기 8대 도시의 소비재 가격 및 택지 임대 가격」『경제사학 』 50, 2011, 3-38쪽. ; 김낙년 편,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다소 크게 올랐음은 특기할 만하다.[405]

## 2. 도시 신가정 모델 대두

앞에서 확인한대로 가사사용인 고용의 활성은 늘어나는 공급 이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수요가 바탕이 되어 전개된 것이었는데,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공급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였다. 이하에서는 가사사용인의 고용주들을 살펴보아 수요의 측면에서 가사서비스 노동의 팽창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는지 더 알아보고자 한다.

식모 부족 문제는 이미 경성의 조선인 가정에서는 1930년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1935년 10월의 동아일보 기사는 현재 '식모 공황' '식모 쟁탈'의 상황이며 (식모의 부족 문제가)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기사는 특히 경성에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 "경성 사람이란 옛날부터 하인두기를 좋아해서 행랑어멈 행랑아범이 있는데다 옛날에는 종의 제도로 웬만한 집에서는 종을 부리는 관계상 지금 시대가 변하여 종의 제도가 없어지니 그 대신 식모 안 부리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인 한편, "일본 내지 사람들의 가정에서 조선 식모가 싸고 또 일을 잘하니까 말은 통하지 못하면서도 꼭 조선사람들을 식모로 쓰게 되는" 사정이 있고, 또 "남의 집 셋방이나 얻어 가지고 있는 이면 모르거니와, 근자의 여러 주부들의 생각이 이상스러워서 단둘이 살림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남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될 살림이면서도, 반드시 식모를 두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식모를 수용하는 (비)율이 많아"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남의집살이를 하는 것은 큰 수치요 치욕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은 아직 남아있어서 식모로 나오는 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406]

이 이야기를 다시금 검토해 보면, 가사사용인 수요를 크게 세 가지 방

405) 그러나 이것도 같은 시기 공업 급여의 급상승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었다. 1939년~1942년 사이 공업 일급은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김낙년·박기주, 「식민지기 조선의 임금수준과 임금격차 -공장임금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4, 2011)

406) 『동아일보』 1935. 10. 08. 「가정의 큰문제, 우리생활을 좌우하는 식모문제는 크다」

향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일본인 가정의 경우, 재조일본인사회가 정착하면서 이들이 조선인 가사노동자의 강력한 수요로 등장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의 전통적인 양반층 가정에서도 살림의 운영 규모와 하인을 많이 두는 관습을 가능하면 유지하고자 했으므로 수요에 있어서 일본인 가정과 경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한 대가족에 적지 않은 식객들까지 거두어 먹이며 옛 양반가의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집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러한 집들은 많은 남녀 하인들을 써서 가계를 운영하였다. 1924년의 글에서도, 가족원 12~13명에 식객 7~8인명인 조선인 상류층 가정에서는 수석(首席) 하인인 차집(差執), 부인의 시녀(侍女)인 상직(上直), 가마를 수행하는 교전비(轎前婢),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비(料理婢), 빨래를 하는 세탁비(洗濯婢), 유모(乳母), 침모(針母) 등의 명목으로 여자 하인만 상시 27명까지 둔다고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각각 차등을 두고 상당한 급료를 지불하고 있었다.[407]

계동의 반가(班家) 며느리로 살았던 이규숙의 회고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많은 하인을 두었던 사정이 나타난다. 그도 역시 하인에 대해 말하기를, 당시에 행랑살이와는 별도로, "갖추어 살려면" 바느질하는 사람, 행랑사람이 해놓은 빨래를 풀 먹여 다듬이질 하는 사람들, 솜 펴는 노파, 심부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반찬 만드는 사람(반빗간치)과 살림을 도맡아 지휘하는 차집, 시중을 드는 상직군들이 있었는데, 상직군은 시할머니나 시어머니 등 어른들은 각각 두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도 각각 유모와 보모가 따로 있었다고 말하였다. 반면 '주인 마님'은 허드렛일은 하지 않고 손님 접대와 제사 지내는 일로 바빴다고 한다.[408]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을 중시하던 전통사회의 양반가 관습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숙은 여기에 덧붙여, 신분제적인 종이 없어지니 그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이 드나들게 되고 월급을 주

407) 田中德太郎, 「朝鮮婦人に就て(2)」 『朝鮮』 제108호. 1924. 4. 다만 여기에서 들고 있는 상류층 가정의 사례는 식솔들의 규모나 급여의 수준이 다른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408) 구술 이규숙, 편집 김연옥,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반가 며느리 이규숙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민중 자서전(4))』 뿌리깊은나무, 1984, 71-74쪽.

게 되었던 사정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어떤 때에는 한 달이 지나도 구해지지 않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본인의 시어머니와 본인은 직접 “일을 배웠다”고 말한다.[409]

그런데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재조일본인가정이나 위의 전통적인 양반가의 수요가 아니라, '살림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반드시 식모를 두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식모를 수용하는 것이 늘었다'고 언급한 새로운 수요이다. 곧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확산된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에는 이른바 새로운 '신가정'들이 있다.

당시 도시 신가정이라고 불릴만한 조선인 가정들에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신문이나 잡지 지면에 실릴만한 몇몇 명사들이나 신여성들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었다. 가장 주목할만한 기사는 1932년 잡지 『신동아』 6월호의 설문이다. 여기서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여성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부부의 나이와 직업, 자녀의 수, 종교, 시부모와 동거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더해 생활비와 저금액, 가사사용인을 두는지, 연료는 무엇을 이용하는지와 같이 경제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질문과 과세를 음력으로 하는지 양력으로 하는지, 자녀의 의복과 간식은 어떤 것으로 하며 취미와 오락은 무엇을 즐기는지, 생일 축하는 어떻게 하는지, 기르는 동식물은 무엇인지 등과 같이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410]

『신동아』의 설문 결과를 정리하면, 39명의 응답자 중 가사사용인을 두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아예 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1인 이상의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었다. 그보다 3년 반 뒤인 1936년 1월의 신문기사에서도 가계에 대해 묻는 설문에 응답한 가정 여덟 집 모두 1인 이상의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고([표 2-17]), 그 다음 해 1937년 1월의 기사에서도 기사에 응한 네 사람 모두 식모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표 2-18]). 이를 합산하면 동일한 인물의 중복(최선복은

409) 이규숙, 위의 책, 75쪽.
410) 「신가정내용공개」 『신동아』 2-6, 1932년 6월호.

3번, 임주호는 2번 포함됨)을 제외하고도 48명 중 42명(87.5%)의 가정에서는 확실히 1인 이상의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 초부터 대부분의 신여성 가정에서는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

**[표 2-17] 1936년 신여성 8인 가정의 생활비와 가사사용인**

| | 이름 | 배우자 | 식구 수 | 가사사용인 수 | 한 달 생활비 |
|---|---|---|---|---|---|
| 1 | 최선복 | 주요한 | 7인 | 2인 | 150원 |
| 2 | 조영효* | 김영환 | 9인 | 2인 | 150원 |
| 3 | 김태명 | 독고선 | 6인 | 2인** | 100원 |
| 4 | 김덕혜* | 고덕선 | 5인 | 1인 | 100원 |
| 5 | 임주호 | 함상훈 | 4인 | 1인 | 100원 |
| 6 | 홍종희 | 윤형식 | 3인 | 1인 | 100원 |
| 7 | 김인명 | 함승영 | 5인 | 1인 | 120원 |
| 8 | 김성재 | 신영균 | 7인 | 1인 | 100원 |

출전: 『신가정』 4-1, 1936년 1월호, 「年頭에 提唱하는 家計一割의 節約案」

비고: *조영효와 김덕혜는 '향후 생활비 절약 방안'으로 가사사용인을 줄이겠다고 답함

**김태명의 가사사용인 2인은 '행랑살이 2인'이라고 답함.

**[표 2-18] 1937년 신여성 4인 가정의 생활비와 가사사용인**

| | 이름<br>(직업) | 식구 수 | 가사사용인 | 한 달 예산 | 저축 | 가사사용인<br>월급 |
|---|---|---|---|---|---|---|
| 1 | 최선복 | 9인 | 식모 1인 | 80원 | - | - |
| 2 | 길정희<br>(의사) | 6인 | 식모 1인 | 150원 | 20원 | - |
| 3 | 송옥선<br>(경성여상 교원) | 3인 | 식모 1인 | 95원 | 54원 | 5원 |
| 4 | 이보경<br>(덕수보교 교원) | 6인 | 식모 1인 | 55원 | - | 5원 |

출전: 『조선일보』 1937.01.06. 「빤한 수입에 한엄는 씀씀이 주부의 규모로 집은 서간다 "그댁 家計는 어떤가"」

식모의 고용이 문제시되기 시작하던 1940년 '식모를 토론하는 좌담회'에서 "식모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묻자, 참석자들은 주부가 직업을 가지고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며, 부엌을 통하는 길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등 조선의 전통적 주택이 가사일에 불편하고, 주방의 설비가 너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외출할 때 집에 사람을 두지 않으면 도둑맞기가 쉽다고도 덧붙였다. 만약 가스 설비 등을 포함하는 주방 설비가 과학적으로 개량이 된다면 식모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411]

실제로 조선인 가사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조선인 가정은 급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이 많고 힘들며 주방 설비도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있었던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또한, 당시까지도 조선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상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부담은 상당히 컸다. 1930년 백의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담은 조선일보의 논설에서는 "누구나 항상 말하기를 우리는 가정생활제도가 복잡하다고 개선개선 한다. 이는 사실이니 단내외(單內外) 삼사인이 생활하는 오막살이에도 행랑이나 안잠작이(食母)를 필요한다"고 하고[412], 1932년의 신문 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언급하며 생활개선과 산업화를 주창하고 있다.

> 그러나 일차 우리 가정에 들어가본다 할진대 과연 그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입는 조선복을 아낙네가 제조하고 있다. 세탁은 가정인의 천직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식물과 연료는 원료 그대로서 제공된다. 일 년을 먹을 장 고추장이 집집마다 양조되려니와 한겨울 먹을 김치가 집집마다 준비되어야 한다. 즉 우리 가정에서는 반자작자급 생활과 반수공업적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하여 만일 부인이 육아와 요리와 침선의 의무를 벗어나려 할진대 식모, 침모, 애보는 애를 두어야 하나니 우리 가정들에서 흔히 이와 같은 낭비 생활을 하고 (이하 생략) [413]

411) 『여성』 5-1, 1940년 1월호, 「식모를 토론하는 좌담회」
412) 『조선일보』 1930.01.30. 「백의를 철폐하자(상)」
413) 『동아일보』 1932.05.14. 「생활의 개신과 산업적 기초」

즉, 조선의 가정에서는 생활면에서 여전히 자급적인 부분이 크고 산업화되지 않은 가사일의 부담이 커서, 가정 부인이 “식모, 침모, 애보는 애” 등 가사노동자를 두어야 하므로 경제적 낭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여성 가정들의 가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품화되지 않은 가사노동의 부담과 개량되지 못한 주택 설비만이 늘어나는 수요의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은 1932년 『신동아』의 설문을 다시 한번 인용하여, 설문에 응답한 39인의 신여성 가정들을 2인 이상의 가사사용인을 둔 그룹과 1인의 가사사용인만 둔 그룹, 가사사용인을 두지 않았다고 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 2-19] 2인 이상의 가사사용인을 둔 신여성 가정**

| | 이름 | 직업(연령) | 배우자의 직업(연령) | 자녀 수 | 매월 생활비 (예금) | 시부모 동거 여부 | 가사사용인 수 | |
|---|---|---|---|---|---|---|---|---|
| 1 | 황O옥 | 무직(32) | 상업(33) | 남3 | 용돈만으로 60원씩(13월) | 봉양O | 식모1, 남녀하인2, 아이2 | 5 |
| 2 | 김O식** | 음악교수(38) | 엑스광선기술(42) | 남2 | | 별세 | 식모1, 침모1, 아이1 | 3 |
| 3 | 최O순 | 가사(29) | 은행원(30) | 남1, 여1 | 80원(5원 20전) | 별거 | 식모1, 아이1 | 2 |
| 4 | 최덕세** | 가사(34) | 의사(32) | 남1, 여3 | 150원 이상 | 봉양O | 식모1,차부1 | 2 |
| 5 | 이준숙 | 제조업(24) | 문사(34) | 남2 | 50원가량 | 별세 | 식모1, 심부름꾼1 | 2 |
| 6 | 성O녀 | 가사(30) | 봉급(36) | 남1, 여1 | 100원 | 봉양O | 식모1, 아이1 | 2 |
| 7 | 박영선** | 무직(27) | 신문기자(31) | 여1 | 60원 | 봉양O | 식모1, 아이1 | 2 |
| 8 | 조O은 | (26세) | 관리(31) | 남2 | 약70여원가량 | 별거 | 식모1, 아이1 | 2 |
| 9 | 이O동** | 교원(24) | 실업(36) | 여1 | 100원(30원) | 봉양O | 식모1, 유모1 | 2 |
| 10 | 西山菜婦 | 교원(44) | 회사원(47) | 남4, 여3 | 150원(10원) | 시모 봉양O | 아이2 | 2 |
| 11 | 박진실 | 양계(36) | 교원(41) | 남3, 여3 | 150원 | 봉양O | 식모1, 아이1 | 2 |

| | | | | | | | | |
|---|---|---|---|---|---|---|---|---|
| 12 | 최선복 | 가사(27) | 동광사(33) | 남 1 , 여2 | 80원 가량 | 별거 | 식모 1 , 아이1 | 2 |
| 13 | 유(兪) O경 | 경성 여자 기독교청년회 총무, 안국유치원 원장(40) | 회사원(37) | 남1 여2 | 80원이상 | 별거 | 식모 1 , 아이1 | 2 |
| 14 | 안씨 | 이화전문 가사과 3학년생(39) | 상업(43) | 남 4 , 여3 | 약 80원 | 봉양O | 남녀하인 2 | 2 |

출전: [표 2-19], [표 2-20], [표 2-21]의 출전 모두 『신동아』 2-6, 1932년 6월호, 「신가정 내용공개」

비고: **가 표시된 (2), (4), (7), (9)번의 네 가정이 부엌 연료로 석탄과 신목 외에 전기나 가스를 쓰고 있다.

**[표 2-20] 1인의 가사사용인을 둔 신여성 가정**

| | 이름 | 직업(연령) | 배우자의 직업(연령) | 자녀 수 | 매월 생활비 (예금) | 시부모 동거 여부 | 가사사용인 |
|---|---|---|---|---|---|---|---|
| 1 | 임O성 | (36세) | 귀금속시계상(36) | 남 2 , 여2 | 100여원 (200여원) | 별세 | 아이1 |
| 2 | 이애신** | 무직(27) | 의사(35) | 남1 | 100여원 (4원) | 별거 | 식모1 (간혹 침모) |
| 3 | 정O영 | 가정부인으로 미술연구(27) | 교수(27) | 여1 | 80원 (20원) | 별거 | 식모1 |
| 4 | 김 O** | 무직(36) | 교원(34) | 남 1 , 여3 | 약80원 (40원 80전) | 별거 | 식모1 |
| 5 | 임O혁 | 무직(23) | 의사(27) | 여 1 | 80원 (10원) | 봉양O | 식모1 |
| 6 | 정O숙 | 무직(35) | 교육가(36) | 남 2 , 여2 | 80원 가량 (18원 20전) | 별거 | 식모1 |
| 7 | 최송성 | 가업(26) | 회사원(30) | 남 1 , 여2 | 60원 가량 (채무 -20원) | 시모 봉양O | 아이1 |
| 8 | 황O덕 | 사회사업(39) | 공업(39) | 여1 | 60원 이내 (50원) | 친모 봉양O | 식모1 |
| 9 | 김O애 | 가사(26) | 사원(36) | 없음 | 95원 | 별거 | 식모1 |
| 10 | 김O재 | 보통학교 교원(32) | 관청 월급쟁이(37) | 여1 | 60원 (30원) | 별거 | 식모1 |
| 11 | 김O규 | 교육(23) | 기자(26) | 남1 | 80원 (5원) | 별거 | 식모1 |

| | | | | | | | |
|---|---|---|---|---|---|---|---|
| 12 | 홍O숭 | 가사(33) | 의 전 교수(38) | 남 2 , 여2 | 120원 (50원) | 별거 | 식모1 |
| 13 | 류O추 ** | 무직(35) | 상업(36) | 여1 | 150원 (30원) | 왔 다 갔 다함 | 식모1 |
| 14 | 임주호 | 무직(25) | 신문기자(30) | 남1 | 80원 (5원) | 별거 | 식모1 |
| 15 | 박국사 | 가사(27) | 교원(30) | 여1 | 100원 (40원) | 별거 | 식모1 |
| 16 | 주O은 | 가사(23) | 의사(25) | 없음 | 50원 (10원) | 별거 | 식모1 |
| 17 | 이순옥 | 교육(27) | 문필업(29) | 여1 | 약 90원 | 별세 | 식모1 |
| 18 | 최O연 | 가사(30미만) | 교원(40미만) | 여1 | 5 0 원 내외 | 별세 | 파출부1 |
| 19 | 김귀득 | 가사(24) | 저술가(34) | | 40원 (20원) | 별세 | 식모1 |

비고: **가 표시된 (2), (4), (13) 번의 세 가정이 부엌 연료로 석탄과 신목 외에 전기를 쓰고 있다.

**[표 2-21] 가사사용인을 두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신여성 가정**

| | 성명 | 직업(연령) | 배우자의 직업(연령) | 동거 가족 수 | 자녀 수 | 매월 생활비 (예금) | 시부모 동거 여부 |
|---|---|---|---|---|---|---|---|
| 1 | 손메례 | 전도사(48) | 실업(52) | 3인 | | | |
| 2 | 이O봉 | 가사(32) | 법인이사(40) | 4인 | 여2 | 70원 | |
| 3 | 안O원 | 무직(40) | 목사(55) | 7인 | 남1, 여4 | 40원 (2원) | 별거 |
| 4 | 주송O | 무직(26) | 상업(33) | 3인 | 남1 | 60원 (30원) | 별거 |
| 5 | 신씨 | 교원(33) | 교원(35) | 2인 | 없음 | 50원 (70원) | 별거 |
| 6 | 이복O | 부업으로 기악개인 교수(26) | 교원(34) | 3인 | 여1 | 30원 (50원) | 별거 |

비고: 부엌 연료로는 특별한 것이 없다

중등교육까지 이수한 조선인 여성의 수가 당시에 극히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414], 경성에 거주하며 중등교육기관인 여자고등보통학교 이상을 졸업한 신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들 가정은 계급적으로 상당히 균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은 최소 23세에서 최대 48세로 평균 31세(중앙값 29세)이며, 결혼 기간은 평균 8년(중앙값 5

414) 1944년 학력별 인구에서 여성 중등교육 이수 이상 인구수는 4만 명 가량으로, 인구 비율로는 전체의 0.05%에 불과하였다. 통계청, 『통계로 다시 보는 광복 이전의 경제, 사회상』,1995 (송규진,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350쪽에서 재인용)

년)으로, 그에 따른 결혼 연도로 유추해 보았을 때 1927년에서 1931년 사이에 결혼한 인원이 과반이 넘으므로, 1920년대 초중반에 중등 또는 고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이수한 학력 이상을 이수했으리라 짐작되는 이들의 배우자들은 [표2-19]~[표2-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리, 교수, 교원, 의사, 신문기자, 사업가, 은행원, 회사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는 33가구의 가계 내용을 보면,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시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도 가사사용인의 수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부엌 연료의 경우 전기나 가스와 같이 '현대화'된 연료를 쓰는 가정이 생활비 규모도 큰 경우가 많으므로 가사사용인도 많이 두고 있다. 곧, 역설적으로 '합리화'된 부엌을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가사사용인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사사용인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 외에 수요를 창출하는 다른 요인이 내부 동기로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확산된 신가정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측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 신여성들은 신가정(新家庭)의 생활양식을 선구적으로 도입하려던 집단이었다.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에게서부터 자유연애, 신식결혼과 새로운 가정에 대한 논의는 첨예한 주제였고, 이 논의는 1920년대 들어 고양된 문화주의적 사조와 생활개선론을 통해 더욱 활발해졌다. 이때의 신가정 논의는 간단히 보아 서구의 부르주아 핵가족의 상을 종래 가족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가까웠고, '신가정'이라는 말 외에 'Sweet home(악가정, 樂家庭)', '이상적 가정'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종래와 달리 부부와 아이들을 가족의 중심에 두고, 친인척이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대가족이 아니라 '단가' 살림을 꾸리며, 여성을 이러한 가정을 관리하는 중심인물, 즉 '주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신가정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애정적 부부관계, 양처와 주부, 단가살림,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주거생활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강조되었다.[415]

---

415)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 2009, 350~358쪽. 김혜경은 1920~30년대 조선의 소가족론은 다른 식민지 사회에 비해서도 서구적 가족모델에 대한 강한 친화력을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신가정에 대해서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도 활발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그 이미지가 구체화되어 제시됨으로써 선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가정의 이미지는 당시 신문 잡지 등에 자주 연재되던 '가정탐방기' 기사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소위 '가정탐방기'는 명사의 가정을 찾아가 집안 풍경과 가정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리창이 넓어 채광이 밝은 서양식의 혹은 화양 절충식의 신식 주택에 화단을 가꾸고, 실내에 피아노와 축음기가 놓여있으며 이국적인 실내 가구와 장식으로 치장된 것이 당대 선망을 받는 신가정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었다.[416]

가령, 그중에서도 예일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양주삼의 가정은 "순 아메리카식 생활"이자 "가장 모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집이었다. 선양절충식의 반양제로 꾸며놓은 집에 "광선을 잘 받는 남양 유리문을 열면 응접실과 서재와 식당을 겸한 마루방"이 있고 온돌방 침실에는 서양식 침대 위에 분홍 이불을 씌워놓았으며 결혼식 사진과 모나리자 그림이 머리맡에 걸려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었고, 축음기, 전화, 양탄자와 같이 보기 드문 물건이 있는데다 이들 부부가 아침은 빵과 우유, 계란으로 순 서양식으로 먹는다고 말하고 있다.[417] 또한 주택이나 실내의 외양과 더불어 주인의 문화 생활과 관련해 여가와 취미 등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다. 1933년 7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윤성덕을 방문한 기자는 일본식과 서양식 혼합의 외관에 조선식 구조가 혼재된 주택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여가와 취미생활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아 "피아노 연습과 축음기 듣기, 화초 가꾸기 등을 주로 하며 운동으로는 테니스와 스케이팅을 좋아한다"는 대답을 얻어내고 있다.[418] 교육계 인

---

고 보았다.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298쪽)

416) 전미경은 가정탐방기 중에서도 1935년 이후의 후기 가정탐방기에서 더욱 부부애정에 집중하며, 커피, 과자, 소파, 쿳숀, 화병, 커튼, 피아노, 라디오, 축음기 등 집안의 소품에 주목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전미경, 「1920~30년대 가정탐방기를 통해 본 신가정」 『가족과 문화』 제19집 4호, 2007

417) 『조선일보』 1925.02.18. 「가뎡방문긔(一) 깃붐과 화평. 선교부원 량주삼씨 가뎡」 ; 『신여성』(제5권-10호) 1931. 11. 「명사가정부엌 참관기」

418) 『신여성』(제7권-7호) 1933. 07. 「당대여인 생활탐방기(其一) 梨專교수 윤성덕씨 편」

사인 중동학교 교장 최규동을 방문한 방문기에서도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과 공원이나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가며, 생일이면 아이들의 생일도 그냥 지나지 않고 가족끼리의 잔치와 기념 저금을 한다'하며 의복은 여름에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복을 입는다고 하여, 가족생활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한다.[419]

위의 1932년 『신동아』의 설문에 응답한 39인의 가정 또한 〈신가정 내용공개〉라는 제목에 맞게 이러한 신가정 생활양식의 이상을 상당히 실현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설문의 답변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면, 결혼식은 신식으로 했다는 응답이 39명 중 29명이나 되었고 (신구절충6명 구식4명), 종교는 기독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의복은 하복은 양복으로 하고 동복은 조선복으로 하는 등 혼용한다는 답이 22명이고 양복으로만 입힌다는 대답도 9명이나 되었다. 자녀의 간식으로 과자와 과일을 준다는 대답이 대다수인 가운데, 비스켓, 웨퍼스(웨하스), 케이크, 바나나 등을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가족들의 생일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가족 오락'으로 연극이나 활동사진을 관람한다거나 축음기, 오르간, 피아노 등으로 음악을 즐기고, 트럼프나 윷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 이들 가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가정탐방기에서 아이가 없고 소가족인 경우에도 "식솔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멈을 거느리고 끝없는 즐거움을 맛본다 할 수 있으나 슬하에 귀여운 자손이 없음이 유감"이라거나 "어머니, 형님, 조카와 함께 사는 집에 식모가 있어 집안일에 조력해주기 때문에 집안일은 내 차례까지 오지는 않는다"고 가사노동자가 있는 것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420] 이처럼 가사노동자의 존재는 신가정의 생활양식에 위배되는 요소가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의 필요조건이었다.

그리고 신가정의 이상이 더욱 구체적인 실물로 구현된 것은 당대 문화

419) 『조선일보』 1925.02.27. 「가뎡방문긔(六) 자녀만흔 락원 교육계 명성 최규동씨 가뎡」

420) 물론 방문한 가정의 검박함과 부지런함을 칭송할 때는 "집안에 안잠자기나 어멈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 『조선일보』 1925.03.05 「가뎡방문긔(八) 정갈스런 집안 개선식청결 리셰현씨가뎡 아!복스러운가뎡!」 ),

주택을 통해서였는데,[421] 이 문화주택이 상정하고 있는 가정 모델이야말로 가사노동자가 있는 생활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문화주택 붐이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는 문화주택 박람회가 시작될 때 실물 주택 전시장이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때의 주택 모델들은 당대 일본의 도시 신중류계층의 생활양식에 맞는 개량주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곧, 주택 박람회를 할 때면 그 직전에 주택설계경기를 개최하여 당선작들을 박람회에서 전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제시되는 조건이 주택의 조건이 "부부와 아동 두 명, 조추(女中) 한 명의 신식가정에 적합한 건축비 1,500엔 내외의 개량주택"라는 식이었다.[422] 따라서 당선작의 설계도 안에는 당연히 조추실(女中室)이 존재하였다. 일본의 문화주택 붐은 조선까지 바로 전파되어 1922년 문화주택도안 전람회 개최되었으며, 1929년 조선대박람회에 조선도 실물주택을 전시하였다.[423] 이 1922년 1월의 설계 도안과 1929년의 도안 모두에서 역시 식모실이 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의 전형이 되어, 이후 조선인 건축가들의 문화주택 설계안에서도 식모실은 빠지지 않았다([그림 2-9]). 이것은 도시 상류층 가정의 새로운 생활양식 안에 가사노동자가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앞의 행랑폐지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구식 가옥을 개량하고 남녀 하인을 줄이되 식모 한 사람만 두자는 논의는 적어도 주택개량론 안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그려졌고, 주택개량의 차원에서는 같은 논리가 1930년대 중후반까지도 지속되었다.[424]

이처럼 1920년대~30년대 신가정의 문화양식이 선망을 받게 되면서,

---

421) 근대기의 화두였던 문화주택은 당시의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출현했던 근대 주거양식의 하나로 사회 개혁과 생활 개조의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이상적 주택모델로 알려져 있다. 조선에서도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일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대중적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지금의 신당동과 장충동, 북아현동 등을 비롯하여 경성 주변에 문화주택지가 들어설 때마다 언론지상에서는 주택지 소식과 분양 광고가 실렸고, 문화주택에 대한 가십거리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다. 김용범, 『문화생활과 문화주택: 근대주거담론을 되돌아보다』, 2012, 살림. 6쪽

422) 김용범, 위의 책, 22-23쪽.

423) 김용범, 위의 책, 30-38쪽.

424) 『조선일보』 1936.02.11.「좁고 누추해도 질거운 내집이요」

조선인들 안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벗어나 신식 주택에서 부부와 자녀중심의 '단가(單家)' 살림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새로운 도시 생활양식은 이전 시기의 하인층과는 다른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425]

[그림 2-9] 식모실이 있는 문화주택 설계도

출처: 『조선일보』 1937.01.04. 「모양잇고 쓸모잇고 문화적인 주택설계」

425) 한국의 주택구조에서 식모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식모방은 1970년대 말부터 '가정부방'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대가 되면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럴면서 키친과 거실, 곧 식모의 공간과 가족의 공간을 분리시키던 물리적 경계도 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다. 도연정, 『근대 부엌의 탄생과 이면』 시공문화사, 2020, 259쪽.

## 3. 도시 하층 여성들의 생계책 찾기

앞서 살펴본대로 조선에서는 산업 발달의 한계가 커서 비농업직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고, 농촌이탈인구가 도시에 실업군으로 집적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가사서비스노동은 도시 하층민 생계책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935년과 이듬해인 1936년 이태원의 토막민들이 학교 교사 설립을 위한 교육의연금을 모금한 미담이 신문기사 여러 건에 걸쳐 소개되었는데, 이들 기사에서는 이태원 토막민의 생활에 대해 "햇볕도 들지 않는 캄캄한 토막에 살며, 군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얻어먹고, 남자는 등짐을 지는 품팔이를 하고, 여자는 육군 관사에서 '오마니' 노릇을 하여" 생계를 이어간다고 동일한 묘사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426]

그러나 가사노동자로의 취업이 가장 절박했던 것은 역시 단신(單身)의 여성들이었다. 가사서비스업이 도시의 여성 임금노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거처가 없거나 생계를 잇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여성들이 '어멈노릇', 혹은 '식모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도회지로 오고 있었다. 여성으로서 경제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가장이 가출을 하거나, 소박이나 이혼을 당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혹은 시집살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을 떠나오게 되는 경우 하게 되는 일이 가사노동자의 일이었다.[427] 즉,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 여러 가지 결별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단이 가사서비스노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언론에서는 "그들의 대부분은 행랑살이

426) 『조선일보』 1935.03.28. 「隊殘飯生活者의 血淚어린 敎育義金」; 同, 1935.06.09. 「梨泰院朝陽學院 上樑式 盛大擧行」; 同, 1935.08.31. 「血汗의 結晶인 梨光學院 竣工」; 同, 1936.06.05. 「多難튼 朝陽學院 普通學校로 昇格」

427) 『조선일보』 1927.09.25. 「유모로 팔린몸 自兒는 병사케」 ; 同, 1929.11.30. 「싀어머니에 대한 불평- 싀어머니가 심해서-시앗가지 보앗서요」 ; 同, 1934.11.19. 「쫏겨난지 四年에 이혼소를 제기」 ; 同, 1935. 04. 20. 「남성은 포학의 화신?」 ; 同, 1935. 04. 21. 「고아친질 버리고 몰래 이주한 고모」 ; 同, 1937.04.20. 「罪의母, 棄兒코 懺悔 식모 노릇하다가 정조 뺏기고」 ; 同, 1938.03.05. 「남편찻는 病婦」 등

하는 부모의 딸들이거나, 시골에서 경작할 땅을 잃고 일가가 이산하여 남의집살이의 마지막 길을 취하게 된 이들, 혹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싫어 떠돌아 다니는 이"들[428], "늙은 과부 약 일이할"에 "이혼당한 여자가 삼사할이 넘는다"[429]고 보도하고 있었다.

**[표 2-22] 1930년 혼인관계별 유업자 중 가사사용인 비율**

| | 남성 | 여성 | 남녀합 |
|---|---|---|---|
| 미혼 | 3.1% | 31.7% | 10.1% |
| 유배우 | 1.4% | 38.1% | 5.5% |
| 사별 | 3.8% | 52.1% | 30.8% |
| 이별 | 2.3% | 40.3% | 20.1% |
| 총합 | 2.0% | 38.6% | 9.0% |

출전: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년

국세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혼인관계별 통계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표2-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체 유업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가사사용인의 경우는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별한 경우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이는 대개 단신으로 주인집에 거주하는 가사사용인의 사정상 가족을 동반하기 힘들기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히 경성에서는 전체 가사사용인 중 사별한 여성의 비율이 24%, 이별한 비율이 5%에 달할 정도로 유독 사별 이별 인구의 비중이 컸다. 경성의 혼인관계별 전체유업자 대비 가사사용인의 비율을 나타낸 아래의 표를 보면, 경성의 여성 유업자 중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는 52%가, 이별한 경우는 40%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간혹 밝혀지길 꺼리는 사연이 있는 경우에 도시의 익명성에 기대어 식모 일을 하고 다니며 숨어 살기도 하였다. 1934년 3월 31일자의 한 기사에서는 남편(38세)의 학대를 못 이긴 아내(20세)가 도망쳐 나와서 평강의 어느 집에 식모로 숨어살고 있었으나, 가설극장 구경을 나섰다가 남편에 발견되고 만 사연이 "평강에 활극 일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고 있다.[430] 그런가 하면 1935년 2월 24일자 기사에서는 사생아를 출

428) 『동아일보』 1926.11.04. 「어멈문뎨(二)나 위해 일하는 그들 동정과 은혜로 대해」
429) 『동아일보』 1928.03.15. 「朝鮮 어멈(三) 깨여진 都會憧憬夢 離婚女子도 多數」

산하여 살해하고 서울로 도망쳐 와서 식모일을 하고 있던 사연이 나오는데,[431]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는 식모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신문지상에 올랐다.

따라서 가사서비스노동은 도시 지역에서 농촌이탈인구를 흡수하는 것이면서 역으로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촌향도의 이주를 감행하게 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중후반 무렵 진고개의 일본인 가정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해 급료를 많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1929년 신문기사에서 소개된 사례에서는 개성 출신의 젊은 과부가 “서울 진고개 일본 사람들의 집에 ‘오마니’로 들어가면 혼자 몸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식까지 떼어놓고 서울로 향하였는데,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 건물을 보고 총독부 건물인가 여길 정도로 물정에 어두운 처지에 그런 상경을 감행했다.[432] 진고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서울로 가면 식모살이라도 한다'는 말을 믿고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경성으로 상경하는 사례는 1930년 이후로 더욱 빈번해졌다. 1933년 7월의 기사에서는 남편이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수감된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서울로 올라가면 남의 집 침모나 유모 노릇을 하여서라도 벌어먹고 살 수가 있다”는 이웃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여성의 사연도 보인다.[433]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표 2-23], [표 2-24], [그림 2-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성은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사사용인의 연령구조나 혼인관계에서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경성의 가사사용인 중에서는 배우자와 이별, 사별한 인구가 많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의 수도 상당해서 30대 이상의 여성 비율이 비교적 높다. 따라서 [그림 2-10]와 같이 연령구조가 M자형을 그리고 있

430) 『조선일보』 1934.03.31. 「평강에 활극 일막」
431) 『조선일보』 1935.02.24. 「不義兒殺害코 서울로逃避行」
432) 『조선일보』 1929.03.01.-03.02. 「鐵窓의 懺悔」
433) 『조선일보』 1933.07.12. 「모성애의 斷腸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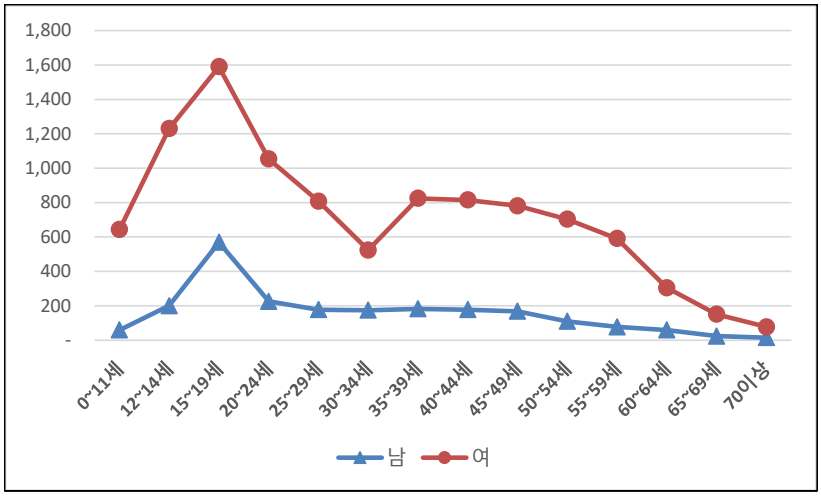
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이 집중되어 있는 모든 도시가 이렇지는 않았다.

[표 2-23] 경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혼인관계별 인구

| 혼인관계 | 남성 | 여성 | 합 | 비율 |
|---|---|---|---|---|
| 미혼 | 1,015 | 3,259 | 4,274 | 34.7% |
| 배우자 있음 | 1,004 | 3,507 | 4,511 | 36.7% |
| 사별 | 160 | 2,787 | 2,947 | 23.9% |
| 이별 | 35 | 540 | 575 | 4.7% |
| 합계 | 2,214 | 10,093 | 12,307 | |

[표 2-24] 경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 연령 | 남성 | 여성 | 합 |
|---|---|---|---|
| 0~11세 | 59 | 643 | 702 |
| 12~14세 | 200 | 1,230 | 1,430 |
| 15~19세 | 569 | 1,590 | 2,159 |
| 20~24세 | 225 | 1,053 | 1,278 |
| 25~29세 | 177 | 808 | 985 |
| 30~34세 | 174 | 524 | 698 |
| 35~39세 | 182 | 824 | 1,006 |
| 40~44세 | 177 | 815 | 992 |
| 45~49세 | 168 | 781 | 949 |
| 50~54세 | 109 | 703 | 812 |
| 55~59세 | 77 | 591 | 668 |
| 60~64세 | 59 | 304 | 363 |
| 65~69세 | 23 | 150 | 173 |
| 70이상 | 15 | 77 | 92 |
| 합계 | 2,214 | 10,093 | 12,3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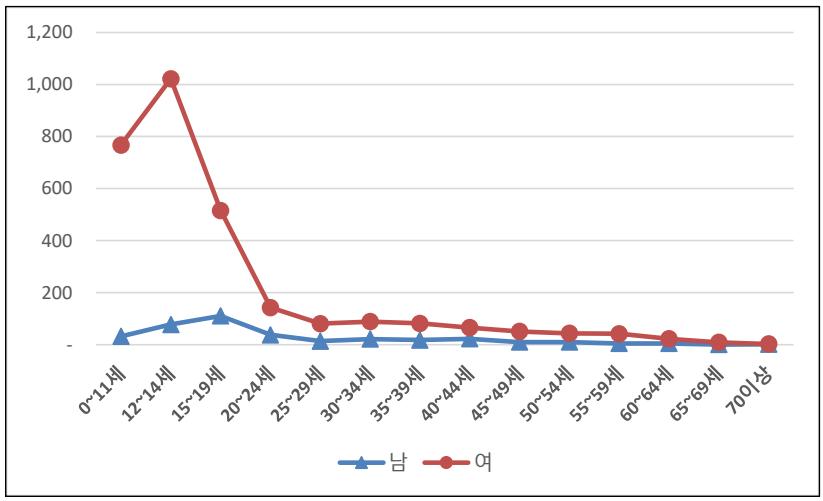



[그림 2-10] 경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출전: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년

[표 2-25] 대구 가사사용인의 성별 혼인관계별 인구

| | 남성 | 여성 | 합 | 비율 |
|---|---|---|---|---|
| 미혼 | 252 | 2,278 | 2,530 | 76.5% |
| 배우자 있음 | 88 | 350 | 438 | 13.2% |
| 사별 | 17 | 218 | 235 | 7.1% |
| 이별 | 12 | 92 | 104 | 3.1% |
| 합계 | 369 | 2,938 | 3,30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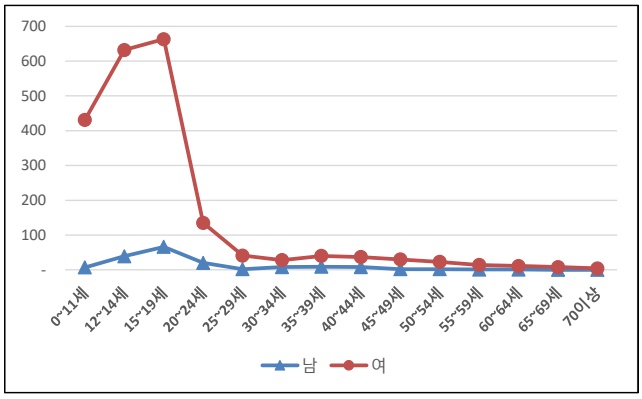



[그림 2-11] 대구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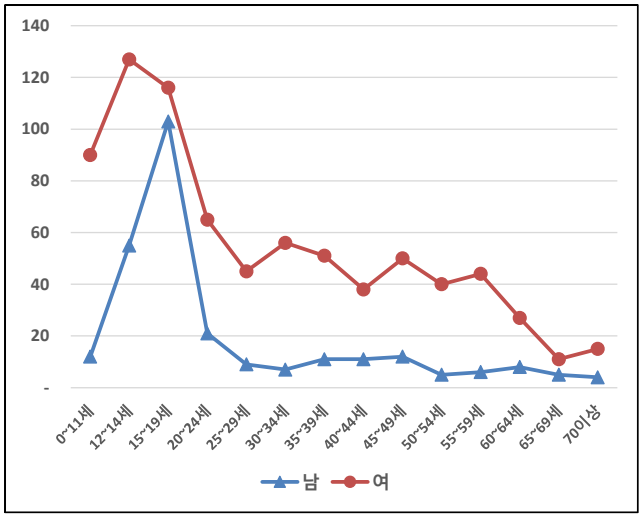
출전: 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년

일례로 위의 [표 2-25]와 [그림 2-1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업자 중 가사사용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대구의 경우, 미성년 인구가 압도적이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인원수가 적어져서 30대 이상 여성의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그에 따라 혼인관계별 인구도 미혼 인구가 대다수인데, 76.5%라는 비율은 일반적인 가사사용인 평균보다도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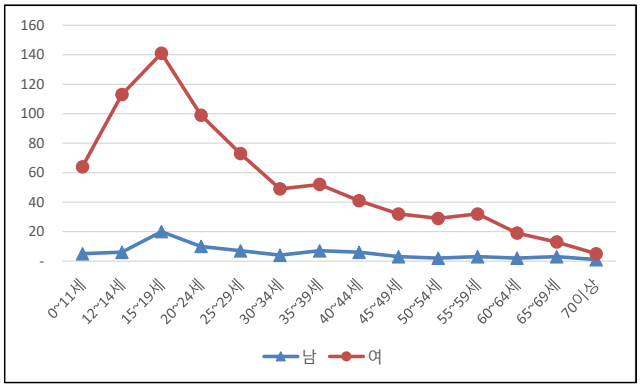
한편 경성과 대구 다음으로 가사사용인 인구가 많았던 부산, 평양, 개성의 경우도 연령별 인구 분포를 나타내면 각각 다음의 [그림 2-12], [그림 2-13], [그림 2-14]과 같다.




[그림 2-12] 부산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그림 2-13] 평양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그림 2-14] 개성 가사사용인의 성별 연령별 인구

곧 [그림 2-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산의 경우에는 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인구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20대 이상의 연령층 인구부터는 그 수가 가파르게 급락하고 있다. 반면 북부지방인 개성과 평양은 각각 [그림 2-15], [그림 2-16]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그래프가 완만한 모습을 보여 20대 이상의 인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이주나 구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자들보다는 성인 여성들임을 고려하면, 가사서비스노동이 하층민 여성들이 구하는 생계자구책으로서 그 역할을 크게 했던 도시는 특히 경성과 평양, 개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사서비스노동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대안이었던 만큼, 당시 사회 단체들에서도 하층민 구제 사업의 하나로 '식모 알선'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찍부터 사회 일반에서는 무료 직업소개에 대해 민간 구제의 사회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920년대 후반 전국의 직업소개소가 공설 체제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사설 직업소개소도 여러 곳에서 운영된 바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식모 알선' 사업은 빈곤 여성을 겨냥한 사업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1928년 말 근우회는 다음 해의 중점 사업 계획으로서 여자 직업소개를 첫 번째로 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의 일로는 여자의 직업소개소를 근우회에서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침모, 안잠자기, 어멈 같은 직업을 소개해 주고 노동 부인들의 모든 편의를 집안 식구와 같이 돌보아 주고 싶습니다. 아주 방안에만 들어앉았던 젊은 부인네들 중에는 이혼을 당하고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가엾은 구여성들도 여간 많지 않으니까요. 그네들에게 간편한 직업을 소개하는 것도 결단코 작은 일은 아닐까 합니다.[434]

실제로 근우회는 여성직업소개사업을 추진하였고, 1930년 1월 근우회 경성지회에서는 부인직업소개소 사무를 통해 "식모, 침모 등 노동 부인

434) 『조선일보』 1928.12.21.「새해부터는 무엇을 할까(4) 職業紹介와 簡易食堂 (근우회)」

을 주로" 소개하고, 기회가 되면 교원이나 보모 등도 취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435] 1934년 경성 관내 가정부인협회에서 임원회를 열고 가장 먼저 결의한 사항도 "여자직업소개소를 열고 식모 유모 침모등의 일자리를 소개하자"는 것이었다.[436]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지방민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식모 알선'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1936년 12월 청주의 애국부인회조선본부 인보관(隣保舘)에서는 풍수해 이재민 구제 사업의 하나로 경성부내의 가정에 식모로 취직하는 것을 알선하고자 하였다.[437] 당대 조선 사회 내에 가사서비스노동이 아무런 자원이나 기술이 없는 하층민 여성을 구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회사업기관을 표방하며 설립된 공영의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는 결과적으로 그 소개 실적의 절반 이상을 '호내사용인'으로 채우게 됨으로써, 사실상 하층민 여성 구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직업소개소에서 주로 가사사용인 소개를 담당한다는 인식이 일반에도 널리 퍼져서, 1930년대 후반 직업소개소가 가두 출장소를 설치하여 홍보를 할 때에도 아래 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업소개소는 식모나 구하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이야기되었다.

> 10일부터 16일까지 사이에 전국 각 직업소개소에서 일제히 거행되는 직업소개 주간을 당하여 부내 황금정 삼정목에 잇는 경성부립직업소개소에서는 70만 부민에게 직업소개소의 인식을 철저히 시키고자 14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번화로운 거리인 종로 화신 백화점 앞과 본정 입구에 임시 직업상담소를 베풀고 계원이 출장하여 직업소개 주간에 관한 "삐라"를 나누어 주며 구직과 구인 신청을 당장에서 접수하였다. 임시상담소를 낸 것은 이번 처음으로 부민 중에는 직업소개소의 사명 및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여 **직업소개소에는 식모나 구하러 가는 곳이라는 관념이 박혀 있으므로** 이 그릇된 관념을 고쳐서 직업소개소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나 친절히 구하여주며 어떤 사람이고 적당한 인물을 구하여 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깊게 하여 누구이고 직업을 구할 때나 사람을 구할 때에나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게

435) 『동아일보』 1930.01.09. 「근우경성지회 부인직업소개」
436) 『조선일보』 1934.10.12. 「가정부인협회 任員會 세 가지 결의」
437) 『매일신보』 1936.12.09. 「愛婦忠北支部서 食母希望者斡旋」

>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이에 종로 네거리 현장에서 접수한 구직자 수는 124인, 구인 신청수는 19건이고 본정 입구에서는 구직자가 300여 명의 성황을 보였다. 구직자의 직업을 보통 직업과 지식 직업으로 나누어보면 보통 직업이 가장 많고 **구인측은 가정부 식모 등이 대다수라고 한다**[438] (강조-필자)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출장소의 소개 실적 역시 식모 소개를 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 표방의 직업 소개 기관들은 더 나아가 도시 하층민들의 네트워크 기관이 되어갔다. 경성의 직업소개소는 아무 연고 없이 상경한 하층민 여성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었으며, 공설이 아니면서도 1920년대부터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관의 보조를 받았던 화광교단의 인사상담소에서는 이들이 저렴한 값에 숙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위의 상황은 1939년 무렵 경성의 직업소개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하층민들의 사연을 그리고 있는 잡지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439] 기사에서는 경성 직업소개소가 황금정으로 이전하여 직업소개사업을 독립시킨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상담소'로 불리우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곳을 직업 소개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목적으로 찾게 됨을 보여준다. 강원도 출신의 한 여성은 서울에 왔다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직업소개소를 출입한 끝에 17일 만에 어느 집 아이보개로 갈 뻔한 딸과 상봉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갓난아기를 업고 집 나간 부인을 찾으러 온 남자나, 화광교단 숙박소에서 지내다가 남자아이를 낳은 갈 곳 없는 여인이 아기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부잣집에 주고 본인은 유모일을 찾고자 하는 사정 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사서비스노동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 강고하게 입지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이 아무런 자원이 없는 하층민 여성들에게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구책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생계 자구책을 찾으려는 여성들의 노력에 조응하여, 가사서비스

438) 『조선일보』 1937.11.15.「初回成績은 "甲上" 街頭의 職業相談」
439) 『조광』 1939년 9월호「人事相談所 窓口에 버러진 人生의 喜悲劇 - 鄭圭哲」

노동의 알선이 사회 단체의 구제 사업으로 확대되거나, 직업소개 기관이 도시 하층민의 네트워크 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사노동자로서의 일을 구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자발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시 농촌이탈인구를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조선의 공업 발달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여성 비농업직 직업으로 한편에서 '접객업[440]'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접객업으로 가게 되는 여성들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다.

특히 영리적 인사소개업자들에 의한 인신매매는 1920년대부터 신문을 통해 빈번히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인사 소개업자들이 하녀일이나 다른 직업을 소개해 준다고, 혹은 좋은 혼처를 구해준다고 여성들을 데려가서 예기나 창기, 작부 등으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1924년 11월 평양에서의 일을 다룬 기사는 인사소개업자 간판을 걸고 인신매매를 하는 자들이 '많은 하수인들을 각 처로 출장을 보내 가난하고 몽매한 부모들을 속이고 업자들에게 유리한 계약서와 인장, 인감증명, 호적등본 등을 받아낸 뒤[441], 여자들을 대구, 경성, 평양, 봉천 등지로 끌고 다니며 오백원, 천여 원의 돈을 받고 판다'고 묘사하여, 농촌의 여성들을 유인하는 인신매매 사기의 전형이 이미 이 시기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여 1920년대 초부터 인신매매 방지 조항을 담은 소개업 취체령들이 각지에서 도령으로 공포되었으나, 접객업으로의 하층민 여성 유입 과정에서의 인신매매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1930년대 이후로는 1929년의 대공황 파급으로 인한 조선 농가 경제의 몰락과 조선인 창기 및 카페 여급의 수요 증가에 의한 접객업의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1930년대 초의 사정을 경성 "세민 계급의 딸들은 생계를 위해 여공이나 식모, 애보개로 더부살이를

---

440) 접객업이란 창기, 예기, 작부, 여급, 유곽 종업원 또는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유곽, 요리옥, 음식점, 카페, 바, 여관 등의 업종을 말한다.

441) 인감 증명 등의 서류를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혹은 '양녀'로 입적을 하거나, '수양녀 계약'을 통해 친권자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다. 수양녀와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박정애,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 『역사연구』 44, 역사학연구소, 2022.5.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부모에게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 부 내에 어수선하게 늘어난 카페, 식당, 음식점 등에서 조선 소녀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50원에서 100원 정도에 사들이고 있다."고 전하였다.[442] 이처럼 가사노동자나 여공이 될 수 없으면 어떠한 경로든 접객업으로 유입되기 쉬웠다. 반면,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이라도 일자리가 있는 여성이 창기가 되는 비율은 극히 적었다. 1929년 말과 1930년 말의 통계를 보면 조선인 창기 중 창기가 되기 이전에 애보개, 여공, 가정의 식모(자료에서는 '女中'으로 표기)였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2%와 0.9%, 3.6%와 2.7%, 2.4%와 2.1%로 매우 낮았다. 반면 (가사 포함) 무직의 경우는 36.5%와 45%에 이르고 있다.[443]

게다가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접객업 여성들에 대한 해외로의 판로나 시장이 확장되며 인신매매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본래도 여성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일이 큰 이익이 되는데다 법망도 쉽게 피할 수 있어 일본 북해도, 규슈 등지나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많았는데,[444] 이러한 상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37년 7월의 중일전쟁이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북지'로의 활로가 넓어지고 이른바 그곳 '화류계'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접객업 종사 여성들이 부족해지는 한편 이것을 기화로 삼은 소개업자들의 전횡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즉, "사변[중일전쟁] 이후 북지 방면이 개발됨에 따라 화류계 방면에서 웃음을 파는 여자들도 최근에 와서는 다량으로 이곳에 진출하는 모양이어서 조선 내에서는 고용, 작부 등이 대부족"인데, 이 기회에 돈을 벌고자 "날뛰는 악덕 소개업자들은 요리업자와 결탁 혹은 밀계를 꾸며가지고 우선 그의 부모형제에게 전차금을 치른 후 남의 집 수양녀로나 또는 부호의 애첩으로 동서 시켜주마고 속여가지고 순진한 농촌 처녀를 빼내다 영업자에게 팔아서 부당 이득의 중개료를 편취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다.[445] 이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1938년 2월에 붙잡힌 인신매매단은 그

442)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291-292쪽
443)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2, 61쪽.
444) 宋連玉, 위의 논문, 52-54쪽.
445) 『조선일보』 1939.02.05. 「고용녀 기근시대 악덕소개업자도 발호」

활동 범위가 조선과 만주, 북중국, 상해, 일본 등지를 모두 아우를 정도였다. 그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도시와 농촌에서 유인한 여자들을 “조선 안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함흥, 회령, 평양, 만주에서는 봉천, 신경, 하얼빈, 일본에서는 후쿠오카, 하카타, 중국 상해 등지로” 끌고 다니며, 여급을 필요로 하는 요리점, 카페, 바 등에 사기를 쳐 4중, 5중의 전차금을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446] 비슷한 시기에 소개업자가 포함된 사기단이 농촌 부호를 상대로 ‘만주에 가서 요리점을 하면 수년 내로 수 만원의 거금을 모을 수 있다’고 꾀어 돈을 갈취한 사건까지 나타났는데,[447] 당시 만주 방면의 유흥업이 얼마나 번성하고 있었는지가 사회 일반에 퍼져 있지 않았다면 성립할 수 없는 사기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기반하여 가사서비스노동은 하층민 여성들 스스로의 생계자구책이자, 그들을 구제하는 사회사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

446)『동아일보』 1938.02.19.「婦女誘引,橫領等 朝鮮滿洲를 舞臺로 被害莫大 대사기단 불일송국」
447)『조선일보』 1938.02.26.「詐欺團에 얼킨"봉" 萬餘圓을見欺」

# 소결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체를 아우르는 시기는 일제하 조선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이 지속적으로 팽창한 시기로서, 가사노동자의 수나 가사노동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팽창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과 충돌하는 듯 보이는 '식모폐지론'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장에서는 가사서비스노동이 팽창하는 현실과 그에 대한 담론 사이의 긴장과 길항, 양자간 연결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특수성을 더 규명하고자 하였다.

1930년 조선국세조사 당시 미혼 여성 인구가 대다수를 이루는 가사노동자의 수는 비농업직 유업자 중에서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가사노동자의 공급은 당시 농가의 경제적 몰락으로 인한 농촌 분해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이탈 인구는 더욱 늘고 있었던 반면에 이들을 흡수할만한 공업의 발달은 지체되었던 조건하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상황은 같은 시기 섬유 공업의 발달로 가사노동자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었던 일본이나, 농촌의 분해가 조선만큼 심화되지 않았기에 가사노동자의 공급 자체가 적었던 대만과도 비교가 된다. 또한 이 시기 가난한 농가에서 방출된 미성년 여성들의 남의집살이가 확산되었던 정황은 어린 미혼 여성들이 가사노동자의 다수를 이루게 된 사정을 설명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가사노동자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속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은 현실을 앞지르거나 충돌하는 양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 식민지 조선의 특징이었다. 우선 주부의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주부가 직접 살림을 해야한다는 논의는 서구나 일본에서 가사노동자의 부족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린 후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가사노동자가 부족해지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어조의 '식모폐지론'이 주창되었다. 이러한 식모폐지론은 조선의 담론장을 주도하고 있던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의 신여성 규율과 비판의 맥락에서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도 하고, 신여성들 내부에서도 1930년

대가 되면 가사학 전문가들이 등장하며 이들이 과학주의 가사노동론을 설파하고 근대적 지식을 갖춘 주부가 직접 살림을 해야한다고 역설하며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인 언론이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조선인 고용주의 대우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이전 시기의 논의를 계승하여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진고개의 오모니'를 바라보는 불편한 감상은 더욱 심화되어 '비통하다'고까지 표현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와서는 호칭 문제가 하나의 어젠다로 등장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실제로 '어멈'이라는 말이 '식모'라는 말로 교체되어 갔다. 한편 이러한 대우나 호칭 문제의 제기는 당사자들의 자의식 성장과도 관련이 있었다. 1930년대말이 되면 멸시와 하대를 거부하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식모들의 모습이 고용주인 주부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다. 즉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이 일면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식모폐지론'이 과잉되고 그들의 권리 문제가 활발히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신여성을 비판하거나 가사서비스노동의 민족간 고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의 시각이 담론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구별짓기를 하여 근대적 주체로 본인들을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신여성들은 1930년대 말로 갈수록 또다른 근대적 주체로 서려는 가사노동자들의 자의식 성장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담론의 힘이 신여성들 사이에 가사노동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주부 규범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현실에 대한 그 작용력은 극히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시장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를 통틀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이 각 도시의 직업소개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속에서 경제적 상층의 여성들에게도, 하층의 여성들에게도 가사서비스노동과 결합한 도시 생활양식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경제적 상층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하인을 필요로 하는 양반가 집들 외에 새로운 도시 생활양식을 선망하는 '신가정'들도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하층의 여성들에게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생계자구책이 가사서비스노동일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하층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접객업, 유흥업 등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은 가사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 제Ⅲ장 전시체제하 여성노동력 재편과 가사서비스노동의 비공식화

## 제1절 총동원체제하 정책 변화와 가사서비스노동 억제

1930년대 말 전시체제기가 되면서 전쟁 수행을 위해 모든 물자와 인력을 총동원하고자 하는 일제의 정책 기조는 전례 없이 행정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다른 어떤 환경적 조건들보다도 전시체제에 맞추어 도입된 새로운 입법들과 정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시체제기 정책 면에서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국이 여성들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었다. 곧, 기존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 노동력의 활용과 재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1930년대를 통틀어 팽창하였던 가사서비스노동이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전시체제기 상황적 조건의 큰 변화가 가사서비스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전시체제하 노동 정책들 안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을 겨냥한 구체적인 시도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그 직접적인 결과로 가사서비스노동의 자리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지워지게 된 정황을 드러낼 것이다.

### 1. 전시 여성노동력 동원과 가사노동자 억제 정책

노동력 수급에 행정력을 개입하고자 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시도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들어서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1920년대 후반 각 도시 인사상담소에서 공영 직업소개소를 분리시켜 공영 직업소개소 체제를 만들고 나서 이 직업소개소를 통한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931~1933년 궁민구제토목사업(窮民救濟土木事業), 1932~1934년의 시국응급구제공사(時局應急救濟工事), 1934년부터

의 노동자이동소개사업 등을 시행하였다.[448] 이중 특히 노동자이동소개사업은 남부의 과잉 노동력을 조선 북부의 장진강 수전(水電)공사, 간도성 철도공사, 만포선철도공사, 나진만철공사, 함흥탄광, 영안탄광, 용현탄광, 고무산조선시멘트공장건설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 및 탄광에 투여하고자 한 것으로 전시(戰時) '관알선(官斡旋)' 노동력 징발의 전 단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449]

그러나 앞서 살펴본대로, 1930년대 후반까지도 직업소개소 사업의 일반 소개에 있어서는 당국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소개사업에 있어서 광공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기는 했으나 비교적 미미했고, 이것은 전시체제기에 직업소개소가 노동력 징발을 위해 국영으로 재편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때 이전까지 계속된 상황이었다.

부산직업소개소의 주임이었던 스이즈 마사오(水津正雄)는 이 때의 상황에 대해 "조선의 직업소개소는 '무통제, 무권위, 또 비과학적, 고식적인 존재'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전반에 통하는 법규가 없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며 기설 공사립 십수개소의 직업소개소 간에 연락이나 통제가 없는데다가 심하게는 이름만 있고 실제 하는 일이 없는 곳조차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450] 그리고 그 3년 뒤에 경성부 직업소개소를 방문했던 익명의 필자 또한 "(인사상담소가) 황금정으로 이관하여 지금의 이름으로(직업소개소로) 불리더라도 60만 大京城의 것으로서는 다소 빈약하고 음울하여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이다. 단순히 실직자 소개나 빈민 구제가 아닌 부업 장려기관, 사무원 및 노동자의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그 설비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451]

이처럼 직업 소개 업무가 일관된 업무 체계나 기준 없이 고식적으로

448) 近現代資料刊行會, 『(戰前 · 戰中期アジア研究資料 1) 植民地社會事業關係資料集 朝鮮編』 21. 2005, 116쪽~251쪽.
449)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121쪽~122쪽.
450) 水津正雄, 「職業紹介所の現況及將來に對する希望」 『朝鮮社會事業』 제11권 10월호. 1933. 10. 01.
451) 一訪問者, 「京城府職業紹介所雜感」 『朝鮮及滿洲』 349, 1936. 12.

운영되는 속에서 각 직업소개소는 정책의 취지상 본말을 뒤바꾸어 수요와 공급이 용이한 '식모, 하남(下男)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기관의 직업 소개 실적을 선전하는 데 이용할 따름이었던 것이다. 식모 알선에 집중한 것이 의도치 않은 우연한 결과임을 생각하면, 가사사용인에 대한 통치 당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무관심과 무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급변하게 된 계기는 중일 전쟁의 발발이었다. 가사노동자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10대~20대 미혼 여성 인구는 전시체제기 노동력 동원의 핵심 연령층이기도 했으므로, 이러한 큰 규모의 인원이 전시(戰時)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가사사용인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제 당국에 크게 문제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이 시기에 와서 그동안의 방관적인 태도를 일변하여 최대한 가사사용인으로의 고용을 억제하고자 하게 된 것이다.

일제에 의한 전시체제기 노동력 동원은 중일전쟁기와 태평양전쟁기로 대별할 수 있다. 중일전쟁기는 대륙침략을 위한 전시통제경제(戰時統制經濟)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국가총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와 동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 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일제는 이를 위해 각 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여 1939년 물자동원계획, 자금통제계획, 무역계획, 교통전력동원계획 등과 더불어 노무동원계획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40년부터는 일본으로의 노동력 송출을 위해 조선 내에서도 별도의 노무동원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조선에서의 노동력 재편성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노동력의 동원은 우선 노동력 조사와 등록을 실시하고 각 도별로 인원을 할당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452]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된 이후에는 여러 노동이동 제한, 노동력 배치 법령을 일원화하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인원을 실제로 모두 동원하고자 하였으므로, 더욱 노골적인 조처들이 실제로 취해지기 시작했다. 1943년 10월에 발표된 <생산증강노

452) 이상의, 앞의 책, 164쪽-221쪽.

무강화대책>에서는 '유휴노동력(遊休勞動力)', '불요불급(不要不急) 노동력(勞動力)'의 군수산업 배치, 근로보국대의 강화, 징병검사자 중 징병되지 않은 자의 노동력 동원,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동원, 수인(囚人)·사법보호대상자·포로에 대한 노동력 동원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453]

1944년에는 마침내 노동력 동원의 형태로 최고 수준에 속하는 징용이 실시되었다. 그해 2월에 전제조건으로서의 현원징용(現員徵用)을 거쳐 8월에 '현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 16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일반징용(一般徵用)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연령 16세 이상 25세까지의 미혼 여성에 대해서도 '징용'을 실시했으나 조선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근로보국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같은 해 11월에 '14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와 '14세이상 25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여자'로 한정했던 근로보국대의 연령 범위가 각각 '14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 '14세부터 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여자'로 확대되었다.[454] 게다가 같은 달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포되어 해방 전까지 약 20만 명의 여성이 여자정신대로 모집되었다. 결국 '여성 노동력의 공적 활용'이란 전시(戰時)에 남성 이상의 노동 동원이 강제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전시 총동원체제가 구축되는 속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처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1941년 3월말을 기준으로 농촌 동원 인력을 파악하는 한편, 가사사용인의 경우 접객업 및 기타 유업자와 함께 "전시하에 '불요불급'한 직업"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사사용인 종사자 중 50%의 노동력을 전시 산업에 동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455] 이 시점은 특기할 만한데, 1940년 9월 "불요불급 산업"에 12~30세의 청소년 남녀를 허가없이 고용할 수 없도

453)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2, 73쪽-74쪽 ; 이상의, 위의 책, 256쪽-257쪽

454) 곽건홍, 위의 책, 76쪽-77쪽

455) 「朝鮮に於ける勞務給源の調査の結果概要」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15,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0, 318-319쪽. 이 외에 접객업 종사자 중에서는 15%, 농업유업자 중 5~10% 정도, 무업자와 기타 종업자 등 소위 유휴노동력의 경우는 80% 정도까지 추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록 한 <청소년고입제한령>의 공포 당시만 해도, 조선의 경우는 여성을 제외하여 일본 본국과 달리 식모나 여급의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정도로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456]

1943년 9월에는 더욱 노골적인 억제책들이 경성부에 의해 시도되는데 그중 하나는 경성부 조례 제32호로 용인세(庸人稅)를 신설한 것이다.[457] 이 조례는 식모와 머슴을 포함하는 용인과 여급 등을 포함하는 급사의 고용에 특별세를 신설한 것으로, 용인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용인 1인당 1년에 2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458]

1943년 9월 경성부조례 제32호

제1장 총칙

제1조

본부는 다음의 특별세를 부과한다.

① 특별영업세(이하 간단하게 영업세라 칭함)

② 잡종세

-중략-

제3장 잡종세

제16조

잡종세는 다음에 게시하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혹은 점유하거나 또는 행위 혹은 영업을 행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① 전주(電柱)

② 금고(바깥 체적 10입방척 미만의 것 및 휴대 금고를 포함하지 않음)

③ 엽총(을종 또는 특별수렵면장을 받지 아니한 자가 소유 혹은 점유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④ 개(식용으로 쓰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⑤ 용인(傭人)(영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임시 용인을 포함하지 않음)의 사용**

**⑥ 급사인**

⑦ 예기

**앞 항에서 급사인이라 칭하는 것은 요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객석에서 시중들며 접대를 하는 여급, 작부, 중거(仲居),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56) 『조선일보』 1940.06.03. 「朝鮮엔 女子를 除外!」

457) 『매일신보』 1943. 08. 18.「女給,食母에도稅金 京城府서11月부터傭人,給仕稅徵收」

458) 1943년 9월 경성부조례 제32호, 『예규유집』, 1944, 315쪽(서울역사편찬원, 2017, 『(서울 근현대사 자료집2) 경성부 법령 자료집』)

제17조
다음에 게시하는 물건, 행위 및 영업에 대하여는 잡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광산, 송전용 국유 전주로서 대부 후 3년 이내의 것
② 생후 6개월 이내의 개
**③ 연령 14세 미만 60세 이상의 용인의 사용**
**④ 연령 14세 미만의 급사인**
⑤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물건
⑥ 부윤이 따로 잡종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급사인 또는 예기로서 휴업이 전월에 걸쳤을 때에는 그달 분의 잡종세를 면제한다. 다만, 휴업의 신고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용인의 사용자 및 그 동거가족 중 부과기일 현재 연령 14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의 자 또는 불구폐질자(不具廢疾)가 통틀어 3인이상** 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3인과 관련하여 용인 1인에 대한 잡종세를 면제한다.
대부후 3년을 경과한 광산 송전용 국유 전주로서 부과가일의 직전 연도분의 대부료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잡종세를 면할 수 있다.
제18조
잡종세는 다음의 세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용인 1인당 연세 2원 / 급사인 1인당 월세 1원**
(이하 생략)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용인세를 적용하는 대상은 연령으로 14세이상 60세 미만으로 한정하여서, 군수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가사서비스노동에 소요되는 것을 가능한 억제하고자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경성직업소개소의 업무 중에서 식모 알선만 폐지되었다.

당국이 여성 노동력 동원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결국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남성노동력의 동원이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었다. 1943년에 이르면 중남부 지역에서 더 이상의 남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선총독부가 자인(自認)할 정도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잠재노동력으로서, 그리고 남성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여성노동력에 주목했다. 여성노동력의 동원은 크게 ① 농촌에서 농업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② 非軍需産業에서 남성노동력을 대체하여 남성노동력은 군수산업으

로 동원하는 것, 그리고 ③ 중공업 부문인 광산노동력에 동원하는 것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459] 특히 두 번째 방침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으로 지장이 없는 직종에는 노무조정령(勞務調整令)에 의해 남자 노동력의 고용, 사용, 취직, 종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고 '식모를 공장으로 보내자'는 당국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통치 당국은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을 표방했으면서도 여성노동력을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노동인 산업예비군이자 안전판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동원 양상에 있어서는 남성 이상의 동원이 행해졌다. 전시체제기 여성들이 농업 및 광공업 부문에서 남성노동력의 공백을 대체하는 한편으로 면방직공장을 위시한 대공장들에서는 유년노동력의 비중이 급증하였는데, 이 유년노동력의 대부분은 여성노동력이었다.[460] 곧 이 때에 이르러 여성들은 가내 노동에 더해 농업 노동, 공업 노동 등에 동원되면서 2,3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전시 말기에 이르러 직접적인 동원이 전개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 2. 가사서비스노동 수급의 비공식화

노동력 재편과 동원을 위해 가사서비스노동을 가능한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도시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해주던 공영 직업소개소였다. 지방 사회사업시설의 하나였던 공영 직업소개소들은 1940년 1월 <조선직업소개령(朝鮮職業紹介令)>(1940.01.20. 제령 제2호)이 공포됨과 동시에 국영화되었다.[461]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서는 식민 본국인 일본과 달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직업소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공영 직업소개소의 법적 근거도 훨씬 미약했는데, 이 시기에 와서 조선

459) 곽건홍, 앞의 책, 282쪽-285쪽
460) 김경일, 2004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한국노동운동사』 2, 지식마당. 52쪽-59쪽 ; 곽건홍, 위의 책,
461) 『조선총독부 관보』 제3889호. 1940.01.20.

에서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업소개법령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직업소개령>은 1938년 일본의 <개정 직업소개법>(1938.04.01. 법률 제61호)을 모태로 함으로써[462], 이 시기 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일본 직업소개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개정 직업소개법>은 직업소개소를 국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업소개' 사업 자체를 국가기관의 의무에 귀속시킴으로써 노동력 수급에 대한 통치권력의 개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곧, <개정 직업소개법>의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직업소개사업의 민간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노무 관리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463] 즉 일본 <개정 직업소개법>과 <조선직업소개령>은 똑같이 제1조에서 “정부는 노무의 적정한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본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직업소개법>의 제3조와 <조선직업소개령>의 제2조의 “정부는 직업소개사업과 아울러 직업지도 및 필요에 응해 직업보도 기타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을 행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같다. 따라서 1940년 <조선직업소개령> 또한 기본적으로 이 노무 관리 및 노동력 동원의 방향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이를 나타내듯 <조선직업소개령>의 시행규칙(1940.01.20. 조선총독부령 제7호) 안에는 무료직업소개업, 영리직업소개사업에 더해서 1938년 일본의 <개정 직업소개법>에 추가된 노무공급사업 및 노무자의 모집에 대한 조항까지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었다.[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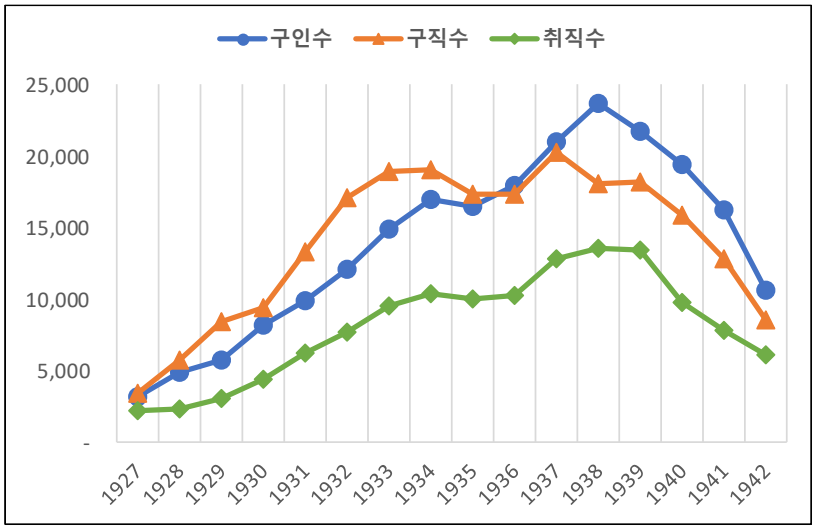
이렇게 직업소개사업의 운영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면서 직업소개소는 국영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직업소개소가 소위 ‘官斡旋’의 전시 노동동원 기관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462) 『日本 官報』(제3371호) 1938.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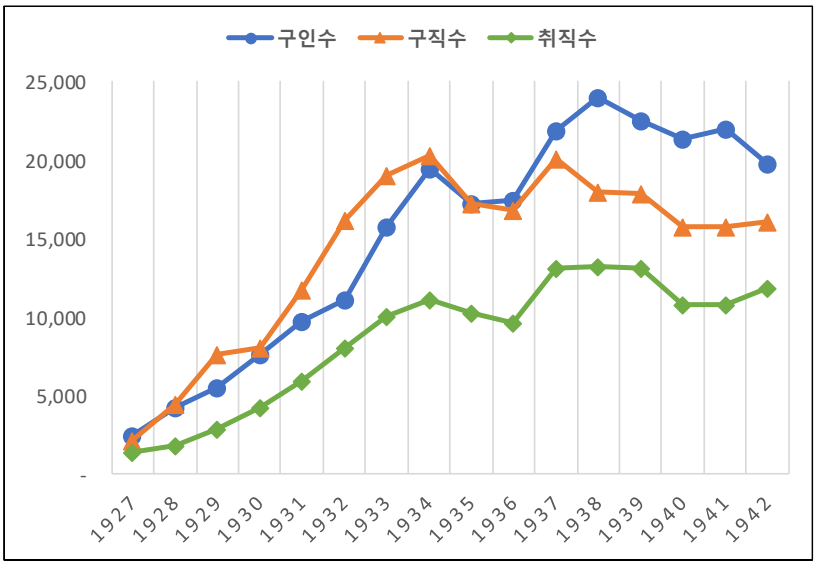
463) 이아리,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 『민족문화연구』 제97호. 398쪽. 기존 1921년의 <직업소개법>에서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로 설정되었던 “시,정,촌장(市町村長)”은 제5조에 의해 직업소개소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위로 그 역할이 축소(제5조), 또한 전시 산업의 노동력 동원을 대비하는 노무공급사업 및 노무자의 모집에 관한 조항도 추가되었다.(제8조)

464)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40.01.20.

결과는 직업소개소의 소개 실적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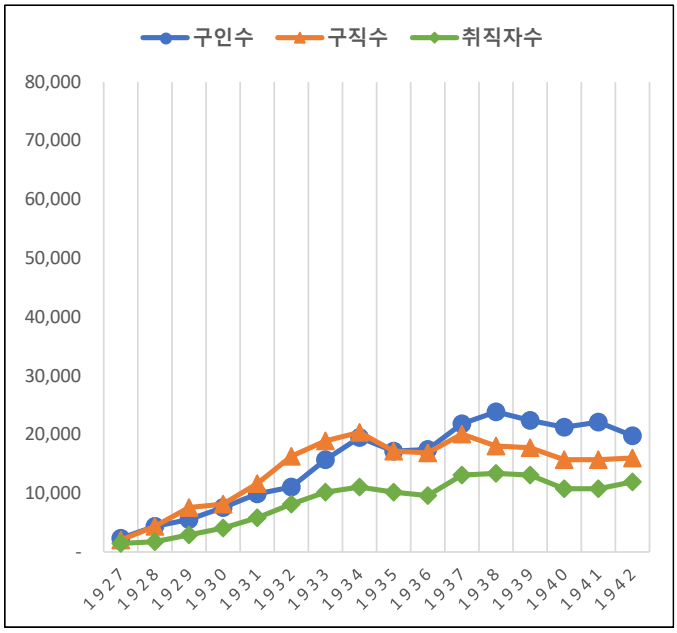



[그림 3-1] 공설 직업소개소 戶內使用人 소개 실적 (1927~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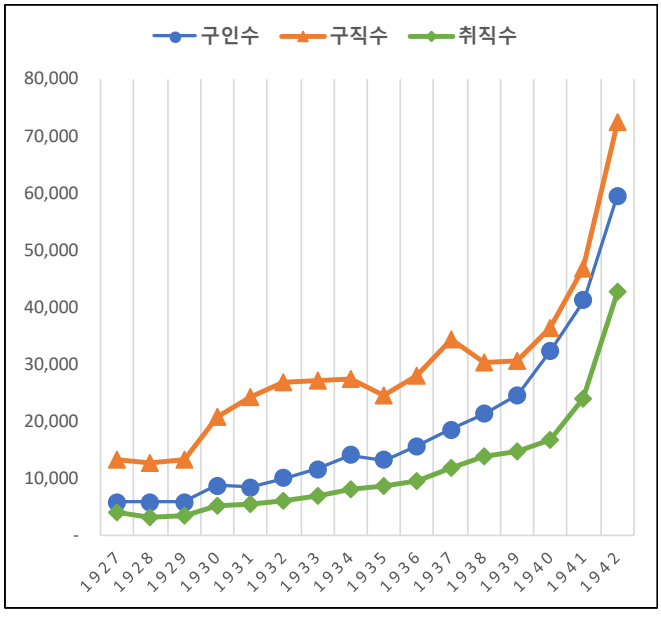



[그림 3-2] 공설 직업소개소 여성 소개 실적 (1927~1942)

출전: 1927년, 1928년, 1931년은 『朝鮮社會事業』 6-9, 7-6, 10-6
1929년, 1930년, 1932~1938년은 각각 『調査月報』 1-1, 2-4, 4-5, 5-8, 6-7, 7-7, 8-9, 10-1, 11-2
1939~1942년은 『統計年報』 해당 연도판의 자료로 작성하였다.




[그림 3-3] 공설 직업소개소 여성 소개 실적 (1927~1942)




[그림 3-4] 공설 직업소개소 남성 소개 실적 (1927~1942)

출전: [그림 3-1] 및 [그림 3-2]와 같음

비고: [그림 3-2]와 [그림3-3]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단위를 달리하여 그래프의 기울기만 달라진 것이다.

[그림 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설 직업소개소[465]의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은 1940년이 되면 구인수, 구직수, 취직수가 모두 감소하였고 1941년과 1942년에는 더욱 가파른 추세로 감소하였다. 이것을 [그림 3-2]의 여성 직업 소개 실적과 비교하면,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과 여성 전체 직업 소개 실적은 1940년까지 매우 흡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 직업 소개 실적의 대다수가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직업소개소가 국영화된 1940년부터 양자는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곧, 여성 직업 소개에 있어서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의 감소분을 보충한 다른 직업의 소개가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공업'이었다. 1939년~1942년 4개년동안 조선인 여성 '호내사용인' 취직수가 9905명, 7661명, 5365명, 4763명으로 감소해 갈 때, '공업' 부문의 취직 수는 610명, 1290명, 3008명, 4065명으로 급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림 3-3]과 [그림 3-4]와 같이 공설 직업소개소의 여성 소개 실적과 남성 소개 실적을 비교해보면 또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공설 직업소개소의 남성 소개 실적은 적어도 구인수와 취직수에 있어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결코 여성의 소개 실적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 말에 추월하기 시작하여, 1940년 이후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를 벌리고 있다. 남성 직업 소개 실적이 급증한 업종은 물론 공업이었다.

즉, 1930년대까지 도시 지역 사회사업시설을 표방하며 가사서비스 노동을 주로 매개했던 공설 직업소개소는 1940년의 국영화 이후 남성 공업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 동원 기관으로 탈바꿈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시기에 와서 관알선의 노동 동원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여성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 시기도 직업소개소가 유명무실한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가사서비스 노동의 매개를 직업소개소에 의지하고 있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의 급변을 겪은 것이라 할 수 있었다.

---

465) '공영'과 '국영'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공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국영으로 바뀐 이후의 직업소개소는 1941년경부터는 식모 알선 의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으며,[466] 1943년 9월 마침내 식모 알선 업무만 폐지한다고 공표하였다. 공표 당시 신문에서 경성직업소개소장은 "직업소개 가운데 제일 번잡하고 전직원이 불쾌를 늣기는 것은 소위 식모알선"이었으며 그동안도 원칙적으로 식모 알선은 자제해 왔으나 "주부들도 결전에 총궐기하여 성전 완수에 돌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에 9월 1일부터 당분간 식모 알선 업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467] 12년 전 식모 알선 일이 아니면 찾아온 구직자를 냉담하게 대했던 직업소개소에서 이제는 식모 알선이 전 직원이 불쾌를 느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서비스노동을 불요불급한 노동으로 규정하고, 행정력으로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이에 대한 소개 업무를 직업소개소에서 배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그 자리를 지우는 결과로 나타났다. 1943년 10월에는 식모를 이유로 상경하려는 자에게 퇴거 증명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보이는데,[468] 퇴거 증명 없이 떠날 경우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강제로 가사서비스노동의 공급 요인을 차단한 것에 가까웠다.

---

466) 『매일신보』 1942. 05. 22. 「(家庭과 文化) 일업시 장세월 보내면서 식모 구하는 악폐 - 젊은 식모 공장 보내고 아씨는 팔걷고 나서라」

467) 『매일신보』 1943. 08. 30. 「主婦에勤勞의振鈴 - 職業紹介所에서食母의斡旋廢止」

468)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業紹介所에서 强調」

## 제2절 전시의 주부 담론과 '식모폐지론'의 강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며 담론의 측면에서도 그 기반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일제 통치 당국의 언론 통제와 검열이 더욱 강력해지고 노골화되었으며, 자유로운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에 따라 이 시기에 생산되는 담론은 대부분 총동원체제에 복무하기 위한 논리로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크게 보아 본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간의 기존 차이도 무마시키는 것이었고,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담론에 집중해서 보면, 두 사회 모두 더욱 강력하게 '조추(女中)' 또는 식모의 폐지를 역설하게 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다음에서는 일본과 조선을 함께 비교했을 때 전시체제기 들어 나타나게 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전시체제기 조선에서의 '식모폐지론'이 가지게 된 특성과 그 의미에 대해 더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 1. 언론 통제와 전시 총동원 논리 일원화

전시체제기 담론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언론의 자율성이 크게 억압당했다는 것이다. 전시총동원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언론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언론 통제 법령, 지침, 기구가 계속 신설되었다. 1938년 2월에는 조선 전국 일간지 26개사를 연합한 조선춘추회가 만들어졌는데, 조선총독부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고, 전시총동원체제에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한 기구였다. 1940년 8월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킴으로써 매일신보가 조선어로 발행되는 유일한 신문이 되었다.

당시 조선에는 일본 내지에서 출판한 신문들도 <외지판>이라는 제호를 달고 유통되고 있었는데, 아사히와 마이니치가 지국을 두고 있었다. 이 일본 신문사의 언론조차 전시체제하에서 2중 검열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의 사정에 대해 아사히의 지국원은 "검열에 걸리는 내용은 일절 쓰

지 못했다", "조선에서의 언론통제는 식민지라는 것도 있어서인지 내지보다 훨씬 엄격했다."고 회고하였다. 아사히신문 서부 본사는 당시 신문을 규슈 고쿠라에서 인쇄해서 선편으로 부산으로 운반했다. 일본에서 검열을 받은 신문은 부산에서 다시 검열을 받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 10만부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발송이 허가되지 않아서 기사 해당부분을 먹물로 새까맣게 칠하거나 잘라내야 했다고 한다.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일본과 조선에서 두 번 실시하는 이 '2중 검열' 하에서는 서로 경쟁하려는 의욕조차 일지 않았다고 회고한다.[469]

이렇게 전시에 언론 통제와 검열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언론을 통해 생산되는 담론들은 통치 당국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논조나 성격이 전시 총동원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크게 경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의 변화는 담론 생산층 내부의 차이를 소거하고 대부분의 언설을 전쟁 동원 논리로 일원화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담론의 생산에 있어서 작게 보아서는 언론사나 매체 간의 차이, 크게 보아서는 본국과 식민지 간의 차이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 모두에서 전시 노동 동원에 방해가 되는 가사서비스노동의 고용을 억제하려는 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나왔다. 또한 일본과 조선 공히 가사노동자를 채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본의 『부녀신문』은 1939년 12월 미야자키현에서 조추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보도하여 일본에서 조추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또한 이 신문에서는 그 이듬해인 1940년 4월 '조추난(女中難)에 태연한 사람들'이라는 표제로 조추 없는 생활을 장려하는 인터뷰 기사를 3차례에 걸쳐 연재하기도 하였다.[470] 일본 안에서도 가사노동자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전에 없이 강력해진 것이다. 사실 일본의 조추난(女中難)은 전시 노동력 부족과 함께 더욱 극심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의 전시체제기 담론은 그 레토릭에 있어서도 전선

469) 서정완 외 16인, 『아사히 신문 외지판(남선판) 기사명 색인』 제1권,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470) 清水美知子, 『〈女中〉イメージの家庭文化史』, 世界思想社, 2004.6. 137쪽

을 지원하는 후방으로서의 '총후'[471]를 강조하고, 어머니와 아내의 이름으로 여성들까지 전쟁에 협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일본에서 여성의 미덕으로 '총후의 임무'와 '총후의 수호'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 이후였다. 『주부지우(主婦之友)』와 같은 대중적으로 인기 높던 여성 잡지에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개시되고 난 후 그해 9월부터 전시색 짙은 기사들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총후의 여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갈수록 두드러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 여성의 남다른 희생 정신을 강조하는 '일본의 어머니' 개념이 유행하여, 남편과 사별 후 여성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모습을 일본 어머니의 특징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472] 1940년대가 되면 『주부지우(主婦之友)』 잡지에 나타나는 '칭송되는 여성'의 기사 대부분이 '군국의 어머니, 군국의 아내'형이었다.[473] 곧 아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길러낸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고 '명예로운 戰死'를 선택하게 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명예로운 어머니, 전사군인의 아내라고 칭송하는 것을 말한다.[474] 이러한 '군국의 어머니' '군국의 아내'에 대한 칭송은 "만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일본 어머니의 지성지충(至誠至忠)", "이것이야말로 군국 일본의 명예"와 같이 매우 정열적으로 표현되었다. 사실상 이처럼 군국주의를 선동하는 말은 1930년대 말 이후 '칭송받는 여성'에 대한 기사뿐만 아니라 지면의 모든 장르

---

471) "총후"라는 말은 러일전쟁 이후 사쿠라이 다다아쓰가 쓴 전쟁문학 『총후』에서 비롯되었는데, 원래 이 말은 전선의 바로 배후에서 활약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등장한 총후는 전선과 본토 사이의 거리가 현격히 멀어지고 범위가 확대된 것을 가리켰다. 곧 중국 대륙의 전선에 대해 일본 전역(조선, 대만, 사할린 등 포함)이 총후였다. 가노 미키요, 『여성들의 총후』 1987, 52 (이은주, 『근대 일본의 지식장과 젠더투쟁』, 소명출판, 2016. 239쪽 각주 9번 재인용)

472) 이은주, 『근대 일본의 지식장과 젠더투쟁』, 소명출판, 2016. 239쪽.

473) 기무라 료코, 『주부의 탄생』, 소명출판, 2013. 187쪽.

474) 기무라 료코는 전시기에 갑자기 등장한 군국의 어머니, 군국의 아내형 칭송 모델은 기존 양처현모주의의 봉건적인 측면이 가장 강조된 형태라고 보았다. 나라를 위해 남편과 아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논리는 한편으로 남성의 입신출세를 위한 노동을 가정에서 여성이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규범과도 이어진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만약 (여성 잡지의) 독자들이 이들 규범을 받아들인다면 남성을 노동자로서, 그리고 병사로서 풀가동시킬 수 있는 동시에 여성을 시장에서 불가시적인 그림자 노동의 담당자로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기무라 료코, 앞의 책, 192쪽.

기사에서 과잉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었다.[475] 이와 비슷하게 조선에서도 '총후부인', '군국의 어머니'라는 표현들이 전쟁 선전과 여성 동원의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조선 남성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조선총독부는 조선 여성들에게 일본 여성을 본받아 군국의 어머니가 되자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476] 이 과정에서 화랑의 어머니나 신사임당과 같은 역사적 인물을 '총후부인' 또는 '군국의 어머니'로 재현하기도 하였다. 가령, 1943년 10월 20일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며 당시 조선에서 전문학교 이상 재학하고 있는 조선인 학생들에 대해 사실상의 징병이 시작되었을 때, 신문지상과 강연장에서는 '화랑도 정신'을 강조하며 참전을 독려하는 언설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 원술의 어머니 지소부인과 그의 약혼녀 아좌희라는 가상의 인물로 '군국의 어머니', '총후부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전쟁 동원 담론이 만들어졌다.[477] 또, 신사임당 역시 전시체제기가 되면 '군국의 어머니'이자 '총후부인'으로 표상되었다. 당시 조선의 문화예술계가 전쟁 선전에 적극 동원되며 그 중에서도 만담가들이 전국 순회 공연을 통해 매우 활약하였는데, 1943년 3월 강원도에 도착한 만담가들은 공연에 앞서 신사임당을 '군국의 어머니'로 묘사하는 말을 잊지 않았다.[478] 즉 청중에게 "따님을 나시려던 신사임당과 같은 따님을 나시여 군국의 어머니로서 바치고 아들을 나시여 황국의 방패로 바치시기를 祝 하는 바입니다.[479]"라고 징병제의 취지를 선전하고 참전을 독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앞에서도 언급한 일본 여성 잡지 『주부지우(主婦之友)』의 1944년 11월호에 실린 「출진의 서약」이라는 글에서 "이제야말로 사랑하는 자식을 방패로 바친다"는 말이 쓰인 것과도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 시기 '군국의 어머니'와 '총후부인'의 표상을 강조하며 레토릭마저 거

475) 기무라 료코, 앞의 책, 188쪽.
476) 이상경, 「일제말기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 2, 2002.
477) 정종현, 「국민국가와 화랑도-애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4), 2006.12.
478) 홍양희,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 『사학연구』122, 2016.
479) 申鼎言, 『매일신보』 1943. 3. 19. 「徵兵趣旨 野談漫談行脚-江原 篇」

의 흡사한 언설들이 일본과 조선에서 함께 나타났던 것이다. 이 역시 전쟁 수행 논리에 매몰된 담론장의 일원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주부에 대한 담론이 이렇게 변화한 조건 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도 다시 구성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 시기에 보였던 조선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 즉 담론이 현실의 상황에 선행하여 괴리를 보이는 모습 및 본국 일본과의 차이는 다소 희석되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두 사회 간의 차이도 있었는데, 그것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일본의 경우, 194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조추 관련 기사나 논설 자체가 신문, 잡지 지면에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부녀신문』에서도 조추 관련 기사는 1940년부터 뚜렷하게 줄어들어서 1941년 6월 1일의 조추 대상 <전시 생활 강습회>의 소개 기사를 마지막으로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480]

반면 조선에서는 1930년대말부터 1940년대의 전시체제기에 식모폐지론이 더욱 강조되면서 식모 관련 논설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의 전시체제기 식모폐지론은 기존 논의의 논리와 레토릭을 계승하면서도 전시체제기에 한층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법을 이용해서 식모의 폐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선에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담론의 효과와 관련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전시 '식모폐지론'의 특징

조선의 '식모폐지론' 또한 1937년 중일전쟁 직후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며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식모의 폐지를 논하는 신문 잡지 기사의 양 자체도 증가했을뿐더러 폐지를 권하는 언설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1937년 9월의 신문기사에서 '국방 헌금 미담'의 하나로 인제군의 김창수라는 인물이 "식모를 폐지하고" 손수 자취를 하며 식모의 급료로

480) 清水美知子, 앞의 책, 139쪽.

주던 돈 3원을 국방헌금으로 내었다는 사례가 들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동원의 목적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481] 아래에서는 전시체제기 '식모폐지론'을 그 논리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전 시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전시체제기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로, 전시체제기 가사노동자에 대한 논의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전시의 '신경제(新經濟)'를 역설하며 그에 맞지 않는 식모 고용의 '불경제(不經濟)'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가정의 영역까지 총동원 체제하에 포섭하고자 하는 식민 지배 당국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곧 전시체제기 통제 경제 하에서 전쟁 수행을 위해 개별 가정의 의식주도 통제하려는 시도가 '가정생활 개편'의 이름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언론 지면에는 "신생활", "신경제", "비상시국"과 같은 말이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비상시 가정경제"는 "총후의 주방 수호"에 주력해야 한다거나[482] 주부 자신이 나서서 살림을 해야 "생활전(生活戰)"에서 이길 수 있다[483]고까지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시의 물가고를 극복하고 신경제에 부합하는 절약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으레 들어지는 것이 '식모의 폐지'였다. 폐물의 이용과 더불어 식모를 두지 않게 된 것이 "무척 경제가 된다"고 말하거나[484], 수입지출을 합리화하고 사교, 교육비를 줄이자는 제안과 함께 "하인 있는 집에서는 수를 줄이든지 가급적 폐지할 것, 식모 두는 돈으로 주택을 개량하여 주방을 편리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식이었다.[485]

이렇게 전시 절약 생활을 위해 식모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전쟁 선전에 동원된 당대 지식인들의 입을 통해 이루어졌고, 특히 1930년대 중후반부터 가사전문가로서 부각되었던 여성 지식인 명사들이 전시체제기에도 이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금선, 홍선표, 황신덕 등이 이러한 논의에 이름을 올리는 이들이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이전 시기의 생

481) 『동아일보』 1937.09.03. 「麟蹄 국방헌금 미담의 여러 가지」
482) 『매일신보』 1938. 01. 04. 「비상시가정경제-총후의 주방수호」
483) 『매일신보』 1945. 05. 06. 「<家庭과 文化>-규모작은살림은-첫재식모업시손수할 것」
484) 『매일신보』 1938. 01. 04. 「<비상시가정경제-총후의 주방수호>」
485) 『동아일보』 1940.01.08. 「절름바리생활을 청산하고 수입지출의 합리화」

활개선론을 계승하는 측면도 많이 보여주었다. 즉, 부엌개량을 통해 식모의 폐지로 나아가자거나,[486] 주부가 직접하는 살림이 더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며[487], 경제관념이 없는 식모는 살림살이를 낭비적으로 한다거나[488] 자녀 교육에 해가 된다[489]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다음의 글은 식모를 두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시까지 나온 논의를 총망라해 이야기하고 있다.[490]

> 현하 소위 문화생활을 하고자 식모를 아니 두고도 견딜만한 집에서 나태방종하여 식모 살림을 못할 처지에도 식모를 두고 살림해 가는 집이 많은 것입니다.
> 대개 식모를 두고 살림해 가는 폐해를 몇가지 말씀하자면 (중략)
> 첫째로 **자식을 둔 이는 가정교육상 문제**가 됩니다.(중략) 만일 식모를 두고 주부의 할 일을 배워주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나태, 방종, 안일, 호강의 버릇을 길러주기 쉽게 되는 고로 자녀 교육상 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둘째로 폐해가 되는 것은 살림살이 경제문제입니다. 가령 식모를 둔다 하게 되면 적어도 월급 오원은 (중략) 식모가 먹는 것, 일년에 신 켤레나 또는 옷도 가을봄으로 한 벌씩 해주고 방 한칸 따로 주게되는 것을 회계해 본다면 주부가 살림할 때와 식모가 살림할 때 쌀과 나무가 헤픈 것은 환산한다면 한 달에 적게 잡아도 이 십원 손해를 본다 치고 일 년에 이백사십원이라는 엄연한 숫자가 나타나서 우리 **가정 경제에 위협**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셋째로 폐해가 되는 것은 음식 만드는 것입니다
> 식모에게만 맡겨둔다면 **음식이 맛없을 뿐 아니라 비위생적**이오 집안식구의 식성을 맞출 줄 모르니 (중략)
> 끝으로 식모의 폐단 한 가지를 말씀하면 **주부로 하여금 운동 부족이 되어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의 단락을 깨트리는 것도 식모요 경제의 손해를 보게 하는 것도 식모요 주부의 건강을 뺏는 것도 식모라고 나는 단연코 말

---

486) 『매일신보』 1938. 05.04. 「<가정특집>가정생활을 어덧게 개선할까」 ; 『동아일보』 1938.10.07. 「<여성시론> 女性(여성)과 創造力(창조력)」
487) 『매일신보』 1940. 09. 14. 「<家庭> 新生活과廚房의經濟 식모는 폐지하고 부엌일은 주부가 손수하되 사치하게말고 양분중심으로」
488) 『동아일보』 1939.04.20. 「석탄과 조개탄쓰는비결」
489) 『동아일보』 1940.01.08. 「절름바리생활을 청산하고 수입지출의 합리화」
490) 『동아일보』 1938.01.12. 「생활개선사안/ 식모 때문에 받는 손해 수짜로만 일년에 이백사십원이다」

씀할 수 있습니다. (강조-필자)

다만, 위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모를 두는 것이 '가정의 단락이나 화락을 깨트린다'며 특히 식사 준비에 있어서 주부의 애정이 담긴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 이 시기의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곧 "주부로서 매사를 안잠자기 등에게 맡기어 버리면 가정으로서의 단란한 맛이 없을 것이며 주부의 도를 잃는 것"[491]이라든가 "생활비 가운데서 식모비만큼 공제하여 단락비로 쓰면 비용 절약에다 가족 단락에도 도움"[492]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제 식구 아닌 아무 관련도 없는 남을 가족 속에다 넣는다는 것이 벌써 주무의 마음을 당치않게 더 쓰게 만들거니와 식모를 부리려 들면 여간 신경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에는 더 나아가 가족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더욱 근대적인 감각이 엿보인다.[493]

그러나 겉보기에 이전의 시기와 연결되는 생활개선론의 진전인 듯 하여도, 결국은 전쟁 동원의 논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저축에 힘쓰고 절약하기 위해 식모를 두지 않았다는 여성은 "시국(時局)마담"으로 칭송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494] 전시의 생활개선을 위한 좌담회나 강연회 등의 자리가 연이어 개최된 것은 전문가들의 발언 기회를 넓히고 이들의 권위가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그러한 전문가의 권위도 결국 전쟁 선전과 동원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식모의 폐지를 주창하는 생활개선 좌담회에서는 절미(節米)를 강조하며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하루 두 끼만 먹는 것이 영양적으로 좋다는 이야기가 함께 거론되었다.[495]

두 번째는 모범인 총후부인(銃後婦人)과 반면 교사인 유한부인(有閑婦

491) 『매일신보』 1938. 01. 04. 「<비상시가정경제-총후의 주방수호>」
492) 『동아일보』 1938. 01. 11. 「生活改善私案-식모두는폐해/식모 때문에 쓰는 비용을 가족의 단락비로 쓰게 하십시다」
493) 『매일신보』 1945. 05. 06. 「<家庭과 文化>-규모작은살림은-첫재식모업시손수할 것」
494) 『조선일보』 1940.01.06. 「(事變美談集-"時局마담"을 차저서) 국가의 번영은 어머니의 저축심에서-병어리로 저금하는 張還甲 女史」
495) 『매일신보』 1940. 01. 01. 「新春鼎談」

人)의 대비를 들 수 있다. 가사노동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시기부터 신여성들을 검열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던 "제 손으로 살림하는" 주부에 대한 규범이 전시체제의 "총후부인", "유한부인" 레토릭과 연결되어 식모폐지론을 강화하는 데 쓰였던 것이다.[496]

"총후부인" 레토릭은 가정부인들을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총후'를 지키는 전사들에 비유하고,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절약과 국가적인 물자 증산을 무기로 '결전'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적인 모델이었다. 전쟁 수행을 도울 임무를 띤 총후부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곳은 전선만이 아닙니다. 전선과 총후는 구르마의 두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을 더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일선에서 무력전으로 우리 황군용사는 적군을 닥치는대로 격멸하고 있지만 **총후를 지키는 우리 가정 부인이 그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하생략)[497]

> 제일선에서 피투성이가 되여 싸우고 있는 장병에 보답하고자 **총후의 일 억 국민**은 이를 악물고 **한 대의 비행기와 한 채의 군함이라도 더 증산**하여 미영 격멸에 최후의 돌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 (이하 생략) [498]

한편 "유한부인"은 총후부인과 대비되는 반면교사로 언급되었다. 유한부인들에 대해서는 "화장이나 의상"에만 몰두하고, "앉아서 해주는 밥이나 먹고 꾸며주는 옷이나 입으려 하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였다.[499]

---

496) 『동아일보』 1940. 01. 05. 「(生活設計를 改編하자, 物價高를 克復할 나의 提唱) 잇던 식모를 폐지하고 주부는 자진활동」 ; 『매일신보』 1940. 07. 26. 「享樂退治와 新生活의 方向-食母乳母 두는 버릇 없애는 것은 스위트 홈을 만드는 비결이기도 하다-家事는 전부 내 손으로!-車士伯氏談」 ; 『매일신보』 1940. 09. 14. 「家庭新生活과廚房의經濟 식모는 폐지하고 부억일은 주부가 손수하되 사치하게말고 양분중심으로 家庭女塾院長 黃信德 ; 『매일신보』 1940. 09. 14. 「新生活-식모를 두지 말고 몸소 나서서 일하자 ; 『매일신보』 1941. 04. 12. 「家庭-식모를 폐지하자 손수 하는 것이 효과적」 등

497) 『매일신보』 1943. 09. 02. 「家庭-내 손발을 놀리자 식모도 직접 국가봉사의 길로」

498)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業紹介所에서 强調」

499)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業紹介所에서 强調」 등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였던 “제 손으로 살림하는 주부”에 대한 규범을 전시체제기를 맞이한 통치 권력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한 동원에 이용한 것이었다.

한편,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논의로는 여성 노동력의 산업 동원 및 여성 체육 증진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전시체제기의 정책적 변화는 앞서 말한대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조선총독부 당국의 기본적인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여성 노동력은 이제 노무 자원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식모가 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을 전시 산업을 뒷받침하는 공장의 노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주창된 것이 이 시기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 세계의 각 열강 국가는 진작부터 여자동원을 계획적으로 실행하여 왔다. 즉 맹방 독일을 두고 보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부인 가운데 약 6할 이상이 중요산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적 미국이라 할지라도 3천만 명의 여자 가운데 1천7백 5십만명 이상이 동원되어서 여자 백 명 가운데 27명이 전시 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중략)
> 경성부직업소개소 당국: 만약 **식모가 될 여유의 여자가 있다면 전쟁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생산 방면의 공장에 알선**하려고 합니다[500]

> 한편 소학교 출신의 소년소녀들은 대체로 급사나 점원같은 간이한 작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필요한 방적 공장이나 철공장 파자 공장**같은 곳에는 곤란이 크다고 (중략) **여자도 결혼 후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하여** 인구증식정책과 인적 자원 부족의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취하리라고 한다. [501]

> 이를테면 **집에서 식모를 군수공장으로 돌려 더 급하고 긴한 일**을 하게 한다면 국가로 보아 이익이고 물건을 절약해서 남은 물건 역시 공장이나 다른데로 돌려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잇는 것이다.[502]

---

500)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業紹介所에서 强調」
501) 『매일신보』 1941. 07. 28 「내집살림은 내 손으로 ! 姿態 감춘 求 "食母" 群」
502) 『매일신보』 1945. 06. 11. 「<家庭과 文化> 식모업시 손수일하자 가용절약해서저축에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체제기 들어 국민 체육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 식모를 두지 않고 몸소 가사노동을 하면 주부가 건강해진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1940년 1월 1일 기사로 여자체육진흥책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그 중 상당수 의견이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사람마다 자기의 체격에 따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할 줄 아나 대개는 각자의 가정 살림에 근로작업 즉 환언하면 종래의 “어멈” 사용 대신으로 자신이 직접 활동하여 조선 가정 부인의 연약한 체위를 향상시킬 것”과 같이 식모를 두지 말고 주부인 여성 스스로 가사노동을 하라는 것이었다.[503]

이렇듯 전시체제기의 조선에서 생산된 담론들은 대체로 일본제국주의의 전시 총동원 논리로 흡수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 본국과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런 속에서 일본과 달리 식모폐지론이 더욱 활발하게 나오게 된 것은 전시 비상시의 '당위성'을 명분 삼아 여성 명사들이 공적인 발화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황도주의 단체인 녹기연맹의 부인부가 1938년부터 조선 가정 개선 운동에 나섰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일본에서 가정학을 배워 가사과 교사로 활약 중인 조선 신여성들을 포섭하였고,[504] 전시 국가주의적인 동원 논리에 복무하는 가사노동 담론을 펼치게 되었다.

503) 『조선일보』 1940.01.01. 「“父兄들에게 體育思想을”」
504)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식민지 문화지배와 일본유학』 ,창비, 2007, 177-223쪽.

## 제3절 가사서비스노동의 사회적 기능과 수요의 지속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정책적 억제 시도나 폐지 담론이 전시체제기에 점차 강화되면서 공식적인 영역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의 자리를 지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실상 조선 사회에서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나 그것의 여성 생계책으로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전시체제기에 들어서 바로 감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먼저, 생계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자가 되는 길은 여전히 가장 우선순위의 선택지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보면, 1939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도가 피해를 입은 광범위한 규모의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조선의 농촌에 큰 타격을 주었다.[505] 당시 치안상황에 대한 보고를 보면 남선 지역에서 취업을 위해 상경하는 인파가 워낙 많아 그 길목에 있는 민가들은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재민들 때문에 곤혹을 치렀으며, 인천과 경성에 유입된 이재민 중 취로를 하지 못한 자들은 시정을 배회하고 역두, 길모퉁이, 공원, 다리 밑 등에 기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남에서는 도내 걸인이 약 100명이 증가하였고, 일본 내지 도항 출원자도 늘었다고 하며, 경남에서는 생활난으로 몸을 파는 부녀자의 사례가 26건이 발생했다.[506]

이러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1939년과 그 이듬해인 1940년에는 한해를 입은 지역에서 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경성으로 올라와 직업소개소를 찾으면서 경성직업소개소에 구직자가 쇄도하고 있는 사정이 신문 지면에 묘사되었다. 다음은 그중 하나로 1939년 늦여름의 일을 말하고 있는 신문의 기고글이다.[507]

> ... 전차에서나 거리 모퉁이 모퉁이에서 보따리짐 싸 가지고 밀려 다니는 남녀노소들, 더욱이 **직업소개소에 밀려드는 그 사람들 분명 남조선 각지의 한재(旱災)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겠지요. **할머니, 어머니, 손녀**

505) 朝鮮總督府 司政局 社會課, 『昭和十四年 旱害誌』 1943
506) 『高等外事月報』 제2호 1939년 8월, 18쪽.
507) 『조선일보』 1939.09.05. 「거리의 대조-김성철(金聖哲)」

**삼대가 다 상경하여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업이라는 숙어를 쓰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밥을 구하고 있어요. 남조선뿐이고 북조선뿐입니까? 이 한재야말로 거진 전조선적인 걸요. 서울서도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 벌써 얼마나 오지 않습니까? 음료수까지 없어서 아우성이라는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가 오지 않으니 마음속까지가 타오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거리에 모여드는 남부여대(男負女戴)한 보따리꾼들, **직업소개소에 와서 행여나 식모로라도 데려가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고 서있는 그들의 처지**를 비를 맞지 못하는 땅 위에 사는 우리로서 어찌 지나가는 행객의 일이거니 쯤 생각만 되겠습니까...
(강조-필자)

할머니, 어머니, 손녀 삼대가 다 상경하여서 직업소개소에서 식모일을 찾을 정도로 절박해진 가뭄 피해 상황은 이듬해 1940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아래의 기사는 1940년 6월 경성 직업소개소에 가뭄 피해 지역에서 상경한 부인들로 인해 여성 구직자들이 급증하였으며, 그들은 일본인 가정의 가사노동자인 "조추[女中]"로만 가려고 하여 직업소개소 직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508]

여중 봉공 목표로 낭자군이 쇄도 - 한해 지방에서 경성으로
경성직업소개소는 국립이 된 이래 착착 계획을 수립해서, 구인, 구직의 알선에 만전을 기해 오는데, 최근은 구직자 쇄도로 각 계원은 轉手古舞의 현상이다. 지금 최근의 구인구직풍경을 타진해보면 전월의 일반구직자는 3,500인 구인자는 1,200인 반수 이상은 미취직이 되었는데, **특히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조선부인의 구직자가 우르르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원인은 한해 지방에서 밀어닥쳤기 때문인데 게다가 이 구직자들은 내지인측으로의 여중 봉공을 유일의 목표로 삼은 모양으로,** 조선인측의 구인자로는 전혀 눈도 주지 않고 있어서 직업소개소로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板挟이 되어, 계원도 그 설명에 땀투성이의 분투를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그리고 이렇게 생계가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 있어 최우선의 생계책이 가사서비스노동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공인을 받은 것

508) 『朝日新聞』 外地版 1940. 6.22. 「女中奉公目指し娘子軍が殺到 - 旱害地方から京城へ」

이기도 하였다. 동아일보는 1939년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자문을 해주는 <가정고문란>을 신설하여 1940년 8월에 신문이 폐간되기 전까지 유지한 바 있었다. 이 고문란에 투고되는 갖가지 사연들 중에서도 술집 작부로 일을 시키는 양부모를 떠나고 싶다는 사연이나[509], 남편의 의심과 폭행으로 집을 떠나고자 하는 상황[510], 혼인 후 알고 보니 남자에게 본처가 따로 있었다는 사연[511] 등에 대해 필진들은 자주 "차라리 식모 노릇을 할지언정" '떳떳하게 살라'고 권하고 있다. 즉, 이 시기에도 여전히 가사서비스노동이 하층민 여성들의 자구책으로서 기능하였고, 접객업 등의 다른 직종에 비해 '떳떳한 일'로 여겨지는 사회적 승인이 자리잡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시체제기 노동력 수급에 통치 권력이 직접 개입하고자 하면서 직업소개소가 국영화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공설 직업소개소의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이 급감하는 대신 남성/공업 중심 노동력 수급의 알선이 그 업무의 핵심이 되었던 사정은 이미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때도 직업소개소를 둘러싼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여전했던 현실과 정책의 추진 방향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업소개소의 국영화 직후인 1940년에도 경성직업소개소의 소개 실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호내사용인' 소개였던 사정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음의 표에서 월별 소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월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가을 이후로 취직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한 해 동안 그 소개 실적은 꾸준하게 이어졌다.

509) 『동아일보』 1939.05.04. 「가정고문란-화류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양모를 버리게 됩니다」
510) 『동아일보』 1940.02.24. 「家庭顧問欄(가정고문란)-기생노릇은 못하겠는데 살 길이 없읍니다」
511) 『동아일보』 1940.05.21. 「家庭顧問欄 결혼한지 일년만에 파탄이 일어낫어요」

**[표 3-1] 1940년 경성직업소개소 '호내사용인' 월별 소개 실적**

| | | 구인수 | | | 구직자수 | | | 취직자수 | | |
|---|---|---|---|---|---|---|---|---|---|---|
| 월별 | 민족별 | 남 | 녀 | 계 | 남 | 녀 | 계 | 남 | 녀 | 계 |
| 1월 | 일본인 | 17 | 34 | 51 | 16 | 10 | 26 | 9 | 10 | 19 |
| | 조선인 | 44 | 666 | 710 | 41 | 354 | 395 | 26 | 301 | 327 |
| 2월 | 일본인 | 5 | 32 | 37 | 5 | 6 | 11 | 3 | 4 | 7 |
| | 조선인 | 41 | 651 | 692 | 28 | 415 | 443 | 20 | 323 | 343 |
| 3월 | 일본인 | 0 | 11 | 11 | 0 | 15 | 15 | 0 | 11 | 11 |
| | 조선인 | 57 | 508 | 565 | 69 | 504 | 573 | 52 | 504 | 556 |
| 4월 | 일본인 | 0 | 8 | 8 | 0 | 8 | 8 | 0 | 6 | 6 |
| | 조선인 | 16 | 615 | 631 | 51 | 523 | 574 | 10 | 453 | 463 |
| 5월 | 일본인 | 0 | 12 | 12 | 0 | 10 | 10 | 0 | 10 | 10 |
| | 조선인 | 30 | 807 | 837 | 40 | 656 | 696 | 21 | 593 | 614 |
| 6월 | 일본인 | 0 | 18 | 18 | 0 | 17 | 17 | 0 | 17 | 17 |
| | 조선인 | 38 | 853 | 891 | 43 | 576 | 619 | 27 | 478 | 505 |
| 7월 | 일본인 | 0 | 28 | 28 | 0 | 25 | 25 | 0 | 21 | 21 |
| | 조선인 | 59 | 745 | 804 | 80 | 505 | 585 | 42 | 381 | 423 |
| 8월 | 일본인 | 0 | 16 | 16 | 0 | 19 | 19 | 0 | 10 | 10 |
| | 조선인 | 87 | 815 | 902 | 93 | 586 | 679 | 70 | 404 | 474 |
| 9월 | 일본인 | 0 | 8 | 8 | 0 | 14 | 14 | 0 | 6 | 6 |
| | 조선인 | 73 | 591 | 664 | 99 | 432 | 531 | 58 | 336 | 394 |
| 10월 | 일본인 | 0 | 32 | 32 | 0 | 23 | 23 | 0 | 13 | 13 |
| | 조선인 | 84 | 600 | 684 | 125 | 439 | 564 | 59 | 349 | 408 |
| 11월 | 일본인 | 0 | 16 | 16 | 0 | 18 | 18 | 0 | 6 | 6 |
| | 조선인 | 70 | 463 | 533 | 84 | 347 | 431 | 62 | 261 | 323 |
| 합계 | 일본인 | 22 | 215 | 237 | 21 | 165 | 186 | 12 | 114 | 126 |
| | 조선인 | 599 | 7314 | 7913 | 753 | 5337 | 6090 | 447 | 4383 | 4830 |
| | 합 계 | 621 | 7529 | 8150 | 774 | 5502 | 6276 | 459 | 4497 | 4956 |

출전: 京城職業紹介所 編, 昭和16[1941], 『城職業紹介所々報 : 特輯號』, 105~106쪽. <제8표 戶內使用人>

당시 소장의 이름으로 연일 신문 지면 등을 통해 선전을 펼치고 있던 경성직업소개소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不要不急의 가정에서 조추[女中]의 사용은 중지해야 한다”고 극력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512]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호내사용인을 희망하는 여성들 중 섬유 공업계로 취업하기에 적당한 젊은 연령의 구직자에게는 공업 취업을 종용하였으나, 이들을 공업에 배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즉 공업 부문에서는 아직 기숙사 등의 설비가 없는 곳이 많아 지방 출신자들이 경성부내에 몸을 거처할 수 없는 한계로 취로(就勞)할 수 없으며, 조추로 일하면 대개 식사를 제공하고 평균 10원의 급료를 받는 데 비하여, 여공으로 일하면 미경험자의 일당은 25~35전이면서 그 반 정도는 식비로 차감되는 등의 조건으로 구직자들에게 공업 취업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513] 비슷한 맥락으로 1939년 기사에서도 직업소개소를 방문한 기자가 “남의 집 애보기보다는 공장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묻고, 그 대답으로 ‘기술을 일부분 배운다고 해도 숙련공은 못되니 소녀들은 애보기로 들어가나 공장 직공으로 들어가나 수입이나 기타 조건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514] 즉, 공업적 일자리가 기숙사와 식당이 있는 대공장을 제외하면 숙식의 제공이 어려운 반면, 가사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 받는다는 점이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이처럼 증가한 공장 노동 일자리 모두가 여성들에게 즉각 가사서비스노동을 대체할 만한 사정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는 더욱 정책이나 담론의 억제 효과에 그 한계가 컸다. 1930년대 계속해서 팽창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1930년대 말이면 직업소개소 문 앞에서 “식모쟁탈전”까지 벌이게 하였다.[515] ‘서울의 집집마다 식모를 구한다는 소리가 매일같이 날 정도로’ “식모 기근”이며,[516] 전시 인적자원의 부족을 겪는 다른 분야

512) 京城職業紹介所 編, 昭和16[1941], 『城職業紹介所々報 : 特輯號』
513) 京城職業紹介所 編, 위의 책,
514) 『조선일보』 1939.02.24. 「음울한 날시도 개이고 명랑한 취직의 봄」
515) 『조선일보』 1938. 12. 21. 「主客顚倒의 奇現象, 食母의 爭奪戰激烈」
516) 『매일신보』 1939. 07. 08. 「一人一言 - 食母饑饉 (洪善杓)」

처럼 가정의 “식모도 求得難”이라는 기사[517]가 1939년과 1940년에도 보이고 있다. 앞의 [그림 3-1]을 살펴보아도, 직업소개소에서 ‘호내사용인’에 대한 구인수는 1938년부터 구직수를 초과하여, 공설 직업소개소의 성격 변화와 함께 절대수는 크게 감소하지만 1942년까지도 계속 구직수를 초과하고 있다.

당시 직업소개소를 묘사한 잡지 기사나 식모를 다룬 소설에서는 전시체제기 이후에도 식모를 구하고자 하는 조선인 가정의 사정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939년 9월의 잡지 기사에 따르면, 경성 직업소개소 여자부에는 구직자보다 구인자수가 훨씬 더 많고, 구직자들이 다들 조선인 가정은 꺼리고 일본인 가정으로 가기를 원하여 “식모 하나 얻기가 금덩어리 얻기보다 더 힘이 든다”고 하며, 그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518]

> 보따리를 싸 가지고 시골에서 갓 올라오는 촌뜨기 하나가 들어오면 수십 명이 둘러싸고 우리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하고 야단법석이 나지요. “우리는 식구도 단출하고 사랑 양반은 양복 생활을 하시어서 빨래도 없고 월급도 많이 줄테니 우리집으로 갑시다, 응. 남의 집 산다고 하대도 않거니와 옷도 해주고 할테니 꼭 갑시다, 네.” 시골뜨기가 모처럼 서울 왔다 이 북새를 만나니 정신이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 밖에. 그러자면 무엇 부족해서 안 가는 줄 알고 경매장에서 값을 올리듯 사원, 오원, 육원, 칠원...

게다가 구직자들의 눈에 옷을 잘 입고 인물이 좋으면 부자로 여긴다는 이야기에 각 집안에서 가장 얼굴이 잘나고 말을 잘하는 이를 직업소개소에 보내서 직업소개소 구인자 측에는 유독 미인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당시 소설들에서는 1940년 이후 전시 동원이 상당히 구체화 되면서 ‘식모난(食母難)’이 오히려 심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1940년 1월에 연재된 짧은 콩트 소설에서는 아이가 셋인 조선인 가정에서 한 해

517) 『매일신보』 1940. 05. 03. 「食母도 求得難-둘 수도 안 둘 수도 없는 두통거리」
518) 『조광』 1939.9. 「人事相談所 窓口에 버러진 人生의 喜悲劇 - 鄭圭哲」

동안 5명의 식모가 들고 나갈 정도로 “식모난을 톡톡히 겪”다가, 직업소개소 어귀에서 순박해 보이는 한 여자가 월급도 옷도 필요없으니 밥만 먹여달라고 사정해서 데려왔더니 절름발이에 조막손이어서 아연실색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519] 이보다도 더 눈길을 끄는 소설은 1943년에 발표된 〈식모난(食母難)〉이라는 소설이다.[520] 이 소설은 조카까지 포함해 7명의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식모 한 사람만으로 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식모를 더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정을 그리고 있는데, 전시체제기의 제반 조건이 식모가 더욱 귀해지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이리해 식모가 없다, 식모 구하기가 힘들다고 온 세상이 떠들어대도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 지나던 일호의 집도 차차 심각한 식모난으로 빠져 들어갔다. (중략)
> 전시하에서 예전과 같이 사치한 풍조는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길에는 가벼운 봄옷에 아담한 단장을 한 젊은 여자들이 쏘다니고 한다. 그러나 시절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간에 일호의 집만은 여전히 식모타령뿐이다.
> ”전같음 이맘 때가 되면 시골여자들이 몰려 올라와서 식모가 번창을 했는데“ 이것은 일호의 한탄이다.
> “그러게 말이우. 그 많던 시골여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어.”[521]

주인공 일호의 가정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불과 반년 동안만 9명이나 되는 식모가 들고 나갔다. 식모의 임금이나 위상도 상당히 높아져서, 일호네는 식모의 월급으로 16원이나 주고 있으며, 마지막 식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붙잡아두기 위해 두달 치 월급을 미리 주고 겨울옷까지 해주었으나 그녀는 김장이라는 큰일을 하기 직전에 이 집에 들어온 지 딱 두달이 되는 날이라며 나가버린다. 소설은 결국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동원

519) 장덕조, 「젊은 아내와 식모」 『매일신보』 1940.01.05.
520) 유진오, 「食母難」 『滄浪亭記』 정음사, 1963.(이 소설은 본래 1943년 3월 잡지 『放送之友』에 「가족부대」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유진오의 단편 소설집이 출판되면서 「식모난」으로 이름을 바꾸어 소설집 안에 실리게 되었다.
521) 유진오, 위의 책, 208쪽.

되어 온 식구의 힘으로 김장을 해내고 그 이후로는 식모 없이 생활하며 가족들도 더욱 건강해졌다는 계몽적인 마무리로 전시 담론에 부합하며 끝을 맺는다. 그러나 소설에서 줄곧 그려지는 양상은 각종 전시 총동원 정책이 구체화 되는 1940년대에도 식모를 구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많았으며 그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1941년경부터 식모 알선을 가능한 거부해 온 경성직업소개소가 1943년 9월부터는 식모 알선 업무만을 공식적으로 폐지해 버렸지만, 식모를 구하고자 하는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식모 알선 업무를 공식적으로 정지한 이후에도 매일 50~60명은 식모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로 찾아왔다고 한다. 다만 식모로 일하기 위해 찾아오는 구직자는 앞서 살펴본대로 본적지에서의 퇴거 증명 거부 등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크게 감소해 있었는데 그래도 하루 15~16명은 되었다. 게다가 국영 직업소개소가 식모 알선을 해주지 않자, 식모를 구하려는 구인자들은 사설의 사회사업기관인 화광교원 직업소개소로 더욱 몰리게 되었는데, 당시 화광교원 직업소개소에는 하루에만 무려 300명 이상의 구인자가 다녀갔다고 한다.[522]

전쟁 말기로 갈수록 여성노동력에 대한 동원의 강도도 강력해졌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40년대 농촌 지역에서 기간적 남성노동력이 대거 유출된 것을 여성노동력이 대체하면서 여성유업자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지만,[523] 일제 당국은 여성노동력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과잉인구가 있다고 보아, 1943년이후 여성노동력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동원을 추진하였다.

1943년 10월 8일 조선 총독부는 여성노동력 동원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는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을 결정하여 여성노동력 동원을 전면화 하였으며, 1944년 8월 23일에는 일본과 동시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미 법령이 공포되기 이전부

522)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業紹介所에서 强調」

523) 호리 가즈오 저, 주익종 옮김, 『한국 근대의 공업화: 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전통과 현대, 2003, 332~334쪽.

터 여자근로정신대를 통한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동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었다.[524] 1943년 이전에는 주로 관에 의해 할당되어 동원되거나 근로보국대에 의한 방식으로 여성노동력이 동원 되었었다면, 1943년 이후에는 여자근로정신대와 국민징용방식에 의해 동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1944년 이후 각 도 및 부의 근로동원과 및 노무과 등에서는 여성들을 조선 내 각 공장으로 알선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실제 정신대 동원 사례를 보면 마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구장 등의 말단 행정 담당자를 통해 그 마을에서 동원 가능한 여성을 파악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원하였는데, 마을별로 할당된 인원이 있어 그 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군에 의한 군속의 동원이나 여학교에 의한 노동 동원도 이루어졌다.[525] 1943년 이후의 노동 동원이란 강제성이 매우 강화된 형태였던 것이다.

그런 한편, 앞서 살펴본대로 1930년대말 전시체제기에 더욱 확대된 접객업, 유흥업과 식민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객업은 1943년 이후로 조선 안에서는 억제되지만 역외로 팽창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공창제에 의한 창기는 조선 안에서도 온존하였다.[526] 노동력 징발에 끌려가지 않은 채 생계수단이 필요한 여성들이 유출된 것은 접객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도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이 1943년, 1944년, 늦게는 1945년 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527]

결국 일제 전시체제기 말 노동력 징발과 군 '위안부' 동원, 인신매매 등에 따른 비자발적인 이주로 여성 노동력은 유출되었으며.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공식적인 시야에서 잠적해 버렸던 가사서비스노동은 일시적으

524)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52~55쪽

525) 김미정, 위의 논문, 129~149쪽.

526) 박정애, 「총동원체제기(總動員體制期)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유흥업(遊興業) 억제 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2009

527) 1945년의 사례는 1945년 3월에 공장 일꾼을 모집한다는 사람들을 만나 따라 나선 것이 취업사기로 이어졌다. 한국정신대연구소 지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 2003, 두 번째 피해자 사례.

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시체제기에도 그에 대한 수요나 사회적 역할은 여전했던만큼, 가사서비스노동을 비공식화하고 공급의 경로를 막아선 일시적인 강제가 사라지면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가사노동자들이 다시 등장하였다. 1949년 가사사용인이란 호칭으로 8만 5,849명이 조사되었고,[528] 1955년의 조사에서도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여성 53,300명, 남성 3,200명, 합계 56,500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았다.[529] 게다가 1957년 미성년 직업 통계에 따르면 14세부터 19세 이하 미성년자 중 소녀들이 46만 8,800여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식모살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530] 실제 가사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인구는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훨씬 클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를 경험한 주체로 신문 인터뷰를 했던 1932년생 여성의 사례는 가사서비스노동이 일제 전시체제기 말기에 일시적으로 잠복되었다가, 여성 노동을 둘러싼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해방 이후까지 그 근간을 유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6살 때 식모살이를 시작하여 8살인 1939년에는 '수양딸'이라는 명목으로 남의집살이를 했으나 그 역시 사실상 식모살이였다고 증언한다. 1년 남짓 일하다가 양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방을 맞았다. 그녀에게는 해방과 미군정의 시기도 배고픈 시기로만 기억될 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란민들을 따라 도망을 가서 다시 식모살이를 했으며, 결혼 후 첫 딸을 낳고 나서도 찾을 수 있는 생계책은 유모 생활이었다.[531] 결국 전쟁 말기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528)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11쪽.
529) 외무부, 1955년 직업(중분류)과 연령별 14세 이상 인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035058&conn_path=I3)
530) 이임하, 앞의 책, 112쪽.
531) 『경향신문』 2008.08.03. 「현대사 60년의 주인공들 (1) 식모」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080803192034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억압은 하층민 여성들의 생계와 노동을 둘러싼 구조적인 조건은 바꾸지 않은 채 강제된 일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해방 이후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양상과 논의가 다시금 반복될 것을 암시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 소결

제Ⅲ장에서는 전시 총동원 체제라는 조건 하에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일제 당국의 정책이 급변한 것이 가사서비스노동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불러왔음을 서술하였다. 당시 정책의 작용력은 가사서비스노동이 처한 법적 행정적 조건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여 각종 언설을 전쟁 동원 논리로 일원화함으로써 담론에 대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우선 정책면에서 전시체제기가 시작되고 일제 당국이 전시노동력 동원에 주력하고자 하면서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 시기 식민 권력은 여성 노동력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고 전쟁수행을 위해 이들을 동원하고자 했던 특징이 있었다. 특히 전시체제기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당국의 판단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노동이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그간 무관심에 가까웠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억제 시도를 점차 강화하게 되었다. 전시체제기가 시작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기 이후였으나 가사서비스노동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맞기 시작한 것은 1940년부터의 태평양 전쟁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때 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조사를 행하면서 가사사용인의 경우 접객업, 기타 유업자와 함께 종사자 중 절반의 노동력을 전시 산업으로 돌려야 할 불요불급한 직업으로 규정하였다. 1943년 이후 남성노동력 동원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직접 동원도 이루어졌는데, 1943년 9월부터 경성 직업소개소의 식모 알선 폐지, 용인세 신설 등 가사서비스노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직업소개소였다. 그간 가사서비스노동의 수급을 공식적으로 매개하던 직업소개소가 국영화되면서 그것은 '관알선' 노동동원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1940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식모 알선을 중단하였고 1943년 공식적으로 폐지. 공식적인 영역에서 행정력으로 이것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전시체제기 이후, 정책의 의도는 담론에도 깊게 개입되었다. 언론이 통제당하고 군국주의적인 선전이 행해지는 속에서 가사나 주부 담론도 이 영향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 시기와 비교하면 일본 본국과 조선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변화가 두드러졌다. 전시 경제통제 속에서 절약을 강조하면서 식모의 고용은 무엇보다 ‘불경제(不經濟)’로 문제시되었다. 이제 주부는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총후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며, 자기 손으로 가사일을 하지 않고 사용인을 두는 것은 '유한부인'이라고 비난받았다. 또한 이 시기 처음으로 젊은 여성 인력을 공장으로 보내자는 여성노동력 활용에 대한 강조가 나오기도 하였다. 다만 조선에서는 식모 관련 논설 자체가 늘어나고, 전시 비상시의 '당위성'을 명분삼아 필자들이 더 활발한 의견 개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담론의 급변이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는 1943년 이후로도 하루에 300명씩 화광교원 직업소개소 등을 찾을 정도로 여전하였고, 급박한 여성 생계책으로서의 기능도 1940년대 들어서까지 지속되었다. 다만 전쟁 말기에 직접적인 동원이 행해지면서 가사노동자의 자연스러운 수급은 정지되고 말았다. 즉, 전시체제기는 구조적 조건이 바뀌었다기보다 통치 권력의 행정력이 극단적으로 강력해지면서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조건이 커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노동을 비공식화하고 공급의 경로를 막아선 일시적인 강제가 사라지면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 결 론

지금까지 20세기 전반기의 가사서비스노동이 근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과정으로 정착하였고 어떤 변동을 거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가사서비스노동이 기반한 구조적 현실, 담론을 매개로 한 가사서비스노동과 사회와의 조응, 이들이 작용한 결과 사회적 현상으로서 발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것을 시기별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노동으로 등장하여 자리 잡는 과정은 대략 20세기 초에서 1920년대 중반의 시기에 이루어졌다. 가내노동은 전근대 사회에서부터 이미 여성이 주로 맡는 일의 종류와 남성이 주로 맡는 일의 종류가 달라서 성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전통사회 재생산노동의 핵심은 땔나무하기와 물긷기였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상품화, 외주화되면서 가사노동은 대체로 여성이 수행하는 것들만 남게 되었다. 이후 가사노동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양상은 근대 자본주의화를 거치며 신분제적 강제에 따라 수행되는 하인의 노동에서 경제적인 교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곧 신분제의 해체와 도시화의 진전 등 전근대 사회가 해체되는 속에서 도시로 집적한 하층민들이 기존 하인 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변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랑살이였다. 거주할 공간을 얻는 대가로 집주인의 가사노동을 대신해 주었던 행랑살이는 1920년대 초까지 서울 지역에서 크게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행랑살이가 확산되어 가던 시기는 일제 당국이 조선에 대한 통제와 식민지배를 위한 재편에 주력하던 때였고, 식민지배 당국이나 조선인 지식인들 양측이 모두 문명화 담론을 설파하던 시기였으므로, 행랑살이는 구시대적이고 비문명적이라고 비난 받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반면, 행랑살이와 달리 '어멈'이나 '안잠자기' 등으로 불리며 타인의 집에서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던 홀몸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이 섞인 우호적인 여론이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인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여론은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이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나타난 것이었다. 곧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인 가정까지 가서 일하지 않도록 조선인 가정에서 대우를 잘 해줄 것을 당부하는 맥락이었다. 실제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오모니' 또는 '오마니'라 불리었던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이 본격화되었다. 식민 초기의 재조일본인사회는 단신의 남성 인구 비중이 높았고 단기 이주가 많았으므로, 1920년대 초까지 가사서비스노동에 있어서 민족간의 고용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재조일본인사회는 가족단위의 영구 정착을 꾀하는 것으로 이주의 성격이 바뀌었고, 이들 일본인 가정이 식민지 조선내 가사서비스노동의 중요한 수요로 부상하였다. 또한 1920년대초부터 주요 도시에 설립된 공영 직업소개소는 일본인 가정의 수요와 조선인 가사노동자 측의 공급을 매개하여 이러한 민족간 고용이 본격화 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가사노동시장의 존재를 공식화하였다. 일본인 가정에 가사노동자를 빼앗기게 된 조선인 가정도 급료를 주기 시작하고, 집주인들은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행랑살이를 내보내고 월세를 받으려 하는 등 당시의 경제 논리 속에서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가사노동이 하나의 서비스노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를 아우르는 시기는 가사노동자의 수나 가사노동시장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조선의 가사서비스노동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때였다.

1930년 국세조사 당시 미혼 여성 인구가 대다수를 이루는 가사노동자의 수는 비농업직 유업자 중에서는 두드러지는 것이었고, 가사노동자의 공급은 당시 농촌 분해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이탈 인구는 더욱 늘고 있었던 반면에 이들을 흡수할만한 공업의 발달은 지체되었던 조건하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상황은 같은 시기 섬유 공업의 발달로 가사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었던 일본이나, 농촌의 분해가 조선만큼 심화되지 않았기에 가사노동자의 공급 자체가 적었던 대만과도 비교가 된다. 또한 이 시기 가난한 농가의 미성년 여성들 사이에 남의집 살이가 확산되었던 정황은 어린 미혼 여성들이 가사노동자의 다수를 이

루게 된 사정을 설명해준다. 그런데 이 시기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은 현실을 앞지르거나 충돌하는 양상으로 등장하였던 것이 식민지 조선의 특징이었다. 우선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속에서 식모폐지론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식모폐지론을 생산한 측은 조선의 담론장을 주도하며 신여성 규율과 비판의 논의를 가사노동과 연결시켰던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과, 신여성 내부에서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가사노동을 주창했던 가사학 전문가들로 크게 양분할 수 있었다. 한편 조선인 언론이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노동자 고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조선인 고용주의 대우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이때는 호칭 문제가 주요하게 부상하면서 '식모'라는 말이 가사노동자를 칭하는 말로 정착되어 갔다. 결국 가사노동자에 대한 담론이 일면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식모폐지론'이 과잉되고 그들에 대한 대우 문제가 일찍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신여성을 비판하거나 가사서비스노동의 민족간 고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조선인 남성 지식인들의 시각이 담론에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담론의 힘이 신여성들이 주부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현실에 대한 그 작용력은 극히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시장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를 통틀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이 각 도시의 직업소개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속에서 경제적 상층의 여성들에게도, 하층의 여성들에게도 가사서비스노동과 결합한 도시 생활양식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경제적 상층의 가정에서는 새로운 도시 생활양식을 선망하는 '신가정'들이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하층의 여성들에게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생계자구책이 가사서비스노동일 수 있었다. 특히 당시 하층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접객업이 팽창하고 있는 상황은 가사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전시체제기가 시작되고 일제 당국이 전시노동력 동원에 주력하고자 하면서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 시기 식

민 권력은 그동안 도외시 했던 여성 노동력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고 전쟁수행을 위해 이들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전시체제기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당국의 판단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노동이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그간 무관심에 가까웠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억제 시도를 점차 강화하게 되었다. 가사서비스노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맞기 시작한 것은 1940년부터의 태평양 전쟁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때 당국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조사를 행하면서 가사사용인의 경우 접객업, 기타 유업자와 함께 종사자 중 절반의 노동력을 전시산업으로 돌려야 할 불요불급한 직업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직업소개소였다. 그간 가사서비스노동의 수급을 공식적으로 매개하던 직업소개소가 국영화되면서 그것은 '관알선' 방식의 전시 노동동원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1943년 이후 남성노동력 동원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여성노동력에 대한 직접 동원도 이루어졌는데, 1943년 9월부터 경성 직업소개소의 식모 알선 폐지, 용인세 신설 등 가사서비스노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처도 이루어졌다. 한편, 전시체제기 이후, 정책의 의도는 담론에도 깊게 개입되어 언론이 통제당하고 군국주의적인 선전이 행해지는 속에서 일본 본국과 조선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변화가 두드러졌다. 전시 신경제(新經濟)체제와 대비되는 식모 고용의 '불경제(不經濟)', 주부를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총후부인'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향락을 누리는 '유한부인'으로 나누는 레토릭 등이 일본과 조선에서 함께 나왔다. 또한 조선에서는 이 시기 처음으로 젊은 여성 인력을 공장으로 보내자는 여성노동력 활용의 논의가 나오기도 하였다. 조선의 전시 담론이 일본과 달랐던 것은 식모 관련 논설 자체가 늘어나고, 전시 비상시의 '당위성'을 명분삼아 여성 필자들이 더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담론의 급변이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수요와 여성 생계책으로서의 비중을 실질적으로 줄이지는 못하였고, 전시체제기라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다만 가사서비스노동은 비공식화되고 일시적으로 억압되었을 뿐이었다. 이는 가사서비스노동을 비공식화하고 공급

의 경로를 막아선 일시적인 강제가 사라지면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이 다시금 재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의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은 형성, 팽창, 비공식화되는 역사적 변화를 거쳐 왔다. 지금까지 검토한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의 연구 질문에 답을 하며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가사서비스노동이 일제 식민 지배하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20세기 전반기에 사회적으로 부상하여 팽창을 지속했던 것은 결국 사회의 근대적 재편 과정에서 기층 민중들의 생업 마련 및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곧,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에는 새로운 도시 가정 생활 양식의 등장 및 식민 사회의 민족간 경제적 격차의 발생 등에 따라 그 수요가 끊임없이 팽창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더 결정적인 요소는 가사노동자를 이루는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에 있었다. 전근대사회의 신분제가 해체된 후 기층민들의 생업은 경제적 원리에 따른 산업 구조의 재편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했으나, 일제시기 전체를 통틀어 산업화의 기반은 전시체제 말기의 노동력 동원이 강제되는 일시적인 시국을 제외하면 농촌 이탈 인구를 온전히 흡수할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섬유 공업이 발달하면서 가사노동자의 공급이 급감하였던 일본이나 농업 소득이 유지되며 농촌 이탈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던 대만의 경우와도 비교가 된다. 특히, 근대적 전환 과정에서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용이치 않았던 여성들의 경우 더욱 생계책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사노동자가 되는 것은 일면 하층민 여성의 입장에서 생계 자구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가사서비스노동은 일제하 미진한 산업화로 인한 비농업직 생업의 부족과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며 비대해진 접객업 사이에서 하층민 여성들의 현실적인 생계 자구책 역할을 하며 끝까지 큰 규모로 존속할 수 있었다.

둘째, 근대 한국에서 가사노동을 둘러싼 현실과 담론 사이에 다른 사회에 비해 큰 괴리를 보였던 것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더욱 철저하게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하층민 여성들의

생계나 노동력 문제는 전시체제기 이전까지 전혀 식민지배 당국의 관심이 아니었고,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논의는 식민지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논의의 장에서 일본인 가정의 조선인 가사사용인 고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민족 감정이나 신여성들에 대한 반감과 비판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가사서비스노동 담론은 현실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현실과 호응하지 않는 '식모폐지론'이 주를 이루었다. 논의의 장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일부 여성들도 근대적 주체로서의 구별짓기를 위해 주부의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내면화하였을뿐 주체적인 공론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곧 남성 지식인 중심의 담론장에서 대항 담론을 만들어내거나, 점차 자의식이 성장하고 있던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엘리트 여성들은 전시체제기가 되면 국가주의적 동원 논리에 적극 동조하는 방식으로 공적 담론장에서 활약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사서비스노동을 둘러싼 담론과 주부 규범은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결코 줄이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담론이 현실에 작용하는 힘에 있어서는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식모폐지론은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을 확산시켜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는 '그림자 노동'으로 가는 예비단계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일제하 전시체제 말기에 일시적으로 억압되고 잠복하였던 가사서비스노동은 해방 이후 재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자의 수에 있어서 일제시기의 팽창을 뛰어넘는 증가를 보였다.

특히 1960년대 이촌향도의 이주가 전례없는 규모로 본격화된 이후로는 가사노동자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 1965년 당시 경찰이 추산한 식모가 서울에만 약 5만이었다고 하며, 당시 가정 잡지에 실린 글을 보면 '밥만 굶지 않고 사는 서울의 가정이면 모두 식모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서울이나 웬만한 도시에서 조금만 자리잡고 사는 가정이라면 식모를 안 쓰는 집이 없고' '우리네 중류 가정들, 빠듯한 수입원을 가진 가정'에서도 식모를 두고 있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많은 가정

에서 식모를 두고 있었다.[532] 이러한 1960년대의 팽창에 따라, 1972년이 되면 서울시 전체 가구의 31.4%가 가정부(식모)를 두고 있으며, 그 수는 무려 24만 6천명 정도로 추산될 정도였다.[533] 식모를 둘러싼 논의의 양상도 다시금 반복되었다. 여성노동력에 대한 국가주의적 동원이 필요해지며 1960년대 중반 이후 주부의 책무와 모성을 강조하는 '식모폐지론'도 재등장하였다. 당시 여성잡지에서는 주부들이 한가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자 소위 유한 마담이라는 계급이 나타났다고 진단하는가 하면, 식모를 두고 식모가 상전처럼 굴게 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식민지기의 논의를 유사하게 반복하였다. 식모 없이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가정은 화목하고 평등하며 근대화된 가족 이미지를 부여받았고, 가족의 근대화는 의식주 전반에 걸친 합리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534] 그러나 가사서비스노동이 실제로 축소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도 중산층 핵가족 모델이 정착하고, 입주 식모를 대신하여 시간제 가사노동자인 '파출부'가 일반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증했던 가사노동자의 존재도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등 돌봄노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속에서 가사노동 및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라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부상하여,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시금 촉구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가사근로자법의 시행 및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둘러싼 논란들이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일은 성별화

532)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 식모와 버스 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호, 2002, 89-90쪽.
533)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제43집 1호, 2004, 192쪽.
534) 김현경, 「지불 가사 노동자의 탄생: 1950~1970년대 초 '식모'의 문제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검토」 『梨院학술논집』 4, 2008, 120-122쪽.

된 노동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내해가며 가사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당대 하층민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사노동과 가사서비스노동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결과가 다시금 돌봄노동과 재생산노동이 중요해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대의 토대가 만들어졌던 일제 식민지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을 어떻게 공공성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인지, 또한 가사서비스노동이 더 열악한 조건의 여성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공론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역사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도외시했던 해묵은 과제를 오늘날 다시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자료

### 1) 정기간행물

『朝鮮總督府 官報』, 『日本 官報』
『독립신문』,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중외일보』, 『釜山日報』, 『朝日新聞』 外地版
『개벽』, 『警務彙報』, 『高等外事月報』, 『綠人』, 『농민』, 『반도시론』, 『별건곤』, 『신가정』, 『신여성』, 『여성』, 『조광』, 『朝鮮』, 『朝鮮公論』, 『朝鮮經濟雜誌』, 『朝鮮及滿洲』, 『조선농민』, 『朝鮮社會事業』, 『朝鮮行政』『학지광』

### 2) 관찬자료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1940년판
_____, 『朝鮮總督府調査月報』 각 연도판
_____,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
_____, 『施政25年史』 1935
_____, 『朝鮮土木事業志』, 1937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高等外事月報』, 제2호, 1939.8.
조선총독부 내무국사회과, 『會社及工場に於ける勞働者の調査』, 1923
조선총독부 사회과, 『朝鮮社會事業要覽』 1924
조선총독부 식산국편찬, 『朝鮮工場名簿』, 1936,
조선총독부 학무국사회과,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働狀況調査』, 1933
조선총독부 司政局 社會課, 『昭和十四年 旱害誌』 1943
京城職業紹介所 編, 『朝鮮職業紹介令實施に就て』, 1940
_____, 『城職業紹介所々報 : 特輯號』, 1941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同胞に對する)內地人反省資錄』, 1934

일본 내각통계국,『國勢調査報告』1920년판, 1930년판, 1940년판
_____,『大正九年及昭和五年國勢調査産業別人口の比較』, 1936
일본외무성『海外各地在留本邦人人口表』1931년-1938년
일본제국의회,『大正10年3月9日 第44回帝国議会 衆議院 職業紹介法案 委員会 會議錄 第1号』;『大正10年3月23日 第44回帝国議会 貴族院 本会議 議事速記錄 第24号』
警察講法会 編,『法規顧問 : 市民宝典, 警察講法会』1910
東京市 社會局,『紹介營業に關する調査』, 1922

대만총독부,『臺灣臨時戶口調查』1905년판, 1915년판
_____,『臺灣國勢調查』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판

3) 개인 및 단체의 저작물

佐村八郎,『渡韓のすすめ』, 樂世社, 1911
京城居留民團役所,『京城發達史』, 1912
藤井忠治郎, 『朝鮮無産階級の研究』, 東京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26
善生永助,『朝鮮の人口問題』, 조선인쇄주식회사출판, 1926
이여성 . 김세용,『數字朝鮮研究』제1집-5집, 世光社, 1931-1935
印貞植,『朝鮮の農業機構』白場社, 1939
吉田秀夫,『日本人口論の史的研究』, 河出書房, 1944

## 2. 자료집

近現代資料刊行会, (戰前 . 戰中期アジア研究資料 1)『植民地社會事業關係資料集 朝鮮編』20, 21, 2005
동북아역사재단 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자료집Ⅱ-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계-』, 2021
서울역사편찬원,『(서울 근현대사 자료집2) 경성부 법령 자료집』, 2017

민족문제연구소,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15,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0
정신대연구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_____,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 한울, 200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Ⅰ』, 한울, 1993,
_____,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Ⅱ』,한울, 1997
_____,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Ⅲ』,한울, 1999
_____,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Ⅳ』,한울, 2001
_____,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Ⅴ』,한울,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인권, 2004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아사히신문 외지판(남선판) 기사명 색인』 제1권-제5권, 2012-2015.

### 3. 저서

가지야마 도시유키, 김영식 옮김, 『경성이여, 안녕』, 리가서재, 2021
姜萬吉,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硏究』 創作社, 1987
강만길 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한국노동운동사』1-2, 지식마당, 2004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2
권태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기무라 료코 이은주 옮김, 『주부의 탄생』, 소명출판, 2013
김광언, 『우리 생활 100년, 집』 현암사, 2000
김경일, 『(한국개념사총서9)노동』, 소화, 2014
김경일 외, 『동아시아 일본군'위안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2003
김덕호, 『세탁기의 배신』, 뿌리와 이파리, 2020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일본』, 문학과 지성사, 2009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명, 2009
김성희,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학지사, 2002
김용범, 『문화생활과 문화주택 : 근대주거담론을 되돌아보다』, 살림, 2012
김현주, 박무영, 이연숙, 허남원 공편, 『두 조선의 여성 : 신체.언어.심성』, 혜안, 2016
김혜경, 『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 창비, 2006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역,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
루스 코완,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학지사, 1997
루이스 A.틸리, 조안 W.스콧, 김영. 박기남. 장경선 옮김, 『여성 노동 가족』, 후마니타스, 2008
박명규 . 서호철, 『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박선미, 『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식민지 문화지배와 일본유학』,창비, 2007
박용숙,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혜안, 2007
사와이 리에, 『엄마의 게이죠, 나의 서울』, 신서원, 2000
서지영, 『경성의 모던걸: 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여이연, 2013
성춘식 구술, 신경란 편집 『이부자리 피이 놓고 암만 바래도 안 와-영남 반가 며느리 성춘식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1990
셸라 레웬학, 김은숙 옮김, 『여성노동의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셀리나 토드, 서영표 옮김, 『민중-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클, 2016
孫禎睦,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일지사, 1982

_____, 『日帝强占期 都市社會相 硏究』, 일지사, 1996
송규진,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갈무리, 2011
역사학회 엮음, 『노비, 농노, 노예』, 일조각, 1998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이데아, 2016
유진오, 『滄浪亭記』 정음사, 1963
윤명숙 지음, 최민순 옮김,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이반 일리히,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2015
이규숙(구술),김연옥(편집), 『이 '계동 마님'이 먹은 여든살-반가 며느리 이규숙의 한평생』, 뿌리깊은나무, 1984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이은주, 『근대 일본의 지식장과 젠더투쟁』, 소명출판, 2016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희연, 『(개정5판)인구학 :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2005
전남일, 손세관, 양세희, 홍형옥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_____, 『우리 역사는 깊다(1)』, 푸른역사, 2015
정찬일, 『삼순이-식모, 버스안내양, 여공: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책과함께, 2019
조선농촌사회위생조사회, 『朝鮮の農村衛生』,1940 (임경택역, 2008, 『조선의 농촌위생』 국립민속박물관)
커즈밍, 문명기 역, 『식민지 시대 대만은 발전했는가-쌀과 설탕의 상극, 1895-1945』, 일조각, 2008
필립아리에스. 조르주 뒤비, 주명철 등 옮김, 『사생활의 역사』 5, 새물결, 2002
한국여성연구회 여성사분과 편, 『한국여성사-근대편』 풀빛,1992

함한희, 『(살림지식총서 157) 부엌의 문화사』, 살림, 2005
호리 가즈오 저, 주익종 옮김, 『한국 근대의 공업화: 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전통과 현대, 2003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1989
奥田暁子 編著, 『(日本女性史再考) 女と男の時空-(10)鬩ぎ合う女と男一近代 [下]』, 藤原書店,2000
清水美知子, 『〈女中〉イメージの家庭文化史』, 世界思想社, 2004.6.
小泉和子 外, 『女中がいた昭和』, 河出書房新社, 2012.
Kim, Janice C. H., *To Live to Work : Factory Women in Colonial Korea, 1910-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Strasser, Susan, *Never done : a history of American housework*, Henry Holt, 2000
Vogel, Lise. *Marxism and the Oppression of Women: Toward a Unitary Theory.* Rutgers University Press, 1983

**4. 연구논문**

강이수,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연구-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_____, 「근대 여성의 일과 직업관-일제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004
_____, 「일제하 근대 여성 서비스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연구』 제5호, 2005
_____, 「가사 서비스 노동의 변화의 맥락과 실태」 『사회와 역사』 82, 2009
고태우, 「일제 식민권력의 재해대책 추이와 성격」『역사문제연구』31, 2014
_____, 「기후, 날씨와도 싸워야했던 일본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민-길었던 한 해, 1939년 조선 대가뭄의 양상과 그 여파」, 『역사와 현실』 118, 2020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화류계 여성 -한 게이샤 여성의 생애사를

생애사를 통해 본 주변부 여성 식민자」『사회와 역사』 제103집, 2014
權泰檍,「1910년대 일제 식민지통치의 기조」『韓國史硏究』 124, 2004
_____,「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 인식과 통치방식」『근대 한일간의 상호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9
권태환,「일제시대의 도시화」『일제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1990
김건태,「朝鮮後期 私奴婢 파악방식」,『역사학보』 181, 2004
_____,「18세기 중엽 사노비(私奴婢)의 사회,경제적 성격-경상도 안동 금계리 의성김씨가 사례」『대동문화연구』 75, 2011
김경일,「일제하 고무노동자의 상태와 운동」『일제하의 사회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 1987
_____,「일제하 여성의 일과 직업」『사회와 역사』 61, 2002
김광규,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 『한국교육사학』 43-1,2021
_____,「일제하 나라여자고등사범학교 유학생의 삶」,『여성과 역사』 37, 2022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의 유업자: 호구조사와 국세조사 」『경제사학』48, 2010
_____, 「<논평> 식민지기의 유업자 통계 : '고용없는 성장'인가?」『경제사학』 50, 2011
김무진,「조선사회의 遺棄兒 收養에 관하여」,『계명사학』 제4집, 1993
김미정,「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원,「근대화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 '식모'(食母)를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 43집 1호, 2004
金載昊,「물장수와 서울의 水道 -'측정'문제와 제도변화-」『經濟史學』 제23호, 경제사학회, 1997
김정화,「1960년대 여성노동 -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역사연구』 11, 2002
김태웅,「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전」『서울학연구』18권, 2002
김현경,「지불 가사 노동자의 탄생: 1950~1970년대 초 '식모'의 문제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검토」『梨院학술논집』4, 2008
김현숙, 「19세기 중반 양반가 일기에 나타난 노비와 노비노동 -호서지역 김호근 가를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67, 2013
도노무라 마사루, 「위안부는 어떻게 모아졌는가 -사적 권유 직업소개 강제동원의 관계를 둘러싸고」『위안부 동원과 재현의 정치학』(제3회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의 목소리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2017
도연정, 『근대 부엌의 탄생과 이면』, 시공문화사, 2020
문명기, 「식민지시대 대만에 있어서의 통계시스템의 정착과 그 역사적 조건」, 『역사문화연구』 제50집, 2014.5.
_____, 「20세기 전반기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와 귀환 - 역외이주 및 귀환 규모의 추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50,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_____, 「식민지시대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 패턴과 그 함의」, 『동양사학연구』 제147집, 2019.6.
문소정, 「일제하 농촌가족에 관한 연구 : 1920,30년대 소작빈농층을 중심으로」『일제하 한국의 사회계급과 사회변동-한국사회연구회논문집』12, 문학과지성사, 1988
문현아, 「식민지 근대시기 '가사사용인' 구성의 변화와 의미」 한국여성학, 2014
박양신,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동북아역사논총』65호, 2019
박양신, 「1920년대 일본의 인구문제와 이식민론(移植民論)」『동북아역사논총』 65호, 2019.9.
박용옥, 「한말여성운동의 특성과 여성의 사회진출」『國史館論叢』 제83집, 1999
박정애,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_____, 「총동원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유흥업 억제 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2009
_____, 「식민지 조선의 '수양녀' 문제와 인신매매」『역사연구』 44호, 2022

박정의, 「일본식민지시대의 재일한국인 여공-방적.제사여공」『논문집』17, 원광대, 1983
박정희,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또 하나의 식모, ‘오마니(オマニ)’」『어문학』 제153집, 2021
서현주, 「일제하 예기.창기.작부 소개업의 실태와 일본군 ‘위안부’ 동원-「조선직업소개령」과 소개업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2021.11.
서형실, 「식민지시대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선재원, 「식민지 공업화와 유업률 감소-1930、1940년 국세조사의 검증과 해방 후와의 비교-」『경제사학』49, 2010
소영현, 「1920~1930년대 ‘하녀’의 ‘노동’과 ‘감정-감정의 위계와 여성 하위주체의 감정규율」『민족문학사연구』 제50, 2012
_____, 「그림자 노동의 (재)발견 자본과 노동의 성적 분할과 계급 위계」, 『아시아여성연구』, 2017
소현숙,「한국 근대 여성사/젠더사 연구 동향과 과제」『역사문제연구』51, 2023,
송혜경,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여성의 위상과 식민지주의 - 조선 간행 일본어 잡지에서의 간사이(韓妻) 등장과 일본어 문학」『일본사상』 제33호, 2017
안연선, 「한국식민지 지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여민주, 「조선후기 서울의 땔감 유통」『서울과 역사』 제106호, 2020.10.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1910년대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64, 2014
_____,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사회와 역사』107, 2015
_____,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년~1936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17
오미일,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성격논쟁; 농업문제를 둘러싼 인정식·박문병의 논쟁을 중심으로」『역사비평』 8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유숙란, 「일제시대 농촌의 빈곤과 농촌 여성의 出稼」,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1호, 2004
윤지현, 「1920~3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위상」『여성과 역사』 10, 2009
윤휘탁, 「만주국 상업사회의 내적 구조와 민족적 특징」『동양사학연구』 106, 동양사학회, 2009.
이규수,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형태-수량적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교육』125, 2013
이명학, 「조선총독부 주거 정책의 민족 계층적 편향과 주거권 운동의 대두」,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8.
이배용, 「일제하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國史館論叢』 제83집, 1999
이상경, 「일제말기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페미니즘연구』 2, 2002.
이송순, 「일제하 1920~1930년대 여성 직업의 지역별 분포와 존재양태」『한국사학보』65, 2016.
이아리, 「日帝下 주변적 노동으로서 '家事使用人'의 등장과 그 존재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_____,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민족문화연구』97, 2022
이정옥,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형대, 「일제강점기 직업소개소의 역할과 변화」,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8
이효재, 「일제하의 한국여성노동문제」『한국근대사론』Ⅲ, 지식산업사, 1977
임송자, 「식민지 시기 땔감으로서 신탄과 연탄 이용의 변화 과정」『사림』 제53호, 2015
전우용, 「일제하 경성 주민의 직업세계 (1910~1930)」『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Ⅲ』,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전경목, 「조선 후기 자매의 원인과 양태」, 『전북사학』 43호, 2013
전형택, 「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호적 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광주 전의이씨 문의공파 종가 소장 고문서의 사례 분석」『조선시대사

학보』15, 2000
_____,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앙역노비의 성격」, 『역사학연구』17, 호남사학회,2001
鄭然泰, 「日帝의 韓國 農地政策(1905~1945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4
정종현, 「국민국가와 화랑도-애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29(4), 2006.12.
鄭鎭星,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의 여성노동의 변모」, 『한국여성학』 제4집, 1988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 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제53호, 2018
정충량 . 이효재, 「일제하 여성근로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논총』22,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73
정해은, 「조선후기 빈곤층 여성의 자매(自賣) 실태」, 『여성과 역사』 20, 2014
조형. 강이수, 「일제하 공업노동과 성별분업의 역사적 형성」『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8-여성』1995
조성윤,「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 증가와 공간 구조의 변화」『사회와 역사』 43호, 1994
지승종, 「朝鮮前期 奴婢身分에 관한 社會史的 硏究 : 私奴婢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한혜인,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사림』 제46호, 수선사학회, 2013
허수열, 「일제하 조선의 산업구조-고용기준 분석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 제36집, 1992
홍순권, 「일제시기 직업소개소의 운영과 노동력 동원 실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홍양희, 「현모양처의 상징, 신사임당-식민지시기 신사임당의 재현과 젠더 정치학」『사학연구』122, 2016.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國家的管理賣春 - 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32, 綠蔭書房, 1994.
荻山正浩,「第一次大戦期における家事使用人 -周辺から捉えた大戦景気の労働市場-」『土地制度史学』 제41권 4호, 政治経済学・経済史学会, 1999
坂井博美,「家庭」のなかの階級-大正期フェミニストの「女中」雇用」,『ジェンダー史学』4, 2008
_____, 「女中雇用と近代家族・女性運動-一九三〇年代日本を対象として」『歴史評論』722, 歴史科學協議會, 2010.6
金戸 幸子,「「境界」から捉える植民地台湾の女性労働とエスニック関係-八重山女性の植民地台湾への移動と「女中」労働との関連から」『歴史評論』722, 歴史科學協議會, 2010.6.
Konoske Odaka, “Redundancy utilized : the economics of female domestic servants in pre-war Japan”, *Japanese Women Working*,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1993

[Abstract]

# Domestic Service Labor Transformation in modern Korea

Lee, Ari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in domestic labor during Korea's modernization period through the window of domestic service labor, focusing on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imperialism. While domestic labor is largely perceived as unpaid work performed by housewives, historically, there were significant periods when domestic service labor stood out as a noticeable element in the history. In many societies such as the UK, France, the US, and Japan, there was a surge in domestic laborers during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ization, with the majority of female wage laborers working as housemaids.

In Korea, it wa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domestic service labor emerged more prominently and garnered societal attention. Numerous women worked as domestic laborers to support themselves during this period, and they were called by various names which indicated their occupation as domestic service laborer such as 'Sikmo', 'Eomeom', and 'Anjamjagi,' Domestic service labor in modern Korea went through certain chronological changes of formation, expansion, and informalization,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the mid-1920s, domestic service labor took its root in Korea. By the mid-1920s,

the employment of Korean domestic laborers by Japanese households became more widespread, driven by the Japanese migrants in colonial Korea who shifted towards establishing permanent family units in the Korean peninsula. Meanwhile, until the early 1920s, there were many Koreans living as resident servants in Korean homes. However, due to the inflation of the housing price, landlords began preferring monthly rent over resident servants and started paying domestic laborers additional wag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taken by Japanese households. As a result, domestic service labor began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livelihoods for lower-class women in urban areas from the mid-1920s onwards.

Second, the period spanning the late 1920s to the 1930s witnessed a continuous expansion of domestic service labor. As rural disintegration accelerated, there was an increasing outflow of rural population to the urban area, providing a steady supply of female labor for domestic service labor. The spreading trend of young unmarried women leaving their homes further explains why domestic service labor remained a viable option for lower-class women. During this time, domestic service labor served as both a socially recognized means of livelihood and a relief measure for lower-class women.

Finally, during the wartime period from the late 1930s until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was the time when domestic service labor was suppressed and informalized through policy measures. The Japanese authorities considered domestic service labor as "unnecessary" for the wartime labor force mobilization. Various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curtail domestic service, such as abolishing the matchmaking system for domestic labor in public employment agency, implementing employment tax in Gyeongseong (Seoul), and putting direct labor mobilization of women labor into practice. However, despite suppressing measures, the demand for

domestic service labor remained solid, and suitable alternatives for women's livelihoods were still scarce. The suppression during the wartime period was only temporary, given the prevailing circumstances of the tim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domestic service labor in Korea demonstrate two points of uniqueness in its historical context.

Firstly, the continuous expansion of domestic service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osed questions about how it could be sustained. This was related to the social reorganization process during Korea's modernization, wherein securing livelihoods for the lower-class population and the social accommodation of their labor.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premodern class system, the economic livelihoods of the lower class had to be support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based on economic principles. However, except for the temporary wartime labor force mobilization during the late colonial period, industrialization in Korea was insufficient to fully absorb the outflowing rural population. This contrasted with the cases of Taiwan, where agricultural income remained stable, and the outflow of rural population was limited, and Japan, which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supply of domestic laborers as the textile industry developed. For women, especially those with limited access to public domains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becoming a domestic laborer was one of the few viable options for securing their livelihoods. Thus, domestic service labor during this period was a reflection of lower-class women's efforts to find means of livelihood amidst insufficient industrializ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which only resulted in the lack of non-agricultural 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personal service industry that deteriorated women's lives.

Secondly, the emergence of discourses such as the "abolishment of domestic service" amid the continuous increase in the supply of

domestic labor raises questions about the discrepancy between reality and discourse in the context of modern Korean society. It was due to the exclusion of female domestic laborer who were the main subjects of the issue in social discussion. Discourses about domestic service labor were primarily led by colonial intellectuals, which resulted in negative views on the employment of Korean domestic workers in Japanese households, fueled by national sentiments and criticism of new women. Consequently, discussions on domestic service labor failed to evolve into a socially grounded public discourse, leading to the dominance of unrealistic arguments like the "abolishment of domestic service." Even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some elite women in discussions simply internalized the values of a rational modern housewife, without leading to an active public discourse. They neither succeeded in demonstrating voices of domestic laborers with growing self-consciousness, nor producing counter discourses against that of dominant male intellectuals. Rather, elite women tried to gain their agency by actively aligning with the logic of state-driven mobilization during the wartime period.

The historical analysis of modern domestic service labor in Korea sheds light on the circumstances faced by lower-class women, who were compelled to endure low wages and harsh working conditions, during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gendered labor structure. Furthermore, it highlights how the lack of social discussions surrounding domestic labor during its formation still affects the present society, when care and reproductive labor are once again becoming serious social agendas.

**keywords : Domestic Labor, Domestic Service Work, Domestic Service Labor, Maid, Housekeeper**

***Student Number*** **: 2013-30857**